

천 개의 기도, 하나의 산 아르메니아를 읽다

목차, 서문, 10장, 에필로그

천 개의 기도, 하나의 산 아르메니아를 읽다

노아의 방주에서 시작된 아르메니아 3000년의 여정

저자 김경진



김경진

Korean PDF edition

천 개의 기도, 하나의 산 아르메니아를 읽다

김경진

김경진이 AI서재에 공개한 온라인 책 『천 개의 기도, 하나의 산 아르메니아를 읽다』입니다. 아르메니아 역사, 문화, 종교, 산과 기도를 주제로 목차, 서문, 10장, 에필로그 구성으로 읽을 수 있습니다.

목차

서문

1장 아르메니아의 땅과 시작

2장 고대 아르메니아 왕국의 흥망

3장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신앙으로 무장한 아르메니아

4장 중세의 영광과 수도원이 지켜낸 문화

5장 강대국 틈바구니의 생존드라마

6장 20세기의 비극과 재탄생

7장 아르메니아의 영혼과 문화적 DNA

8장 세계 속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힘

9장 오늘의 아르메니아와 미래

10장 여행자를 위한 아르메니아 가이드

에필로그

서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배낭 하나를 메고 아르메니아로 향했다. 예레반 공항에 첫발을 내딛는 순간 아르메니아는 특별했다. 입국심사 대기줄에서 마주한 직원의 영민한 일처리에서 나는 이 나라의 본질을 읽을 수 있었다. 작은 나라이지만 결코 작지 않은, 오랜 역사의 무게를 짊어지고도 여전히 따뜻함을 잃지 않은 사람들의 모습이 거기 있었다.

해발 1,000미터가 넘는 고원지대. 아르메니아의 첫인상은 '탁 트임'이었다. 높은 하이랜드 위에 펼쳐진 광활한 평원은 일상에 갇혀 있던 시야를 단숨에 열어젖혔다.

호르 비랍에서 바라본 아라라트산의 장엄함, 타테브 수도원으로 향하는 케이블카에서 내려다본 보로탄 협곡의 깊이, 가르니 신전의 헬레니즘 기둥들이 만들어내는 균형미, 세바나반크에서 맞이한 세반호수의 푸른 고요함까지. 여정 동안 찾아간 호르 비랍, 타테브, 가르니 신전, 세바나반크, 노라방크, 게가르드 등 주요 유적지마다 나는 관광객이 아닌 순례자의 마음이 되어 있었다.

아담과 이브가 머물렀다는 전설이 깃든 평원에 섰을 때, 형언할 수 없는 그 무엇인가를 느꼈다. 종교 문제가 아니었다. 인류 문명의 시원, 신앙의 뿌리, 생존과 희망에 대한 원초적 갈망이 응축된 공간이 주는 울림이었다.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이민족의 침략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과 정체성을 지켜온 굳건한 영혼이 이 땅 곳곳에 스며들어 있었다.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낯선 이름이다. 유럽도 아시아도 아닌, 코카서스의 작은 내륙국. 이 책을 통해 아르메니아가 단순한 여행지가 아니라, 인간 문명에 대한 이해를 깊게 하는 배움의 공간임을 발견했으면 하는 바람이다. 아르메니아의 고대 왕국부터 소비에트 시절, 그리고 독립 이후 현재까지의 역사를 다루면서도, 실제 여행자가 필요로 하는 실용 정보를 함께 담았다. 직접 걸었던 길, 느꼈던 감동을 생생하게 전하려 노력했다.

2025년 11월 김경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장 아르메니아의 땅과 시작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아르메니아 고원, 문명의 십자가로 피어난 고대 왕국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 산맥(Caucasus Mountains) 남쪽에 자리 잡은 작은 나라입니다. 면적은 약 29,743 제곱킬로미터로 우리나라 경상도 정도의 크기입니다. 이 작은 땅이 품고 있는 지리적 특성과 자연환경은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아래 지도에 예레반으로 표시된 곳이 아르메니아의 수도입니다.

아르메니아는 고원지대에 위치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Armenian Highlands)이라고 불리는 지역은 단순히 현재의 아르메니아 공화국만을 가리키는 것이 아닙니다. 역사적으로 이 고원은 현재의 아르메니아를 중심으로 터키 동부, 이란 북서부, 조지아 남부, 아제르바이잔 일부를 포함하는 넓은 지역을 말합니다. 고대부터 고원 지대는 아르메니아 민족의 삶의 터전이었고, 그들의 문화와 정체성이 형성된 공간이었습니다.

고원의 평균 고도는 해발 1,500미터에서 2,000미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설악산 대청봉이 해발 1,708미터인 것을 생각하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의 높은 산 정상 높이에서 일상생활을 하는 셈입니다. 실제로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Yerevan,)도 해발 약 1,000미터 높이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런 높은 고도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하늘에 가까운 나라'라는 별명을 갖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은 지질학적으로 매우 역동적인 지역입니다. 이곳은 아프리카 판과 유라시아 판이 만나는 곳으로, 오랜 세월 동안 지각 변동이 활발하게 일어났습니다. 그 결과 높은 산맥들과 깊은 협곡들이 만들어졌고, 화산 활동도 활발했습니다. 지금도 이 지역에서는 가끔 지진이 발생합니다. 1988년 아르메니아 북부 스피타크(Spitak) 지역을 강타한 큰 지진은 25,000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가는 비극을 남기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화산 활동의 흔적은 아르메니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땅 위에는 검은 화산암들이 널려 있고, 많은 건물들이 이 화산암으로 지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상징인 아라라트산(Mount Ararat)도 사실은 거대한 화산입니다. 비록 지금은 터키 영토에 속해 있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이 산은 여전히 그들의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산입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기후는 전형적인 대륙성 기후입니다. 여름에는 덥고 건조하며, 겨울에는 춥고 눈이 많이 내립니다. 높은 고도 때문에 여름에도 밤이 되면 서늘해지고, 지역에 따라 기후 차이가 큼니다. 예레반이 있는 아라라트 평원(Ararat Plain)은 비교적 온화한 편이지만, 북부 산악 지대는 겨울이 매우 춥고 길어서 6개월 이상 눈에 덮여 있기도 합니다.

고원을 가로지르는 여러 강줄기들이 있습니다. 아라스강(Aras River)은 아르메니아의 젖줄과도 같은 강입니다. 터키 동부에서 발원하여 아르메니아 남쪽 국경을 따라 흐르면서 아제르바이잔과의 경계를 이루고, 카스피해로 흘러갑니다. 역사적으로 아라스강 유역은 비옥한 농경지로 아르메니아 문명의 중심지였습니다.

또 다른 강은 호라즈단강(Hrazdan River)입니다. 이 강은 아르메니아 최대의 호수인 세반호에서 발원하여 예레반을 거쳐 아라스강으로 흘러듭니다. 세반호는 해발 1,900미터 높이에 위치한 거대한 담수호로, 면적이 약 1,240 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이는 우리나라 소양호의 약 18배 크기입니다. 세반호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생명의 근원과도 같은 곳으로, 식수 공급은 물론 관개용수, 발전용수로 사용됩니다.

세반호 주변의 풍경은 장관입니다. 푸른 물결이 넘실대는 호수 너머로 눈 덮인 산봉우리들이 병풍처럼 펼쳐져 있고, 호숫가에는 고대 수도원들이 세월의 무게를 품고 서 있습니다. 세바나반크 수도원(Sevanavank)은 9세기에 지어진 곳으로, 호수를 내려다보는 언덕 위에서 아르메니아의 역사를 지켜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자연은 계절마다 다른 얼굴을 보여줍니다. 봄이 되면 고원 전체가 야생화로 뒤덮입니다. 붉은 양귀비, 노란 민들레, 보라색 아이리스가 초록 융단 위에 수놓은 자수처럼 아름답게 피어납니다. 여름에는 강렬한 햇살 아래 밀과 보리가 황금빛으로 익어가고, 포도밭과 살구나무 과수원에서는 달콤한 과일 향기가 진하게 풍깁니다.

가을이 오면 고원은 붉고 노란 단풍으로 물듭니다. 딜리잔(Dilijan,) 국립공원의 숲속 풍경은 동화 속 세상 같습니다. 울창한 참나무와 너도밤나무 사이로 시냇물이 졸졸 흐르고, 야생 사슴들이 조용히 풀을 뜯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딜리잔은 '아르메니아의 스위스'라고 불릴 만큼 아름다운 곳입니다.

겨울이 되면 고원은 흰 눈으로 뒤덮입니다. 추운 겨울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일상입니다. 그들은 눈 덮인 산에서 스키를 타고, 따뜻한 집 안에서 가족들과 둘러앉아 이야기꽃을 피웁니다. 겨울 저녁이면 벽난로에 불을 지피고, 전통 음식인 하리사(Harisa,)를 끓여 먹습니다. 하리사는 밀과 고기를 오랫동안 푹 끓인 죽 같은 음식으로, 추운 겨울을 이겨내는 데 꼭 필요한 음식입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동식물상도 다양합니다. 이 지역은 유럽과 아시아, 그리고 중동의 교차점에 위치하기 때문에 세 지역의 생물종이 모두 발견됩니다. 산양, 야생 멧돼지, 늑대, 곰, 스라소니 같은 포유류가 살고 있고, 독수리, 매, 황새 같은 맹금류도 많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상징 동물인 무플론(Mouflon,)은 야생 양의 일종으로, 거대한 뿔을 가진 아름다운 동물입니다.

식물은 약 3,500종 이상이 서식하는데, 그중 약 10%가 아르메니아 고원에서만 발견되는 고유종입니다. 아르메니아의 국화인 마사오(Masao)라고 불리는 노란 수선화도 이곳의 특산 식물입니다. 또한 이 지역은 야생 밀의 원산지 중 하나로, 인류가 농경을 시작한 최초의 지역 중 하나이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에는 풍부한 광물 자원도 매장되어 있습니다. 구리, 몰리브덴, 금, 은 등이 발견되며, 구리는 고대부터 채굴되어 아르메니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을 차지했습니다. 아르메니아라는 이름 자체가 구리를 의미하는 라틴어 'aeramen'에서 유래했다는 설도 있습니다. 아름다운 화산암인 튜프(Tuff)는 아르메니아 건축의 주요 재료로, 분홍빛이 도는 이 돌로 지어진 건물들은 아르메니아의 독특한 건축미를 만들어냅니다.

지정학적으로도 매우 중요한 위치에 있습니다. 유럽과 아시아를 잇는 고대 무역로인 실크로드가 이곳을 지나갔고, 남쪽의 페르시아, 서쪽의 로마, 동쪽의 중앙아시아, 북쪽의 러시아를 연결하는 교차로 역할을 했습니다. 이런 지리적 위치 때문에 아르메니아는 다양한 문화의 영향을 받았지만, 동시에 끊임없는 침략과 전쟁에 시달려야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지리적 특성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성격과 문화에도 깊은 영향을 미쳤습니다. 험준한 산악 지형은 그들을 강인하게 만들었고, 외부의 침략에 맞서 싸우는 불굴의 정신을 키웠습니다. 동시에 높은 산과 깊은 계곡으로 나뉜 지형은 각 지역마다 독특한 방언과 문화를 발전시켰습니다. 어려운 자연환경 속에서도 서로 돕고 살아가는 공동체 의식이 강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는 국토의 90% 이상이 해발 1,000미터 이상의 고지대입니다. 평야 지역은 매우 제한적이어서 농업에 어려움이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런 어려운 환경을 극복하고 계단식 농경지를 만들어 포도, 살구, 복숭아 같은 과일을 재배해 왔습니다. 아르메니아 코냑(Cognac)은 세계적으로 유명한데, 아라랏 평원의 포도밭에서 재배한 포도로 만듭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자연은 아르메니아 민족의 정체성과 역사, 문화가 깃든 공간입니다. 험준한 산맥과 깊은 계곡, 푸른 호수와 맑은 강물, 그리고 그 속에서 피어나는 야생화 하나하나가 모두 아르메니아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을 지켜온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이 고원은 단순한 거주지가 아니라, 그들의 영혼이 깃든 성스러운 터전입니다.

2. 아라라트산 신화가 새긴 민족의 성산

아라라트산은 아르메니아의 영혼이 담긴 산입니다. 높이 5,137미터의 대 아라라트(Greater Ararat)와 3,896미터의 소 아라라트(Lesser Ararat)로 이루어진 이 거대한 화산은 예레반 어디에서나 보입니다. 아침 햇살을 받아 붉게 물드는 아라라트산의 모습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하루의 시작을 알리는 신성한 신호입니다.

가슴 아픈 역사가 있습니다. 아라라트산은 현재 터키 영토에 속해 있습니다. 1921년 소련연방이 모스크바 조약과 카르스 조약으로 이 산의 영유권을 터키에 넘긴 이후,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의 영혼의 산을 바라만 볼 뿐 자유롭게 갈 수 없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리는 아라라트산을 볼 수 있지만 만질 수 없다"는 슬픈 말을 합니다.

산은 아르메니아 민족의 상징이자, 그들의 정체성 그 자체입니다. 아르메니아의 National Emblem에는 아라라트산이 중앙에 그려져 있고, 노아의 방주가 그 위에 놓여 있습니다. 아라라트산이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얼마나 중요한지를 잘 보여줍니다.

아라라트산의 역사는 성경 시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구약성경 창세기에는 노아의 방주가 대홍수 이후 "아라랏 산에" 머물렀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아라랏'이 바로 아라라트산을 가리킨다고 전통적으로 믿어져 왔습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아라랏'은 산 이름이 아니라 우라르투 왕국이 있던 지역 전체를 가리키는 말이었지만, 사람들은 이 거대한 산을 노아의 방주가 머문 곳으로 여기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승에 따르면, 노아의 방주는 홍수가 끝난 후 아라라트산 정상에 안착했고, 노아의 후손들이 이곳에서 내려와 문명을 일으켰다고 합니다. 노아의 증손자인 하이크(Hayk,)가 아르메니아 민족의 시조가 되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하이크는 거인이자 용맹한 전사로, 바빌론의 폭군 벨(Bel)에 맞서 싸워 이기고 아르메니아 땅에 정착했다고 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스스로를 '하이크의 자손들'이라는 뜻의 '하예르(Hayer)'라고 부릅니다.

신화 때문에 아라라트산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산이 아니라 성스러운 산, 생명이 다시 시작된 곳으로 여겨집니다. 중세 아르메니아 역사가들의 기록에는 아라라트산을 오르려는 시도들이 나

웁니다. 전설에 따르면, 신이 인간이 방주의 잔해에 도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산을 오르는 사람들은 이상한 힘에 의해 다시 아래로 떨어지거나, 길을 잃고 헤매게 되었다는 이야기가 전해집니다.

근대에 들어서면서 아라라트산 등정한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1829년 독일인 프리드리히 파로트(Friedrich Parrot) 박사가 최초로 등정에 성공했고, 이후 많은 탐험가들이 이 산을 올랐습니다. 그들은 방주의 잔해를 찾으려 했지만, 과학적으로 인정할 만한 증거는 발견하지 못했습니다. 오늘날까지도 방주의 잔해를 찾으려는 탐험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라라트산은 지질학적으로도 흥미로운 산입니다. 360만 년 전부터 250만 년 전 사이에 형성된 성층 화산(Stratovolcano)입니다. 여러 차례 화산 폭발로 용암과 화산재가 쌓이면서 현재의 거대한 모습이 만들어졌습니다. 마지막 분화는 1840년에 일어났는데, 이때 큰 지진과 함께 산사태가 발생하여 산 아래의 아후리(Ahuri) 마을과 수도원이 파괴되었습니다.

대 아라라트산 정상은 일 년 내내 만년설로 덮여 있습니다. 정상 부근의 기온은 여름에도 영하권이며, 겨울에는 영하 30도 이하로 떨어집니다. 강한 바람과 낮은 산소 농도 때문에 등반이 매우 어렵습니다. 날씨가 좋은 날 정상에서 바라보는 풍경은 장관입니다. 동쪽으로는 세반호가, 서쪽으로는 터키의 광활한 평원이, 남쪽으로는 이란의 산맥이 보입니다.

아라라트산은 아르메니아 문학과 예술에서도 중요한 소재입니다. 수많은 시인들이 이 산을 노래했고, 화가들이 그렸으며, 작곡가들이 곡을 만들었습니다. 19세기 아르메니아 낭만주의 시인 호반네스 투마니안(Hovhannes Tumanyan)의 시에는 아라라트산이 등장합니다.

(아라랏 산과 노아의 방주 전설)

그는 "아라라트산은 우리의 어머니이자 아버지이며, 우리의 과거와 미래"라고 노래했습니다.

20세기 들어 아르메니아가 소련의 일부가 되고, 아라라트산이 터키 영토로 확정되면서, 이 산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상실과 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1915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 대학살(Armenian Genocide)로 150만 명이 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수십만 명이 고향을 떠나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디아스포라(Diaspora)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라라트산은 언젠가 돌아가야 할 고향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유명한 작곡가 아람 하차투리안(Aram Khachaturian)의 음악에도 아라라트산의 이미지가 담겨 있습니다. 그의 발레 음악 '가야네(Gayane)'에 나오는 '칼의 춤(Sabre Dance)'은 아르메니아의 정열과 함께 아라라트산을 향한 그리움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에서 아라라트산은 여전히 가장 중요한 국가 상징입니다. 아르메니아의 국영 항공사 이름이 아르메니아 에어웨이즈(Armenia Airways)에서 '아르메니아(Armenia)'로, 그리고 최근에는 다시 민영화되어 이름이 바뀌었지만, 여전히 많은 기업과 제품이 아라라트(Ararat)라는 이름을 사용합니다. 세계적으로 유명한 아르메니아 코냑 브랜드가 '아라라트(Ararat)'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감정은 복잡합니다. 매일 이 산을 바라보며 살아가지만, 자유롭게 오를 수 없습니다. 1990년 아르메니아가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에도 터키와의 국경은 닫혀 있고, 두 나라 사이에는 여전히 긴장 관계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에 대한 터키의 인정 문제가 해결되

지 않은 상태입니다.

수도 예레반의 거리 어디에서나 아라라트산이 보입니다. 카페에 앉아 커피를 마시면서, 발코니에서 저녁 노을을 바라보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연스럽게 아라라트산을 바라봅니다. 일몰 때 붉게 물드는 아라라트산의 모습은 마치 불타는 듯하여, 사람들은 그 순간을 사진에 담으려 합니다.

아라라트산은 아르메니아 정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의 중요한 영적 상징이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301년 세계에서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받아들인 나라입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고, 그들의 땅이 홍수 이후 새 생명이 시작된 축복받은 땅이라고 믿습니다. 아라라트산은 이런 신앙과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많은 교회와 수도원에서 아라라트산이 보입니다. 호르 비랍 수도원(Khor Virap,)은 아라라트산과 가장 가까운 곳에 위치한 수도원으로, 아르메니아에 기독교를 전파한 성 그레고리오(Saint Gregory the Illuminator,)가 13년간 갇혀 있던 지하 감옥이 있는 곳입니다. 이곳에서 바라보는 아라라트산의 모습은 정말 장엄합니다. 수도원의 돌담 너머로 거대한 산이 하늘을 찌를 듯 솟아 있고, 그 모습은 마치 하늘과 땅을 잇는 다리 같습니다.

(예레반 시내 어디서나 보이는 아라랏 산)

현대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언젠가 아라라트산을 다시 자유롭게 오를 수 있기를 꿈꿉니다. 그것이 정치적으로 실현되지 않더라도, 아라라트산은 영원히 그들의 마음속에 있을 것입니다. 이 산은 아르메니아의 과거이자 현재이며, 미래입니다. 수천 년 동안 이 땅의 역사를 지켜본 아라라트산은 앞으로도 계속 아르메니아 민족의 영혼의 등대가 될 것입니다.

3. 우라르투 왕국과 고대 문명의 뿌리

우라르투 왕국(Kingdom of Urartu, Urartian Kingdom)은 기원전 9세기부터 6세기까지 아르메니아 고원에 존재했던 강력한 고대 국가였습니다. 이 왕국은 아르메니아 문명의 직접적인 전신으로 여겨지며, 아르메니아 역사의 뿌리를 이루는 중요한 문명입니다.

우라르투라는 이름은 아시리아 문헌에서 처음 나타납니다. 아시리아인들은 아르메니아 고원에 살던 강력한 부족들을 '우라르투'라고 불렀습니다. 우라르투 사람들은 스스로를 '비아이니(Biainili)의 땅' 또는 '반(Van)의 나라'라고 불렀습니다. 이들의 언어는 후르리안(Hurrian) 언어와 관련이 있었으며, 현대 아르메니아어와는 직접적인 언어적 연속성은 없지만, 문화적 연속성은 분명히 존재합니다.

우라르투 왕국의 중심지는 반호(Lake Van,) 주변이었습니다. 반호는 아르메니아 고원에서 가장 큰 호수로, 현재는 터키 동부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 호수는 면적이 약 3,755 제곱킬로미터로 세반호보다 세 배나 크며, 염호(鹽湖)입니다. 우라르투의 수도 투슈파(Tushpa)는 바로 이 반호 동쪽 해안에 건설되었습니다.

우라르투 왕국의 역사는 크게 세 시기로 나눌 수 있습니다. 초기 우라르투(기원전 9세기)는 여러 부족 연합체로 시작했습니다. 아라메(Arame) 왕과 사르두리 1세(Sarduri I) 같은 초기 왕들은 아시리아의 압박에 맞서면서 부족들을 통합하기 시작했습니다. 사르두리 1세는 투슈파를 수도로 정하고,

반 바위(Van Rock)에 거대한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반 바위 요새는 우라르투 문명의 대표적인 유적입니다. 거대한 바위산을 깎아 만든 이 요새는 높이가 약 100미터에 달하며, 바위 곳곳에는 설형문자(Cuneiform)로 새겨진 비문들이 있습니다. 이 비문들은 우라르투 왕들의 업적을 기록한 것으로, 우라르투 역사를 연구하는 중요한 자료입니다. 사르두리 1세의 비문은 "사르두리, 위대한 왕, 강력한 왕, 우주의 왕, 비아이니 땅의 왕"이라는 웅장한 문구로 시작합니다.

우라르투 왕국의 전성기는 기원전 8세기 중반부터 후반까지였습니다. 이 시기의 대표적인 왕들은 메누아(Menua), 아르기슈티 1세(Argishti I), 그리고 사르두리 2세(Sarduri II)입니다. 메누아 왕은 영토를 크게 확장했고, 많은 도시와 요새를 건설했습니다. 그는 또한 우라르투의 관개 시스템을 대대적으로 발전시켰습니다. 메누아 운하(Menua Canal)는 80킬로미터가 넘는 길이로, 산에서 물을 끌어와 농경지에 공급했습니다. 이 운하의 일부는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설형문자(Cuneiform) 비문

아르기슈티 1세는 많은 새로운 도시를 건설했습니다. 유명한 것이 에레부니(Erebuni) 요새입니다. 기원전 782년에 건설된 이 요새는 현재 아르메니아의 수도 예레반의 기원이 되었습니다. 예레반이라는 이름도 에레부니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유력합니다. 에레부니 요새 터에서 발견된 설형문자 비문에는 "아르기슈티가 말한다: 나는 이 위대한 요새를 건설했고, 그것을 에레부니라고 이름 지었다"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발견으로 예레반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로 인정받게 되었습니다.

사르두리 2세 시기에 우라르투는 최대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북으로는 조지아 지역까지, 남으로는 시리아 북부까지, 동으로는 현재 이란 북서부까지, 서쪽으로는 유프라테스강까지 영토가 확장되었습니다. 우라르투는 이 시기에 아시리아와 대등한 강국이 되었으며, 때로는 아시리아를 능가하는 힘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우라르투의 경제는 농업과 목축, 그리고 금속 공예를 기반으로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의 비옥한 토양과 관개 시스템 덕분에 밀, 보리, 과일 재배가 활발했습니다. 포도 재배와 와인 생산이 발달했는데, 우라르투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목축업도 중요했으며, 양, 소, 말을 길렀습니다.

유명했던 것은 금속 공예였습니다. 우라르투 장인들은 청동, 금, 은으로 만든 정교한 공예품을 제작했습니다. 청동 갑옷, 투구, 방패는 당대 최고의 품질을 자랑했으며, 금과 은으로 만든 장신구와 그릇들은 예술 작품 수준이었습니다. 이런 공예품들은 주변 국가들과의 무역에서 중요한 교역품이었습니다.

우라르투의 건축 기술은 매우 뛰어났습니다. 그들은 거대한 돌을 정교하게 깎아 쌓아 올리는 기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사이클로페안 석조(Cyclopean Masonry)라고 불리는 이 건축 방식은 모르타르 없이도 돌들이 완벽하게 맞물려 수천 년이 지난 지금까지도 견고하게 남아 있습니다. 이 기술은 후대 아르메니아 건축에도 계승되었습니다.

우라르투의 종교는 다신교였습니다. 최고신은 할디(Haldi)로, 전쟁과 하늘의 신이었습니다. 그 외에 태양신 쉬바니(Shivini), 폭풍우의 신 테이슈바(Teishaba) 등이 숭배되었습니다. 우라르투 사람들은 이 신들을 위해 거대한 신전들을 건설했습니다. 무사시르(Musasir) 신전은 우라르투의 가장 중요한 종교 중심지였는데, 아시리아 왕 사르곤 2세(Sargon II)가 이 신전을 약탈한 장면이 아시리아 부조에 자세히 묘사되어 있습니다.

사이클로페안 석조(Cyclopean Masonry)

우라르투의 쇠퇴는 기원전 7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는데, 먼저 북쪽에서 스키타이(Scythian)와 킴메르(Cimmerian) 같은 유목 민족들의 침입이 있었습니다. 이들의 기마 전술은 우라르투의 전통적인 전투 방식으로는 막기 어려웠습니다. 또한 기원전 612년 아시리아 제국이 멸망하면서 지역의 세력 균형이 무너졌습니다.

결정적인 타격은 메디아(Media) 제국의 침공이었습니다. 기원전 590년경 메디아는 우라르투 왕국을 완전히 정복했습니다. 투슈파를 비롯한 주요 도시들이 파괴되었고, 우라르투는 역사에서 사라졌습니다. 우라르투의 문화와 전통은 완전히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 지역에 살던 사람들은 계속 남아서 새로운 정복자들과 섞이면서 새로운 문화를 만들어갔습니다.

많은 역사학자들은 우라르투 왕국이 멸망한 후 이 지역에 아르메니아 민족이 형성되었다고 봅니다. 고대 그리스 역사가 헤로도토스(Herodotus)는 아르메니아인들이 프리기아(Phrygia)에서 이주해 온 사람들이라고 기록했습니다. 이들이 우라르투의 옛 땅에 정착하면서 우라르투의 문화를 흡수하고, 새로운 인도유럽어족 언어를 가져왔다는 것입니다.

우라르투 시대에도 인도유럽어족 사람들이 이 지역에 살고 있었고, 우라르투 멸망 후 이들이 주도권을 잡으면서 아르메니아 민족이 형성되었다는 견해도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우라르투 문명이 아르메니아 문명의 중요한 토대가 되었다는 점입니다.

우라르투 유산은 오늘날 아르메니아 곳곳에서 발견됩니다. 예레반의 에레부니 박물관에는 우라르투 시대의 유물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정교하게 새겨진 청동 벨트, 아름다운 금 귀걸이, 설형문자가 새겨진 점토판들이 3,000년 전 우라르투의 찬란한 문명을 증언합니다. 거대한 청동 가마솥들은 우라르투 금속 공예의 뛰어난 기술을 보여줍니다.

에레부니 요새 유적도 여전히 예레반 남동쪽 언덕에 남아 있습니다. 비록 많은 부분이 파괴되었지만, 복원된 성벽과 신전 터에서 우라르투의 웅장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요새에서 발견된 벽화들은 우라르투의 예술 수준을 보여줍니다. 기하학적 무늬와 동물 그림, 신들의 모습이 선명한 색채로 그려져 있습니다.

우라르투의 또 다른 유적은 아르메니아 북부의 가르니(Garni) 요새입니다. 비록 현재 남아 있는 건물들은 후대에 지어진 것들이지만, 요새의 기초는 우라르투 시대부터 사용되었습니다. 가르니에는 1세기에 지어진 헬레니즘 양식의 신전이 있는데, 이것이 지어진 자리도 원래 우라르투의 신전이 있던 곳이었습니다.

우라르투의 유산은 물리적인 유적만이 아닙니다. 우라르투의 관개 기술, 농업 방식, 금속 공예 전통은 아르메니아 문화에 깊이 뿌리내렸습니다. 우라르투 시대부터 시작된 와인 제조 전통은 오늘날 아르메니아 와인 산업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2011년 아르메니아 남부 아레니(Areni) 동굴에서 발견된

6,100년 전의 와이너리 유적은 이 지역이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임을 증명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우라르투를 자신들 역사의 중요한 부분으로 여깁니다. 언어는 다르지만, 우라르투는 아르메니아 고원에 최초로 세워진 강력한 국가였고, 이 땅의 문명을 한 단계 끌어올렸습니다. 우라르투가 없었다면 아르메니아 문명도 지금과는 다른 모습이었을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우라르투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 고고학자들은 계속해서 새로운 유적을 발굴하고 있으며, 언어학자들은 우라르투 문자를 해독하고 있습니다. 이런 연구들을 통해 우라르투 문명에 대한 우리의 이해는 점점 깊어지고 있습니다. 우라르투는 단순히 사라진 고대 왕국이 아니라, 오늘날 아르메니아로 이어지는 살아있는 역사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2장 고대 아르메니아 왕국의 흥망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티그란 대왕, 대 아르메니아 제국의 황금시대

티그란 2세(Tigran II,)는 아르메니아 역사상 가장 위대한 왕으로 평가받습니다. '대왕(the Great)'이라는 칭호가 붙은 몇 안 되는 군주 중 한 명인 그는 기원전 95년부터 55년까지 약 40년간 아르메니아를 다스렸습니다. 그의 통치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는 역사상 최대 영토를 확보했고, 동방의 강력한 제국으로 우뚝 섰습니다.

티그란이 왕위에 오르기 전 아르메니아는 어려운 시기를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버지 아르타바스데스 1세(Artavasdes I) 시대에 아르메니아는 동쪽의 파르티아(Parthia,) 제국에 종속되어 있었습니다. 젊은 시절 티그란은 파르티아에 볼모로 잡혀 있었습니다. 굴욕적인 경험은 강한 동기를 주었고, 훗날 위대한 정복자가 되는 밑거름이 되었습니다.

기원전 95년, 티그란은 파르티아 왕 미트리다테스 2세(Mithridates II)와 협상을 통해 자유를 얻었습니다. 대가는 컸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의 70개 계곡을 파르티아에 넘겨야 했습니다. 티그란은 이것을 굴욕이 아니라 기회로 봤습니다. 자유를 얻은 그는 아르메니아로 돌아와 왕위에 올랐고, 잃어버린 땅을 되찾기 위한 원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습니다.

티그란의 목표는 아르메니아를 통일하고 강화하는 것이었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는 대아르메니아(Greater Armenia,)와 소아르메니아(Lesser Armenia,)로 나뉘어 있었고, 여러 지방 귀족들이 반독립적으로 세력을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티그란은 강력한 중앙집권 체제를 구축했고, 귀족들의 사병을 해체하여 왕실 직속의 강력한 군대를 만들었습니다.

군대는 최강이었습니다. 중무장한 기병대인 카타프락토이(Cataphracts,)가 핵심 전력이었습니다. 전신을 철갑으로 무장한 기사와 말이 일체가 되어 돌격하는 모습은 적들에게 공포 그 자체였습니다. 티그란은 궁수 부대와 보병 부대를 효과적으로 조합하여 다양한 전술을 구사할 수 있었습니다.

군사력을 갖춘 티그란은 본격적인 영토 확장에 나섰습니다. 첫 번째 정복지는 동쪽과 북쪽의 여러 소왕국들이었습니다. 현재 조지아와 아제르바이잔 지역의 많은 나라들이 그의 지배 아래 들어왔습니다. 카스피해 연안까지 진출한 티그란의 군대는 그곳의 부유한 도시들을 정복했습니다.

티그란의 성공은 남쪽에서 이루어졌습니다. 기원전 83년, 그는 약해진 셀레우코스(Seleucid) 제국을 공격했습니다. 셀레우코스 제국은 알렉산더 대왕의 후계자 중 한 명이 세운 나라로, 한때 중동 전역을 지배했던 강대국이었습니다. 이때는 내분과 외침으로 쇠약해진 상태였습니다.

티그란의 군대는 파죽지세로 남진했습니다. 시리아의 수도 안티오크(Antioch,)가 함락되었고, 레바논과 팔레스타인 일부까지 그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지중해 연안까지 진출한 아르메니아는 이제 내륙 국가가 아니라 해양 강국이 되었습니다. 페니키아(Phoenicia)의 항구 도시들도 티그

란에게 조공을 바쳤습니다.

이 시기 티그란의 제국은 현재의 아르메니아, 조지아, 아제르바이잔, 터키 동부, 이란 북서부,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북부, 이스라엘 일부를 포함하는 거대한 영토를 자랑했습니다. 동서로 약 1,500킬로미터, 남북으로 약 1,000킬로미터에 달하는 이 제국은 당시 중동에서 가장 강력한 국가 중 하나였습니다.

티그란은 정복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는 뛰어난 행정가이기도 했습니다. 정복한 땅을 효율적으로 통치하기 위해 그는 새로운 수도를 건설하기로 했습니다. 그렇게 탄생한 도시가 티그라나케르타(Tigranocerta,)입니다. 이 도시는 현재 터키 동남부 지역에 위치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티그라나케르타는 고대 세계의 경이로운 도시였습니다. 티그란은 정복한 여러 도시에서 최고의 장인들과 학자들, 예술가들을 이곳으로 이주시켰습니다. 그리스 극장, 도서관, 체육관을 갖춘 이 도시는 헬레니즘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티그란은 그리스 문화를 존중했고, 많은 그리스 철학자들과 시인들을 궁정으로 초청했습니다.

도시의 중심에는 왕궁이 우뚝 섰고, 그 주변으로 귀족들의 저택들이 늘어서 있었습니다. 넓은 광장과 정원, 분수가 있었고, 거리마다 상점들이 즐비했습니다. 동쪽에서 온 비단과 향신료, 서쪽에서 온 와인과 올리브 기름, 남쪽에서 온 향수와 보석들이 거래되었습니다. 티그라나케르타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티그란은 또한 문화와 예술의 후원자였습니다. 그의 궁정에는 역사가들, 시인들, 철학자들이 모여 있었습니다. 그중에는 유명한 그리스 극작가 암피크라테스(Amphicrates)도 있었습니다. 티그란을 위해 쓰인 여러 작품들이 당시 그리스 세계에서도 공연되었다고 합니다.

티그란의 성공은 새로운 적을 만들었습니다. 서쪽에서 떠오르는 새로운 초강대국 로마(Rome,)가 그를 주시하기 시작했습니다. 티그란은 폰투스(Pontus) 왕국의 미트리다테스 6세(Mithridates VI,)와 동맹을 맺었습니다. 미트리다테스는 티그란의 장인이기도 했는데, 그의 딸 클레오파트라(Cleopatra)가 티그란의 왕비였습니다.

미트리다테스 6세는 로마의 강력한 적이었습니다. 세 차례에 걸쳐 로마와 전쟁을 벌였는데, 이를 미트리다테스 전쟁(Mithridatic Wars)이라고 합니다. 처음에 티그란은 이 전쟁에 직접 개입하지 않았습니다. 기원전 73년, 로마군에 쫓긴 미트리다테스가 아르메니아로 피신해 오면서 상황이 바뀌었습니다.

로마는 미트리다테스를 인도하라고 요구했지만, 티그란은 거부했습니다. 장인을 보호하는 것은 명예의 문제였고, 로마의 위협에 굴복하는 것은 자신의 권위를 손상시키는 일이었습니다. 이 결정은 티그란과 로마 사이의 전쟁으로 이어졌습니다.

기원전 69년, 로마의 명장 루쿨루스(Lucullus,)가 이끄는 군대가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티그란은 처음에 로마군을 과소평가했습니다. 그는 약 10만 명에 달하는 대군을 이끌고 티그라나케르타 근처에서 로마군을 맞이했습니다. 로마군은 불과 1만 명 정도였습니다.

티그라나케르타 전투(Battle of Tigranocerta)는 티그란에게 충격적인 패배였습니다. 로마군의 뛰어난 전술과 규율 앞에서 아르메니아의 대군은 무너졌습니다. 루쿨루스의 군대는 티그란의 중군을 돌파하고, 혼란에 빠진 아르메니아군을 격파했습니다.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 병사들이 전사했고, 티그란은 간신히 탈출했습니다.

티그라나케르타는 로마군에 함락되었고, 약탈당했습니다. 그곳에 강제로 이주되었던 많은 그리스인들과 다른 민족들이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티그란의 보물 창고도 로마군의 손에 넘어갔습니다. 이 전투는 티그란 제국의 전환점이었습니다.

티그란은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군대를 재편성하고, 더 신중한 전략을 채택했습니다. 이듬해인 기원전 68년, 아르타크사타(Artaxata,) 근처에서 다시 로마군과 맞붙었습니다. 이번에는 지형을 이용한 방어전을 펼쳤고, 로마군에게 상당한 피해를 입혔습니다. 비록 결정적인 승리는 아니었지만, 로마군의 진격을 늦추는 데는 성공했습니다.

더 중요한 것은 로마 내부의 사정이었습니다. 루쿨루스는 오랜 원정으로 지친 병사들의 반란에 직면했고, 결국 본국으로 소환되었습니다. 그의 후임으로 온 장군도 큰 성과를 거두지 못했습니다. 전쟁은 소강상태에 접어들었습니다.

기원전 66년, 새로운 로마 사령관이 도착했습니다. 그는 바로 폼페이우스(Pompey,)였습니다. 로마 역사상 가장 뛰어난 장군 중 한 명인 폼페이우스는 신속하고 효율적으로 전쟁을 수행했습니다. 그는 먼저 미트리다테스 6세를 격파한 후, 아르메니아로 진군했습니다.

이번에 티그란은 다른 선택을 했습니다. 장기간의 전쟁으로 국력이 소진된 상태에서 폼페이우스의 대군을 막기는 어려웠습니다. 더구나 그의 아들 티그란 3세가 반란을 일으켜 로마 편에 섰습니다. 내외환에 처한 티그란은 협상을 택했습니다.

기원전 66년, 티그란은 폼페이우스를 만나 항복했습니다. 역사가들의 기록에 따르면, 노년의 티그란은 왕관을 벗어 폼페이우스 앞에 놓았다고 합니다. 폼페이우스는 티그란의 용기와 업적을 인정하여 그를 예우했습니다. 왕관을 다시 씌워주고, 아르메니아의 왕으로 인정했습니다.

대신 티그란은 정복한 모든 영토를 포기해야 했습니다. 시리아, 레바논, 메소포타미아 북부의 모든 땅이 로마에 넘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다시 고원 지대의 왕국으로 축소되었습니다. 또한 6,000 탈렌트(약 155톤)의 은을 배상금으로 지불해야 했고, 로마의 동맹국 지위를 받아들여야 했습니다.

완전한 패배는 아니었습니다. 티그란은 왕위를 유지했고, 아르메니아의 독립도 보장받았습니다. 폼페이우스는 티그란을 '로마의 친구이자 동맹(Friend and Ally of Rome)'으로 인정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가 로마의 속국이 아니라 독립적인 동맹국임을 의미했습니다.

티그란은 기원전 55년까지 10년을 더 통치했습니다. 이 기간 동안 그는 전쟁으로 피폐해진 나라를 재건하는 데 힘썼습니다. 옛날의 영광은 사라졌지만, 아르메니아는 여전히 지역의 중요한 국가로 남아 있습니다. 티그란은 85세의 나이로 평화롭게 세상을 떠났습니다.

티그란 대왕의 유산은 아르메니아 역사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위대한 제국이 될 수 있음을 증명했습니다. 영광이 오래가지는 못했지만, 티그란의 시대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자긍심의 원천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에서는 티그란 대왕을 기리는 동상과 기념물을 쉽게

찾아볼 수 있습니다.

(티그란 왕, 로마 폼페이우스이우스 장군에게 항복하다)

2. 로마와 페르시아, 강대국 사이 줄타기 생존전략

티그란 대왕 이후 아르메니아는 새로운 현실에 직면했습니다. 서쪽에는 강력한 로마 제국이, 동쪽에는 부활한 페르시아의 사산 왕조(Sasanian Empire,)가 자리 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 두 초강대국 사이에 끼인 완충 지대가 되었습니다. 이후 약 600년 동안 아르메니아의 역사는 이 두 제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한 투쟁의 연속이었습니다.

로마와 페르시아는 왜 아르메니아를 그토록 중요하게 여겼을까요?

아르메니아는 전략적 요충지였습니다. 아르메니아 고원을 장악하면 상대방의 심장부를 위협할 수 있었습니다. 로마 입장에서 아르메니아는 동방 변경을 지키는 방패였고, 페르시아 입장에서는 서방 진출의 발판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풍부한 자원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구리, 금, 은 같은 광물 자원이 풍부했고, 농업과 목축업도 발달했습니다. 두 제국 모두 이런 경제적 이득을 원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교역로의 중심이었습니다. 동서 무역을 잇는 교역로가 아르메니아를 지나갔습니다. 이 무역로를 장악하는 것은 막대한 경제적 이익을 의미했습니다.

티그란 대왕의 손자인 아르타바스데스 2세(Artavasdes II,) 시대부터 이런 딜레마가 본격화되었습니다. 기원전 53년, 로마의 크라수스(Crassus)가 이끄는 대군이 파르티아를 침공했습니다. 크라수스는 로마의 삼두정치 중 한 명으로, 폼페이우스, 카이사르와 함께 로마를 지배하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는 동방에서의 군사적 영광을 꿈꿨습니다.

아르타바스데스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했습니다. 로마는 동맹국이었지만, 파르티아와도 좋은 관계를 유지하고 있었습니다. 그는 크라수스에게 아르메니아를 통해 진군하라고 조언했습니다. 험준하지만 안전한 길이었습니다. 크라수스는 이를 무시하고 메소포타미아 평원을 통해 직진했습니다.

카르헤(Carrhae, 현재 터키 하란) 전투에서 크라수스의 군대는 파르티아의 기병대에게 완전히 포위되어 전멸당했습니다. 크라수스 자신도 전사했습니다. 이 패배는 로마 역사상 최악의 참사 중 하나였습니다. 7개 군단, 약 4만 명의 로마 병사가 죽거나 포로가 되었습니다.

이후 아르타바스데스는 파르티아 쪽으로 기울었습니다. 이것이 로마의 분노를 샀습니다. 기원전 34년, 로마의 마르쿠스 안토니우스(Marcus Antonius,)가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이집트의 클레오파트라와의 동맹을 통해 동방 지배를 꿈꾸던 인물입니다.

아르타바스데스는 안토니우스의 속임수로 체포되었습니다. 안토니우스는 평화 회담을 제안했고, 의심 없이 나온 아르타바스데스를 그냥 체포했습니다. 사슬에 묶여 알렉산드리아로 끌려갔고, 안토니우스와 클레오파트라의 승리 행진에서 전시되었습니다. 얼마 후 처형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굴복하지 않았습니다. 아르타바스데스의 아들 아르타크시아스 2세(Artaxias II,)가 파르티아의 도움을 받아 왕위에 올랐습니다. 로마가 세운 괴뢰 왕들을 차례로 축출하고,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1세기부터 3세기까지 아르메니아 왕위는 끊임없이 바뀌었습니다. 친로마 왕이 즉위하면 페르시아가 개입했고, 친페르시아 왕이 즉위하면 로마가 개입했습니다. 때로는 두 제국이 직접 군대를 보내 전쟁을 벌이기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땅은 이들의 전장이 되었습니다.

서기 63년, 로마와 파르티아는 란데이아 조약(Treaty of Rhandeia)을 맺었습니다. 이 조약에 따라 아르메니아는 파르티아의 아르사케스 왕가 출신이 왕위에 오르되, 그 즉위는 로마 황제의 공식 승인을 받아야 한다는 조건이 붙었습니다. 이는 두 강대국이 아르메니아를 둘러싼 오랜 갈등을 타협으로 해결한 것이었습니다.

티리다테스 1세(Tiridates I,)가 이 조약에 따라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는 파르티아 왕가 출신이었지만, 서기 66년 로마로 가서 네로 황제에게서 직접 왕관을 받았습니다. 로마에서 열린 대관식은 최대의 축제였다고 합니다. 네로는 티리다테스를 극진히 대접했고, 막대한 선물을 주었습니다.

이 조약은 아르메니아가 완충국가(buffer state)로서 두 제국 사이에 위치하게 되었음을 의미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형식적으로는 왕국의 지위를 유지했지만, 실제로는 로마와 파르티아 양국의 영향력 아래 놓여 있었습니다. 왕은 파르티아 혈통에서 나왔으나 로마의 승인 없이는 정통성을 인정받을 수 없었던 것입니다. 이러한 이중적 종속 구조는 이후 수세기 동안 아르메니아 왕국의 운명을 규정하는 틀이 되었습니다.

티리다테스는 로마에서 돌아오는 길에 많은 로마 기술자들과 건축가들을 데리고 왔습니다. 그들의 도움으로 아르메니아에는 로마식 건축물들이 세워졌습니다. 가르니(Garni,) 신전이 이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오니아 양식의 기둥들이 늘어선 이 신전은 아르메니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헬레니즘-로마 양식 건축물입니다.

(로마 - 파르티아 란데이아 조약으로 왕위에 오른 티리다테스 1세)

평화는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2세기에 로마와 파르티아 사이에 다시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트라야누스 황제(Trajan,)는 114년 아르메니아를 정복하고, 로마의 속주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독립은 일시적으로 사라졌습니다.

트라야누스가 죽은 후 그의 후계자 하드리아누스(Hadrian)는 동방 정책을 바꿨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직접 통치하는 것보다 우호적인 속국으로 두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다시 독립을 회복했습니다.

3세기 초, 새로운 변수가 등장했습니다. 파르티아가 무너지고 사산 왕조 페르시아가 등장한 것입니다. 사산 왕조는 파르티아보다 훨씬 강력하고 중앙집권적이었습니다. 그들은 고대 아케메네스 제국(Achaemenid Empire)의 영광을 되살리려 했고, 더 공격적인 대외 정책을 펼쳤습니다.

사산 왕조의 창건자 아르다시르 1세(Ardashir I)는 아르메니아를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두려 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왕 코스로 1세(Khosrov I,)를 암살하고, 친페르시아 왕을 세우

려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귀족들은 저항했고, 코스로의 어린 아들 티리다테스를 로마로 피신시켰습니다.

티리다테스가 훗날 티리다테스 3세(Tiridates III,)로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왕 중 한 명이 됩니다. 그는 로마 황제 디오클레티아누스(Diocletian)의 도움을 받아 기원후 287년 아르메니아 왕위를 되찾았습니다. 약 15년 후인 301년, 그는 세계사를 바꾸는 결정을 내립니다.

성 그레고리오 선지자(Saint Gregory the Illuminator,)의 설교를 듣고 감동한 티리다테스 3세는 기독교를 아르메니아의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사건이었습니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이니, 아르메니아가 12년이나 앞선 것입니다.

이 결정은 아르메니아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꿔놓았습니다. 기독교는 단순한 종교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민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페르시아가 조로아스터교를, 로마가 처음에는 다신교를 나중에는 기독교를 믿었지만, 아르메니아는 자신들이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자부심을 가졌습니다.

(405년, 메스로프 마슈토츠가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창제하다)

아르메니아는 또 다른 중요한 발전을 이룩했습니다. 405년, 메스로프 마슈토츠(Mesrop Mashtots,)가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제했습니다. 36개의 문자로 이루어진 아르메니아 알파벳은 아르메니아어의 모든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문자의 창제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황금기를 열었습니다. 성경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되었고, 수많은 종교 문헌들이 만들어졌습니다. 역사서, 철학서, 과학서들도 아르메니아어로 쓰였습니다. 문자를 가진 민족은 자신의 문화와 정체성을 더 확고히 지킬 수 있었습니다.

5세기는 또한 큰 시련의 시기이기도 했습니다. 387년, 로마와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를 분할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대부분(약 4/5)은 페르시아의 영향권에, 나머지(약 1/5)는 로마의 영향권에 들어갔습니다. 통일된 독립 아르메니아 왕국은 사라졌습니다.

페르시아 지배 하의 아르메니아는 더 큰 억압에 직면했습니다. 페르시아의 샤푸르 2세(Shapur II)와 그 후계자들은 아르메니아를 완전히 페르시아화하려 했습니다. 종교적 압박이 심했습니다. 페르시아는 조로아스터교를 강요했고, 기독교를 탄압했습니다.

억압에 맞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일어섰습니다. 451년, 바르단 마미코니안(Vardan Mamikonian) 장군이 이끄는 아르메니아군이 아바라이르(Avarayr,) 평원에서 페르시아 대군과 맞붙었습니다. 이 전투는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가장 중요한 전투 중 하나로 기억됩니다.

열세였던 아르메니아군은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바르단과 그의 병사들은 “죽음은 자각된 것이고, 자각되지 않은 죽음은 죽음이다(,)”라는 구호 아래 전투에 임했습니다.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라면 죽음도 두렵지 않다는 의미였습니다.

전투는 하루 종일 계속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기병대는 페르시아 대군의 중앙을 돌파하려 했고, 치열한 백병전이 벌어졌습니다. 숫자의 열세를 극복할 수는 없었습니다. 해질 무렵, 바르단과 1,000명이 넘는 아르메니아 전사들이 전사했습니다. 페르시아군도 엄청난 피해를 입었지만, 전술적으로는 페르시아의 승리였습니다.

전쟁의 패배는 의외의 결과를 가져 왔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목숨을 건 저항을 목격한 페르시아는 종교 강요를 포기하고 일부 타협 했습니다. 484년, 페르시아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종교의 자유를 허락하는 조약을 맺었습니다. 바르단과 그의 전사들의 희생은 헛되지 않았습니다.

오늘날 바르단 마미코니안은 아르메니아의 영웅으로 추앙받습니다. 예레반에는 그의 동상이 서 있고, 아바라이르 전투를 기리는 기념일이 있습니다. 이 전투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신앙과 자유를 위해 싸우는 정신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바르단 마미코니안 장군등의 목숨건 저항으로 종교의 자유를 유지하다)

6세기와 7세기에도 아르메니아는 계속해서 로마(이제는 비잔틴 제국으로 불림)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시련을 겪었습니다. 두 제국은 수십 차례 아르메니아 땅에서 전쟁을 벌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때로는 어느 한쪽을 돕기도 했고, 때로는 자신들만의 길을 가려 했습니다.

이 긴 시련의 시기 동안 아르메니아가 완전히 사라지지 않은 것은 기적에 가깝습니다. 기독교 신앙, 독자적인 문자와 문화, 그리고 불굴의 정신이 아르메니아를 지켜냈습니다. 두 초강대국 사이에서 살아남는 것은 쉽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는 자신의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3. 실크로드의 길목 교역과 문화가 교차하는 유라시아 허브지역

아르메니아의 지리적 위치는 저주이면서 동시에 축복이었습니다. 강력한 제국 사이에 끼여 전쟁의 피해를 자주 입었지만, 동시에 동서양을 잇는 교역로의 중심이 되어 번영을 누리기도 했습니다. 실크로드(Silk Road,)는 단순히 비단을 운반하는 길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문화, 종교, 기술, 사상이 오가는 문명의 대동맥이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이름은 19세기 독일 지리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erdinand von Richthofen)이 처음 사용했습니다. 실크로드라는 단어가 있건 없건 상관없이 이 교역로는 이미 기원전 2세기부터 존재했습니다. 중국의 한나라가 서역으로 진출하고, 로마 제국이 동방의 사치품을 갈망하면서 이 길은 본격적으로 발전했습니다.

실크로드는 하나의 길이 아니라 여러 갈래의 길들이 복잡하게 얽힌 네트워크였습니다. 중국의 장안(長安, 현재 시안)에서 출발한 상인들은 중앙아시아의 사막과 오아시스 도시들을 거쳐 서쪽으로 향했습니다. 길은 여러 갈래로 나뉘었는데, 그중 하나가 바로 아르메니아를 거쳐가는 길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통과하는 실크로드는 크게 두 길이 있었습니다. 북부 경로는 카스피해 남쪽을 지나 아르메니아 북부를 거쳐 흑해로 향했습니다. 남부 경로는 페르시아를 거쳐 아르메니아 남부와 메소포타미아를 지나 지중해 연안으로 이어졌습니다. 두 길 모두 아르메니아 고원을 지나가거나 그 경계를 따라갔습니다.

왜 상인들은 험준한 아르메니아 고원을 거쳐갔을까요?

첫째, 아르메니아 루트가 중국과 지중해를 잇는 가장 짧은 경로 중 하나였기 때문입니다.

둘째, 상대적으로 안전했습니다. 사막의 도적들이나 유목민의 습격보다는 산악 지대를 통과하는 것이 더 안전했습니다.

셋째, 아르메니아 자체가 중요한 시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물건을 사고팔 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도시들은 이런 교역로를 따라 발달했습니다.

아르타크사타(Artaxata,)는 아라스강 근처에 위치한 중요한 교역 중심지였습니다.

기원전 2세기에 건설된 이 도시는 한때 아르메니아의 수도였으며, "아르메니아의 카르타고"라고 불릴 만큼 번영했습니다. 그리스 역사가 플루타르코스(Plutarch)는 이 도시를 "아름답고 거대한 도시"라고 묘사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도시는 두빈(Dvin,)이었습니다. 5세기부터 13세기까지 아르메니아의 수도이자 주요 상업 중심지였던 이곳에는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페르시아 상인, 아랍 상인, 그리스 상인, 심지어 인도와 중국에서 온 상인들도 있었습니다. 두빈의 시장에서는 온갖 진귀한 물건들이 거래되었습니다.

동쪽에서는 비단(silk)이 왔습니다. 중국산 비단은 당시 가장 값비싼 상품 중 하나였습니다. 로마 귀족들은 이 부드럽고 화려한 천을 얻기 위해 금을 아끼지 않았습니다. 비단뿐만 아니라 도자기, 차, 종이, 화약의 원료 같은 것들도 동쪽에서 왔습니다.

향신료(spices)가 인도와 동남아시아에서 왔습니다. 후추, 계피, 정향, 육두구 같은 향신료들은 음식의 맛을 내고 고기를 보존하는 데 필수적이었습니다. 향신료들은 무게 대비 가치가 매우 높아서 상인들이 선호하는 상품이었습니다.

서쪽에서는 유리 제품, 와인, 올리브 기름, 금속 제품들이 왔습니다. 로마와 비잔틴의 유리 공예품은 동양에서 큰 인기를 끌었습니다. 또한 로마의 금화와 은화는 실크로드를 따라 동쪽으로 흘러갔습니다.

아르메니아 자체도 중요한 교역 상품들을 생산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구리는 고대부터 유명했습니다. 청동기를 만드는 데 필수적인 이 금속은 아르메니아의 주요 수출품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산 말은 품질이 뛰어나기로 유명했습니다. 강인하고 지구력이 좋은 아르메니아 말은 여러 나라의 기병대에서 사용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와인과 코냑도 실크로드를 통해 퍼져나갔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입니다. 고대 그리스와 로마의 문헌에도 아르메니아 와인에 대한 언급이 나옵니다. 아라랏 평원의 포도밭에서 생산된 와인은 달콤하고 향이 좋아 인기가 많았습니다.

가죽 제품과 양탄자도 아르메니아의 특산품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장인들은 섬세한 무늬가 새겨진 가죽 제품을 만들었고, 아름다운 색깔의 양탄자를 짰습니다. 이런 제품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멀리까지 수출되었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해 오간 것은 상품만이 아니었습니다. 문화와 사상, 종교의 교류였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 불교가 중국으로 전파되었고, 이슬람이 중앙아시아로 퍼져나갔습니다. 기독교의 네스토리우스

파도 이 길을 따라 페르시아와 중국까지 도달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이런 문화 교류의 중심에 있었습니다. 그리스-로마 문화, 페르시아 문화, 나중에는 아랍-이슬람 문화가 이곳에서 만났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이런 다양한 문화를 받아들이면서도 자신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건축에서 문화 융합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아르메니아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원뿔형 지붕, 십자가 평면, 정교한 돌 조각은 아르메니아 교회만의 특징입니다. 페르시아의 영향도 보입니다. 일부 장식 무늬와 건축 기법은 페르시아에서 온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문학도 다양한 영향을 받았습니다. 5세기 이후 아르메니아어로 쓰인 수많은 작품들이 나왔습니다. 성경 주석서, 역사서, 철학서, 시집들이 창작되었습니다. 이 중 많은 작품들이 그리스, 시리아, 페르시아 문헌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르메니아만의 독특한 관점을 제시했습니다.

7세기에 아르메니아의 위대한 역사가 모브세스 코레나치(Movses Khorenatsi,)는 《아르메니아 역사(History of Armenia,)

》를 썼습니다. 이 책은 아르메니아의 기원부터 5세기까지의 역사를 다루며, 전설과 역사를 엮어 아르메니아 민족의 정체성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습니다. 이 책은 그리스와 로마의 역사 서술 방식을 따르면서도 아르메니아적 관점을 잃지 않았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기술의 전파도 중요했습니다. 중국의 제지술(papermaking)이 서쪽으로 전해졌고, 8세기경 아르메니아에도 도달했습니다. 이전에는 양피지(parchment)에 글을 썼는데, 종이가 도입되면서 책을 만드는 것이 훨씬 쉬워졌습니다. 이는 지식의 보급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실크로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여러 언어를 구사했고, 다양한 문화를 이해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뿐만 아니라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아랍어, 나중에는 투르크어도 할 줄 아는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많았습니다. 이런 언어 능력과 문화적 이해는 그들을 훌륭한 중개자로 만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 공동체는 실크로드를 따라 여러 도시에 형성되었습니다. 페르시아의 이스파한(Isfahan)에는 큰 아르메니아 거주 지역인 뉴 줄파(New Julfa,)가 있었습니다.

17세기 페르시아의 샤 압바스 1세(Shah Abbas I)가 아르메니아 상인들을 강제로 이주시켜 만든 이 도시는 국제 무역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인도, 중국, 동남아시아에도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진출했습니다. 인도의 캘커타(Kolkata)와 마드라스(Madras, 현재 Chennai)에는 아르메니아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중국의 광저우(廣州)에도 아르메니아 상인들이 있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이들은 장사만 한 것이 아니라, 문화 전파자 역할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정보의 전달자였습니다. 그들은 먼 곳의 소식을 전했고, 새로운 사상과 기술을 소개했습니다. 중세 유럽이 동양에 대해 알게 된 것도 상당 부분 아르메니아 상인들 덕분이었습니다.

실크로드는 또한 예술과 음악의 교류로도 이어졌습니다. 중국의 악기들이 서쪽으로 전해졌고, 페르시아와 아랍의 음악이 동쪽으로 퍼졌습니다. 아르메니아 음악도 이런 교류 속에서 발전했습니다. 아

르메니아 전통 악기인 두둑(duduk,)은 살구나무로 만든 목관 악기로, 애절하고 깊은 소리를 냅니다. 이 악기의 음색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슬픔과 그리움을 표현한다고 합니다.

요리 문화도 실크로드를 통해 교류되었습니다. 동양의 향신료가 서양의 요리에 들어갔고, 서양의 조리법이 동양으로 전해졌습니다. 아르메니아 요리는 이런 교류의 산물입니다. 중동의 영향을 받은 케밥(kebab), 페르시아의 영향을 받은 필라프(pilaf,), 그리스의 영향을 받은 돌마(dolma) 같은 음식들이 아르메니아 식탁에 올랐습니다.

실크로드는 좋은 것만 전파한 것은 아니었습니다. 질병도 함께 이동했습니다. 6세기에 유스티니아누스 역병(Justinian Plague)이 실크로드를 따라 퍼져나갔습니다. 전염병은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그리고 아르메니아에 큰 피해를 입혔습니다. 수백만 명이 목숨을 잃었고, 경제가 큰 타격을 받았습니다.

7세기에 이슬람이 등장하면서 실크로드는 새로운 국면을 맞이했습니다. 아랍 제국의 빠른 확장으로 페르시아가 무너지고, 중동 전역이 이슬람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아랍의 침공을 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기독교 신앙을 지켰고, 아랍 통치 아래서도 상당한 자치권을 유지했습니다.

아랍 통치 시기에도 무역은 계속되었습니다. 오히려 이슬람 세계의 통일로 무역이 더 활발해진 면도 있었습니다. 바그다드, 다마스쿠스, 카이로 같은 대도시들이 새로운 무역 중심지가 되었고,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이런 도시들과 활발히 교역했습니다.

9세기부터 11세기까지는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두 번째 황금기로 불립니다. 바그라투니(Bagratuni,) 왕조와 아르츠크니(Artsruni,) 왕조가 아르메니아의 일부를 다스리며 상대적인 독립을 누렸습니다. 이 시기 아르메니아 문화 예술이 크게 발전했고, 교역도 번영했습니다.

아니(Ani) 시는 이 시기 아르메니아의 수도로, “천 개의 교회가 있는 도시”라고 불릴 만큼 화려했습니다. 실크로드상의 중요한 거점이었던 아니에는 전 세계에서 상인들이 모여들었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는 기록도 있는데, 이는 당시로서는 거대한 도시였습니다.

11세기 말, 새로운 세력이 등장했습니다. 중앙아시아에서 온 셀주크 투르크(Seljuk Turks)가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Manzikert)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에게 대패하면서, 아르메니아는 투르크의 지배 아래 들어갔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고향을 떠나 남쪽의 킬리키아(Cilicia) 지역으로 이주했습니다. 그곳에서 그들은 새로운 아르메니아 왕국,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Armenian Kingdom of Cilicia, 1198-1375)을 세웠습니다. 지중해 연안에 위치한 이 왕국은 십자군 시대에 중요한 역할을 했고, 유럽과 동양 사이의 무역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실크로드의 황금기는 13세기 몽골 제국의 등장과 함께 왔습니다. 몽골은 유라시아 대륙의 대부분을 정복하여 하나의 거대한 제국을 만들었습니다. ‘팍스 몽골리카(Pax Mongolica)’라고 불리는 이 시기에 실크로드는 역사상 가장 안전하고 활발한 시기를 맞이했습니다.

마르코 폴로(Marco Polo)로 대표되는 유럽의 모험가들이 동양으로 여행할 수 있었던 것도 이 시기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도 이 시기에 크게 활약했습니다. 몽골 궁정에 아르메니아 출신 관리들이 있었고, 몽골 칸들의 부인 중에도 아르메니아 출신이 있었습니다.

14세기 후반, 몽골 제국이 분열되고 무너지면서 실크로드도 쇠퇴하기 시작했습니다. 티무르(Tamerlane)의 침공, 흑사병의 창궐, 오스만 제국의 등장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육상 실크로드는 점차 그 중요성을 잃었습니다.

15세기 말, 유럽인들이 해상 루트를 개척하면서 실크로드의 시대는 사실상 막을 내렸습니다. 바스코 다 가마(Vasco da Gama)가 인도로 가는 해로를 발견하고, 콜럼버스가 아메리카 대륙에 도달하면서, 세계 무역의 중심은 육지에서 바다로 옮겨갔습니다.

실크로드의 유산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천 년 동안 이 길을 통해 형성된 문화 교류의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동서양의 다리 역할을 했던 경험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DNA에 새겨져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세계 곳곳에 디아스포라 공동체를 형성하며, 서로 다른 문화를 연결하는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3장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 신앙으로 무장한 아르메니아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성 그레고리오와 티리다테스 3세- 기독교 국교화의 두 주역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301년의 이야기는 단순한 종교적 사건이 아닙니다. 나라의 정체성을 완전히 바꾼 역사적 대전환이었고, 개인의 복수심과 용서, 그리고 신앙의 힘이 만들어낸 드라마였습니다.

이야기는 257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메니아의 왕 코스로브 2세(Khosrov II)는 페르시아 사산 왕조의 샤푸르 1세와 동맹을 맺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정치적 이해관계는 복잡했고, 아르메니아 귀족 가문 출신의 아나크(Anak)라는 인물이 페르시아의 사주를 받아 코스로브 왕을 습격 살해하는 끔찍한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왕실은 거의 전멸했고, 반란을 일으켰던 아나크의 가족들도 왕실의 반격으로 처형당했습니다.

아나크의 어린 아들 하나가 살아남았습니다. 그의 이름은 그레고리우스(, Grigor Lusavorich)였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기독교인 유모의 손에 이끌려 로마 제국령인 카파도키아(Cappadocia) 지역으로 피신했습니다. 그곳에서 기독교 신앙 안에서 자랐고, 영성과 학식을 갖춘 청년으로 성장했습니다.

코스로브 왕의 어린 아들 티리다테스(, Trdat)도 로마로 피신하여 그곳에서 자랐습니다. 원수가문인 두 사람은 서로의 정체를 모른 채, 운명적으로 다시 만나게 됩니다.

280년대 초, 로마의 도움을 받아 티리다테스는 아르메니아의 왕위에 올랐습니다. 그가 바로 티리다테스 3세입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과 정치력을 갖춘 왕이었고, 로마의 디오클레티아누스 황제와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티리다테스의 신하가 되어 궁정에서 일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그의 정체가 밝혀지는 순간이 왔습니다. 티리다테스가 그레고리우스에게 이교 신에게 제사를 드리라고 명령했을 때, 그레고리우스는 자신이 기독교인이라는 것을 밝히며 거부했습니다. 나아가 그의 아버지가 아나크였다는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왕의 아버지를 죽인 암살자의 아들.

티리다테스 왕의 분노는 극에 달했습니다. 그는 그레고리우스를 크호르 비랍(, Khor Virap)이라는 깊은 구덩이에 던졌습니다. '크호르 비랍'은 아르메니아어로 '깊은 구덩이'라는 뜻입니다. 이 구덩이는 아르타샤트(Artashat) 왕궁 지하에 있었으며, 깊이가 약 6미터에 달하는 어둡고 습한 감옥이었습니다. 이곳에서 그레고리우스는 13년 동안 갇혀 지냈습니다.

보통 사람이라면 몇 주도 버티기 어려운 환경이었습니다. 그러나 한 여인이 몰래 구덩이에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고, 그레고리우스는 기도와 명상으로 버텼습니다. 13년의 시간은 그를 더욱 깊은 영성의 세계로 이끌었고, 육체적 고통 속에서도 정신적 평화를 유지하는 성인의 경지에 이르게 했습니다.

한편 티리다테스 왕은 점점 더 잔인하고 폭력적으로 변해갔습니다. 왕은 리프시메(Rhipsime)라는 아름다운 기독교 처녀를 아내로 삼으려 했습니다. 리프시메는 로마에서 박해를 피해 온 수녀였는데, 그녀와 동료 수녀들은 왕의 혼인 요구를 거부했습니다. 분노한 티리다테스는 리프시메와 그녀의 동료 수녀들, 그리고 그들의 스승인 가야네(Gayane)를 잔혹하게 처형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무자비한 행위 이후 티리다테스는 심각한 정신병을 앓게 되었습니다. 일부 기록은 그가 멧돼지처럼 행동하며 들판을 헤매었다고도 전합니다.

왕의 누이 코사로비두흐트(Khosrovidukht)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그레고리우스만이 왕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신하들은 처음에는 믿지 않았습니다. 13년 동안 그 끔찍한 구덩이에 갇혀 있었으니, 당연히 죽었을 것이라고 생각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감금했던 동굴문을 열어보니, 놀랍게도 그레고리우스는 살아 있었습니다. 비록 수척하고 약해졌지만, 그의 눈빛은 여전히 빛나고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궁전으로 끌려 왔습니다. 그는 미쳐 날뛰는 왕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는 왕의 아버지를 죽인 정적의 아들이었지만, 복수심이 아니라 용서와 치유의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기도가 끝나자,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티리다테스는 정신을 되찾았고, 건강을 회복했습니다.

이 사건은 티리다테스 왕의 생각과 인생을 완전히 바꾸어 놓았습니다. 자신을 13년 동안 구덩이에 가두었던 사람이, 어떤 원한도 품지 않고 자신을 위해 기도해주었다는 사실은 그에게 충격이었습니다. 왕은 그레고리우스에게 무릎을 꿇었고, 신앙에 대해 가르쳐달라고 간청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왕에게 기독교의 교리를 가르쳤고, 사랑과 용서, 그리고 구원의 메시지를 전했습니다.

301년, 티리다테스 3세는 공식적으로 기독교로 개종했습니다. 그리고 같은 해, 그는 아르메니아 전역에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는 역사적인 선언을 했습니다. 이것은 세계 역사상 최초로 한 국가가 공식적으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순간이었습니다.

(301년, 티리다테스 3세,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하다)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한 것이 313년 밀라노 칙령(Edict of Milan)이고, 국교로 삼은 것이 380년 테살로니카 칙령(Edict of Thessalonica)이었다는 점을 고려하면, 아르메니아는 로마보다 10년 이상 앞서 이러한 결단을 내린 것입니다.

티리다테스의 개종은 단순히 개인적인 신앙 고백이 아니었습니다. 그것은 국가 정책의 근본적인 전환이었습니다. 왕은 전국의 이교 신전들을 파괴하거나 교회로 개조하도록 명령했습니다. 바가르샤파트(Vagharshapat)에 있던 아나히트(Anahit) 여신의 신전은 완전히 파괴되었고, 그 자리에 기독교 교회가 세워졌습니다.

이것이 바로 후에 에치미아진(, Etchmiadzin) 대성당이 되는 건물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대주교(Catholicos)로 임명되었습니다. 그는 카이사리아(Caesarea)로 가서 정식으로 주교 서품을 받았고, 돌아와서 아르메니아 전역에 교회를 세우고 사제들을 양성하는 일에 헌신했습니다. 그의 열정과 헌신은 대단했습니다. 그는 직접 산과 계곡을 다니며 복음을 전했고, 수많은 사람들에게 세례를 베풀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는 하루에 수천 명에게 세례를 주었다고 합니다.

그레고리우스의 사역 방식은 실용적이고 전략적이었습니다. 이교 신전이 있던 자리에 교회를 세웠고, 이교의 축제일을 기독교 축일로 바꾸었습니다. 이러한 방식은 사람들이 기독교로 쉽게 전환할 수 있도록 도왔습니다. 동시에 그는 기독교 교리를 아르메니아 문화와 조화시키려 노력했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전통과 관습을 존중하면서도, 그것들을 기독교적으로 재해석했습니다.

그레고리우스의 가족들도 아르메니아 교회의 발전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의 두 아들 브르타네스(Vrtanes)와 아리스타케스(Aristakes)는 모두 대주교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은 수세기 동안 아르메니아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처음부터 세습적 성격을 띠게 되었는데, 이것은 동방 기독교의 독특한 전통 중 하나입니다.

그레고리우스는 ‘어둠을 밝히는 성인(Lusavorich, Illuminator)’라는 칭호를 받았습니다.

이 칭호는 단순히 그가 아르메니아에 기독교의 빛을 가져왔다는 의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그가 어둠 속에서 13년을 보낸 후에도 영적인 빛을 잃지 않았고, 오히려 그 빛으로 전체 국가를 비추었다는 더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그의 삶 자체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 복수에서 용서로 나아가는 기독교 메시지의 완벽한 구현이었습니다.

그레고리우스는 328년경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는 말년을 다라레크(Daranarak) 산의 동굴에서 은둔자로 보냈다고 전해집니다. 그의 죽음 이후, 그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가장 중요한 성인이 되었고, 그의 축일인 9월 30일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적 축일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티리다테스 3세도 330년경에 사망했습니다. 재위 기간 동안 아르메니아를 강력한 기독교 국가로 만들었고, 페르시아와 로마 사이에서 독립을 유지하는 데 성공했습니다. 그의 무덤은 아그트사마르(Aghtsamar) 섬에 있다고 전해지지만, 정확한 위치는 알려지지 않았습니다.

성 그레고리오와 티리다테스 3세의 이야기는 단순한 역사적 사실을 넘어서, 아르메니아 사람들의 정체성을 형성하는 근본적인 신화가 되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용서의 힘, 신앙의 승리, 그리고 개인의 헌신이 어떻게 국가 전체를 변화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크호르 비랍의 깊은 구덩이는 오늘날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순례지 중 하나가 되었고, 그곳에서 멀리 보이는 아라라트 산(Ararat)의 눈 덮인 봉우리는 아르메니아 민족의 영원한 희망과 신앙을 상징합니다.

2. 에치미아진 대성당 - 건축과 신앙의 성지

에치미아진(Etchmiadzin) 대성당은 단순히 오래된 건물이 아닙니다. 아르메니아 기독교 신앙의 살아있는 심장이자, 아르메니아 민족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이름 자체가 깊은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에치미아진’은 아르메니아어로 ‘독생자가 내려온 곳’이라는 뜻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환상 중에 이곳에 내려와 성당을 세울 장소를 지시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301년 티리다테스 3세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직후, 성 그레고리오는 새로운 신앙의 중심이 될 성당을 건립할 장소를 찾고 있었습니다. 기도하던 어느 날 밤, 그는 환상을 보았습니다. 하늘이 열리고 황금빛 빛줄기가 땅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내려와 황금 망치를 들고 땅을 세 번 내리쳤습니다. 그리스도는 “이곳에 내 집을 지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깨어난 그레고리우스는 즉시 그 장소로 갔고, 거기서 성당 건립을 시작했습니다.

이 장소는 바가르샤파트(, Vagharshapat)라는 도시에 있었습니다. 바가르샤파트는 2세기에 아르메니아의 왕 바가르쉬(Vagharsh) 1세가 건설한 고대 도시였고, 당시에는 아르메니아의 수도였습니다. 이 도시는 아라라트 평원의 중심부에 위치해 있었고,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여 있어서 천연의 요새를 이루고 있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이곳에서는 아라라트 산이 장엄하게 보였는데, 이것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특별한 의미가 있었습니다. 아라라트 산은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성경의 산이었고,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최초의 에치미아진 성당은 303년에서 304년 사이에 건립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당시 건물은 나무로 만든 바실리카(basilica) 형태였을 것으로 학자들은 추정합니다. 바실리카는 초기 기독교 건축의 전형적인 양식으로, 긴 직사각형 본당과 반원형의 압시스(apse)를 갖춘 구조입니다. 이것은 로마의 공공 건물 양식에서 차용한 것이었습니다.

현재 보는 에치미아진 대성당의 기본 구조는 483년에서 484년 사이에 재건된 것입니다. 당시 대주교였던 바한 1세(Vahan I Mamikonian)가 주도한 이 재건 작업은 아르메니아 건축 역사에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나무 건물을 석조 건물로 바꾸었을 뿐만 아니라, 건축 양식 자체를 완전히 새롭게 창조했기 때문입니다.

새로운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중앙집중형 평면(centralized plan)을 채택했습니다. 이것은 정사각형에 가까운 본당 위에 돔을 얹는 방식입니다. 네 개의 커다란 기둥이 중앙의 돔을 받치고, 그 주위에 네 개의 압시스가 십자가 모양으로 배치되었습니다. 이러한 구조를 '쿠폴라(cupola) 위의 사각형 본당'이라고 부르며, 이것은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의 독특한 특징이 되었습니다.

이 건축 양식은 여러 가지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정사각형은 땅을 상징하고, 원형의 돔은 하늘을 상징합니다. 따라서 이 건물 자체가 땅과 하늘의 만남, 즉 신과 인간의 만남을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십자가 모양의 평면은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상징하며, 네 개의 압시스는 사방으로 퍼져나가는 복음을 의미합니다. 중앙의 돔 아래 공간은 우주의 중심을 나타내며, 그곳이 바로 하느님이 현존하는 거룩한 장소임을 보여줍니다.

건축 기술 면에서도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놀라운 성취였습니다. 당시 아르메니아 건축가들은 지역에서 나는 화산암인 화산암(tuff)을 주요 건축 재료로 사용했습니다. 화산암은 가공하기 쉽고 단열 효과가 뛰어나며, 독특한 분홍빛과 주황빛을 띠고 있어서 아름다운 외관을 만들어냅니다. 석재들은 정교하게 다듬어져서 서로 완벽하게 맞물리도록 조립되었고, 이러한 기술은 수세기가 지나도 건물이 견고하게 유지될 수 있게 했습니다.

돔의 건설은 어려운 도전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건축가들은 펜던티브(pendentive)라는 기술을 사용했습니다. 이것은 정사각형 위에 원형 돔을 얹기 위해 모서리에 삼각형 모양의 구조물을 만드는 기술입니다. 이 기술을 통해 무게를 효과적으로 분산시킬 수 있었고, 동시에 내부 공간에 높이와 개방감을 부여할 수 있었습니다.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건립 이후 여러 차례 개보수와 확장을 거쳤습니다. 618년, 대주교 코민타스 1세(Komitas I)는 대성당에 부속 건물들을 추가했습니다. 7세기에는 외벽이 강화되었고, 내부 장식이 더욱 풍부해졌습니다. 그러나 가장 중요한 변화는 1654년에서 1658년 사이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대주교 필리포스(Philippos)의 지시로 대규모 재건축이 이루어졌고, 이때 현재와 같은 모습의 종탑과 외부 구조가 완성되었습니다.

17세기 재건축에서는 세 층으로 된 종탑이 추가되었습니다. 이 종탑은 전형적인 아르메니아 양식을 따르면서도, 당시 유행하던 바로크적 요소들을 부분적으로 수용했습니다. 종탑의 각 층은 아치형 창문으로 장식되어 있고, 꼭대기에는 원뿔형 첨탑이 얹혀 있습니다. 이 종탑에는 여러 개의 종이 설치되어 있는데, 그 중 가장 큰 종은 수 킬로미터 밖에서도 들을 수 있을 정도로 웅장한 소리를 냅니다.

대성당의 내부는 프레스코화(fresco)와 조각으로 풍부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돔의 내부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판토크라토르(Pantocrator, 전능자) 이미지가 그려져 있습니다. 이것은 비잔틴 전통을 따른 것으로, 그리스도가 한 손으로는 축복을 내리고 다른 손으로는 성경을 들고 있는 모습입니다. 벽면에는 성인들의 초상과 성경의 장면들이 그려져 있으며, 압시스에는 성모 마리아와 아기 예수의 이미지가 있습니다.

제단(altar) 부분은 특별히 신성한 공간으로 여겨집니다. 전통적으로 이곳은 사제들만 들어갈 수 있는 공간이었고, 일반 신자들과는 이코노스타시스(iconostasis)라고 불리는 벽으로 분리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 교회의 이코노스타시스는 동방정교회의 것보다 훨씬 낮고 개방적이어서, 신자들이 제단에서 일어나는 의식을 볼 수 있었습니다.

에치미아진 대성당에는 성스러운 유물(relic)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성창(Holy Lance)'의 파편입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로마 병사가 그의 옆구리를 찌른 창의 일부입니다. 이 성유물은 6세기에 예루살렘에서 가져온 것으로 전해지며, 대성당의 보물관에 특별히 제작된 은제 케이스에 담겨 보관되어 있습니다.

또 다른 성유물은 '노아의 방주 조각'입니다. 아르메니아 전통에 따르면, 이것은 아라라트 산 정상에서 가져온 노아의 방주 파편이라고 합니다. 실제로 이것이 방주의 일부인지는 과학적으로 검증되지 않았지만,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는 자신들이 노아의 후손이라는 믿음을 확인시켜주는 상징적 의미가 있습니다.

대성당의 보물관에는 또한 수많은 고대 사본들, 귀중한 성체 용기들, 대주교들의 지팡이와 왕관, 정교하게 장식된 복음서들이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것으로, 아르메니아 예술과 공예의 최고 수준을 보여줍니다.

에치미아진 대성당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최고 수장인 카톨리코스(Catholicos)의 공식 거처이자, 교회의 행정 중심지입니다. 모든 중요한 교회 회의는 이곳에서 열리고, 새로운 사제들의 서품식도 이곳에서 거행됩니다. 매년 수만 명의 순례자들이 전 세계에서 이곳을 찾아와 기도하고 미사에 참여합니다.

매년 9월 둘째 일요일에는 '에치미아진 축일'이 열립니다. 이날 대성당과 그 주변은 수천 명의 신자들로 가득 차며, 화려한 의식과 음악, 춤이 어우러진 축제가 벌어집니다. 카톨리코스가 직접 집전하는 성찬례는 이 축제의 하이라이트이며, 수백 명의 사제들과 수천 명의 신자들이 함께 성체를 나눕니다.

주변에는 여러 중요한 건물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신학교, 박물관, 도서관, 그리고 카톨리코스의 거처 등이 하나의 복합체를 이루고 있습니다. 이 지역 전체가 2000년에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에치미아진 대성당과 그 주변 유적들은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의 발전을 보여주는 독특한 증거이며, 기독교 건축과 예술의 진화에 큰 영향을 미쳤다"고 평가했습니다.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운명을 함께해왔습니다. 페르시아의 침략, 아랍의 지배, 몽골의 약탈,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 소비에트 시대의 종교 탄압 등 수많은 시련 속에서도 이 대성당은 살아남았습니다. 때로는 손상되고 약탈당했지만, 항상 재건되고 복원되었습니다. 이것은 아르메니아 민족의 불굴의 의지와 신앙의 힘을 상징합니다.

1991년 아르메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했을 때,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다시 한 번 민족적 정체성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새로운 독립 국가의 수립을 축하하는 특별 미사가 이곳에서 거행되었고, 카톨릭코스는 새로운 시대의 시작을 선포했습니다. 오늘날에도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연결하는 영원한 다리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예레반에서 에치미아진 대성당까지는 서쪽으로 약 20킬로미터 떨어져 있으며, 30분에서 1시간 정도면 도착할 수 있습니다. 에치미아진(Etchmiadzin,)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총본산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된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심장부입니다.

(공항을 중심에 두고, 수도 예레반 시내와 반대쪽에 위치한 에치미아진 대성당)

저렴한 방법은 미니버스 마르슈루트카(marshrutka,)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반 중심부의 키리코프 버스 정류장(Kilikia Bus Station,)에서 출발하는데, Republic Square에서 북서쪽으로 도보 15분 거리에 있는 Mashtots Avenue와 Sayat-Nova Avenue 교차로 근처입니다.

202번이나 203번 마르슈루트카를 타면 되며, 버스 앞 유리창에 ""이라고 표시된 것을 확인하면 됩니다. 요금은 300-400드람(dram, , 약 1,000원) 정도로 매우 저렴하며, 탑승 후 운전사나 요금 징수원에게 지불하면 됩니다. 잔돈을 준비해 가는 것이 좋습니다.

첫차는 오전 7시경, 막차는 오후 8시경이며 15-20분 간격으로 운행됩니다. 약 30-40분이 소요되고, 에치미아진 시내 중심부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운전사에게 ""(마이르 타차르, 대성당)라고 말하면 알려줍니다.

하차 후 대성당까지는 도보로 5-10분 거리입니다. 다만 좌석이 없으면 서서 가야 할 수도 있고, 짐이 많으면 불편할 수 있다는 점은 감안해야 합니다. 현지인들과 함께 타는 진정한 로컬 체험을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습니다.

편리한 방법은 택시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Yandex Taxi나 GG Taxi 같은 앱을 다운로드하면 편리합니다. Yandex Taxi가 가장 인기 있고, GG Taxi는 아르메니아 로컬 앱입니다. 편도 요금은 약 2,500-3,500드람(dram, , 약 8,000-11,000원)이며, 왕복 대기 포함 시에는 약 5,000-6,000드람(dram, , 약 16,000-19,000원)입니다. 거리에서 일반 택시를 잡을 수도 있지만, 이 경우 출발 전에 가격을 합의하는게 좋습니다. 요금은 협상을 통해 약 3,000-5,000드람(dram, , 약 10,000-16,000원) 정도이며, 미터기 사용을 요구하거나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야 합니다. 관광객을 대상으로 한 바가지 요금을 주의해야 합니다.

일일 투어에 참여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일반적으로 에치미아진 대성당, 성 흐립시메 교회(St. Hripsime,), 성 가야네 교회(St. Gayane,), 즈바르트노츠 대성당 유적(Zvartnots,)을 포함하며 가이드의 설명을 들을 수 있습니다. 소요시간은 4-5시간 정도이고, 가격은 1인당 25-40달러(약 33,000-53,000원)입니다. 호텔 프런트에서 예약하거나, GetYourGuide, Viator 같은 온라인 플랫폼을 통해, 또는 예레반 시내 여

행사를 통해 예약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 광장 주변에 위한 현장 모집인들에게서 곧바로 해도 무방합니다..

배낭 여행자라면 미니버스(300-400드람, 약 1,000원)를, 시간이 중요하다면 택시(2,500-3,500드람, 약 8,000-11,000원)을, 여러 곳을 효율적으로 함께 방문하고 싶다면 일일 투어(25-40달러, 약 33,000-53,000원)를 선택하는 것이 좋습니다.

입장료 무료이며, 매일 오전 7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되지만 예매 시간에는 관람이 제한될 수 있습니다. 외부에서는 사진 촬영이 자유롭지만, 내부에서는 예매 중에 자제하는 것이 좋습니다.

에치미아진에서 추가로 방문할 만한 곳으로는 성 흐립시메 교회가 있습니다. 도보 10분 거리에 있으며 7세기에 건축된 매우 아름다운 교회입니다. 성 가야네 교회는 도보 15분 거리에 있으며 630년에 건축되었습니다. 대성당 옆에 있는 에치미아진 박물관에서는 성물과 유물을 전시하고 있으며, 입장료는 1,000드람(dram, , 약 3,300원)입니다. 에치미아진과 예레반 사이에 있는 즈바르트노츠 대성당 유적은 7세기 원형 성당 유적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에 등재되어 있습니다.

반나절 오전 코스로 방문한다면, 오전 8시에 예레반을 출발하여 8시 30분에 에치미아진 대성당에 도착합니다. 8시 30분부터 10시까지 대성당을 관람하고, 10시부터 10시 30분까지 성 흐립시메 교회를, 10시 30분부터 11시까지 성 가야네 교회를 방문합니다. 귀환길에 11시부터 11시 30분까지 즈바르트노츠 대성당을 방문하면 정오에 예레반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오후 코스라면 오후 2시에 예레반을 출발하여 2시 30분부터 4시까지 대성당과 박물관을 관람하고, 4시부터 4시 30분까지 주변 교회를, 4시 30분부터 5시까지 즈바르트노츠 대성당을 방문하면 5시 30분에 예레반에 도착합니다.

최적의 방문 시간은 오전 9시부터 11시 사이로, 관광객이 적고 빛이 좋습니다. 일요일 오전에는 미사를 참관할 수 있지만 혼잡합니다. 아침에는 에치미아진과 즈바르트노츠를, 하루 일정으로는 에치미아진과 호르 비랍(Khor Virap,), 아르메니 와이너리를 함께 방문하면 좋습니다.

에치미아진은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심장이자 1,700년 역사의 증인입니다. 301년 기독교 국교화 이후 지금까지 신앙의 중심지로 남아있는 이곳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혼이 깃든 성지입니다. 시간을 충분히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시길 권합니다.

3.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천년을 이어온 독자적 신학 전통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Armenian Apostolic Church)

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교회이자, 독특한 신학적 전통을 가진 동방 기독교의 한 갈래입니다. 교회 이름에 담긴 '사도'라는 단어는 교회의 기원이 예수 그리스도의 직계 제자들까지 거슬러 올라간다는 믿음을 표현합니다.

아르메니아 전통에 따르면, 기독교는 두 명의 사도에 의해 아르메니아에 처음 전파되었습니다.

타대오(Thaddeus) 사도입니다. 그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성경에서는 '유다 타대오' 또는 '레베오라 하는 타대오'로 언급됩니다.

전설에 따르면, 타대오는 40년대 중반에 아르메니아에 왔으며, 당시 아르메니아 왕 산드루크(Sanatruck)의 딸 산두흐트(Sandukht) 공주를 포함한 많은 사람들을 개종시켰습니다. 그러나 왕은

이에 분노하여 타대오와 많은 기독교인들을 처형했다고 합니다. 타대오는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순교자가 되었고, 그의 무덤 위에 세워진 성 타대오 수도원(Saint Thaddeus Monastery)은 오늘날까지 이란 북서부에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사도는 바르톨로메오(Bartholomew)입니다. 그 역시 예수의 열두 제자 중 한 명이었으며, 50년대에 아르메니아를 방문했다고 전해집니다. 바르톨로메오는 주로 아르메니아 남부 지역에서 활동했으며, 많은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도 결국 순교했는데, 전설에 따르면 그는 산 채로 가죽이 벗겨지는 끔찍한 방식으로 처형되었다고 합니다.

이러한 초기 전도 활동에도 불구하고, 기독교가 아르메니아에 널리 퍼지고 공식적인 종교로 자리 잡은 것은 앞서 이야기한 것처럼 301년 성 그레고리오와 티리다테스 3세 때였습니다. 301년 이후,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빠르게 조직화되고 체계화되었습니다.

교회의 초기 조직은 계층적 구조를 따랐습니다.

맨 위에는 카톨리코스(Catholicos)가 있었습니다. 이 칭호는 그리스어 'katholikos'에서 왔으며, '보편적인' 또는 '전체의'라는 뜻입니다. 아르메니아어로는 '카톨리코스'()라고 하며, 이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최고 수장을 의미합니다. 성 그레고리오가 최초의 카톨리코스였고, 이 직책은 처음에는 그의 가문 내에서 세습되었습니다.

카톨리코스 아래에는 주교들(bishops)이 있었습니다. 각 주교는 특정 지역을 담당했으며, 그 지역의 교회들을 감독하고 사제들을 임명했습니다. 주교들 아래에는 사제들(priests)이 있었고, 그들은 각 교회에서 미사를 집전하고 신자들을 돌보았습니다. 가장 아래에는 보조 성직자들인 부제(deacons)들이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신학적 발전에서 가장 중요한 사건은 405년 메스롭 마슈토츠(Mesrop Mashtots)가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제한 것입니다.

교회사에서 혁명적인 순간이었습니다. 그 이전까지 아르메니아에서는 그리스어나 시리아어로 예배를 드렸고, 성경도 외국어로 읽어야 했습니다. 그러나 문자의 창제로 성경과 전례서들이 아르메니아어로 번역될 수 있었고, 이것은 교회가 진정으로 민중의 것이 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메스롭과 그의 제자들은 즉시 성경 번역 작업에 착수했습니다.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원본들을 참조하여 정확하고 아름다운 아르메니아어 번역본을 만들어냈습니다. 이 번역은 너무나 훌륭해서 '아르메니아 성경의 여왕'이라고 불렸습니다. 5세기 아르메니아어 문학은 '황금시대'를 맞이했고, 수많은 신학 저작들과 역사서들이 저술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로, 그리스어 성경을 번역해 필사본을 만들어 배포하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신학은 초기 기독교 공의회들의 결정을 따랐습니다. 교회는 325년 니케아 공의회(Council of Nicaea)와 381년 콘스탄티노플 공의회(Council of Constantinople)의 결정을 받아들였습니다. 이 공의회들은 삼위일체 교리를 확립했고,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을 명확히 했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Council of Chalcedon)에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중요한 갈림길에 섰습니다. 이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본성에 대한 논쟁을 다루었습니다. 공의회는 그리스도가 완전한 신이면서 동시에 완전한 인간이며, 이 두 본성이 하나의 위격 안에서 혼합되지 않고, 변화되지 않고, 분리되지

않고, 구분되지 않게 결합되어 있다고 선언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습니다. 이것은 신학적 이유만은 아니었습니다. 451년은 아르메니아에게 매우 중요한 해였습니다. 그해 5월 26일, 아르메니아는 아바라이르(Avarayr) 전투에서 페르시아 사산 왕조와 싸웠습니다. 이 전투는 페르시아가 아르메니아에 조로아스터교를 강제하려 했던 것에 대한 저항이었습니다. 전투에서 아르메니아는 패배했지만, 이 저항은 페르시아가 종교적 강압을 포기하게 만들었고, 아르메니아 기독교 신앙은 보존되었습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칼케돈 공의회에 참석할 수 없었고, 그 결정을 검토할 여유도 없었습니다. 더욱이 아르메니아 교회는 칼케돈 공의회가 네스토리우스주의(Nestorianism)를 완전히 배격하지 못했다고 생각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대신 키릴로스(Cyril)의 신학을 따랐습니다. 키릴로스는 알렉산드리아의 총대주교였으며,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의 본성(mia physis)'으로 결합되어 있다고 가르쳤습니다. 이것은 '합성론 혹은 통합론 (Miaphysitism)'이라고 불립니다. 이것이 '단일 본성론 (Monophysitism)'과는 다르다는 점입니다. 단일 본성론은 그리스도의 인성이 신성에 흡수되었다고 주장하는 극단적 입장이지만, 단성론은 두 본성이 완전히 보존되면서도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주장합니다.

506년 드빈(Dvin) 공의회에서 아르메니아 교회는 공식적으로 칼케돈 공의회를 거부했습니다. 이로 인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비칼케돈파(Non-Chalcedonian)' 또는 '동방 정교회(Oriental Orthodox Church)'의 일원이 되었습니다.

같은 입장을 취한 교회들로는 콥트 정교회(Coptic Orthodox Church), 에티오피아 정교회(Ethiopian Orthodox Church), 시리아 정교회(Syriac Orthodox Church) 등이 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차이로 인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로마 가톨릭교회 및 동방 정교회(Eastern Orthodox Church, 즉 그리스 정교회, 러시아 정교회 등)와 분리되었습니다.

20세기와 21세기에 들어서면서 신학적 대화가 재개되었고, 많은 학자들은 이 차이가 표현의 문제일 뿐 본질적인 신앙의 차이는 아니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전례(liturgy)는 매우 독특하고 아름답습니다. 주된 전례는 '신성한 전례 (Divine Liturgy)' 또는 '파타라그(Patarag)'라고 불립니다. 이 전례는 대부분 고전 아르메니아어인 '그라바르(, Grabar)'로 진행됩니다. 그라바르는 5세기 문어체 아르메니아어로, 오늘날 일상적으로 사용되는 현대 아르메니아어와는 상당히 다릅니다. 라틴어가 가톨릭 교회의 전례어였던 것처럼, 그라바르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거룩한 언어로 여겨집니다.

전례는 상징적이고 의식적입니다. 사제들은 화려한 제의(祭衣)를 입고, 향을 피우며, 종과 심벌즈를 사용합니다. 성찬례(Eucharist)는 전례의 중심이며, 빵과 포도주가 그리스도의 몸과 피로 변화한다고 믿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누룩을 넣지 않은 빵을 사용하는데, 이것은 가톨릭 교회의 관행과 같지만 동방 정교회(누룩을 넣은 빵 사용)와는 다릅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성례전(sacraments)은 일곱 가지입니다. 세례(Baptism), 견진(Chrismation), 성찬(Eucharist), 고해(Confession), 혼배(Marriage), 서품(Ordination), 그리고 병자

성사(Uncion of the Sick)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성례전과 동일합니다.

세례는 보통 유아기에 행해지며, 물에 완전히 잠기는 침례 방식을 사용합니다. 흥미롭게도 아르메니아 교회에서는 세례와 견진이 같은 날 연속해서 거행됩니다. 견진에서는 성유(聖油)를 이마, 눈, 귀, 코, 입, 손, 가슴, 등에 바르며, 이것은 성령의 은총이 온 몸에 임한다는 것을 상징합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성인 공경을 매우 중시합니다. 가장 존경받는 성인은 당연히 성 그레고리오 조명자이며, 그 외에도 성 리프시메, 성 가야네, 성 메스롭 마슈토츠 등 수많은 아르메니아 성인들이 있습니다. 또한 보편 교회의 성인들, 성모 마리아를 깊이 공경합니다.

교회는 많은 축일과 금식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장 중요한 축일은 부활절(, Zatik)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성탄절은 독특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에 성탄절과 주현절(Epiphany)을 함께 기념합니다. 이것은 '테아르나다르츠(, Theophany)'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의 탄생과 세례를 동시에 축하합니다. 이것은 고대 기독교의 관행을 보존한 것으로, 4세기 이전에는 모든 교회가 이렇게 했습니다.

금식은 아르메니아 영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긴 금식 기간은 부활절 전 40일간의 '대재(大齋, Great Lent)'입니다. 이 기간 동안 신자들은 육류, 유제품, 계란을 피하고, 기도와 참회에 집중합니다. 또한 여름의 '사도 금식', 성모 승천 전 2주간의 금식, 그리고 성탄절 전 금식 등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독신 성직제와 기혼 성직제를 모두 인정합니다. 일반 사제들은 결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본당 사제들은 기혼자입니다. 그러나 주교는 반드시 독신이어야 하므로, 주교들은 수도원 출신이거나 결혼하지 않은 사제들 중에서 선출됩니다.

수도원 전통은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매우 중요합니다. 4세기부터 수많은 수도원들이 세워졌고, 이들은 영성, 학문, 예술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타테브(Tatev) 수도원, 하그파트(Haghpat) 수도원, 게하르트(Geghard) 수도원 등은 중세 시대에 중요한 대학이자 필사본 제작 센터였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음악 전통도 독특합니다. 전례 음악은 주로 무반주 합창으로 이루어지며, 고대의 선법(旋法)을 사용합니다. 가장 유명한 아르메니아 찬송가는 '샤라칸(, Sharakan)'입니다. 이것들은 5세기부터 전해져 내려온 것으로, 깊은 영성과 시적 아름다움을 담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19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Armenian Genocide) 동안 엄청난 고난을 겪었습니다.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학살되었고, 이 중 많은 이들이 기독교 신앙 때문에 순교했습니다. 수천 개의 교회와 수도원이 파괴되었고, 수많은 성직자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소비에트연방 시대(1920-1991)에도 교회는 심각한 탄압을 받았습니다. 교회들이 폐쇄되거나 다른 용도로 전환되었고, 종교 교육은 금지되었습니다. 교회는 지하에서 살아남았고, 1991년 아르메니아가 독립을 되찾았을 때 빠르게 부흥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전 세계에 900만 명의 신자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 300만 명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에 살고 있으며, 나머지는 디아스포라(diaspora)에 흩어져 있습니다. 러시아, 미국, 프랑스, 레바논, 시리아, 이란 등에 큰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있습니다.

교회는 두 개의 카톨리코스 좌(座)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된 좌는 에치미아진에 있으며, '모든 아르메니아인의 카톨리코스(Catholicos of All Armenians)'라는 칭호를 가집니다. 두 번째 좌는 레바논의 안텔리아스(Antelias)에 있으며, '대 실리키아의 카톨리코스(Catholicos of the Great House of Cilicia)'라는 칭호를 가집니다. 이 외에도 예루살렘과 콘스탄티노플에 각각 총대주교(Patriarch) 좌가 있습니다.

현재 에치미아진의 카톨리코스는 카레킨 2세(Karekin II)이며, 그는 1999년에 선출되었습니다. 그는 세계 각국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를 방문하고, 다른 기독교 교회들과의 대화를 촉진하며, 아르메니아의 영적 유산을 보존하는 데 헌신하고 있습니다.

현 에치미아진 카톨리코스, 카레킨 2세(Karekin II)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오늘날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과 문화의 핵심입니다. 역사, 언어, 음악, 예술, 그리고 무엇보다도 신앙이 이 교회를 통해 세대에서 세대로 전해지고 있습니다.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시련을 겪으면서도, 사도교회는 끝없는 믿음과 회복력으로 살아남았고, 오늘날에도 전 세계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적 고향으로 남아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4장 중세의 영광과 수도원이 지켜낸 문화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바그라투니 왕조 - 아르메니아 중세 르네상스 황금기

9세기부터 11세기까지 아르메니아를 다스린 바그라투니 왕조(Bagratuni Dynasty,)는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가장 빛나는 시기를 열었습니다. 7세기부터 8세기 까지 아랍의 지배를 받으며 어두운 시절을 보낸 아르메니아는 바그라투니 가문의 등장으로 독립 왕국의 지위를 회복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르메니아 중세 문화의 절정기였으며, 건축, 예술, 학문이 꽃피운 르네상스 시대였습니다.

지정학적 길목에 위치한 아르메니아를 역사적으로 압박했던 세력들

바그라투니 가문은 원래 아르메니아의 오랜 귀족 가문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들은 유대의 다윗 왕의 후손이라고 주장했지만, 역사적으로는 고대 아르메니아의 토착 귀족 집안이었습니다. 아랍 지배 시기에도 아르메니아 내에서 상당한 권력과 영향력을 유지했습니다.

아쇼트 1세(Ashot I,)는 뛰어난 정치적 능력으로 아랍 칼리파(Caliph)와 비잔틴 제국(Byzantine Empire) 사이에서 균형을 맞추며, 885년에 아르메니아 왕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수백 년 만에 아르메니아가 다시 독립 왕국이 된 역사적 순간이었습니다.

바그라투니 왕조의 수도는 아니(Ani,)에서 시작해 카르스(Kars,)를 거쳐 최종적으로 아니로 돌아왔습니다. 아니는 실크로드의 주요 거점이었고, 무역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 아니에는 1001개의 교회가 있었다고 전해질 만큼 종교 건축이 발달했습니다.

아니(Ani,) 유적지는 지금은 터키 영토 안에 있어 아르메니아에서는 접근이 어렵지만, 당시 아니는 중세 세계에서 손꼽히는 거대 도시였습니다. 인구가 10만 명이 넘었다고 하니, 당시로서는 놀라운 규모였습니다.

(현재 터키안에 있는 Ani 유적지에는 수많은 성당 유적이 남아 있다)

The Ruins of Ani – The City of 1001 Churches 라는 키워드로 검색하면 수많은 사진을 인터넷 상에서 볼 수 있다.

Ani 유적지는 터키 영토인 카르스 주에 있으며 아르메니아 국경 바로 옆에 위치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와 터키 사이의 육로 국경이 1993년 부터 폐쇄되어 있어서 예레반에서 직접 갈 수는 없습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조지아를 경유해서 터키로 들어간 후 카르스에서 아니 유적지로 이동하는 것입니다.

예레반에서 조지아로 이동합니다. 미니버스나 기차, 공동 택시를 이용할 수 있으며 6~7시간 정도 걸립니다. 트빌리시에서 터키 카르스까지는 버스나 미니버스를 타고 가는데, 국경 통과 시간을 포함해서 상당한 시간이 소요됩니다. 카르스에서 아니 유적지까지는 차로 45분에서 1시간 정도 걸립니다.

카르스의 특정 카페 앞에서 아니 유적지 왕복 관광 버스가 운행되기도 하지만 운영 여부는 현지에서 확인해야 합니다. 택시나 렌터카를 이용하면 가장 빠르고 편리합니다.

트빌리시까지 가지 않고 조지아를 통과해서 터키 카르스로 가는 방법이 있습니다. 가장 현실적인 경로는 아르메니아의 규므리에서 조지아의 아할치헤를 거쳐 터키 국경으로 가는 것입니다.

예레반에서 규므리까지는 마슈루트카나 기차로 이동할 수 있습니다. 규므리에서 조지아의 아할치헤까지 마슈루트카가 매일 오전 10시에 출발하며, 약 3.5시간 소요되고 요금은 20라리입니다. 아할치헤에서 터키

국경까지는 조지아-터키 국경인 튀르크괴주 또는 포소프 국경을 통과해야 합니다. 아할치헤에서 터키 국경까지는 택시를 이용하거나 히치하이킹을 할 수 있습니다.

확실한 방법은 규므리에서 아르메니아의 여행사들이 조지아를 경유해서 터키 동부 지역으로 가는 단체 투어를 운영하기도 합니다. 이런 투어를 이용하면 하루 안에 국경을 통과해서 카르스에 도착할 수 있습니다. Live Tour Gyumri(전화 +374 33 177 447)는 서부 아르메니아 투어 전문 업체로, 하루 만에 카르스까지 갈 수 있는 1일 투어를 운영합니다. 이 투어는 카르스, 아니 유적지, 칠디르 호수를 방문하며 비용은 25,000 아르메니아 드람입니다. Cascade Travel Caucasus(웹사이트 thecascadetravel.com)도 규므리에서 조지아를 경유해 카르스로 가는 개인 맞춤 투어를 제공합니다.

이런 투어는 조지아 국경을 통과할 때 필요한 절차를 모두 처리해주고, 국경에서 가이드와 차량을 교체하여 터키까지 안전하게 이동할 수 있습니다. 단체 투어를 이용하면 약 12시간 안에 규므리에서 카르스까지 도착할 수 있으며, 차량을 갈아타지 않아도 되는 편리함이 있습니다. 개인 택시를 이용할 경우 규므리에서 아르메니아-조지아 국경까지 약 60달러가 들지만, 교통편 연결이 불편할 수 있습니다.

터키로 가는 우회 경로가 너무 길다면 아르메니아 국경 근처 전망대에서 아니 유적지를 멀리서 바라보는 방법도 있습니다. 시라크 지역 하이카조르 마을 근처 전망대가 비교적 접근하기 쉽습니다. 다만 국경 지역이라 러시아군이 통제하고 있으며, 제대로 보려면 망원경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예레반에서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우므로 규므리에서 가이드가 포함된 투어를 이용하거나 렌터카를 빌리는 것이 현실적입니다. 유적지 내부를 제대로 둘러보려면 조지아를 거쳐 터키 카르스로 가는 경로를 택해야 합니다. 멀리서 유적지의 실루엣만 보고 싶다면 아르메니아 쪽 전망대를 방문하는 것도 고려할 수 있습니다.

바그라투니 왕들은 기독교 신앙을 바탕으로 국가를 다스렸습니다. 왕실은 교회와 긴밀하게 협력하며 수도원과 교회 건축을 적극 후원했습니다.

이 시기에 건설된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들은 아르메니아 건축 양식의 완성을 보여줍니다. 둥근 천장, 원뿔형 지붕, 정교한 돌 조각은 바그라투니 시대의 특징이었습니다. 건축가들은 화산암(volcanic rock,)을 능숙하게 다루며 지진에 강한 구조를 만들어냈습니다.

경제적으로 이 시기는 번영의 시대였습니다. 실크로드를 통한 무역으로 부를 축적한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유럽에서 중국까지 활동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 공동체는 콘스탄티노폴(Constantinople,), 베니스(Venice,), 카이로(Cairo,), 트빌리시(Tbilisi,) 등 주요 도시에 거점을 두었습니다. 이들은 비단,

향신료, 보석을 거래하며 막대한 이익을 얻었고, 그 부의 일부는 고향의 수도원과 교회 건축에 사용되었습니다.

학문과 예술도 크게 발전했습니다. 수도원들은 학교를 운영하며 신학, 철학 수학, 천문학을 가르쳤습니다. 필사본(manuscript,) 제작은 예술의 경지에 이르렀습니다. 필사사(scribe,)들은 양피지(parchment,)에 복음서(gospel,)와 기도서(prayer book,)를 아름답게 필사했고, 미니어처(miniature,) 화가들은 화려한 삽화로 책을 장식했습니다. 이 시기의 필사본들은 지금도 마테나다란(Matenadaran,) 필사본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세계적인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그레고르 나레카치(Grigor Narekatsi,)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그는 나레크 수도원(Narek Monastery,)에서 평생을 보내며 '탄원의 책(Book of Lamentations,)'이라는 걸작을 남겼습니다. 이 책은 아르메니아어로 쓰인 가장 위대한 영적 문학으로 평가받으며, 2015년에는 교황청이 그를 보편 교회의 교회박사(Doctor of the Church,)로 선포했습니다. 나레카치의 시는 개인의 영혼과 하느님의 관계를 깊이 탐구하며, 인간의 죄와 구원에 대한 성찰을 담고 있습니다.

이 번영은 11세기 중반부터 위협받기 시작했습니다. 동쪽에서 셀주크 투르크(Seljuk Turks,)가 침입하기 시작했고, 1045년에는 비잔틴 제국이 아니를 점령했습니다. 비잔틴은 바그라투니 왕조의 마지막 왕 가기크 2세(Gagik II,)에게 왕위를 포기하라고 강요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다시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고, 1064년에는 셀주크 투르크가 아니를 정복하며 도시를 파괴했습니다.

바그라투니 왕조의 멸망 이후에도 아르메니아 문화는 살아남았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남쪽 킬리키아(Cilicia,) 지역으로 이주하여 새로운 왕국을 세웠습니다.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은 13세기와 14세기에 번영했으며, 십자군(Crusaders,)과 교류하며 유럽 문화를 받아들였습니다. 본토에 남은 수도원들은 바그라투니 시대의 영광을 간직하며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중심지로 남았습니다.

바그라투니 시대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자부심의 원천입니다. 이 시기에 만들어진 건축물과 예술품은 외세의 지배 속에서도 아르메니아 문화가 얼마나 강인하고 창조적인지 보여줍니다. 수도원들은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민족 문화의 보고였으며, 교육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하치카르(khachkar, , 십자석)는 이 시기에 완성된 독특한 예술 형식으로, 돌에 새겨진 십자가와 문양은 아르메니아인의 신앙과 미적 감각을 담고 있습니다.

(그레고르 나레카치()는 이 시기를 대표하는 신학자이자 시인이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며 만나는 수많은 수도원과 교회는 대부분 바그라투니 시대나 그 이후에 건설된 것들입니다. 이들은 산 속 깊은 곳, 호수가, 협곡 안에 자리 잡고 있으며, 각각이 고유한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이 건축물들은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아르메니아인들의 영혼이 깃든 성지입니다. 바그라투니 왕조가 남긴 유산은 건축물과 예술품뿐만 아니라, 어려운 시기를 견디며 신앙과 문

화를 지켜온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신입니다.

바그라투니 시대의 건축 기술은 놀라울 만큼 정교했습니다. 당시 건축가들은 지진이 잦은 지역의 특성을 고려하여 유연한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돌과 돌 사이에 적절한 여유를 두어 지진 발생 시 건물이 무너지지 않고 흔들릴 수 있도록 했습니다. 이런 기술 덕분에 천 년이 넘는 건축물들이 여러 차례의 강진을 견디며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돔(dome,) 구조는 무게를 고르게 분산시켜 안정성을 높였고, 내부 공간은 음향 효과를 고려하여 설계되었습니다.

경제적 번영은 문화 발전의 기반이었습니다. 왕실과 귀족들은 수도원에 토지와 재산을 기증했고, 상인들은 무역으로 얻은 이익의 일부를 교회에 헌납했습니다. 수도원들은 이런 재산을 바탕으로 학교를 운영하고, 필사본을 제작하며, 가난한 사람들을 도왔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병원과 숙박 시설을 운영하여 순례자와 여행자를 돌보았습니다. 타테브 수도원(Tatev Monastery,) 같은 곳은 수백 명의 수도사가 거주하며 대학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기능했습니다.

바그라투니 시대의 종교 생활은 매우 활발했습니다. 매일 여러 차례 기도 시간이 있었고, 주요 축일에는 성대한 의식이 거행되었습니다. 부활절, 성탄절, 주현절(Epiphaný,) 같은 대축일에는 수천 명의 신자가 수도원으로 몰려들었습니다. 순례는 신앙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으며, 사람들은 멀리서부터 걸어서 성지를 찾아왔습니다. 각 수도원은 고유한 성물이나 유물을 보관하고 있어 순례지로서의 가치를 지녔습니다.

음악도 종교 생활의 핵심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전례 음악(liturgical music,)은 독특한 선율과 화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라칸(sharakan, , 성가)이라 불리는 성가는 복잡한 멜로디와 리듬을 특징으로 하며, 숙련된 성가대원들만이 부를 수 있었습니다. 일부 수도원에는 음악 학교가 있어 젊은이들에게 성가를 가르쳤습니다. 이런 음악 전통은 오늘날까지 이어져 아르메니아 사도교회(Armenian Apostolic Church,)의 예배에서 들을 수 있습니다.

바그라투니 왕조는 국제 관계에서도 능숙했습니다. 왕들은 비잔틴 제국, 아랍 칼리파국, 조지아 왕국(Kingdom of Georgia,) 사이에서 균형을 유지하며 아르메니아의 독립을 지켰습니다. 외교적 결혼을 통해 동맹을 맺었고, 무역 협정으로 경제적 이익을 확보했습니다. 이런 균형 외교는 결국 비잔틴의 야심과 셀주크 투르크의 침입 앞에 무너졌습니다. 11세기 후반이 되면서 아르메니아는 다시 분열되고 외세의 지배를 받게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바그라투니 시대에 형성된 문화적 기반은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수도원들은 몽골의 침입, 페르시아의 지배, 오스만 제국의 압제 속에서도 아르메니아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필사사들은 계속해서 책을 필사했고, 건축가들은 새로운 교회를 지었으며, 시인들은 아르메니아어로 시를 썼습니다. 이런 문화적 연속성이 있었기에 아르메니아는 독립 국가를 잃은 후에도 민족으로서의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 공화국(Republic of Armenia,)에서 바그라투니 시대는 민족적 자긍심의 원천으로 여겨집니다. 학교에서는 이 시기의 역사를 자세히 가르치고, 바그라투니 왕들의 이름을 딴 거리와 건물이 많습니다. 예레반(Yerevan,)의 마테나다란 박물관에는 이 시기의 필사본들이 전시되어 있어, 방문객들이 천 년 전 아르메니아인들의 지혜와 예술성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아르메니아의 영혼을 만나는 순례입니다.

2. 아르메니아 수도원 - 민족정체성의 보루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놀라는 것은 산과 계곡 곳곳에 자리 잡은 수많은 수도원입니다.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에는 수백 개의 수도원과 교회가 있고,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문화의 중심지가 도처에 있습니다. 외세의 침입과 박해 속에서도 수도원들은 아르메니아의 정체성을 지켜온 요새였습니다. 교육, 예술, 문학의 중심지였던 수도원들은 지금도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적 고향입니다.

(1) 신앙과 학문이 꽃핀 지성의 요새

아르메니아에서 수도원 생활은 4세기 초 기독교 공인 직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초기 기독교가 로마 제국(Roman Empire,)에서 박해받던 시절, 아르메니아는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한 나라였습니다. 301년 티리다테스 3세(Trdat III,) 왕이 성 그레고리오스(Saint Gregory,)의 영향으로 기독교를 받아들인 후, 많은 사람들이 세례(baptism,)를 받았습니다. 진정한 신앙 생활을 추구하는 사람들 중 일부는 세속을 떠나 산과 동굴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초기 수도사들은 이집트와 시리아의 사막 교부(Desert Fathers,)들로부터 영향을 받았습니다. 사막의 성 안토니오(Saint Anthony,)나 성 파코미오(Saint Pachomius,)의 가르침이 아르메니아에 전해졌고, 많은 젊은 이들이 홀로 또는 작은 공동체를 이루어 산속에서 기도와 명상(meditation,)에 몰두했습니다. 초기에는 자연 동굴(cave,)이나 간단한 돌집이 거처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이런 작은 공동체들이 성장하여 본격적인 수도원으로 발전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수도원의 구조는 독특합니다. 대부분의 수도원은 외부와 격리된 산속이나 협곡(gorge,)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수도사들이 세속의 유혹에서 벗어나 오롯이 신앙 생활에 집중하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외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는 실질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두꺼운 돌벽과 견고한 문, 때로는 방어탑(tower,)까지 갖춘 수도원들은 전쟁 시기에 피난처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의 중심에는 항상 교회가 있습니다. 교회는 대부분 십자가 형태의 평면을 가지고 있으며, 중앙에 돔이 솟아 있습니다. 돔은 하늘을 상징하며, 내부에서 올려다보면 빛이 들어오는 창을 통해 신성함을 느낄 수 있습니다.

교회 내부는 검소하게 장식되어 있습니다. 화려한 장식보다는 돌의 질감과 건축의 순수한 아름다움을 중시했습니다. 제단(altar,)은 동쪽을 향하고 있으며, 이는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실 방향이라고 믿었기 때문입니다.

교회 주변에는 수도사들의 거처가 있습니다. 작은 방들이 회랑을 따라 배치되어 있으며, 각 수도사는 자신의 방에서 기도하고 공부하며 잠을 잤습니다. 공동 식당(refectory,)에서는 하루에

수도원 필사실(scriptorium,) 한두 번 함께 식사를 했습니다. 식사는 매우 검소했으며, 대부분 빵, 채소, 과일로 구성되었습니다. 고기는 특별한 축일에만 먹을 수 있었고, 금식(fasting,)은 수도 생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수도원에는 필사실(scriptorium,)이 있었습니다. 이곳은 수도원 문화의 심장부였습니다. 필사사들은 양피지에 성경과 기도서, 신학 서적을 정성스럽게 필사했습니다.

한 권의 책을 완성하는 데 몇 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필사는 단순한 복사 작업이 아니라 기도와 명상의 행위였습니다.

필사사들은 글자 하나하나에 정성을 담았으며, 여백에는 아름다운 삽화를 그려 넣었습니다. 이런 필사본들은 지금도 마테나다란 박물관에 보관되어 있으며, 세계 문화유산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학교도 수도원의 중요한 시설이었습니다. 젊은 수도사들은 물론 평신도(layperson,) 자녀들도 수도원 학교에서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육 과정은 아르메니아어 읽기와 쓰기부터 시작하여 성경 공부, 신학, 철학, 수학, 천문학까지 다양했습니다. 일부 대형 수도원은 대학 수준의 교육 기관으로 발전했습니다. 타테브 수도원 대학은 중세 시기 수백 명의 학생이 공부하는 학문의 중심지였습니다. 여기서 배출된 학자들은 아르메니아 전역에서 교사와 성직자로 활동했습니다.

수도원은 경제적으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넓은 토지를 소유한 수도원들은 농업과 목축을 했고, 일부는 와인(wine,)과 과일을 생산했습니다. 수도사들은 직접 노동에 참여했으며, 이는 수도 생활의 일부였습니다. "기도하고 일하라(ora et labora,)"는 원칙에 따라 하루 일과는 기도 시간과 노동 시간으로 나뉘었습니다. 생산된 물자의 일부는 수도원 운영에 쓰였고, 나머지는 가난한 사람들에게 나누어주거나 판매되었습니다.

수도원은 병원(hospital,)과 숙박 시설도 운영했습니다. 순례자와 여행자들은 수도원에서 무료로 숙박하고 식사를 제공받을 수 있었습니다. 아픈 사람들은 수도원의 치료를 받았습니다. 중세 시기 수도사들은 약초학(herbalism,)에 대한 지식이 풍부했으며,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찾아 치유를 받았습니다. 일부 수도원에는 약초 정원(herb garden,)이 있어 다양한 식물을 재배했습니다.

수도원의 하루는 엄격한 일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새벽에 일어나 첫 기도를 드리고, 아침 식사 후 각자의 임무를 수행했습니다. 점심 기도와 식사 후 다시 일하고, 저녁에는 만과 기도(vespers,)로 하루를 마감했습니다. 밤중에도 기도 시간이 있었으며, 일부 수도사들은 밤새 기도하기도 했습니다. 이런 규칙적인 생활은 수도사들의 영적 성장을 돕는 틀이었습니다.

수도원 공동체는 위계(hierarchy,)가 있었습니다. 수도원장(abbot,)이 공동체의 영적, 행정적 지도자였으며, 그 아래 여러 직책이 있었습니다. 전례를 담당하는 사제, 교육을 책임지는 교사, 필사실을 관리하는 사서, 재정을 맡은 회계, 손님을 접대하는 손님맞이 담당자 등 각자의 역할이 있었습니다. 모든 결정은 수도원장이 했지만, 중요한 사안은 공동체 회의에서 논의되었습니다.

여성 수도원(convent,)도 있었습니다. 비록 숫자는 적었지만, 여성들도 수도 생활을 선택할 수 있었습니다. 여성 수도원은 대부분 남성 수도원과 비슷한 구조와 규칙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여성 수도사(nun,)들도 기도하고, 일하고, 공부했습니다. 일부는 뛰어난 필사사로 활동했으며, 자수(embroidery,)와 직조(weaving,) 같은 공예 기술을 발전시켰습니다.

외부 세계와의 관계도 중요했습니다. 수도원은 고립된 곳이었지만, 완전히 세상과 단절된 것은 아니었습니다. 주교(bishop,)와 총대주교(catholicos,)가 수도원을 방문하여 미사를 집전하고 축복을 주었습니다. 귀족과 왕들도 수도원을 찾아와 기도하고 헌금을 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순례지로 유명하여 일 년 내내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수도원은 지역 공동체의 영적 중심지였으며, 사람들은 중요한 일이 있을 때마다 수도원을 찾았습니다.

수도원 건축은 지역의 자연환경과 조화를 이루었습니다. 건축가들은 주변 경관을 해치지 않으면서도 수도원이 영적인 장소임을 느낄 수 있도록 설계했습니다. 많은 수도원이 산비탈에 자리 잡고 있어 멀리서도 보이며, 신앙의 등대 같은 역할을 했습니다. 돌을 쌓는 기술은 매우 정교했으며, 시멘트 없이도 견고한 벽을 만들었습니다. 지진이 잦은 지역임을 고려하여 유연한 구조를 채택했고, 이 덕분에 천 년이 넘는 건물들이 지금까지 남아 있습니다.

수도원 문화는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외세의 지배를 받던 시기에도 수도원은 아르메니아어와 문화를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를 만든 메스로프 마슈토츠(Mesrop Mashtots,)도 수도사였으며, 그가 만든 문자는 수도원에서 가르쳐지고 사용되었습니다. 오늘날에도 많은 수도원이 활동하고 있으며, 젊은이들이 수도 생활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방문은 아르메니아 역사와 문화를 이해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2) 게하르트 수도원(Geghard Monastery), 바위 속에 새긴 성소

게하르트 수도원(Geghard Monastery,)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신비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예레반에서 동쪽으로 40킬로미터 떨어진 아자트 협곡(Azat Gorge,) 깊숙한 곳에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일부가 바위를 깎아 만들어졌습니다. 게하르트는 아르메니아어로 '창(spear,)'을 의미하며, 예수 그리스도의 옆구리를 찔렀다는 롱기누스의 창(Holy Lance,)이 한때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다고 전해집니다. 지금 그 창은 예레반의 에치미아진 대성당(Etchmiadzin Cathedral,) 박물관에 있지만, 수도원은 여전히 그 이름을 간직하고 있습니다.

게하르트의 역사는 4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 수도사들이 이 협곡의 동굴에서 수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성 그레고리오스 자신이 이곳을 방문하여 축복했다고 합니다. 최초의 수도원은 아이리반크(Ayrivank,), 즉 '동굴 수도원(cave monastery,)'으로 불렸습니다. 9세기에 아랍 군대의 침입으로 파괴되었지만, 12세기와 13세기에 다시 건설되었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대부분의 건축물은 이 시기에 만들어진 것입니다.

수도원에 접근하면 먼저 거대한 바위 절벽이 시야를 압도합니다. 협곡의 붉은 화산암 절벽은 마치 자연의 성벽(fortress wall,) 같습니다. 주차장에서 수도원까지는 짧은 산책로가 이어지며, 양쪽으로 기념품을 파는 작은 가게들이 있습니다. 수제 과일 롤(fruit roll,)과 '가타(gata,)'라는 전통 빵을 팔고 있습니다. 가타는 달콤하고 바삭하여 인기가 많습니다.

수도원 입구에 들어서면 먼저 카톨리케 성당(Katoghike Church,)이 보입니다. 1215년에 건설된 이 성당은 전형적인 아르메니아 십자가 형태의 교회입니다. 내부는 단순 장엄합니다. 높은 천장과 작은 창문으로 들어오는 빛이 신비로운 분위기를 만듭니다. 벽에는 십자가와 기하학적 문양이 새겨져 있고, 제단 뒤편에는 고대 비문(inscription,)이 있습니다. 미사가 열리는 시간에 방문하면 아르메니아 전례 음악을 들을 수 있습니다. 돌벽에 울리는 성가는 깊은 울림을 주어 마치 천상의 음악 같습니다.

카톨리케 성당 옆에는 바위를 깎아 만든 예배당(chapel,)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게하르드의 진정한 신비입니다. 아바란 예배당(Avazan Chapel,)은 1240년경에 바위산을 직접 파서 만든 공간입니다. 내부로 들어서면 자연 바위와 인공 조각이 하나가 된 놀라운 광경을 볼 수 있습니다. 천장에는 정교한 십자가와 별 문양이 새겨져 있고, 음향 효과가 뛰어나 작은 소리도 크게 울립니다. 중세 시대 수도사들은 여기서 찬송(hymn,)을 부르며 하느님을 찬양했을 것입니다.

더 안쪽으로 들어가면 상부 예배당(Upper Chapel,)이 있습니다. 이곳은 1283년에 완성되었으며, 프로시안 가문(Proshyan family,)의 영묘(mausoleum,)이기도 합니다. 중앙 홀은 팔각형 돔으로 덮여 있고, 벽면에는 사자와 독수리 같은 동물 조각이 있습니다. 이는 프로시안 가문의 문장(coat of arms,)이었습니다. 이 가문은 당시 아르메니아의 유력한 귀족이었으며, 수도원에 많은 재산을 기증했습니다. 그 대가로 가족 영묘를 수도원 안에 만들 권리를 얻었습니다.

게하르드의 가장 인상적인 공간은 아마도 성수 예배당(Holy Spring Chapel,)일 것입니다. 바위에서 솟아나는 샘물(spring water,)이 있는 이 작은 예배당은 수도원에서 가장 신성한 곳으로 여겨집니다. 물은 일 년 내내 흐르며, 차갑고 맑습니다. 순례자들은 이 물을 마시고 병에 담아 갑니다. 물에는 치유의 힘이 있다고 믿어지며, 많은 사람들이 병이 낫기를 기도하며 이 물을 마십니다. 예배당 벽에는 수많은 십자가가 새겨져 있는데, 이는 순례자들이 방문을 기념하여 남긴 것입니다.

수도원 바깥으로 나오면 협곡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주변은 깎아지른 듯한 바위 절벽으로 둘러싸여 있고, 아자트 강(Azat River,)이 협곡 아래를 흐릅니다. 봄에는 야생화가 피어 계곡을 수놓고, 여름에는 푸른 초목이 우거집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붉고 노란 색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고요한 아름다움을 선사합니다. 이곳의 자연은 수도원의 신성함을 더욱 돋보이게 합니다.

게하르드를 방문하는 여행자들은 종종 시간이 멈춘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좁은 바위 통로를 걸으며 천 년 전 수도사들의 발자취를 따라가는 것 같습니다. 어둡고 시원한 바위 예배당 안에서 촛불(candle,)을 켜고 기도하면, 세속의 소음이 멀어지고 내면의 평화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종교적 신념과 상관없이 모든 사람에게 영적인 경험을 선사하는 장소입니다.

게하르드 주변에는 다른 볼거리도 많습니다. 수도원 입구 근처에는 하치카르가 줄지어 서 있습니다. 이 십자석들은 다양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각기 독특한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십자가만 새겨져 있고, 다른 것들은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와 식물 문양(floral pattern,)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치카르를 자세히 살펴보는 것도 게하르드 방문의 즐거움 중 하나입니다.

협곡을 따라 조금 걸어 올라가면 심포니 오브 스톤스(Geghard Symphony of Stones,
)가 있습니다. 자연이 만든 현무암 기둥(basalt
column,)들로,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pipe organ,) 같
습니다. 수직으로 솟은 육각형 기둥들이 수백 개 모여 있는 광경은 경이롭습니다. 이 자연 현상은 화
산 활동으로 형성된 것으로, 용암(lava,)이 식으면서 규칙적인 형태의 기둥으로 굳어진 것
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사진을 찍으며 자연의 신비를 감탄합니다.

게하르드는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UNESCO World Heritage Site, -
)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유네스코는 이
수도원을 "자연과 인간 창조물의 완벽한 조화"로 평가했습니다. 바위를 깎아 만든 건축 기술과 예술
적 가치, 그리고 주변 자연경관이 어우러져 독특한 문화 경관을 만들어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이 유산을 보존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방문객들도 이 소중한 장소를 존중하며 다녀야 합
니다.

수도 예레반에서 게하르트까지 가는 방법은 여러 가지입니다. 가장 편한 방법은 택시나 개인 차량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예레반 중심부에서 약 40분이면 도착합니다. 길은 잘 포장되어 있고 표지판도
명확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먼저 가르니 마을(Garni village,)로 가는
미니버스(minibus,)를 타고, 거기서 택시나 도보로 게하르트까지 가야 합니
다. 가르니에서 게하르트까지는 약 7킬로미터이며, 걷기를 좋아한다면 천천히 2시간 정도 아름다운
협곡길을 따라 걸을 수도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의 가이(Gai) 버스정류장 근처에서 266번 버스에 탑승하면 게하르트 수도원 인근까지
갈 수 있습니다. 버스 요금은 500 아르메니아 드람(AMD)으로 매우 저렴하며, 종점에서 하차한 후
수도원까지는 아름다운 풍경을 감상하며 약 20~30분 정도 걸어 들어가야 합니다. 다만, 버스는 정
해진 시간표보다는 승객이 어느 정도 차야 출발하는 방식으로 운행되므로 시간을 넉넉하게 계획하는
것이 좋습니다.

택시로 예레반 시내에서 게하르트 수도원까지는 약 40분 정도 소요되며, 요금은 약 10,000 아르메
니아 드람(AMD) 수준입니다. Yandex 같은 현지 택시 호출 앱이 잘 되어 있어, 출발 전에 예상 요금
을 확인하고 편리하게 예약할 수 있어 외국인 여행자도 바가지요금 걱정 없이 안전하게 이용할 수 있
습니다.

(지도의 붉은 점 부분이 게하르트 수도원, 가르니 신전 지역이다)

가르니 신전(Garni Temple,)과 게하르트 수도원을 하루 코스로 묶어서 방문
합니다. 가르니 신전은 아르메니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헬레니즘 시대(Hellenistic period,
) 건축물로, 1세기에 지어진 태양신 미트
라(Mithras,) 신전입니다. 이교 신전과 기독교 수도원을 하루에 모두 보는 것은 아르메니아
역사의 다양성을 이해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또한 가르니 근처에서는 전통 라바시 빵(lavash bread,
) 만들기 시연을 볼 수 있으며, 점심 식사를 제공하는 가정집들도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

(가르니 신전에서 게하르트 수도원까지 23킬로미터 트래킹 코스)

가르니 신전, 게하르트 수도원, 그리고 돌들의 교향곡은 예레반 근교에서 가장 인기 있는 관광지로 보통 하루 일정으로 함께 둘러봅니다.

가르니 신전은 아르메니아에 남아 있는 유일한 헬레니즘 양식의 이교도 사원입니다. 기원후 1세기에 태양신 미흐르에게 헌정되었으며 로마 양식의 기둥과 건축을 갖추고 있습니다. 4세기 아르메니아가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을 때 대부분의 이교도 사원이 파괴되었지만, 가르니는 왕실 여름 별장의 일부였기 때문에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1679년 지진으로 무너졌으나 20세기에 복원되었으며, 협곡이 내려다보이는 삼각형 절벽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외국인 기준 1,500 아르메니아 드람(약 5,000원)입니다.

돌들의 교향곡은 가르니 신전 아래 아자트 강 협곡에 펼쳐진 거대한 주상절리대입니다. 수직으로 솟아오른 육각형 현무암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파이프 오르간처럼 보여서 현무암 오르간 또는 돌들의 교향곡이라고 불립니다. 그 규모가 세계 최대급이며 자연의 경이로움을 느낄 수 있는 곳입니다. 가르니 신전에서 내려다볼 수도 있고, 협곡 아래로 내려가 직접 기둥 아래에서 올려다볼 수도 있습니다. 입장료는 약 200-1,000 아르메니아 드람(약 700-3,500원) 정도입니다.

게하르트 수도원은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된 암굴 수도원입니다. 상당 부분이 거대한 산의 암벽을 깎아 만들어져 독특하고 웅장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게하르트는 창이라는 뜻으로, 예수가 십자가에 못 박혔을 때 옆구리를 찔렀다는 전설 속의 성창을 한때 이곳에 보관했기 때문에 붙은 이름입니다. 4세기 성 그레고리가 설립한 후 12세기에서 13세기에 걸쳐 현재의 모습으로 확장되었으며, 중세 아르메니아의 수도원 건축과 장식을 잘 보존하고 있습니다. 입장료는 무료입니다.

가르니 신전과 게하르트 수도원 사이의 도로 거리는 직선으로는 약 10킬로미터입니다. 하지만 걸어서 천천히 아르메니아 경치를 음미하면서 23킬로미터 정도되는 트래킹 코스를 따라 걸어 이동할 수도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에서 출발해 아자트 강 협곡을 따라 게하르트 수도원까지 가는 하이킹 트레일이 있으며, 이 길은 돌들의 교향곡과 11세기 중세 다리를 지나갑니다. 전체 하이킹 코스는 약 23킬로미터이며 고도 차이가 850미터 정도 됩니다.

걷는 시간은 약 6-7시간 정도 소요되며, 중간 난이도의 코스입니다. 하이킹 코스는 아자트 강을 따라 이어지며, 높은 절벽으로 둘러싸인 아름다운 협곡을 지나갑니다. 코스 중간에는 하부츠 타르 수도원으로 가는 길도 있으며, 호스로브 삼림보호구역으로도 접근할 수 있습니다. 하이킹을 하려면 편한 신발과 충분한 물을 준비해야 하며, 4월부터 10월 사이가 가장 좋은 시기입니다.

날씨가 좋은 봄이나 가을에는 예레반에서 택시로 먼저 가르니 신전에 도착한 후, 하이킹 트레일을 따라 천천히 걸으면서 돌들의 교향곡과 게하르트 수도원을 모두 둘러본 다음, 게하르트 수도원에서 택시나 마슈루트카를 타고 예레반으로 돌아오는 것도 가능합니다.

이 세 곳을 방문하는 가장 일반적인 방법은 투어 상품을 이용하는 것입니다. 투어를 이용하면 가장 편리하고 효율적이며 교통과 일정이 모두 해결됩니다. 보통 차렌츠 아치 같은 다른 명소도 함께 포함되며, 그룹 투어는 약 50달러(약 7만원), 프라이빗 투어는 약 140달러(약 19만원) 정도입니다.

택시를 대절하면 일정을 자유롭게 조정할 수 있고 문 앞에서 픽업과 드롭오프가 가능합니다. 예레반에서 가르니, 게하르트, 돌들의 교향곡을 모두 방문하는 하루 일정 택시 대절 비용은 약

13,000-15,000 아르메니아 드람(약 45,000-52,000원)입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면 가장 저렴하지만 예레반에서 마슈루트카를 타고 가르니 마을까지 간 후(1인당 300-500 드람, 약 1,000-1,700원) 현지 택시를 추가로 이용해야 하므로 시간이 오래 걸립니다. 가르니에서 게하르트까지 택시는 약 3,000 아르메니아 드람(약 10,000원)입니다.

게하르트는 살아있는 수도원입니다. 지금도 수도사들이 거주하며 매일 예배를 드립니다. 방문객들은 수도원의 영적 분위기를 존중해야 합니다. 많은 사람들은 이곳의 평화와 신비를 마음에 담아갑니다. 바위 속 예배당에서 느낀 경외감, 성수의 차가운 맛, 협곡의 고요함은 오래도록 기억에 남습니다. 이곳은 단순히 관광지가 아니라 영혼을 정화하는 순례지입니다. 아르메니아를 방문하는 모든 사람에게 게하르트는 꼭 가봐야 할 필수 코스입니다.

(3) 타테브 수도원 하늘과 맞닿은 영적 성채

타테브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남부 시유크 지방(Syunik Province,)의 깊은 협곡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해발 1,500미터 고원의 끝자락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마치 하늘과 땅 사이에 떠 있는 듯합니다. 보로탄 협곡(Vorotan Gorge,)의 깎아지른 듯한 절벽 위에서 수도원은 천 년 넘게 하늘을 향해 서 있습니다.

타테브(Tatev,)는 아르메니아어로 "날개를 주소서(give wings,)"라는 의미를 담고 있으며, 수도원을 창건한 성 에우스타티오스(Saint Eustatios,)가 기도 중에 외쳤다는 말에서 유래했다고 합니다.

타테브의 역사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895년에 시유크의 군주 아쇼트(Ashot,)와 그의 아내 수산(Shushan,)이 이곳에 수도원을 건립했습니다. 이 장소는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신성한 곳으로 여겨졌습니다. 일부 역사가들은 기독교 이전 시대에 이곳에 이교 신전(pagan temple,)이 있었다고 추정합니다. 초기 기독교 시대에는 작은 예배당이 있었고, 9세기에 본격적인 수도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10세기부터 14세기까지 타테브는 아르메니아의 가장 중요한 학문 중심지였습니다. 타테브 대학(Tatev University,)은 중세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권위 있는 교육 기관이었으며, 최대 500명의 학생이 공부했습니다. 신학, 철학, 수학, 천문학, 음악, 필사 기술 등 다양한 과목이 가르쳐졌습니다. 그레고르 타테바치(Grigor Tatevatsi,) 같은 위대한 신학자들이 이곳에서 가르쳤고, 많은 뛰어난 학자들이 배출되었습니다. 타테브 필사실에서 제작된 책들은 아르메니아 문화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타테브의 역사는 순탄하지 않았습니다. 1170년 대지진으로 수도원의 상당 부분이 파괴되었고, 재건에 오랜 시간이 걸렸습니다. 14세기 후반에는 몽골과 투르크의 침입으로 약탈당했습니다. 17세기에는 페르시아의 공격을 받았고, 18세기에는 오스만 제국의 침략으로 다시 피해를 입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도원은 매번 재건되었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의 불굴의 의지를 상징하게 되었습니다.

20세기 초 소비에트 시대에는 종교 활동이 금지되었고, 수도원은 방치되어 황폐해졌습니다. 1931년 또 다른 대지진으로 많은 건물이 무너졌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독립한 1990년대에도 경제적 어려움 때문에 본격적인 복원이 어려웠습니다. 2000년대 들어 정부와 민간의 노력으로 대규모 복원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지금 볼 수 있는 타테브의 모습은 이런 끈질긴 보존 노력의 결과입니다.

타테브를 방문하는 가장 극적인 방법은 세계에서 가장 긴 양방향 케이블카(cable car, канатная дорога)인 '타테브의 날개(Wings of Tatev,)'를 타는 것입니다. 2010년에 개통된 이 케이블카는 알리제르 마을(Halidzor village,)에서 타테브 수도원까지 5.7킬로미터를 연결합니다. 보로탄 협곡 위 320미터 높이에서 이동하는 12분간의 여행은 그 자체로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발아래로 깊은 협곡과 구불구불한 강이 보이고, 멀리 설산이 펼쳐집니다. 케이블카가 수도원에 가까워지면 고원 끝자락에 서 있는 장엄한 건축물이 시야에 들어옵니다.

케이블카에서 내리면 짧은 길을 따라 수도원 입구로 향합니다. 수도원은 견고한 돌벽으로 둘러싸여 있어 마치 요새 같습니다. 이는 단순한 장식이 아니라 실제로 외침으로부터 공동체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었습니다. 입구를 지나면 넓은 뜰이 나타나고, 그 중앙에 성 바르톨로메오와 바울 대성당이 솟아 있습니다. 이 성당은 895년에 건립된 수도원의 주요 건물로, 십자가 형태의 평면과 높은 돔이 특징입니다.

대성당 내부로 들어서면 높은 천장과 두꺼운 돌기둥이 장엄함을 더합니다. 벽에는 프레스코화(fresco,)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세월에 퇴색되었습니다. 제단 뒤편에는 복잡한 돌 조각이 있으며, 이는 9세기 아르메니아 석공 기술의 정수를 보여줍니다. 성당의 음향은 놀랍습니다. 작은 속삭임도 돔 아래에서 증폭되어 신비로운 울림을 만듭니다. 중세 시대 수도사들이 이곳에서 성가를 불렀을 때의 장엄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대성당 옆에는 성 그레고리오스 예배당(Chapel of Saint Gregory,)이 있습니다. 이 작은 건물은 1295년에 건설되었으며, 더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출입구 위의 тимпанум(tympanum, , 반원형 장식)에는 성모 마리아(Virgin Mary,)와 아기 예수의 부조가 새겨져 있고, 주변에는 천사(angel,)와 사도(apostle,)들이 배치되어 있습니다. 이 예배당은 주로 개인 기도를 위한 공간이었으며, 지금도 촛불을 켜고 조용히 기도하는 사람들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 경내에서 가장 독특한 구조물은 가비트 기둥(Gavazan,)입니다. 이 8미터 높이의 돌기둥은 수도원 뜰 한가운데 서 있으며, 정교한 십자가와 기하학적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놀라운 것은 이 기둥이 움직인다는 것입니다. 기둥 밑부분은 구형 받침대 위에 있어 지진이 발생하면 흔들립니다. 이는 중세 엔지니어들의 놀라운 지혜로, 지진의 움직임을 감지하는 초기 경보 시스템이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이 기둥은 여전히 작동하며, 사람이 밀면 미세하게 흔들리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수도원 벽 근처에는 기름 공장과 빵 오븐의 흔적이 있습니다. 이는 타테브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자급자족하는 공동체였음을 보여줍니다. 수도사들은 올리브유를 생산하고, 빵을 굽고, 와인을 만들었습니다. 근처에는 도서관 필사실이 있었던 건물의 유적도 있습니다. 비록 지금은 대부분 무너졌지만, 이곳에서 수많은 귀중한 필사본이 제작되었습니다.

타테브 주변의 자연경관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수도원이 서 있는 고원(plateau,)에서 내려다보는 보로탄 협곡의 전망은 장관입니다. 깊이 500미터가 넘는 협곡은 보로탄 강이 수백만 년에 걸쳐 깎아낸 것입니다. 봄에는 협곡 사면에 야생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초원이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숲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은빛 세계가 됩니다. 이곳의 일몰은 아름답습니다. 해가 지면서 협곡이 붉은빛으로 물들고, 수도원은 마지막

햇살을 받아 황금색으로 빛납니다.

타테브 방문은 영적 순례이자 자연과의 만남입니다. 많은 여행자들은 이곳에서 깊은 평화를 느낍니다. 세속의 번잡함에서 벗어나 하늘과 가까운 곳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질 수 있습니다. 수도원 주변을 천천히 걸으며 천 년의 역사를 상상하고, 이곳을 지켜온 수도사들의 헌신을 생각하면 저절로 경외심이 듭니다.

타테브 근처에는 타테브 수도원(Tatavi Monastery,)도 있습니다. 이 작은 수도원은 타테브에서 도보로 약 30분 거리에 있으며, 덜 알려져 있지만 조용하고 아름다운 곳입니다. 숲속 오솔길을 따라 걷어가는 길 자체가 명상의 시간이 됩니다. 새소리와 바람 소리만 들리는 고요한 숲에서 작은 수도원을 만나면 마치 시간 여행을 한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도 예레반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타테브 수도원)

예레반에서 타테브까지는 약 250킬로미터 거리로, 조금 멀니다. 차로 약 4시간이 걸립니다. 길은 남쪽으로 시유니크 지방을 관통하며, 도중에 아름다운 풍경을 많이 볼 수 있습니다. 그룹으로 택시를 전세내거나 예레반에서 출발하는 일일 투어에 참가할 수도 있습니다.

타테브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이 기간에는 날씨가 좋고 케이블카도 정상 운행됩니다. 여름에는 따뜻 고원이라 예레반보다 서늘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와서 케이블카가 운행을 중단하는 날도 있으므로, 방문 전에 운행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 좋습니다. 하루 종일 야외에 있을 것이므로 편한 신발과 날씨에 맞는 옷을 준비하세요.

타테브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먼 곳 중 하나지만, 그만큼 가볼 가치가 있는 곳입니다. 케이블카를 타는 스릴, 수도원의 장엄함, 협곡의 자연미가 어우러져 잊을 수 없는 경험을 선사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타테브 방문을 아르메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로 꼽습니다. 하늘로 이어진 날개를 펼친 듯한 이 수도원은 인간의 신앙과 자연의 아름다움이 만나는 성스러운 장소입니다.

(4) 호르 비랍 신앙의 깊은 동굴에서 피어난 기적

호르 비랍(Khor Virap,)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장소 중 하나입니다. 아라라트 평원 한가운데 자리 잡은 이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발상지이자, 아라라트 산을 배경으로 한 가장 아름다운 풍경을 선사합니다. 호르 비랍은 아르메니아어로 '깊은 구덩이(deep pit,)'를 의미하며,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개종시킨 성 그레고리오스가 13년간 갇혀 있었던 지하 감옥을 가리킵니다. 아르메니아어 발음으로는, 'Kh'는 한국어의 'ㅋ'보다는 'ㅎ'에 가까운 거센 마찰음입니다. "호르 비랍" 또는 "코르 비랍"으로 표기되며, 둘 다 통용됩니다.

호르 비랍의 이야기는 3세기 말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당시 아르메니아의 왕 티리다테스 3세는 기독교를 박해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로마에서 기독교 교육을 받고 아르메니아로 돌아왔지만, 기독교 신자라는 이유로 체포되었습니다. 왕은 그를 아르타샤트 왕궁 근처의 지하 구덩이에 가두었습니다. 이 구덩이는 원래 죄수들을 처형하기 위한 곳으로, 어둡고 습한 공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그레고리오스는 13년간 이 구덩이에 갇혀 있었지만 기적적으로 살아남았습니다. 한 경건한 여인이 매일 빵 한 조각을 던져주었다고 합니다. 그 사이 트다트 왕은 심한 병에 걸려 미쳐버렸습니다. 의사들이 치료할 수 없자, 왕의 누이가 꿈을 꾸었습니다. 꿈에서 천사가 나타나 지하 감옥

에 갇힌 성자만이 왕을 치유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를 구덩이에서 끌어올렸을 때 그는 뼈만 남은 상태였지만 여전히 살아 있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왕을 위해 기도했고, 왕은 치유되었습니다. 기적을 경험한 트다트 왕은 기독교로 개종했고, 301년에 아르메니아를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로 선포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아르메니아의 첫 번째 카톨리코스가 되었고, 그의 후손들이 수 세기 동안 교회를 이끌었습니다. 이런 극적인 개종 이야기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신앙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습니다.

오늘날의 호르 비랍 수도원은 17세기에 건설된 것입니다. 이곳은 그보다 훨씬 오래전부터 성지였습니다. 4세기에 이미 작은 예배당이 세워졌고, 중세 시대에 수도원으로 확장되었습니다. 현재 볼 수 있는 건물들은 대부분 1662년에 완성되었으며, 이후 여러 차례 보수되었습니다. 수도원은 아라라트 평원이 내려다보이는 작은 언덕 위에 자리 잡고 있으며, 주변은 포도밭과 과수원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호르 비랍을 방문하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압도되는 것은 아라라트 산의 장엄한 모습입니다. 터키 영토 안에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의 마음속 성산인 아라라트 산은 수도원에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습니다. 해발 5,137미터의 대 아라라트(Greater Ararat,)와 3,896미터의 소 아라라트(Lesser Ararat,)가 나란히 솟아 있는 모습은 경이롭습니다. 맑은 날에는 눈 덮인 정상이 푸른 하늘을 배경으로 선명하게 보입니다. 이 풍경은 아르메니아의 상징적 이미지로, 수많은 사진과 그림의 소재가 되었습니다.

수도원 입구를 지나면 먼저 성 게보르크 예배당(Saint Gevorg Chapel,)이 보입니다. 이 작은 예배당은 19세기에 건설된 것으로, 단순 우아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당 내부에는 성 게보르크(성 조지, Saint George,)의 이콘(icon,)이 있으며, 벽에는 신자들이 남긴 기도문과 소원이 적힌 종이가 붙어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곳에서 양초를 켜고 가족의 건강과 행복을 기도합니다.

예배당 옆에는 수도원의 주요 교회인 성모 마리아 성당이 있습니다. 이 성당은 17세기 건축의 좋은 예시로, 전형적인 아르메니아 돔 구조를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프레스코화로 장식되어 있으며, 성경 장면과 성인들의 삶이 그려져 있습니다. 제단 뒤편에는 화려한 장식이 있고, 천장의 돔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상이 그려져 있습니다. 일요일 미사에 참석하면 아르메니아 전례의 아름다움을 경험할 수 있습니다.

호르 비랍의 진정한 핵심은 지하 감옥입니다. 성당 바닥에는 좁은 계단이 있고, 이를 따라 내려가면 성 그레고리오스가 갇혀 있던 구덩이에 도달합니다. 계단은 가파르고 좁아 한 번에 한 사람만 내려갈 수 있습니다. 아래로 내려갈수록 온도가 낮아지고 습기가 느껴집니다. 구덩이는 지하 6미터 깊이에 있으며, 지름 약 4.5미터의 원형 공간입니다. 천장은 낮아서 어른이 서기 어렵습니다.

구덩이 안에 들어서면 강렬한 감정이 밀려옵니다. 이 어둡고 좁은 공간에서 13년을 보낸다는 것은 상상하기조차 어렵습니다. 벽은 거칠고 차가우며, 유일한 빛은 위에서 들어오는 희미한 빛뿐입니다. 많은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무릎을 꿇고 기도합니다. 일부는 눈물을 흘리기도 합니다. 성 그레고리오스의 고통과 인내를 묵상하며, 자신의 신앙을 돌아보는 시간입니다. 구덩이 안은 좁아서 여러 명이 동시에 있을 수 없으므로, 순서를 기다려야 할 때도 있습니다.

지하에는 두 번째 감옥도 있습니다. 이곳은 다른 죄수들이 갇혀 있던 곳으로, 성 그레고리오스의 감옥보다 약간 넓지만 역시 어둡고 음산합니다. 이 감옥에 내려가는 사람은 적지만, 더 깊은 경험을 원하는 사람들은 두 곳 모두 방문합니다. 지하에서 올라올 때는 다시 태어나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상징적 여정입니다.

수도원 밖으로 나와 주변을 걸어보는 것도 좋습니다. 수도원 뒤편에는 오래된 묘지가 있으며, 다양한 시대의 하치카르가 서 있습니다. 일부는 수백 년 된 것으로, 정교한 십자가와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묘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는 작은 언덕이 있고, 여기서 아라라트 산의 전망이 더 좋습니다. 많은 사진가들이 이 언덕에서 수도원과 아라라트 산을 함께 담은 사진을 찍습니다.

(그레고리오 성인이 13년간 구금된 지하 감옥)

봄에 호르 비랍을 방문하면 주변 들판이 양귀비꽃으로 붉게 물듭니다. 붉은 꽃밭, 고대 수도원, 눈 덮인 아라라트 산이 어우러진 풍경은 마치 그림 같습니다. 여름에는 포도가 익어가는 과정을 볼 수 있고, 가을에는 추수하는 농부들의 모습이 전원적 평화를 더합니다. 겨울에는 눈이 쌓여 모든 것이 하얗게 뒤덮이고, 아라라트 산과 수도원이 하나의 색으로 통일되는 몽환적 풍경이 펼쳐집니다.

호르 비랍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단순히 역사적 장소가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뿌리입니다. 기독교 개종은 아르메니아 역사의 전환점이었으며, 이후 아르메니아 문화와 예술, 문학이 모두 기독교를 중심으로 발전했습니다. 호르 비랍에 서면 아르메니아가 얼마나 오랜 기독교 역사를 가진 나라인지 실감할 수 있습니다.

호르 비랍을 내려다보는 아라라트 산은 복잡한 감정을 불러일으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의 마음속 성산이지만 지금은 터키 영토에 속해 있어 직접 갈 수 없습니다. 1915년 대학살(genocide,)과 그 이후의 역사로 인해 아라라트 산은 상실과 향수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동시에 아르메니아인들의 불굴의 의지와 생존을 상징하기도 합니다. 호르 비랍에서 아라라트를 바라보는 것은 개인적 감동을 넘어 민족적 경험입니다.

예레반에서 호르 비랍까지는 약 45킬로미터로, 차로 약 40분이면 도착합니다. 남쪽으로 M2 고속도로(highway,)를 타고 가다가 아르타샤트에서 표지판을 따라 수도원으로 향합니다. 길은 잘 포장되어 있고 찾기 쉽습니다. 택시를 이용할 수도 있고, 많은 여행사가 호르 비랍을 포함한 당일 투어를 제공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아르타샤트까지 미니버스를 타고, 거기서 택시나 도보로 수도원까지 갈 수 있습니다.

호르 비랍은 다른 명소와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근처에는 호르 비랍 와이너리(Khor Virap Winery,)가 있어 아르메니아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노라반크 수도원(Noravank Monastery,)이나 게하르드 수도원과 묶어서 하루 코스로 다녀올 수 있습니다. 아라라트 산의 전망은 아침이나 저녁이 가장 아름다우므로, 가능하다면 이 시간에 맞춰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일몰 무렵 아라라트 산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광경은 평생 잊을 수 없는 추억이 됩니다.

방문할 때는 경건한 마음가짐을 가지는 것이 중요합니다. 호르 비랍은 관광지이기도 여전히 활동 중인 수도원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의 성지입니다. 적절한 복장을 갖추고, 조용히 행동하며, 예배 중에는 방해하지 않도록 주의해야 합니다. 지하 감옥에 내려갈 때는 조심해야 합니다. 계단이 가파르고 미끄러울 수 있으므로 손잡이를 꼭 잡고 천천히 이동하세요. 밀실 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내려가기 전에

잘 생각해야 합니다.

호르 비랍을 떠나며 많은 사람들은 마음속에 깊은 인상을 간직합니다. 성 그레고리오스의 인내와 신앙, 한 민족의 극적인 개종, 잃어버린 성산의 아름다움과 슬픔이 모두 이 작은 수도원에 담겨 있습니다. 호르 비랍은 아르메니아를 이해하는 열쇠이며, 이곳을 방문하지 않고는 아르메니아를 제대로 알았다고 할 수 없습니다.

(5) 하그파트·사나힌 중세 학문의 쌍둥이 등대

아르메니아 북부 로리 지방의 데베드 협곡(Debed Gorge,)에는 두 개의 위대한 수도원이 있습니다. 하그파트(Haghpat,)와 사나힌(Sanahin,)은 서로 불과 몇 킬로미터 떨어져 있지만, 각각 독특한 역사와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10세기에 건립된 이 두 수도원은 중세 아르메니아의 가장 중요한 학문 중심지였으며, 1996년 함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이들은 아르메니아 건축의 걸작이자 중세 지식과 예술의 보고였습니다.

(하그파트 수도원)

하그파트 수도원은 976년에 바그라투니 왕조의 아쇼트 3세(Ashot III,) 왕의 아내 호스로바누시 여왕(Queen Khosrovanush,)에 의해 건립되었습니다. 하그파트는 아르메니아어로 '거대한 벽(huge wall,)'을 의미하며, 수도원의 웅장한 구조를 잘 표현합니다. 전설에 따르면 하그파트와 사나힌의 건설을 두고 아버지와 아들 건축가가 경쟁했다고 합니다. 아버지가 하그파트를, 아들이 사나힌을 지었는데, 하그파트가 완성되자 사나힌 쪽 사람들이 "여기 것이 더 낫다(this one is better,)"고 외쳤고, 그래서 '사나힌'이라는 이름이 붙었다고 합니다.

하그파트는 깊은 숲 속에 자리 잡고 있어 신비로운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수도원으로 가는 길은 좁고 구불구불하며, 주변은 고목(ancient tree,)과 이끼(moss,)로 뒤덮여 있습니다. 마을을 지나 언덕을 오르면 수도원이 나타나는데, 오래된 돌벽과 이끼 낀 지붕이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느껴집니다. 입구를 지나면 넓은 뜰이 있고, 여러 건물이 유기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하그파트의 중심은 성 니산 대성당(Cathedral of Saint Nshan,)입니다. 991년에서 1001년 사이에 건설된 이 성당은 십자가 형태의 평면과 높은 돔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부는 단순 장엄하며, 두꺼운 돌기둥이 천장을 받치고 있습니다. 벽에는 프레스코화의 흔적이 남아 있지만, 대부분은 시간의 흐름 속에 사라졌습니다. 성당의 음향은 뛰어나 작은 속삭임도 돔 아래에서 증폭됩니다. 중세 시대 수도사들의 성가가 이곳에서 울려 퍼졌을 때의 장엄함을 상상할 수 있습니다.

성당 옆에는 13세기에 건설된 종탑(bell tower,)이 있습니다.. 이 종탑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종탑 중 하나로, 4층 구조에 정교한 아치와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종은 지금도 울리며, 그 소리는 협곡에 메아리쳐 멀리까지 들립니다. 종탑에 오르면 주변 산과 계곡의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멀리 사나힌 수도원도 보이며, 두 수도원이 서로를 지켜보는 듯합니다.

하그파트의 가장 독특한 건축물은 서적실입니다. 13세기에 건설된 이 건물은 필사본과 책을 보관하던 곳으로,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오래된 도서관 건물입니다. 두꺼운 돌벽과 작은 창문은 책을 숨기와

햇빛으로부터 보호했습니다. 내부에는 책을 보관하던 선반의 흔적이 남아 있습니다. 이곳에서 수백 권의 귀중한 필사본이 만들어지고 보관되었습니다.

하그파트 필사실은 중세 아르메니아 학문의 중심이었으며, 많은 학자들이 이곳에서 공부하고 저술했습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여러 하치카르가 서 있습니다. 그 중 가장 유명한 것은 '구원의 십자석'으로, 1273년에 조각가 바흐람(Vahram,)이 만든 걸작입니다. 하치카르는 복잡하고 섬세한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으며, 중앙의 십자가를 둘러싼 식물 무늬와 기하학적 패턴이 조화를 이룹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석공 예술의 정점으로 평가받으며, 많은 예술가와 학자들이 연구하는 대상입니다.

하그파트 수도원에는 식당 건물도 잘 보존되어 있습니다. 이 건물은 1257년에 건설되었으며, 높은 천장과 넓은 홀이 인상적입니다. 중세 시대 수도사들은 여기서 침묵 속에 식사를 했으며, 한 사람이 성경 구절이나 성인전을 낭독했습니다. 식당 한쪽에는 작은 설교단이 있어 낭독자가 그곳에 앉았습니다. 건물의 음향 설계 덕분에 낭독자의 목소리가 전체 공간에 고르게 퍼졌습니다.

하그파트에서 몇 킬로미터 떨어진 곳에 사나힌 수도원이 있습니다. 사나힌은 하그파트와 거의 같은 시기에 건설되었지만, 더 학문적 성격이 강했습니다.

사나힌 아카데미(Sanahin Academy,)는 중세 시기 수학, 천문학, 철학, 신학을 가르치는 최고 수준의 교육 기관이었습니다. 그리고르 마기스트로스(Grigor Magistros,), 오한네스 사르카바그(Hovhannes Sarkavag,) 같은 위대한 학자들이 이곳에서 가르쳤습니다.

사나힌은 하그파트보다 더 개방적인 위치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마을과 가까워 접근이 쉽고, 주변 경치도 더 탁 트여 있습니다. 수도원 입구에는 오래된 다리가 있는데, 이 돌다리는 12세기에 건설되었으며 지금도 사용되고 있습니다. 다리 한쪽에는 고양이 조각이 있어 여행자들의 관심을 끄니다. 전설에 따르면 이 고양이는 다리를 건설한 여성 건축가를 상징한다고 합니다.

(사나힌 수도원)

사나힌의 주요 교회는 성모 마리아 대성당(Cathedral of the Mother of God,)입니다. 934년에서 966년 사이에 건설된 이 성당은 하그파트의 성당보다 약간 이르며, 유사한 건축 양식을 보여줍니다. 내부는 더 어두운 편이지만, 그것이 오히려 명상적인 분위기를 만듭니다. 제단 근처에는 오래된 이콘들이 보관되어 있으며, 일부는 수백 년 된 것입니다.

성당 옆에는 구세주 교회(Church of the Savior,)가 있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957년에 건설되었으며, 두 교회를 연결하는 가비트 건물이 독특합니다. 가비트(Gavit,)은 교회 입구 홀로, 예배 전 신자들이 모이거나 중요한 행사를 치르던 공간입니다. 사나힌의 가비트는 크고 아름다우며, 천장은 복잡한 돌 아치로 지탱됩니다. 빛이 들어오는 방식이 계산되어 있어, 하루 중 시간에 따라 실내 분위기가 극적으로 변합니다.

사나힌 도서관 건물은 1063년에 건설되었으며, 하그파트의 서적실보다 크고 정교합니다. 이 건물은 책 보관소 뿐만 아니라 학습 공간이기도 했습니다. 학생들은 여기서 필사본을 읽고, 토론하고, 연구

했습니다. 벽에는 학문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지혜는 어둠 속의 빛이며, 무지의 사슬을 끊는 열쇠다”라는 문구는 중세 학자들의 정신을 잘 보여줍니다.

사나히에도 수많은 하치카르가 있습니다. 그 중 일부는 매우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학자들의 주목을 받습니다. 한 하치카르에는 천문학적 기호가 새겨져 있어, 이곳에서 천문학이 연구되었음을 증명합니다. 또 다른 하치카르에는 수학 공식으로 보이는 기호들이 있어, 사나히 아카데미의 학문적 수준을 짐작케 합니다.

두 수도원 모두 종탑을 가지고 있지만, 그 스타일은 약간 다릅니다. 하그파트의 종탑은 더 견고하고 군사적인 느낌을 주는 반면, 사나히의 종탑은 더 우아하고 장식적입니다. 이는 두 수도원의 성격 차이를 반영합니다. 하그파트는 더 폐쇄적이고 요새 같은 반면, 사나히는 더 개방적이고 학문적이었습니다.

두 수도원 사이의 관계는 경쟁적이면서도 협력적이었습니다. 때로는 학문적 우위를 놓고 경쟁했지만, 위기 시에는 서로 도왔습니다. 몽골 침입 시기에 한 수도원이 공격받으면, 다른 수도원이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필사본도 서로 교환하며 지식을 공유했습니다. 이런 협력 덕분에 많은 귀중한 문헌이 보존될 수 있었습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히는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었습니다. 이곳은 중세 아르메니아의 지적 중심지였습니다. 철학자, 신학자, 수학자, 천문학자, 의사, 음악가들이 모여 지식을 교환했습니다. 일부 학자들은 그리스어, 시리아어, 아랍어 문헌을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했고, 이를 통해 고대 지식이 보존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유럽의 르네상스보다 수백 년 앞서, 이곳에서는 고전 학문의 부흥이 일어나고 있었습니다.

두 수도원의 필사본은 예술작품이기도 했습니다. 필사사들은 단순히 텍스트를 복사하는 것이 아니라, 각 페이지를 아름답게 장식했습니다. 여백에는 동물, 식물, 기하학적 문양이 그려졌고, 중요한 장의 첫 글자는 금박으로 장식되었습니다. 일부 필사본에는 당시 생활상을 보여주는 삽화가 있어, 역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음악도 두 수도원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했습니다. 샤라칸을 작곡하고 가르치는 음악 학교가 있었습니다. 일부 작곡가들은 새로운 선율을 창작했고, 이는 아르메니아 전례 음악의 발전에 기여했습니다. 음악은 기억법으로도 사용되었습니다. 긴 텍스트를 외울 때 선율에 맞춰 노래하면 더 쉽게 기억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히의 건축은 지진에 대한 깊은 이해를 보여줍니다. 이 지역은 지진대에 위치해 있어 역사상 여러 차례 강진을 겪었습니다. 두 수도원은 천 년이 넘도록 서 있습니다. 비밀은 유연한 구조에 있습니다. 돌들은 정교하게 맞물려 있지만, 약간의 움직임이 허용됩니다. 지진이 발생하면 건물 전체가 약간 흔들리지만 무너지지 않습니다. 이는 현대 내진 설계의 원리와 같습니다.

주변의 자연도 아름답습니다. 데베드 강이 깊은 협곡을 만들며 흐르고, 양쪽으로 녹음이 우거진 산이 솟아 있습니다. 봄에는 계곡이 초록으로 물들고, 여름에는 시원한 강바람이 불어옵니다. 가을에는 단풍이 들어 협곡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눈이 쌓여 수도원이 더욱 고요하고 신비로워집니다.

두 수도원을 모두 방문하려면 하루가 필요합니다. 예레반에서 출발하면 북쪽으로 약 160킬로미터를 가야 하며, 차로 약 2시간 반이 걸립니다. 길은 산을 넘어가므로 구불구불, 경치가 아름다워 지루하지 않습니다. 알라베르디(Alaverdi,) 마을을 거쳐 가는데, 이 마을은 옛날 구리 광산으로 유명했습니다. 지금은 조용한 곳이지만, 소련 시대의 산업 유산이 곳곳에 남아 있습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힌 사이는 약 10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차로 15분이면 이동할 수 있습니다. 걷기를 좋아하는 사람은 두 수도원 사이를 하이킹할 수도 있습니다. 산길을 따라 약 2시간 걸으면 도착하며, 도중에 데베드 협곡의 아름다운 전망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길은 잘 표시되어 있지만, 가이드나 지도를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두 수도원 사이를 걸어서 트레킹하는 방법은 '세계유산 트레일(World Heritage Trail)'이라고 불리는 하이킹 코스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하이킹 코스는 사나힌 수도원에서 시작해서 하그파트 수도원까지 이어지며, 총 거리는 약 11.8킬로미터입니다. 소요 시간은 약 3.5-4시간 정도이며, 중간 난이도의 코스입니다. 고도는 해발 830-1,040미터 사이이며, 트레일의 100%가 잘 보입니다. 코스 중간에는 1233년에 지어진 카안 요새(Kayan Fortress)로 가는 짧은 샛길도 있습니다. 트레일은 데베드 강 협곡을 따라 이어지며, 높은 절벽과 숲, 초원, 시골 마을을 지나갑니다. 길에는 아르메니아 하이커 협회가 설치한 하얀색-빨간색-하얀색 표시가 있어서 길을 찾기 쉽습니다.

두 수도원 근처에는 작은 카페와 식당이 있어 점심을 먹을 수 있습니다. 현지 음식인 하쉬(Khash, , 소발 수프)나 징기알로프 하츠(Zhingyalov Hats, , 허브 빵)를 맛볼 수 있습니다. 현지 주민들은 매우 친절하며, 수도원에 대한 이야기를 들려주기를 좋아합니다. 일부 가정에서는 홈스테이를 제공하기도 하므로, 하룻밤 묵으며 조용한 시골 생활을 경험할 수도 있습니다.

하그파트는 소비에트 시대 노벨 문학상 수상자인 윌리엄 사로얀(William Saroyan,)의 조상이 살던 마을이기도 합니다. 그는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작가로, 고향을 그리워하며 많은 작품을 썼습니다. 유언에 따라 유골의 절반은 아르메니아에, 절반은 미국에 묻혔습니다. 하그파트 마을에는 그를 기념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두 수도원을 방문할 때는 충분한 시간을 가지고 천천히 둘러보는 것이 좋습니다. 각 수도원에 최소 2시간씩 할애하면, 건축물을 자세히 살펴보고 주변을 산책하며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조용한 아침 시간이나 저녁 무렵에 방문하면 관광객이 적어 더 평화로운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일요일 아침에 방문하면 예배에 참석할 수도 있습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힌은 어려운 시기에도 학문과 예술을 지켜낸 증거입니다. 외침과 박해 속에서도 이곳의 수도사들은 책을 필사하고, 학생들을 가르치고, 지식을 보존했습니다. 그들의 헌신 덕분에 아르메니아 문화는 살아남았고,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난방도 제대로 되지 않는 추운 겨울, 촛불 아래서 책을 필사하던 수도사들의 모습을 상상하면 저절로 고개가 숙여집니다. 그들이 보존한 지식은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니라, 오늘날 우리가 누리는 문명의 기초입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힌은 지식이 얼마나 소중한지, 그것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많은 희생이 필요한지를 일깨워주는 장소입니다.

(6) 노라반크 붉은 협곡에 새긴 예술혼

노라반크(Noravank,)는 아르메니아 남부 바요츠 조르 주(Vayots Dzor Province,)의 아마구 협곡 끝자락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노라반크는 아르메니아어로 '새 수도원'을 의미, 이 수도원은 이미 천 년 가까운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주변을 둘러싼 붉은 바위 절벽과 어우러진 수도원의 모습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풍경 중 하나로 꼽힙니다.

노라반크의 역사는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재 건물들은 대부분 13세기와 14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시기 노라반크는 오르벨리안 가문(Orbelian family,)의 후원을 받았습니다. 오르벨리안 가문은 시유니크 지방의 유력한 귀족이었으며, 수도원을 가문의 영묘이자 문화 중심지로 만들었습니다. 가문의 주교들이 이곳에 묻혔고, 많은 재산이 수도원에 기증되었습니다.

예레반에서 노라반크까지는 남동쪽으로 약 120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차로 약 2시간이 걸리며, 마지막 구간은 아마구 협곡을 따라 들어갑니다. 협곡으로 들어서면 양쪽으로 붉은 절벽이 솟아 있고, 길은 점점 좁아집니다. 이 협곡은 수백만 년에 걸쳐 물이 깎아낸 것으로, 바위층의 붉은색은 철분이 산화되어 생긴 것입니다. 햇빛에 따라 색이 변하는데, 아침에는 밝은 오렌지색, 정오에는 선명한 빨간색, 저녁에는 깊은 자주색을 띠니다.

협곡 끝에 도착하면 갑자기 시야가 열리며 노라반크가 나타납니다. 붉은 절벽을 배경으로 서 있는 황갈색 수도원은 마치 자연의 일부처럼 보입니다. 주차장에서 수도원까지는 짧은 산책로가 이어지며, 주변에는 야생화와 허브가 자라고 있습니다. 봄에는 야생 장미와 양귀비가 피어 길을 수놓고, 여름에는 백리향과 오레가노 향이 공기를 가득 채웁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세 개의 주요 건물이 있습니다. 가장 오래된 것은 성 카라페트 교회(Saint Karapet Church,)로, 9세기에서 10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작은 교회는 소박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으며, 초기 아르메니아 건축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내부는 어둡고 좁지만, 그것이 오히려 경건한 분위기를 만듭니다. 벽에는 오래된 프레스코화의 흔적이 희미하게 남아 있습니다.

두 번째 건물은 성 그리고리 교회(Saint Grigor Church,)로, 1275년에 건설되었습니다. 이 교회는 오르벨리안 가문의 영묘로 사용되었으며, 내부에는 가문 구성원들의 묘가 있습니다. 교회 입구 위의 тимпан에는 섬세한 조각이 있는데, 그리스도와 베드로, 바울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주변에는 사자, 독수리, 황소 같은 동물이 새겨져 있어, 복음서 저자들을 상징합니다.

노라반크의 진정한 보석은 성모 마리아 교회(Church of the Holy Mother of God,)입니다. 1339년에 완성된 이 2층 건물은 건축가 모무크(Momik,)의 걸작입니다. 모무크는 당대 최고의 건축가이자 조각가였으며, 노라반크를 그의 생애 최고의 작품으로 만들었습니다. 이 교회는 아르메니아 건축사에서 독특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2층 구조로 된 교회는 드물며, 외부 계단으로 올라가는 디자인은 매우 혁신적이었습니다.

1층은 오르벨리안 가문의 영묘로 사용되었습니다. 어두운 내부에는 묘비들이 놓여 있고, 벽에는 가문의 문장이 새겨져 있습니다. 천장은 낮고, 분위기는 엄숙합니다. 이곳은 죽음과 영원을 묵상하는

공간이었습니다.

2층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교회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입니다. 좁은 돌계단이 건물 외벽을 따라 수직으로 올라갑니다. 계단은 양쪽이 모두 뿔려 있어 아찔합니다. 중세 시대에는 난간도 없었으니, 올라가는 것 자체가 신앙의 시험이었을 것입니다. 지금은 안전을 위해 간단한 손잡이가 설치되어 있지만, 여전히 올라가려면 용기가 필요합니다. 많은 방문객들이 계단 아래에서 올려다보기만 하고 올라가지 못합니다.

용기를 내어 계단을 오르면 2층 예배당에 도달합니다. 이 작은 공간은 빛으로 가득합니다. 사방에 창문이 있어 햇빛이 쏟아져 들어오고, 이는 천국을 상징합니다. 1층의 어둠과 2층의 빛은 죽음에서 부활로, 땅에서 하늘로의 여정을 나타냅니다. 이 예배당에서 내려다보는 협곡의 전망은 숨이 멎을 만큼 아름답습니다.

교회 외벽의 조각은 예술의 극치입니다. 모무크는 돌을 마치 나무처럼 섬세하게 다루었습니다. 입구 위의 틱파눔에는 하느님이 아기 예수를 안고 있는 모습이 조각되어 있고, 주변에는 천사들이 에워싸고 있습니다. 천사들의 날개, 옷의 주름, 얼굴 표정까지 모두 생생하게 표현되어 있습니다. 이는 13세기 아르메니아 조각 예술의 정점입니다.

건물 기둥에도 복잡한 문양이 새겨져 있습니다. 포도넝쿨, 석류, 꽃 같은 식물 문양과 기하학적 패턴이 어우러져 있습니다. 각 기둥이 조금씩 다른 디자인을 가지고 있어, 하나하나 살펴보는 재미가 있습니다. 모무크는 이 조각들에 자신의 서명을 남겼는데, "모무크, 나는 죄인이지만, 신의 은총으로 이 작품을 완성했다"라는 겸손한 문구를 새겼습니다.

수도원 경내에는 수많은 하치카르가 있습니다. 그 중 많은 것이 모무크의 작품입니다. 그는 하치카르 제작의 대가이기도 했으며, 노라반크에 최소 5개의 걸작 하치카르를 남겼습니다. 가장 유명한 것은 1308년에 제작된 것으로, 중앙의 십자가를 둘러싼 문양이 마치 레이스처럼 섬세합니다. 십자가 아래에는 예수의 십자가 처형 장면이 작은 부조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노라반크 주변의 자연은 수도원의 아름다움을 더합니다. 붉은 절벽은 시간에 따라 색이 변하며, 일몰 무렵이 가장 극적입니다. 해가 지면서 절벽이 불타는 듯한 빨간색으로 물들고, 수도원은 이 붉은 배경 앞에서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많은 사진가들이 이 순간을 포착하기 위해 노라반크를 찾습니다.

협곡에는 다양한 새들이 서식합니다. 독수리가 높은 하늘을 선회하고, 제비가 절벽 틈새에 둥지를 틀니다. 봄에는 철새들이 돌아와 노래하며, 여름 밤에는 올빼미의 울음소리가 들립니다. 동물로는 산양, 여우, 토끼 등을 볼 수 있으며, 운이 좋으면 멸종 위기의 코카서스 레오파드(Caucasian leopard,)의 흔적을 발견할 수도 있습니다.

노라반크 근처에는 작은 카페가 있어 휴식을 취할 수 있습니다. 현지에서 생산된 와인과 치즈를 맛볼 수 있으며, 바요츠 조르 지방은 아르메니아 최고의 와인 산지 중 하나입니다. 아레니(Areni,) 포도로 만든 레드 와인은 세계적으로 인정받고 있습니다. 가까운 아레니 마을에는 와인 너리들이 있어 와인 시음 투어를 할 수 있습니다.

노라반크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늦은 오후입니다. 관광객이 줄어들고, 햇빛이 부드러워지며, 협곡의 색이 가장 아름다워집니다. 일몰을 수도원에서 보는 것은 잊을 수 없는 경험입니다. 일몰 후에는 어두워지므로, 헤드램프나 손전등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협곡 길이 가로등이 없어 밤에는

매우 어둡습니다.

여름에는 노라반크에서 음악 축제가 열립니다. 실내악 연주나 합창이 수도원 뜰에서 열리며, 붉은 절벽에 둘러싸인 자연 원형극장에서 듣는 음악은 특별합니다. 음향이 뛰어나 악기 소리가 협곡에 울려 퍼지고, 별이 총총한 밤하늘 아래서의 음악회는 마법 같습니다.

노라반크는 규모가 크지 않아 1시간에서 2시간이면 충분히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서두르지 말고 천천히 시간을 보내는 것이 좋습니다. 수도원 주변을 산책하고, 바위에 앉아 협곡을 바라보며, 고요함 속에서 자신을 돌아보는 시간을 가지세요. 이곳은 관광지이기도 하지만, 여전히 영적인 장소입니다.

노라반크 근처에 있는 아레니 동굴(Areni Cave,)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제조 시설이 발견된 곳입니다. 타테브 수도원도 같은 방향에 있어, 하루 코스로 함께 방문할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모무크의 천재성에 감탄합니다. 건축가, 조각가, 화가, 필사사로 다재다능했으며, 노라반크는 그의 모든 재능이 집약된 작품입니다. 붉은 협곡 속의 수도원은 인간의 창조성과 신앙이 만나 이룬 기적입니다. 자연의 장엄함과 인간 예술의 섬세함이 조화를 이루는 곳, 그것이 노라반크입니다.

(7) 세바나반크 세반 호수를 지키는 천년 진주

세바나반크(Sevanavank,)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큰 호수인 세반 호수(Lake Sevan,) 가에 자리 잡은 수도원입니다. 한때는 섬이었던 반도 위에 세워진 이 수도원은 푸른 호수와 하늘을 배경으로 서 있어,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그림 같은 장소 중 하나입니다. 세반 호수는 해발 1,900미터 고지에 위치한 고산 호수로, '코카서스의 진주'라 불립니다.

세바나반크의 역사는 874년으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시유니크의 공주 마리암(Princess Mariam,)이 이곳에 수도원을 건립했습니다. 당시 이곳은 본토에서 떨어진 섬이었으며, 오직 배로만 접근할 수 있었습니다. 이런 고립된 위치 때문에 엄격한 수도 생활을 원하는 수도사들에게 이상적인 장소였습니다. 또한 죄를 지은 성직자들이 참회하며 시간을 보내는 곳이기도 했습니다.

중세 시대 세바나반크는 중요한 영적 중심지였습니다. 최대 300명의 수도사가 거주했으며, 학교와 필사실을 운영했습니다. 수도원은 넓은 토지와 어업권을 소유하여 경제적으로 자립했습니다. 세반 호수는 송어가 풍부하여, 수도사들은 물고기를 잡아 식량으로 삼고 일부는 판매했습니다. 세반 송어(Sevan trout,)는 지금도 아르메니아의 별미로 유명합니다.

20세기에 세바나반크를 둘러싼 환경이 극적으로 변했습니다. 1930년대 소비에트 정부는 수력 발전과 관개를 위해 세반 호수의 수위를 낮추기로 결정했습니다. 호수에서 물을 퍼내자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고, 섬이었던 곳이 반도가 되었습니다. 호수 면적은 원래의 3분의 2로 줄어들었고, 생태계가 심각하게 파괴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환경 보호 운동이 시작되었고, 지금은 호수 수위를 회복시키는 노력이 진행 중입니다.

예레반에서 세바나반크까지는 북동쪽으로 약 70킬로미터 거리입니다. 차로 약 1시간이 걸리며, 길은 잘 포장되어 있습니다. 세반 호수로 가는 길은 아름답습니다. 도시를 벗어나면 산길을 오르게 되고, 고도가 높아질수록 기온이 낮아집니다. 여름에도 세반 호수는 예레반보다 10도 가까이 서늘하여,

아르메니아인들의 피서지로 인기가 많습니다.

호수가 보이기 시작하면 그 규모에 놀라게 됩니다. 세반 호수는 면적 1,240제곱킬로미터로, 한국의 소양호보다 훨씬 큼니다. 맑은 날에는 호수가 깊은 청록색을 띠며, 주변 산들이 호수에 반사되어 그림 같은 풍경을 만듭니다. 호수 이름인 세반은 아르메니아어로 '검은 수도원'을 의미하는데, 멀리서 보면 수도원이 어둡게 보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세반 마을에 도착하면 수도원으로 올라가는 계단이 보입니다. 계단은 총 250개 정도로, 조금 가파르지만 어렵지는 않습니다. 계단을 오르며 뒤를 돌아보면 호수의 전망이 점점 더 장관을 이룹니다. 중간중간 쉬어가며 사진을 찍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고도가 높아 숨이 약간 가빠질 수 있으므로, 천천히 오르는 것이 좋습니다.

계단을 다 오르면 수도원 경내에 도달합니다. 넓은 평지에 두 개의 교회가 서 있고, 주변은 오래된 하치카르들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원래는 세 개의 교회가 있었지만, 하나는 1930년대에 파괴되었습니다. 남아 있는 두 교회는 성 아라켈로츠(Holy Apostles,)와 성 아스트바차친(Holy Mother of God,)입니다.

성 아라켈로츠 교회는 두 교회 중 더 큰 것으로, 9세기에 건설되었습니다. 전형적인 아르메니아 십자가 형태의 교회로, 검은 화산암으로 지어졌습니다. 내부는 단순하고 어둡지만, 고요한 분위기가 명상에 적합합니다. 벽은 두껍고, 창문은 작아서 외부의 소음과 빛이 차단됩니다. 이는 수도사들이 오롯이 기도에 집중하도록 돕는 설계였습니다.

성 아스트바차친 교회는 조금 더 작지만, 같은 시기에 건설되었습니다. 두 교회는 비슷한 건축 양식을 가지고 있지만, 세부적인 장식에서 차이를 보입니다. 이 교회는 성모 마리아에게 봉헌되었으며, 내부에는 성모의 이콘이 있습니다. 많은 여성 순례자들이 이곳에서 자녀의 건강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수도원 경내에서 가장 인상적인 것은 호수의 전망입니다. 360도 파노라마 뷰로 세반 호수 전체를 조망할 수 있습니다. 북쪽으로는 호수가 끝없이 펼쳐지고, 남쪽으로는 세반 마을과 멀리 예레반 방향이 보입니다. 동쪽과 서쪽으로는 설산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바람이 불면 호수에 파도가 일어 마치 바다 같습니다.

수도원 주변에는 수십 개의 하치카르가 서 있습니다. 이들은 다양한 시대에 만들어진 것으로, 각기 다른 스타일과 문양을 가지고 있습니다. 일부는 단순한 십자가만 새겨져 있고, 다른 것들은 복잡한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각 하치카르 뒤에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어떤 것은 전쟁에서 죽은 전사를 기리고, 어떤 것은 수도원에 기부한 후원자를 기념합니다.

세바나반크는 역사적 장소일 뿐 아니라 자연의 아름다움을 즐기는 곳이기도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수도원을 둘러본 후 주변을 산책합니다. 반도 가장자리까지 걸어가면 호수가 더 가까이 보이고, 물소리를 들을 수 있습니다. 봄에는 야생화가 만발하고, 여름에는 푸른 풀밭이 펼쳐집니다. 가을에는 주변 산들이 황금빛으로 물들고, 겨울에는 호수가 얼어붙어 은빛 세계가 됩니다.

세반 호수는 여름 피서지로 유명합니다. 호수를 따라 많은 해변과 리조트가 있어, 수영하고 일광욕을 즐길 수 있습니다. 물은 차갑지만 맑고 깨끗합니다. 고산 호수라 여름에도 수온이 18도 정도밖에 되지 않아, 처음에는 차갑게 느껴지지만 곧 익숙해집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주말이면 가족과 함께 세반에 와서 하루를 보냅니다.

호수가를 따라 수많은 식당이 있으며, 신선한 세반 송어를 맛볼 수 있습니다. 구운 송어, 송어 케밥, 송어 수프 등 다양한 요리가 제공됩니다. '이슈칸(ishkhan,)'이라 불리는 세반 고유종 송어는 아르메니아의 자랑입니다. 안타깝게도 남획과 환경 파괴로 야생 이슈칸은 거의 멸종되었고, 지금은 양식한 송어를 주로 먹습니다.

세반 호수 주변에는 다른 볼거리도 많습니다. 북쪽 해안에는 노라투스(Noratus,)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에는 수백 개의 하치카르가 있어, 세계에서 가장 큰 하치카르 집합지입니다. 일부는 천 년이 넘었으며, 각각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노라투스를 걷는 것은 마치 야외 박물관을 거니는 것 같습니다.

동쪽 해안에는 하이라반크(Hayravank,)라는 작은 수도원이 있습니다. 9세기에 건설된 이 수도원은 세바나반크보다 덜 알려져 있지만, 더 조용하고 평화롭습니다. 호수가 바로 옆에 있어 물소리를 들으며 명상할 수 있습니다. 일몰 무렵 이곳에서 보는 호수의 전망은 아름답습니다.

세반 호수는 생물 다양성의 보고이기도 합니다. 다양한 새들이 서식하며, 펠리컨과 갈매기가 많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철새들이 이곳을 거쳐 가며, 조류 관찰가들에게 인기 있는 장소입니다. 호수에는 송어 외에도 다양한 물고기가 살며, 낚시가 허용된 구역에서는 스포츠 낚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세반 지역은 겨울 스포츠로도 유명합니다. 근처에 체르마크(Tsaghkadzor,) 스키 리조트가 있어,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습니다. 케이블카를 타고 산 정상에 오르면 세반 호수와 주변 산들의 설경이 한눈에 들어옵니다.

세바나반크를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부터 10월까지입니다. 여름에는 날씨가 좋고 호수가 가장 아름답지만, 관광객도 많습니다. 봄과 가을은 상대적으로 조용하며, 9월은 날씨도 좋고 사람도 적어 이상적입니다. 겨울에는 매우 춥고 바람이 강, 얼어붙은 호수의 풍경은 독특한 아름다움을 가지고 있습니다.

세반을 방문할 때는 따뜻한 옷을 준비하세요. 고도가 높아 예레반보다 훨씬 춥고, 호수가에서는 바람이 강하게 불니다. 여름에도 저녁에는 쌀쌀하므로 겔옷을 가져가는 것이 좋습니다. 세바나반크는 예레반에서 당일치기로 다녀오기 좋은 곳입니다. 세반에서 하룻밤 묵는 것도 좋습니다. 호수가의 일출과 일몰을 모두 볼 수 있고, 밤에는 별이 쏟아질 듯한 밤하늘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세반 마을과 주변에 다양한 숙박 시설이 있어 선택의 폭이 넓습니다.

세바나반크를 떠나며, 호수와 수도원의 평화로움을 마음에 새깁니다. 푸른 호수, 고요한 수도원, 맑은 공기, 그리고 주변 산들의 장엄함이 어우러져 완벽한 조화를 이룹니다. 세바나반크는 자연과 영성이 만나는 곳이며, 아르메니아의 아름다움을 대표하는 상징입니다.

(8) 수도원 네트워크, 신앙과 문화를 잇는 연결

아르메니아의 수도원들은 개별적인 종교 시설이 아니라, 거대한 네트워크를 형성했습니다. 이 네트워크는 영적, 문화적, 경제적으로 연결되어 아르메니아 사회의 중추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들 사이에는 끊임없는 교류가 있었고, 이를 통해 지식과 전통이 보존되고 전파되었습니다.

수도원 네트워크의 중심에는 에치미아진(Echmiadzin,) 대성당이 있었습니다. 에치미아진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총본산으로, 카톨릭코스가 거주하는 곳입니다. 모든 수도원은 에

치미아진의 영적 권위를 인정했으며, 중요한 결정은 카톨릭교소의 승인을 받았습니다. 매년 주요 축일에는 각 수도원의 대표들이 에치미아진에 모여 회의를 열고, 교회의 방향을 논의했습니다.

수도원들 사이에는 위계가 있었습니다. 일부 대형 수도원은 여러 작은 수도원을 관리했습니다. 타테브 수도원은 시유니크 지방의 작은 수도원들을 감독했으며, 하그파트는 북부 지역 수도원들의 중심이었습니다. 이런 위계는 행정적 효율성을 높이고, 자원을 효과적으로 분배하는 데 도움이 되었습니다.

수도사들은 수도원 사이를 자유롭게 이동했습니다. 젊은 수도사는 여러 수도원에서 공부하며 다양한 스승을 만났습니다. 일부는 특정 수도원에서 신학을, 다른 수도원에서 철학을, 또 다른 곳에서 음악을 배웠습니다. 이런 이동성 덕분에 지식과 기술이 전파되고, 개별 수도원의 장점이 공유되었습니다.

필사본 교환은 수도원 네트워크의 중요한 기능이었습니다. 한 수도원에서 귀중한 책을 입수하면, 다른 수도원에서 필사사를 보내 복사본을 만들었습니다. 때로는 책 자체를 빌려주기도 했습니다. 이 덕분에 지식이 보존되고 확산되었습니다. 몽골 침입 같은 위기 시에는 귀중한 필사본을 안전한 수도원으로 옮겨 보호했습니다.

경제적으로도 수도원들은 협력했습니다. 흉년이 든 수도원은 흉년을 겪는 수도원에 식량을 보냈습니다. 화재나 지진으로 피해를 입은 수도원은 다른 수도원들의 지원을 받아 재건했습니다. 부유한 수도원은 가난한 수도원의 학생들에게 장학금을 제공했습니다. 이런 상호 지원 시스템 덕분에 모든 수도원이 생존하고 기능할 수 있었습니다.

순례는 수도원 네트워크를 강화하는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신자들은 여러 수도원을 순례하며 영적 성장을 추구했습니다. 일부는 일생에 한 번 주요 수도원들을 모두 방문하는 대순례를 했습니다. 순례자들은 각 수도원의 이야기를 다른 곳에 전하며, 수도원들 사이의 유대를 강화했습니다. 순례는 또한 경제적으로도 중요했습니다. 순례자들의 헌금과 기부금이 수도원 운영의 중요한 재원이었기 때문입니다.

수도원 네트워크는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 중요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독립 국가가 아니었던 수백 년 동안, 수도원들은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지키는 마지막 보루였습니다. 정치적 중심이 없을 때, 에치미아진의 카톨릭교소가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지도자 역할을 했습니다. 외국 통치자들도 이를 인정하여, 아르메니아 공동체와의 소통을 위해 카톨릭교소와 협상했습니다.

교육 네트워크로서의 역할도 중요했습니다. 각 수도원은 특정 분야에 전문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타테브는 신학과 철학으로, 하그파트와 사나힌은 자연과학으로, 글라자르(Gladzor,)는 법학으로 유명했습니다. 학생들은 자신의 관심사에 따라 적절한 수도원을 선택했고, 졸업 후에는 전국 각지에서 교사로 활동했습니다. 이런 교육 네트워크 덕분에 아르메니아는 중세 시기 높은 문해율을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예술과 건축 기술도 수도원 네트워크를 통해 전파되었습니다. 뛰어난 건축가나 조각가는 여러 수도원의 건설에 참여했습니다. 모무크 같은 거장은 노라반크뿐 아니라 다른 수도원들의 작품도 남겼습니다. 젊은 예술가들은 거장의 작업을 보조하며 기술을 배웠고, 나중에 독립하여 자신의 작품을 만들었습니다. 이런 전승 시스템 덕분에 아르메니아 건축과 조각의 독특한 스타일이 유지되고 발전했습니다.

음악 전통도 수도원 네트워크를 통해 보존되었습니다. 각 수도원은 고유한 사라칸 레퍼토리를 가지고 있었지만, 중요한 곡은 빠르게 다른 수도원으로 전파되었습니다. 음악가들은 수도원을 순회하며 새로운 선율을 가르쳤습니다. 연례 음악 경연대회가 열려 각 수도원의 성가대가 실력을 겨루기도 했습니다. 이런 교류 덕분에 아르메니아 전례 음악의 통일성과 다양성이 동시에 유지되었습니다.

의학 지식도 공유되었습니다. 각 수도원은 약초 정원을 가지고 있었고, 수도사들은 약초의 치료 효과를 연구했습니다. 새로운 치료법이 발견되면 다른 수도원과 공유했습니다. 일부 수도원은 의학 전문 서적을 소장하고 있었는데, 이를 필사하여 다른 수도원에 배포했습니다. 중세 아르메니아의 의학 수준이 상당히 높았던 것은 이런 지식 공유 덕분이었습니다.

수도원 네트워크는 재난 시 구호 시스템으로도 기능했습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재난이 발생하면, 영향을 받지 않은 수도원들이 즉시 구호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식량, 의약품, 숙소를 제공하고, 고아들을 받아들여 키웠습니다. 난민들은 수도원에서 임시 거처를 찾았고, 생계를 재건할 때까지 지원을 받았습니다. 이런 사회 안전망 덕분에 아르메니아 사회는 반복되는 위기를 견딜 수 있었습니다.

외교적으로도 수도원 네트워크는 중요했습니다. 외국의 교회나 정치 지도자들과의 소통은 주로 수도원을 통해 이루어졌습니다. 사절단은 수도원을 방문하여 환대를 받고, 회의를 개최했습니다. 중요한 문서는 수도원에서 작성되고 번역되었습니다. 십자군 시대에는 서유럽 기독교 세계와의 관계가 수도원을 통해 유지되었습니다.

수도원 네트워크는 또한 정보 전달 시스템이었습니다. 한 지역에서 중요한 일이 발생하면, 소식은 수도사들을 통해 빠르게 전국으로 퍼졌습니다. 왕의 즉위, 전쟁의 발발, 중요한 인물의 사망 같은 뉴스는 수도원 네트워크를 통해 전달되었습니다. 이는 우편 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았던 시대에 매우 효율적인 소통 방법이었습니다.

영적으로 수도원 네트워크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정체성의 근간이었습니다.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도 수도원들은 아르메니아 문화와 언어를 보존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가 공식적으로 사용되지 않는 시기에도, 수도원에서는 계속 아르메니아어로 예배를 드리고 가르쳤습니다. 이 덕분에 아르메니아는 수세기에 걸친 외세 지배에도 불구하고 고유한 정체성을 잃지 않았습니다.

현대에도 수도원 네트워크의 유산은 살아있습니다. 독립 아르메니아에서 수도원들은 다시 활기를 되찾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이 수도 생활을 선택하고, 수도원 학교들이 재개되고 있습니다. 에치미아진은 여전히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중심이며, 전 세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영적 구심점입니다.

수도원 네트워크는 단순히 과거의 유물이 아닙니다. 이는 공동체, 지식 공유, 상호 지원의 가치를 보여주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오늘날 세계가 직면한 많은 문제들 - 분열, 고립, 지식의 독점 - 에 대한 해답을 아르메니아 수도원 네트워크의 역사에서 찾을 수 있을지도 모릅니다. 협력과 공유를 통해 개별 공동체가 번영하고, 전체 사회가 강해지는 모델을 중세 아르메니아 수도원들은 이미 실천하고 있었습니다.

3. 하치카르 (십자석), 돌에 새긴 기도, 영원을 향한 예술

하치카르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가장 독특하고 아름다운 표현 중 하나입니다. 하치카르는 아르메니아어로 '십자가 돌'을 의미하며, 돌에 십자가와 복잡한 문양을 새긴 석비입니다. 수천 개의 하치카르가 아르메니아 전역에 흩어져 있으며, 각각이 고유한 디자인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하치카르는 단

순한 기념비가 아니라, 신앙, 예술, 역사가 하나로 융합된 문화유산입니다.

하치카르의 기원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초기 형태는 단순했습니다. 평평한 돌에 간단한 십자가를 새긴 것이 전부였습니다. 시간이 지나면서 디자인이 점점 복잡해지고 정교해졌습니다. 10세기와 11세기에 하치카르 예술은 꽃을 피웠고, 12세기와 13세기에 절정에 이르렀습니다. 이 시기의 하치카르는 믿을 수 없을 만큼 섬세한 조각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하치카르의 기본 구조는 비교적 일정합니다. 직사각형 돌판의 중앙에 십자가가 있고, 십자가 아래에는 태양이나 생명의 바퀴를 상징하는 원형 문양이 있습니다. 십자가 주변과 여백은 다양한 문양으로 채워집니다. 가장 흔한 문양은 포도넝쿨, 석류, 꽃, 별, 기하학적 패턴입니다. 각 요소는 상징적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십자가는 당연히 그리스도의 십자가 처형을 나타냅니다. 아르메니아 하치카르의 십자가는 독특한 형태를 가지고 있습니다. 네 팔의 끝이 넓어지거나 꽃잎 모양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는 십자가가 죽음의 상징이 아니라 생명과 부활의 상징임을 강조합니다. 십자가는 종종 생명의 나무로 표현되며, 가지에는 잎과 꽃이 자라납니다.

포도넝쿨은 흔한 장식 모티프입니다. 포도는 성찬식의 포도주를 상징하며, 그리스도의 피를 나타냅니다. 넝쿨은 교회 공동체를 상징하며, 각 포도송이는 신자를 나타냅니다. 석류는 부활과 영원한 생명을 상징합니다. 석류의 수많은 씨앗은 교회의 많은 구성원을 나타내기도 합니다.

별과 태양 문양은 하늘과 영원함을 상징합니다. 팔각별은 흔한데, 이는 부활을 나타냅니다. 그리스도는 일요일, 즉 일주일의 여덟째 날에 부활했다고 여겨졌기 때문입니다. 원형 문양은 영원함과 완전함을 나타냅니다. 시작도 끝도 없는 원은 하느님의 무한함을 상징합니다.

기하학적 패턴은 우주의 질서와 조화를 표현합니다. 대칭적이고 반복적인 문양은 창조의 수학적 완벽함을 나타냅니다. 학자들은 이런 문양이 고대 아르메니아의 기독교 이전 상징에서 유래했다고 주장합니다. 십자가와 이교적 상징이 융합되어 독특한 아르메니아 기독교 예술이 탄생했다는 것입니다.

하치카르를 만드는 과정은 오랜 시간과 높은 기술을 요구했습니다. 먼저 적절한 돌을 선택해야 했습니다. 주로 화산암이나 석회암을 사용했는데, 이들은 조각하기 쉬우면서도 내구성이 좋았습니다. 돌을 평평하게 다듬은 후, 장인은 디자인을 스케치했습니다. 그 다음 끌과 망치를 사용하여 조심스럽게 문양을 새겼습니다.

하치카르를 만드는 데는 몇 달에서 몇 년이 걸렸습니다. 장인은 매일 몇 시간씩 작업했으며, 각 세부 사항에 정성을 쏟았습니다. 일부 하치카르는 레이스처럼 섬세하여, 돌이 아니라 천으로 만든 것 같습니다. 이런 기술 수준에 도달하려면 수십 년의 경험이 필요했습니다.

하치카르 장인은 존경받는 직업이었습니다. 유명한 장인의 작품은 높은 가격에 거래되었고, 부유한 후원자들이 그들에게 주문했습니다. 일부 장인은 자신의 이름을 작품에 새겼습니다. 예를 들어 티모테(Timote,), 바흐람, 모무크 같은 이름이 하치카르에서 발견됩니다. 이들의 작품은 오늘날 박물관의 보물로 여겨집니다.

하치카르는 다양한 목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가장 흔한 것은 묘비였습니다. 사망한 사람을 기리고 영혼의 평화를 기원하기 위해 세웠습니다. 부유한 가문은 화려한 하치카르를 주문하여 가문의 위상

을 과시했습니다. 묘비 하치카르에는 종종 비문이 새겨져 있어, 고인의 이름, 사망 날짜, 때로는 짧은 전기나 기도문이 적혀 있습니다.

승리를 기념하는 하치카르도 있었습니다. 전쟁에서 이긴 후, 왕이나 장군은 하치카르를 세워 승리를 기록했습니다. 일부는 평화 조약을 기념하거나, 중요한 정치적 사건을 표시했습니다. 이런 하치카르는 역사적 기록으로서의 가치를 가집니다.

순례 기념 하치카르도 많았습니다. 성지 순례를 마친 사람이 하치카르를 세워 여정을 기념했습니다. 일부 순례자는 자신이 방문한 각 성지에 하치카르를 남겼습니다. 이런 하치카르는 종종 순례 경로를 표시하는 이정표 역할을 했습니다.

기부 기념 하치카르도 있었습니다. 교회나 수도원에 큰 기부를 한 사람은 하치카르를 세워 자신의 선행을 기록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자랑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에게 기부를 장려하는 의미도 있었습니다. 하치카르에는 기부자의 이름과 기부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치유와 기적을 기념하는 하치카르도 있었습니다. 병에서 회복한 사람이나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 감사의 표시로 하치카르를 세웠습니다. 일부 하치카르는 특정 성인에게 봉헌되었으며, 사람들은 그 성인의 중재를 구하기 위해 하치카르를 방문했습니다.

하치카르는 단순히 돌 기념비가 아니라 영적인 힘을 가진 것으로 여겨졌습니다. 사람들은 하치카르 앞에서 기도하고, 촛불을 켜고, 소원을 빌었습니다. 일부 하치카르는 기적을 일으킨다고 믿어졌습니다. 병자가 하치카르를 만지면 치유되고, 불임 여성이 하치카르에 기도하면 아이를 가질 수 있다고 믿어졌습니다.

하치카르는 보호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마을 입구나 다리, 우물 옆에 세워진 하치카르는 그 장소를 축복하고 악으로부터 보호한다고 믿어졌습니다. 일부 하치카르에는 보호를 구하는 기도문이 새겨져 있습니다. “하느님, 이 마을과 주민들을 보호하소서” 같은 문구입니다.

아르메니아 전역에는 수만 개의 하치카르가 있습니다. 가장 유명한 하치카르 집합지는 노라투스 모지입니다. 여기에는 약 900개의 하치카르가 있으며, 가장 오래된 것은 9세기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노라투스를 걷는 것은 하치카르 예술의 진화를 직접 보는 것과 같습니다. 단순한 초기 디자인에서 복잡한 후기 걸작까지 모든 단계를 볼 수 있습니다.

게하르트, 하그파트, 세바나반크 같은 수도원들도 많은 하치카르를 보유하고 있습니다. 각 수도원은 고유한 스타일의 하치카르를 가지고 있어, 전문가가 하치카르를 보고 어느 지역에서 만들어졌는지 알 수 있습니다. 북부 지역 하치카르는 더 기하학적이고 엄격한 반면, 남부 지역 하치카르는 더 유기적이고 자유로운 경향이 있습니다.

2010년 하치카르 조각과 상징은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유네스코는 하치카르를 “아르메니아 기독교 신앙과 민족 정체성의 독특한 표현”으로 평가했습니다. 이 등재는 하치카르 예술을 보존하고 전승하는 노력에 큰 힘이 되었습니다.

안타깝게도 많은 하치카르가 역사 속에서 파괴되었습니다. 외세의 침입 시 파괴되거나, 건축 자재로 재사용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의 나히체반(Nakhchivan,) 지역에서는 수천 개의 아르메니아 하치카르가 체계적으로 파괴되었습니다. 2005년 아제르바이잔 군대는 줄파(Jughha,

)의 고대 하치카르 묘지를 완전히 파괴했습니다. 이는 문화적 제노사이드로 규탄받았지만, 이미 파괴된 하치카르는 돌아오지 않습니다.

다행히 아르메니아에서는 하치카르 예술이 살아있습니다. 현대 장인들이 전통 기술을 배우고 새로운 하치카르를 만들고 있습니다. 일부는 전통적 디자인을 충실히 따르고, 다른 이들은 현대적 해석을 시도합니다. 예레반의 캐스케이드(Cascade,) 같은 현대 건축물에도 하치카르가 장식 요소로 사용되어, 전통과 현대가 융합됩니다.

하치카르를 만드는 기술은 스승에서 제자로 전승됩니다. 젊은 장인은 수년간 숙련된 장인 밑에서 견습하며 기술을 배웁니다. 처음에는 간단한 문양을 연습하고, 점차 복잡한 디자인으로 나아갑니다. 독립하여 자신의 하치카르를 만들기까지는 최소 10년이 걸립니다.

하치카르는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상징입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교회나 기념관에 하치카르를 세워 고향과의 연결을 유지합니다. 20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 100주년을 기념하여 세계 각지에 하치카르가 세워졌습니다. 희생자를 추모하고, 생존 회복력을 기리는 의미입니다.

하치카르는 신앙의 표현이자, 역사의 기록이며, 공동체의 기억입니다. 각 하치카르 뒤에는 사람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사랑하는 사람을 잃은 슬픔, 승리의 기쁨, 신에 대한 감사, 미래에 대한 희망. 돌에 새겨진 이 이야기들은 천 년이 지나도 여전히 말을 걸어옵니다.

하치카르를 이해하는 것은 아르메니아 영혼을 이해하는 것입니다. 돌처럼 견고하면서도 꽃처럼 섬세한 아르메니아인의 정신, 고난 속에서도 아름다움을 창조하는 능력, 죽음 앞에서도 생명을 노래하는 신앙. 이 모든 것이 하치카르에 담겨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며 하치카르를 만날 때, 잠시 멈춰 서서 그것을 자세히 들여다보세요. 돌 속에 새겨진 천 년의 기도가 당신에게 말을 걸 것입니다.

4. 필사 - 신앙과 수행, 지식을 이어주는 수도자들의 노동

아르메니아의 필사본 전통은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고 아름다운 것 중 하나입니다. 5세기 아르메니아 문자가 창제된 이후, 아르메니아인들은 열정적으로 책을 필사하고 장식했습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만들어진 수만 권의 필사본 중 약 30,000권이 오늘날까지 남아 있으며, 대부분은 예레반의 마테나다란 연구소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이 필사본들은 단순한 책이 아니라, 신앙, 예술, 역사가 함께 담긴 문화유산입니다.

필사본 제작은 수도원의 가장 중요한 활동 중 하나였습니다. 각 수도원에는 필사실이 있었고, 숙련된 필사사들이 양피지에 한 글자 한 글자 정성스럽게 글을 써 내려갔습니다. 한 권의 복음서를 완성하는 데는 보통 6개월에서 1년이 걸렸고, 큰 책은 수년이 걸리기도 했습니다. 필사사는 새벽부터 해가 질 때까지 작업했으며, 이는 단순한 노동이 아니라 기도의 행위였습니다.

양피지를 준비하는 것부터 복잡한 과정이었습니다. 양이나 송아지 가죽을 석회수에 담가 털을 제거하고, 말려서 얇게 펴고, 표면을 매끄럽게 다듬었습니다. 최고급 필사본에는 한 장의 양피지를 만드는데 여러 달이 걸렸습니다. 큰 성경 한 권에는 수백 장의 양피지가 필요했으므로, 엄청난 자원이 투입되었습니다.

잉크도 직접 만들었습니다. 검은색 잉크는 숯가루나 그을음을 아교와 섞어 만들었습니다. 붉은색 잉크는 주요 제목이나 중요한 구절에 사용되었으며, 주홍색 광물이나 식물에서 추출한 염료를 사용했

습니다. 금박은 가장 중요한 글자나 삽화를 장식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진짜 금을 갈아서 아교와 섞어 만든 금물을 조심스럽게 발라, 말리면 빛나는 금색이 되었습니다.

필사사는 갈대 펜이나 깃털 펜을 사용했습니다. 펜촉을 날카롭게 깎아 섬세한 선을 그을 수 있도록 했습니다. 작업은 매우 집중력을 요구했습니다. 한 번의 실수로 페이지 전체를 망칠 수 있었고, 양피지는 너무 귀해서 버릴 수 없었습니다. 실수를 하면 조심스럽게 긁어내고 다시 써야 했습니다.

필사본의 가장 인상적인 특징은 미니어처 삽화입니다. 미니어처 화가들은 작은 공간에 놀라운 세밀함으로 장면을 그려냈습니다. 성경 이야기, 성인의 삶, 역사적 사건들이 생생하게 묘사되었습니다. 색상은 광물, 식물, 곤충에서 추출한 천연 안료를 사용했습니다. 파란색은 청금석에서, 빨간색은 코치닐 벌레에서, 노란색은 사프란에서 얻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미니어처는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인물들은 정면을 바라보는 경우가 많고, 얼굴 표정은 평온하고 영적입니다. 원근법은 서양 회화와 다르며, 중요한 인물을 더 크게 그리는 위계적 비율을 사용합니다. 배경은 종종 금색이거나 추상적이어서, 장면을 시간과 공간 밖의 영원한 영역에 위치시킵니다.

의복과 건축물의 세부 묘사는 매우 정교합니다. 옷의 주름, 보석의 반짝임, 건물의 장식이 모두 세심하게 그려져 있습니다. 이런 세부사항은 당시 생활상을 연구하는 역사가들에게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어떤 옷을 입었는지, 어떤 건축 양식을 사용했는지, 어떤 도구를 썼는지를 필사본 삽화에서 알 수 있습니다.

테두리 장식도 예술의 일부였습니다. 페이지 가장자리를 따라 복잡한 식물 문양, 동물, 기하학적 패턴이 그려졌습니다. 일부 장식은 매우 환상적이어서, 새와 용, 그리핀 같은 신화적 생물이 등장합니다. 이런 장식은 단순한 치장이 아니라 상징적 의미를 담고 있었습니다. 예를 들어 포도넝쿨은 교회를, 공작은 부활을, 사자는 용기를 상징했습니다.

복음서의 시작 부분에는 특별한 삽화가 있었습니다. 복음서 저자(마태오, 마르코, 루카, 요한)의 초상화가 정교하게 그려졌습니다. 저자들은 보통 책상 앞에 앉아 글을 쓰거나, 명상하는 모습으로 묘사되었습니다. 주변에는 각 저자의 상징인 천사, 사자, 황소, 독수리가 그려졌습니다.

중요한 구절의 첫 글자는 크고 화려하게 장식되었습니다. 이를 장식 대문자라고 하며, 그 자체로 작은 예술 작품입니다. 글자 안에 작은 장면이 그려지기도 하고, 글자가 식물이나 동물 형태로 변형되기도 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어의 첫 글자)는 새의 형태로, ‘는 나무 형태로 그려지곤 했습니다. 이런 장식 대문자는 페이지에 시각적 리듬을 주고, 중요한 구절을 강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필사본에는 종종 기증문(colophon,)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기증문은 필사본 끝에 적힌 기록으로, 누가 언제 어디서 이 책을 만들었는지, 누구를 위해 만들었는지, 어떤 어려움을 겪었는지를 서술합니다. 일부 기증문은 매우 개인적이고 감동적입니다. “나 바흐람은 이 복음서를 3년에 걸쳐 필사했다. 겨울에는 손이 얼어 펜을 잡을 수 없었고, 여름에는 더위로 고통받았다. 주님의 말씀을 보존하기 위해 인내했다”와 같은 내용입니다.

기증문은 역사적 자료로도 귀중합니다. 전쟁, 기근, 전염병 같은 사건들이 필사사의 관점에서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책을 필사하던 해에 메뚜기 떼가 와서 모든 곡식을 먹어치웠다”거나 “몽골 군대가

침입하여 수도원이 불탔다”는 식의 기록은 역사 연구에 중요한 단서를 제공합니다.

필사사들은 종종 자신의 이름을 남겼지만, 항상 겸손한 어조로 썼습니다. “나는 죄 많은 필사사 그리 고르이다. 이 책에 오류가 있다면 모두 내 탓이니 용서를 구한다. 이 책을 읽는 모든 이여, 나를 위해 기도해 주기 바란다.” 이런 문구는 필사사들의 신앙심과 겸손함을 보여줍니다.

일부 필사본은 특별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에치미아진 복음서(Etchmiadzin Gospels,)는 6세기에 제작된 것으로,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아르메니아 필사본 중 하나입니다. 이 책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박혔던 못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지며, 아르메니아 교회의 가장 신성한 유물 중 하나입니다.

므쓰베츠 복음서(Mugni Gospels,)는 11세기 작품으로, 미니어처의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거의 모든 페이지가 장식되어 있으며, 색상이 여전히 생생합니다. 이 복음서는 한때 므쓰니(Mugni,) 수도원에 보관되어 있었지만, 지금은 마테나다란에 있습니다.

킬리키아 필사본(Cilician manuscripts,)은 독특한 스타일을 가지고 있습니다. 12세기부터 14세기까지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에서 제작된 이 필사본들은 십자군과의 접촉으로 서유럽 미술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더 현실적인 인물 묘사, 풍부한 색상, 역동적인 구도가 특징입니다. 전통적인 아르메니아 요소도 여전히 강하게 남아 있어, 동서 문화의 독특한 융합을 보여줍니다.

의학 필사본도 중요한 카테고리입니다. 중세 아르메니아 의사들은 그리스, 아랍, 페르시아 의학 문헌을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필사본들에는 약초 그림, 해부도, 치료법이 자세히 기록되어 있습니다. 일부 그림은 과학적으로 정확하며, 식물학과 의학사 연구에 귀중한 자료가 됩니다.

역사서와 연대기도 아름답게 필사되었습니다. 모세스 코레나치(Movses Khorenatsi,)의 ‘아르메니아의 역사(History of Armenia,)’, 키라코스 간자케치(Kirakos Gandzaketsi,)의 연대기 같은 작품들은 여러 번 필사되었습니다. 각 필사본은 시대와 장소에 따라 다른 삽화 스타일을 보여줍니다.

문학 작품도 필사되었습니다. 그레고르 나레카치의 ‘탄원의 책’, 프리크(Frik,)의 시, 네르세스 시노르할리(Nerses Shnorhali,)의 찬송가 같은 작품들이 아름답게 필사되고 장식되었습니다. 이런 필사본들은 문학 작품을 보존했을 뿐 아니라, 아르메니아어의 발전에도 기여했습니다.

음악 필사본은 특별한 범주입니다. 샤라칸과 다른 전례 음악이 독특한 표기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자체적인 음악 표기 시스템인 하즈(khaz,)를 개발했습니다. 작은 기호들이 텍스트 위에 표시되어 선율의 움직임을 나타냈습니다. 이 표기법을 읽는 방법은 한때 잊혀졌지만, 20세기에 학자들이 재발견하여 고대 아르메니아 음악을 복원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필사본 제작은 집단 작업이었습니다. 필사사가 텍스트를 쓰고, 미니어처 화가가 삽화를 그리고, 장식가가 테두리와 대문자를 장식하고, 제본사가 최종적으로 책을 엮었습니다. 각 전문가가는 자신의 분야에서 최고의 기술을 발휘했습니다. 큰 프로젝트에는 여러 명이 협력했으며, 때로는 수년에 걸쳐 작업

했습니다.

제본도 예술이었습니다. 완성된 페이지들을 나무 판에 붙이고, 가죽이나 천으로 싸서 표지를 만들었습니다. 부유한 후원자를 위한 필사본은 상아, 금속, 보석으로 장식된 화려한 표지를 가졌습니다. 일부 표지에는 부조로 성경 장면이 새겨져 있고, 금박과 에나멜로 장식되었습니다. 이런 표지 자체가 예술 작품이며, 박물관에서 별도로 전시되기도 합니다.

필사본은 매우 귀중했기 때문에 특별히 보호되었습니다. 수도원 도서관에는 최고의 보안이 적용되었습니다. 일부 필사본에는, "이 책을 훔치는 자는 하느님의 심판을 받으리라"는 경고가 있습니다. 전쟁이나 침입 시에는 가장 귀중한 필사본들을 숨기거나 안전한 곳으로 옮겼습니다.

많은 필사본이 역사 속에서 소실되었습니다. 화재, 약탈, 파괴로 인해 수만 권이 영원히 사라졌습니다. 몽골 침입 시 글라자르 대학의 도서관이 불타 수천 권의 필사본이 소실되었습니다. 1915년 대학살 때도 많은 필사본이 파괴되었습니다. 각 소실된 필사본은 지식과 예술의 돌이킬 수 없는 손실입니다.

다행히 많은 필사본이 살아남았습니다. 현재 마테나다란에는 약 17,000권의 필사본이 보관되어 있으며, 이는 세계에서 가장 큰 고대 필사본 컬렉션 중 하나입니다. 마테나다란은 단순한 박물관이 아니라 연구소이기도 합니다. 학자들이 필사본을 연구하고, 보존 처리하고, 디지털화하는 작업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디지털화 프로젝트 덕분에 이제 누구나 온라인으로 많은 아르메니아 필사본을 볼 수 있습니다. 고해상도 이미지로 미니어처의 세부사항까지 확대해서 볼 수 있습니다. 이는 전 세계 학자들이 아르메니아 필사본을 연구할 수 있게 하며, 이 귀중한 유산을 보존하는 데도 기여합니다.

수도 예레반에 위치한 마테나다란 건물 자체도 인상적입니다. 1957년에 완성된 이 건물은 소비에트 고전주의 스타일로 설계되었지만, 아르메니아 전통 요소도 포함하고 있습니다. 입구에는 메스로프 마슈토츠의 동상이 있고, 그 주변에 아르메니아 역사의 위대한 학자와 작가들의 조각상이 줄지어 있습니다. 건물 앞 계단을 오르는 것 자체가 아르메니아 지식 역사를 거슬러 올라가는 여정 같습니다. 마테나다란은 예레반 시내 중심에 있습니다. 마슈토츠 거리(Mesrop Mashtots Avenue) 53번지에 위치하며, 이 거리의 끝 부분, 언덕 위에 자리잡고 있습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운영하며, 일요일과 월요일은 휴관합니다. 예레반 시내 중심부에서 마슈토츠 거리를 따라 북쪽으로 올라가면 도착하며, 건물 앞에는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제한 메스로프 마슈토츠의 대형 동상이 있어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마테나다란 박물관에는 가장 아름다운 필사본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객들은 천 년이 넘는 페이지들을 직접 볼 수 있습니다. 색상이 여전히 선명하고, 금박이 빛나는 것을 보면 놀라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현대의 책이 수십 년 만에 색이 바래는 것과 대조적으로, 천연 안료로 만든 중세 필사본은 천 년이 지나도 아름다움을 유지합니다.

예레반 시내 중심가에 위치한 마테나다란 박물관

가장 작은 필사본과 가장 큰 필사본도 전시되어 있습니다. 가장 작은 것은 엄지손가락만 한 크기로, 확대경 없이는 글씨를 읽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작은 책은 아마도 부적처럼 몸에 지니고 다니기 위해 만들어졌을 것입니다. 가장 큰 필사본은 무게가 28킬로그램이나 나가며, 제단 위에서만 읽을 수 있었습니다. 한 페이지를 넘기는 데도 두 사람이 필요했습니다.

필사본 예술은 오늘날에도 일부 예술가들이 전통 기술을 배우고 실천하고 있습니다. 양피지에 천연 잉크로 글을 쓰고, 전통적 미니어처 기법으로 삽화를 그립니다. 이들은 전통을 살아있게 유지하며, 새로운 세대에게 전승합니다.

현대 아르메니아 예술가들은 전통 미니어처에서 영감을 받아 새로운 작품을 창작합니다. 회화, 그래픽 디자인, 일러스트레이션에서 전통 미니어처의 색상, 구도, 상징을 재해석합니다. 이는 전통이 박물관에 갇혀 있지 않고, 현대 문화의 일부로 계속 살아 숨 쉬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필사본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특별한 의미를 가집니다. 책은 단순한 정보 매체가 아니라 신성한 대상입니다. 필사본에 대한 존경은 오늘날 아르메니아의 높은 문해율과 독서 문화로 이어졌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인구 대비 서점과 도서관 수가 세계에서 가장 많은 나라 중 하나입니다.

매년 10월 첫째 토요일은 메스로프 마슈토츠를 기념하는 날입니다. 마테나다란에서는 특별 전시와 행사가 열리고, 학생들이 방문하여 필사본 역사를 배웁니다. 아르메니아어와 문자를 만들어준 마슈토츠에 대한 감사와, 문자로 만들어진 아름다운 필사본에 대한 자부심을 표현하는 날입니다.

필사본 전통은 아르메니아가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도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었던 비결 중 하나입니다. 독립 국가가 없던 시기에도, 수도원의 필사사들은 아르메니아어로 책을 만들었습니다. 각 필사본은 "우리는 여전히 여기 있다, 우리의 언어와 문화는 살아있다"는 선언이었습니다. 양피지에 쓰인 글자들은 칼과 총보다 강한 무기였습니다.

마테나다란을 방문하는 것은 단순한 박물관 관람이 아니라 순례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녀들을 데리고 와서 조상들이 남긴 유산을 보여줍니다. "저것이 우리의 자랑이다. 우리 조상들은 가난하고 박해받았지만, 세계에서 가장 아름다운 책을 만들었다." 이런 자부심은 새로운 세대에게 전달되고,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핵심이 됩니다.

필사본과 미니어처 예술은 인간 정신의 승리를 보여줍니다. 전쟁, 가난, 박해 속에서도 사람들은 아름다움을 창조했습니다. 생존을 위해 투쟁하면서도 예술을 위한 시간을 냈습니다. 이것이 아르메니아 필사본의 진정한 의미입니다. 단순히 오래되고 아름다운 책이 아니라, 인간의 불굴의 의지와 영혼의 아름다움에 대한 증언입니다.

마테나다란 방문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2-3시간을 투자하여 놀라운 컬렉션을 둘러보세요. 천 년 전 수도사가 촛불 아래에서 정성스럽게 그린 미니어처를 보며, 시간과 공간을 초월한 연결을 느낄 것입니다. 그 수도사는 당신이 이 그림을 보리라고는 상상도 못했겠지만, 그의 작품은 천 년이 지나 당신의 마음을 감동시킵니다. 예술의 힘이고, 필사본의 마법입니다.

아르메니아 중세의 영광은 수도원, 하치카르, 필사본으로 집약됩니다. 이 세 가지는 모두 신앙의 표현이면서 동시에 민족 정체성의 표현이었습니다. 바그라투니 왕조의 번영기에 형성된 이 문화적 전통은 왕조가 무너진 후에도 살아남아, 아르메니아인들이 가장 어두운 시기를 견디는 힘이 되었습니다.

산 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수도원들은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지식의 요새였습니다. 외부 세계가 혼란에 빠졌을 때, 수도원 안에서는 조용히 책이 필사되고, 학생들이 가르침을 받고, 하치카르가 조각되었습니다. 이 고요한 헌신이 아르메니아 문화를 보존했습니다.

돌에 새겨진 하치카르는 영원을 향한 기도입니다. 인간의 생명은 짧지만, 돌에 새긴 십자가는 천 년을 견딥니다. 각 하치카르는 "나는 여기 있었다, 나는 믿었다, 나는 사랑했다"는 스스로 우주였던 개체의 외침이자, "우리는 여기 있었다, 우리는 살아남았다"는 선언입니다.

수도사들은 가난했지만, 그들이 만든 책은 왕의 보물보다 귀했습니다. 정교한 미니어처로 장식된 필사본은 영혼의 풍요로움을 보여줍니다. 외부의 적은 땅을 빼앗고 재산을 약탈할 수 있었지만, 양피지에 쓰인 말씀과 미니어처에 담긴 아름다움은 빼앗을 수 없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5장 강대국 틈바구니의 생존드라마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오스만과 페르시아 - 제국들의 각축장이 된 아르메니아

아르메니아 땅은 강대국들의 각축장이었습니다. 16세기부터 19세기까지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사파비 왕조) 사이에서 아르메니아는 끊임없이 분할되고 재분할되는 운명을 겪어야 했습니다. 이 시기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의지와 무관하게 두 거대한 이슬람 제국 사이에서 살아남기 위해 처절한 노력을 기울여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14세기 후반부터 급속히 팽창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나톨리아 반도를 장악한 오스만 제국은 동쪽으로 영토를 확장하면서 아르메니아 고원 지대로 진출했습니다. 1453년 콘스탄티노플을 정복하고 비잔틴 제국을 멸망시킨 오스만 제국은 이제 명실상부한 대제국으로 성장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들은 동쪽의 페르시아를 견제하고 무역로를 확보하기 위해 아르메니아 지역을 반드시 차지해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한편 페르시아에서는 1501년 사파비 왕조가 들어서면서 새로운 강력한 국가가 탄생했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시아파 이슬람을 국교로 정하고 페르시아의 전통을 부흥시키면서 영토를 확장했습니다. 사파비 왕조의 샤(왕)들도 서쪽으로 영토를 넓히면서 자연스럽게 아르메니아 지역에 관심을 가졌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비옥한 농토와 중요한 무역로가 지나가는 전략적 요충지였기 때문입니다.

1514년 찰디란 전투는 아르메니아의 운명을 결정짓는 중요한 사건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술탄 셀림 1세와 사파비 왕조의 샤 이스마일 1세가 이란 북서부의 찰디란 평원에서 격돌했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당시 유럽에서 도입한 화포와 머스킷 총으로 무장한 예니체리 부대를 앞세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 전투의 결과로 아르메니아 서부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고, 동부 지역은 페르시아의 영향권 아래 놓이게 되었습니다.

이것이 끝이 아니었습니다. 두 제국은 계속해서 아르메니아를 두고 전쟁을 벌였습니다. 1555년 아마시아 조약으로 잠시 평화가 찾아왔지만,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이 조약으로 아르메니아는 공식적으로 둘로 나뉘었습니다. 서부 아르메니아는 오스만 제국이, 동부 아르메니아는 페르시아가 차지했습니다. 예레반과 그 주변 지역은 페르시아 영토가 되었고, 에르주룸과 반 호수 지역은 오스만 제국의 영토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초 다시 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1603년부터 1618년까지 이어진 오스만-사파비 전쟁은 아르메니아 땅을 초토화시켰습니다.

페르시아의 샤 압바스 1세는 오스만 군대가 침입할 때마다 아르메니아인들을 강제로 페르시아 내륙으로 이주시키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1604년부터 1605년 사이에만 약 3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강제 이주를 당했습니다. 이들은 이스파한 근처의 새로운 도시 뉴줄파로 옮겨졌습니다.

이러한 강제 이주 정책은 전략적인 이유가 있었습니다.

샤 압바스 1세는 오스만 군대가 아르메니아를 점령하더라도 식량과 인력을 확보하지 못하도록 초토화 작전을 펼쳤습니다.

동시에 아르메니아인들의 상업적 재능과 기술을 페르시아 경제 발전에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뉴줄파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실제로 페르시아의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인도, 러시아, 유럽과의 무역을 주도하면서 비단과 향신료, 귀금속을 거래했습니다.

1639년 카스르 시린 조약(주합 조약)으로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 사이의 국경이 다시 확정되었습니다. 이 조약으로 정해진 국경선은 제1차 세계대전까지 거의 그대로 유지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완전히 두 개로 나뉘었습니다. 서부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신민으로, 동부 아르메니아인들은 페르시아의 신민으로 살아가야 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치하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밀레트 제도 아래에서 살았습니다. 밀레트는 종교 공동체를 의미하는 말로, 오스만 제국은 기독교인과 유대인 같은 비무슬림 집단을 종교별로 나누어 자치를 허용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밀레트는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총대주교가 이끌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지즈야라는 세금을 내야 했고, 군 복무는 할 수 없었으며, 무슬림보다 낮은 법적 지위를 가졌습니다. 종교의 자유는 인정받았고, 자신들의 학교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에는 큰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이들은 상업, 금융, 수공업 분야에서 뛰어난 능력을 발휘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오스만 제국의 국제 무역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이즈미르와 알레포 같은 무역 도시에서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유럽 상인들과 오스만 제국을 연결하는 중개자 역할을 했습니다.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술탄 궁정에서 은행가나 재무 고문으로 일하기도 했습니다.

서부 아르메니아의 농촌 지역에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삶은 훨씬 힘들었습니다. 이들은 쿠르드족과 터키족 지주들의 착취를 받았고, 법적 보호를 제대로 받지 못했습니다.

동부 아나톨리아의 산악 지대에서는 쿠르드족 부족장들이 실질적인 권력을 행사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농민들은 과중한 세금과 불법적인 징수에 시달렸고, 때로는 폭력과 약탈의 피해자가 되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할 의지도 능력도 부족했습니다.

페르시아 치하의 동부 아르메니아인들의 상황도 크게 다르지 않았습니다.

사파비 왕조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종교를 인정했지만, 그들을 2등 시민으로 취급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지즈야를 납부해야 했고, 공직에 진출하는 데 제한이 있었습니다. 상업 분야에서는 상당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뉴줄파의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번영했습니다. 그들은 샤로부터 무역 독점권을 얻어 인도와 유럽을 연결하는 무역망을 구축했습니다.

18세기에 들어서면서 페르시아는 혼란에 빠졌습니다. 1722년 아프간족의 침입으로 사파비 왕조가 무너지고, 여러 세력이 페르시아의 지배권을 놓고 다투었습니다. 이 과정에서 동부 아르메니아는 더욱 피해해졌습니다. 아프간족, 오스만 군대, 페르시아의 여러 군벌들이 아르메니아 땅을 약탈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전쟁과 기근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1736년 나디르 샤가 페르시아를 다시 통일하고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그는 강력한 군사력으로 영토를 확장했지만, 폭정으로 악명이 높았습니다. 나디르 샤 치하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무거운 세금과 강제 징집에 시달렸습니다. 1747년 나디르 샤가 암살당한 후 페르시아는 다시 혼란에 빠졌고, 이는 러시아가 남하 정책을 펼치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이 시기 아르메니아인들은 생존을 위해 다양한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일부는 지배 세력에 협력하면서 경제적 이익을 추구하고, 일부는 산악 지대로 피신하여 반자치적인 공동체를 유지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민족 정체성을 지키는 중심 역할을 했습니다. 수도원들은 아르메니아 문화와 학문의 보루가 되었고, 필사본을 보존하며 교육을 담당했습니다.

오스만과 페르시아 사이에서 분할된 아르메니아는 통일된 국가를 이루지 못한 채 두 이슬람 제국의 지배를 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자신들의 정체성과 문화를 지켜냈습니다. 상업 네트워크는 전 세계로 뻗어나갔고, 디아스포라 공동체들은 서로 연결되어 있었습니다. 이러한 네트워크와 정체성은 훗날 민족운동이 일어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2. 러시아 제국 - 새로운 지배자와 근대화의 이중주

18세기 말부터 19세기에 걸쳐 러시아 제국의 남하하는 아르메니아 역사에 결정적인 전환점이 되었습니다. 러시아는 흑해와 카스피해 사이의 캅카스 지역으로 세력을 확장하면서 페르시아 및 오스만 제국과 충돌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아르메니아는 다시 한번 강대국들의 각축장이 되었지만, 동시에 새로운 가능성도 열렸습니다.

러시아의 캅카스 진출은 표트르 대제 시대부터 시작되었습니다. 표트르 대제는 1722년 페르시아 원정을 감행하여 카스피해 서안을 점령했습니다. 비록 그의 후계자들이 이 지역을 다시 반환했지만, 러시아의 남하 정책은 계속되었습니다. 예카테리나 2세 시대에 러시아는 조지아와 긴밀한 관계를 맺기 시작했습니다. 조지아의 기독교 왕국들은 이슬람 세력의 압박을 받고 있었고, 러시아의 보호를 갈망했습니다.

1801년 러시아는 동부 조지아를 병합했습니다. 러시아가 캅카스 남부로 본격적으로 진출하는 신호탄이었습니다. 러시아 황제 알렉산드르 1세는 캅카스 지역을 완전히 장악하기로 결심했습니다. 러시아는 이 지역이 전략적으로 중요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캅카스를 장악하면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를 견제할 수 있었고, 중앙아시아와 인도로 가는 길도 열렸습니다.

1804년 러시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전쟁은 9년간 계속되었고, 1813년 굴레스탄 조약으로 끝났습니다. 이 조약으로 러시아는 현재 아제르바이잔의 대부분을 차지했습니다. 동부 아르메니아는 아직 페르시아 영토로 남아 있었습니다. 예레반과 나히체반을 포함한 지역이 여전히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를 해방자로 보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는 기독교 국가였고, 오스만 제국이나 페르시아의 이슬람 지배보다 러시아의 통치가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일부 아르메니아 지도자들은 러시아 군대에 협력했고, 러시아의 캅카스 정복을 도왔습니다. 에치미아진의 아르메니아 교회 지도자들도 러시아를 지지했습니다. 그들은 러시아의 보호 아래에서 종교적 자유와 안전을 보장받을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1826년 러시아와 페르시아 사이에 다시 전쟁이 일어났습니다. 페르시아의 파르티알리 샤는 골레스탄 조약으로 잃은 영토를 되찾고자 했습니다. 러시아 군대는 페르시아군을 압도했습니다. 러시아 장군 이반 파스케비치가 이끄는 군대는 신속하게 진격하여 예레반과 타브리즈를 점령했습니다.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으로 전쟁이 끝났고, 이 조약은 아르메니아 역사에 획기적인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투르크만차이 조약으로 예레반 칸국과 나히체반 칸국을 포함한 동부 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제국에 편입되었습니다. 아라스강이 러시아와 페르시아의 국경이 되었습니다. 이로써 아르메니아는 세 개의 제국으로 나뉘게 되었습니다. 서부 아르메니아는 오스만 제국에, 동부 아르메니아는 러시아 제국에, 그리고 일부 남부 지역은 여전히 페르시아에 속했습니다.

러시아는 동부 아르메니아를 아르메니아 주로 편성했습니다. 예레반이 중심 도시가 되었고, 러시아 행정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이 지역의 아르메니아인 인구를 늘리기 위해 적극적인 정책을 펼쳤습니다. 투르크만차이 조약에는 페르시아 영토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할 수 있다는 조항이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1828년부터 1830년 사이에 약 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페르시아에서 러시아 영토로 이주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영토에서도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로 이주했습니다. 1828-1829년 러시아-오스만 전쟁 이후 아드리아노플 조약으로 러시아는 흑해 동부 해안을 차지했고, 이 지역에도 아르메니아인들이 정착했습니다.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을 믿을 만한 주민으로 여겼습니다. 그들은 기독교인이었고, 상업과 행정 분야에서 능력이 뛰어났으며, 러시아의 캅카스 지배에 협력적이었습니다.

러시아 치하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상당한 자유를 누렸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는 러시아 정교회 다음으로 인정받는 종교가 되었습니다. 에치미아진의 가톨릭코스는 러시아 제국 내 모든 아르메니아인의 영적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학교를 운영할 수 있었고, 아르메니아어로 교육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출판의 자유도 상대적으로 보장되었고, 아르메니아어 신문과 책들이 출간되었습니다.

19세기 중반 러시아 영토의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서 문화적 각성이 일어났습니다. 이 시기를 아르메니아 문예부흥기라고 부릅니다. 작가, 시인, 학자들이 아르메니아 문화와 역사를 연구하고 새로운 작품들을 창작했습니다. 하치투르 아보비안은 근대 아르메니아 문학의 아버지로 불립니다. 그는 고전 아르메니아어가 아닌 현대 구어체 아르메니아어로 소설을 썼습니다. 그의 작품 《아르메니아의 상처》는 페르시아와 러시아의 전쟁을 배경으로 한 역사 소설이었습니다.

미카엘 날반디안, 라파엘 파투니안, 페트로스 두리안 같은 작가들도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전통을 재조명하고, 민족 의식을 고취하는 작품들을 썼습니다. 이들의 작품은 단순히 문학적 가치뿐만 아니라 정치적, 사회적 메시지도 담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근대화를 촉구했습니다.

트빌리시는 캅카스 지역 아르메니아 문화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이 도시에는 큰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있었고, 아르메니아어 학교, 극장, 출판사들이 번창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트빌리시의 경제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 상인들과 기업가들이 석유, 광업, 무역 분야에서 부를 축적했습니다.

19세기 후반 바쿠의 석유 산업이 급속히 성장하면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산업에 투자했습니다. 만타쇼프 가문, 구카소프 가문, 리아노조프 가문 같은 아르메니아 석유 재벌들이 등장했습니다. 이들은 막대한 부를 축적했고, 그 일부를 아르메니아 문화와 교육 진흥에 사용했습니다. 이들의 기부로 학교, 도서관, 극장들이 세워졌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근대화는 캅카스 지역에도 영향을 미쳤습니다. 철도가 건설되고, 전신이 깔렸으며, 근대적 행정 체계가 도입되었습니다. 1883년 바투미-바쿠 철도가 개통되면서 예레반도 철도망에 연결되었습니다. 이는 경제 발전과 교류 증대를 가져왔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러한 근대화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습니다.

러시아의 지배가 항상 긍정적이었던 것만은 아닙니다. 19세기 후반 러시아는 러시아화 정책을 강화했습니다. 알렉산드르 3세와 니콜라이 2세 시대에 러시아 정부는 소수민족의 자치권을 제한하고 러시아어와 러시아 정교회를 강요했습니다. 1885년 러시아 정부는 아르메니아 교회 학교들을 폐쇄하거나 국가 통제 아래 두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교육이 제한되었고, 러시아어가 필수 교육 언어가 되었습니다.

1903년에는 더욱 심각한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러시아 정부가 아르메니아 교회의 재산을 몰수하는 칙령을 발표한 것입니다. 이는 아르메니아인들의 강력한 반발을 불러일으켰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라 민족 정체성의 상징이었고, 학교와 자선 사업을 운영하는 사회적 기관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대규모 시위를 벌였고, 일부는 무장 저항도 불사했습니다.

아르메니아 혁명 운동도 등장했습니다. 사회주의와 민족주의 사상이 젊은 아르메니아 지식인들 사이에 퍼졌습니다. 1887년 흐리스토포르 미카엘리안을 중심으로 마르크스주의 연구 모임이 조직되었습니다. 이들은 러시아의 혁명 운동에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러시아 제국 전체의 혁명 운동에도 적극 참여했고, 일부는 사회혁명당이나 사회민주노동당에 가입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은 캅카스 지역에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도 혁명에 참여했고, 정치적 자유와 민족적 권리를 요구했습니다. 동시에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타타르)인 사이의 민족 갈등도 격화되었습니다. 1905-1906년 바쿠와 다른 캅카스 도시들에서 아르메니아인과 아제르바이잔인 사이에 유혈 충돌이 벌어졌습니다. 이 갈등에는 경제적 경쟁, 종교적 차이, 러시아 당국의 분열 정책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습니다.

20세기 초 러시아 영토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복잡한 상황에 놓여 있었습니다. 한편으로는 러시아 제국의 근대화와 경제 발전의 혜택을 누렸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교육받고 부유해졌으며, 도시 중산층을 형성했습니다. 다른 한편으로는 러시아의 억압적인 정책과 민족 차별에 불만을 품었습니다. 이들은 더 많은 자유와 권리를 원했고, 궁극적으로는 민족 자결권을 꿈꾸기 시작했습니다.

러시아 제국의 지배는 아르메니아에 근대성을 가져왔지만, 동시에 새로운 갈등과 문제도 만들어냈습니다. 이 시기의 경험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근대 국가와 시민 사회에 대한 이해를 심어주었고, 이는 훗날 독립 국가를 건설하는 기반이 되었습니다.

3. 민족운동의 태동 - 자유를 향한 독립의 꿈

19세기는 전 세계적으로 민족주의가 고조된 시기였습니다. 유럽에서는 그리스, 이탈리아, 독일 등이 민족 국가를 건설했고, 발칸 반도의 여러 민족들도 오스만 제국으로부터 독립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적 흐름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도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오스만 제국 치하의 서부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권리와 안전을 보장받기 위한 투쟁을 시작했습니다.

19세기 중반까지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대체로 충성스러운 신민으로 여겨졌습니다. 그들은 “믿을 수 있는 밀레트”라고 불렸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중산층과 상류층은 오스만 제국의 개혁에 협력했고, 제국의 근대화에 기여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제국의 행정부, 외교부, 재무부에서 일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건축가, 의사, 은행가, 기업가들이 콘스탄티노플의 경제와 문화 생활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1839년 술탄 압둘메지드 1세는 탄지마트(재편성) 개혁을 선언했습니다. 이 개혁은 모든 오스만 제국 신민에게 법 앞의 평등을 약속했습니다. 무슬림과 비무슬림의 차별을 철폐하고, 종교에 관계없이 모든 사람에게 동등한 권리를 주겠다는 것이었습니다. 1856년에는 더 포괄적인 개혁 칙령이 발표되었습니다. 이론적으로는 아르메니아인들도 군 복무를 할 수 있고, 공직에 진출할 수 있으며, 법정에서 무슬림과 동등한 증언권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현실은 달랐습니다. 동부 아나톨리아의 아르메니아 농촌 지역에서는 이러한 개혁이 거의 실행되지 않았습니다. 쿠르드족 부족장들과 터키인 관료들은 여전히 아르메니아인들을 착취했습니다. 토지 분쟁, 세금 징수, 법 집행에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불공정한 대우를 받았습니다. 쿠르드족의 약탈과 폭력이 계속되었지만, 오스만 정부는 이를 제대로 막지 못했거나 막으려 하지 않았습니다.

1860년대부터 아르메니아인들 사이에서 자각과 조직화가 시작되었습니다. 콘스탄티노플의 아르메니아 지식인들은 국민의회를 조직하여 공동체의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이들은 교육 개혁을 추진하고, 근대적 학교를 설립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신문과 잡지들이 창간되었고, 문학과 예술이 발전했습니다. 이 시기의 지식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자신들의 역사와 문화를 일깨우고, 교육과 근대화를 통해 발전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점차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단순한 개혁과 계몽만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하기 시작했습니다. 오스만 제국 정부가 약속한 개혁을 실행하지 않고,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이 계속되자, 더 적극적인 방법이 필요하다는 인식이 퍼졌습니다. 1870년대에 들어서면서 아르메니아 민족주의 운동이 본격적으로 시작되었습니다.

1878년 러시아-오스만 전쟁이 끝난 후 체결된 산스테파노 조약과 베를린 조약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희망과 실망을 동시에 안겨주었습니다. 산스테파노 조약에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거주하는 지역의 개혁을 러시아가 감독한다는 조항이 있었습니다. 베를린 조약에서 이 조항은 약화되었고, 유럽 열강의 공동 감독으로 바뀌었습니다. 이는 실질적인 힘이 없는 공허한 약속이었습니다.

국제 사회의 무관심과 오스만 제국의 탄압에 실망한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은 무장 투쟁을 선택했습니다. 1880년대와 1890년대에 여러 아르메니아 혁명 조직들이 결성되었습니다. 1887년 제네바에서 아르메니아 혁명 연맹(후에 아르메니아 혁명 연합 또는 다슈낙당)이 창설되었습니다. 이 조직은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이념을 가지고 있었고, 무장 투쟁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의 권리를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1890년에는 흐리스토포르 미카엘리안이 창설한 흐차크당(종소리당)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이들은 마르크스주의에 영향을 받았고, 오스만 제국 내에서 혁명을 일으켜 아르메니아 자치를 쟁취하고자 했습니다. 이들은 동부 아나톨리아에 무기를 밀수하고, 아르메니아 농민들을 조직하며, 때로는 오

스만 관료들에 대한 테러를 감행했습니다.

1890년대 중반 동부 아나톨리아에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1894년부터 1896년 사이에 약 10만에서 3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이 학살은 여러 요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였습니다. 술탄 압둘하미드 2세는 아르메니아 혁명 운동을 진압한다는 명목으로 탄압을 승인했습니다. 쿠르드족 비정규 기병대인 하미디에 부대가 조직되어 아르메니아 마을들을 습격했습니다.

유럽의 열강들은 이 학살을 비난했지만, 실질적인 개입은 하지 않았습니다. 영국, 프랑스, 러시아는 각자의 이해관계 때문에 오스만 제국에 강력한 압력을 가하지 않았습니다. 국제 사회의 무관심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깊은 배신감을 안겨주었습니다. 이 시기의 학살은 20세기 초에 벌어질 더 큰 비극의 전조였습니다.

1908년 청년 투르크당 혁명으로 오스만 제국에 잠시 희망이 찾아왔습니다. 청년 투르크당은 술탄의 전제 정치를 끝내고 입헌 군주제를 수립했습니다. 이들은 오스만주의를 내세우며 제국의 모든 민족이 평등하게 함께 살아갈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혁명을 환영했고, 청년 투르크당과 협력했습니다. 다슈낙당도 청년 투르크당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희망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1909년 아다나에서 다시 대규모 학살이 벌어졌습니다. 약 2만에서 3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되었습니다. 청년 투르크당 정부는 이 학살을 제대로 막지 못했습니다. 나아가 청년 투르크당은 점차 터키 민족주의로 기울어졌습니다. 오스만주의는 포기되고, 터키화 정책이 추진되었습니다. 비터키인들, 아르메니아인들과 그리스인들은 점점 더 의심과 적대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1912-1913년 발칸 전쟁에서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면서 상황은 더욱 악화되었습니다. 청년 투르크당의 강경파는 제국을 구하기 위해서는 터키 민족주의를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엔베르 파샤, 탈라트 파샤, 제말 파샤로 구성된 삼두정치가 시작되었고, 이들은 터키화 정책을 더욱 강력하게 추진했습니다.

한편 러시아 영토의 아르메니아인들도 정치적으로 각성했습니다. 다슈낙당은 러시아 캅카스에서도 활동했고, 사회주의와 민족주의를 결합한 노선을 추구했습니다. 흐차크당과는 달리 다슈낙당은 점차 온건한 노선을 취하며 합법적 정치 활동에도 참여했습니다. 1905년 러시아 혁명 당시 다슈낙당은 적극적으로 참여했고, 두마(러시아 의회) 선거에도 후보를 냈습니다.

1914년 제1차 세계대전이 발발하면서 아르메니아인들은 다시 한번 운명의 기로에 섰습니다. 오스만 제국은 독일과 동맹을 맺고 전쟁에 참전했습니다. 러시아와 오스만 제국은 적국이 되었고, 아르메니아인들은 그 사이에 끼였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잠재적인 반역자로 의심했습니다. 러시아 군대에 아르메니아인 의용군이 있다는 사실은 이러한 의심을 더욱 증폭시켰습니다.

1915년 봄, 오스만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대규모 추방과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이는 20세기 최초의 대량 학살이었고, 아르메니아 민족에게는 엄청난 비극이었습니다. 약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되거나 추방 과정에서 사망했습니다. 수천 년간 이어져 온 서부 아르메니아의 아르메니아인 공동체가 사실상 소멸했습니다.

살아남은 아르메니아인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일부는 러시아 캅카스로 피난했고, 일부는 중동의 프랑스와 영국 위임통치령으로 갔으며, 일부는 유럽과 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들은 대량

학살의 비극을 세계에 알리고,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전쟁의 혼란 속에서 국제 사회의 반응은 미미했습니다. 러시아 영토의 동부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새로운 기회가 찾아왔습니다. 1917년 러시아 혁명으로 제정이 무너지고 캅카스 지역에 권력의 공백이 생겼습니다. 1918년 5월 28일, 아르메니아 인들은 마침내 독립 공화국을 선포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제1공화국의 탄생이었습니다. 비록 작고 가난하고 전쟁의 상처로 가득했지만, 이는 6세기 만에 처음으로 생긴 아르메니아 독립 국가였습니다.

19세기 말과 20세기 초 아르메니아 민족운동은 계몽과 조직화에서 시작하여 무장 투쟁을 거쳐 마침내 독립으로 나아갔습니다. 그 과정은 엄청난 희생과 고통으로 점철되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정체성과 독립에 대한 꿈을 결코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6장 20세기의 비극과 재탄생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1915년 아르메니아 대학살 - 잊을 수 없는 제노사이드

1915년은 아르메니아 역사에서 가장 어두운 해로 기록됩니다. 오스만 제국 정부는 제국 내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조직적이고 계획적인 학살을 시작했습니다. 20세기 최초의 대량 학살로 여겨지며,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를 “메츠 예게른”(대재앙)이라고 부릅니다. 150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살해되거나 강제 추방 과정에서 사망했고, 수천 년 동안 이어져 온 아나톨리아의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사실상 사라졌습니다.

대학살의 배경을 이해하려면 제1차 세계대전 직전의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1914년 여름 전쟁이 발발하자 오스만 제국은 독일 및 오스트리아-헝가리 제국과 동맹을 맺었습니다. 오스만 제국의 지도자들, 특히 엔베르 파샤, 탈라트 파샤, 제말 파샤로 구성된 청년 투르크당의 삼두정치는 제국을 구하기 위해 팽창주의적 정책을 추진했습니다. 그들은 범투르크주의라는 이념을 내세웠는데, 중앙아시아에서 아나톨리아에 이르는 모든 투르크계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자는 것이었습니다.

1914년 겨울 엔베르 파샤는 캅카스 전선에서 러시아에 대한 공세를 감행했습니다. 사리카미시 전투에서 오스만 군대는 참패했고, 9만 명이 넘는 병사들이 전사하거나 동사했습니다. 엔베르 파샤는 이 패배의 책임을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돌렸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 군대에 협력했으며, 오스만 제국을 배신했다고 주장했습니다. 실제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 군대의 의용군에 참여한 것은 사실이었지만, 대다수의 오스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제국에 충성스러운 신민이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오스만 군대에서 복무하고 있었습니다.

1915년 4월 24일, 콘스탄티노플에서 약 250명의 아르메니아 지식인, 작가, 의사, 변호사, 정치인들이 체포되었습니다. 이들은 수도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를 이끌던 엘리트들이었습니다. 이들 대부분은 이후 살해되었습니다. 오늘날 아르메니아인들은 4월 24일을 대학살 추모일로 기념합니다. 이 체포는 전국적인 학살의 신호탄이었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일련의 법령과 명령을 발표했습니다. 표면적으로는 “전쟁의 필요성”과 “안보상의 이유”를 내세웠지만, 실제로는 아르메니아인들을 제거하려는 의도가 담겨 있었습니다. 5월 27일 탈라트 파샤는 “임시 추방법”을 공포했습니다. 이 법은 정부가 “반역 행위나 스파이 활동”을 이유로 주민들을 강제로 이주시킬 수 있다고 규정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 전체를 대상으로 한 추방령이었습니다.

동부 아나톨리아의 아르메니아 마을들에서 먼저 추방이 시작되었습니다. 오스만 헌병대와 특수 조직(테슈킬라티 마흐수사)이라 불리는 준군사 조직이 마을을 포위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단 며칠, 때로는 몇 시간의 여유만 주어진 채 짐을 싸야 했습니다. 재산은 대부분 버려두거나 헐값에 팔아야 했습니다. 집, 땅, 가게, 가축 모두를 잃었습니다.

남성들은 여성과 어린이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젊은 남성들은 대부분 마을 밖으로 끌려가 즉시 처형되었습니다. 총살당하거나, 칼로 찔려 죽거나, 절벽에서 떨어뜨려졌습니다. 일부는 집단으로 묶어서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오스만 정부는 먼저 아르메니아 남성들을 제거함으로써 저항의 가능성을 없애

고, 여성과 어린이들을 무력하게 만들고자 했습니다.

여성, 어린이, 노인들은 강제 행군에 내몰렸습니다. 그들은 시리아 사막의 데이르에조르를 향해 걷도록 명령받았습니다. 수백 킬로미터에 달하는 죽음의 행군이었습니다. 식량도, 물도, 의료 지원도 없었습니다. 무더운 여름 날씨 속에서 사람들은 탈진하고 굶주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행군 중에 쓰러져 죽었습니다. 쓰러진 사람들은 버려지거나 즉시 살해되었습니다.

호송 중인 아르메니아인들은 쿠르드족과 터키인 마적들의 습격을 받았습니다. 헌병들은 이러한 습격을 막지 않았고, 때로는 오히려 장려했습니다. 여성들과 소녀들은 납치되어 성폭행을 당했습니다. 많은 여성들이 강제로 무슬림 가정에 팔려가거나 하렘으로 끌려갔습니다. 어린 소녀들은 터키인이거나 쿠르드인 가정에 입양되어 이슬람으로 개종당했습니다. 단순히 육체적 살해뿐만 아니라 문화적, 정신적 말살이기도 했습니다.

유프라테스 강과 그 지류들은 시신으로 가득 찼습니다.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강물에 던져졌습니다. 일부는 산 채로 던져졌고, 일부는 먼저 살해된 후 버려졌습니다. 강물은 붉게 물들었고, 하루도 시체들의 주민들은 물을 사용할 수 없을 정도였다고 합니다. 역사가들은 이러한 증언들을 기록으로 남겼습니다.

데이르에조르 지역에 도착한 소수의 생존자들은 사막의 집단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이곳도 안전한 피난처가 아니었습니다. 수용소에는 식량도, 물도, 쉼터도 없었습니다. 사람들은 사막의 뜨거운 태양 아래서 서서히 죽어갔습니다. 1916년에는 살아남은 아르메니아인들마저 조직적으로 학살되었습니다. 제말 파샤는 데이르에조르의 모든 아르메니아인을 제거하라는 명령을 내렸습니다.

학살에는 여러 방법이 사용되었습니다. 총살, 칼에 의한 살해, 익사, 화형, 독살, 굶주림에 의한 죽음 등이었습니다. 일부 지역에서는 아르메니아인들이 교회나 헛간에 갇힌 채 불태워졌습니다. 어린이들은 바위에 내동댕이쳐지거나 산 채로 매장되었습니다. 임신한 여성들의 배를 가르는 잔혹한 행위도 보고되었습니다. 한 민족을 말살하려는 계획적인 대량 학살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학살기념관 (Armenian Genocide Memorial Complex)은 예레반 시내 남서쪽의 치체르나카베르드 (Tsitsernakaberd,) 언덕에 위치해 있습니다. 주소는 8 Tsitsernakaberd Highway, Yerevan 0028, Armenia입니다. _

오스만 제국에 있던 외국인들이 이 참상을 목격하고 기록했습니다. 독일과 오스트리아의 외교관들, 미국 선교사들, 기자들이 보고서와 편지, 일기를 남겼습니다. 독일 대사 한스 폰 방겐하임과 그의 후임 파울 폰 볼프-메테르니히는 베를린에 여러 차례 보고서를 보냈습니다. 미국 대사 헨리 모겐소는 회고록에서 이 학살을 상세히 기록했습니다. 그는 탈라트 파샤와의 대화를 기록하면서, 오스만 정부가 의도적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을 제거하려 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고 썼습니다.

미국 선교사들은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운영하는 학교와 병원에서 일하고 있었고, 대학살을 직접 목격했습니다. 선교사들은 가능한 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을 구하려 노력했습니다. 고아원을 만들어 어린이들을 숨겼고, 의료 지원을 제공했으며, 이 참상을 세계에 알렸습니다. 그들의 증언은 나중에 대학살을 입증하는 중요한 증거가 되었습니다.

요하네스 뢰시우스라는 독일 목사는 오스만 제국을 방문한 후 아르메니아인들의 고통을 기록한 책을 출판했습니다. 그는 독일 정부에 오스만 제국에 압력을 가해 학살을 중단시키라고 촉구했습니다. 하지만 독일은 전쟁 동맹국인 오스만 제국을 지지했고, 효과적인 조치를 취하지 않았습니다. 전쟁이라

는 상황 속에서 국제 사회의 개입은 제한적이었습니다.

오스만 제국 내에서도 학살에 반대한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일부 터키인 관료와 주지사들은 추방 명령을 거부하거나 늦추려 했습니다. 그들은 이러한 행위가 도덕적으로나 전략적으로나 잘못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해임되거나 처벌받았습니다. 일부 쿠르드족과 터키인들은 개인적으로 아르메니아인 이웃들을 숨겨주거나 도와주었습니다. 이들은 자신의 목숨을 걸고 인간성을 지켰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1918년 오스만 제국이 패배하고 청년 투르크당 지도자들이 도망쳤습니다. 새로운 오스만 정부는 전범 재판을 열었습니다. 1919년 콘스탄티노플에서 군사 재판이 열렸고, 일부 관료들이 유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탈라트 파샤, 엔베르 파샤, 제말 파샤는 궤석 재판에서 사형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이들은 이미 해외로 도망친 상태였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스스로 정의를 실현하려 했습니다. “네메시스 작전”이라 불리는 비밀 계획이 실행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혁명 연맹(다슈낙당)의 일원들이 대학살의 주범들을 찾아 암살했습니다. 1921년 솔로몬 테홀리리안이 베를린에서 탈라트 파샤를 사살했습니다. 독일 법정에서 열린 재판에서 테홀리리안은 무죄 판결을 받았습니다. 재판 과정에서 아르메니아 대학살의 진실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하지만 국제적인 정의는 실현되지 않았습니다. 1923년 로잔 조약으로 터키 공화국이 국제 사회에서 인정받으면서 전범 처벌 문제는 사실상 무산되었습니다. 터키의 새 지도자 무스타파 케말 아타튀르크는 청년 투르크당과 거리를 두었지만, 대학살에 대한 책임을 인정하지는 않았습니다. 터키 공화국은 이후 일관되게 대학살을 부인하는 정책을 유지했습니다.

생존자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졌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러시아로 피난했고, 일부는 시리아, 레바논, 이라크 등 중동 지역으로 갔습니다. 프랑스는 시리아와 레바논의 위임통치령에 아르메니아 난민들을 받아들였습니다. 베이루트와 알레포에 큰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또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그리스, 불가리아, 루마니아로 갔고, 일부는 프랑스, 미국, 아르헨티나로 이주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대학살의 기억을 보존하고 세계에 알리는 데 헌신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이 수집되고 기록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4월 24일을 추모일로 정하고, 매년 희생자들을 기렸습니다. 그들은 터키 정부가 대학살을 인정하고, 국제 사회가 이를 인정하기 위해 싸웠습니다. 이는 단순히 과거의 문제가 아니라 정의와 진실의 문제였습니다.

20세기 후반부터 여러 나라와 국제 기구들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루과이가 1965년 최초로 대학살을 인정했고, 이후 많은 나라들이 뒤따랐습니다. 유럽 의회, 프랑스, 독일, 러시아, 캐나다, 아르헨티나, 이탈리아, 네덜란드, 벨기에, 폴란드 등이 대학살을 인정했습니다. 미국은 2019년 상하원에서, 2021년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공식적으로 대학살을 인정했습니다.

터키는 여전히 이를 대량 학살로 인정하지 않고 있습니다. 터키 정부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죽음이 전쟁의 혼란 속에서 벌어진 비극이며, 양측 모두 희생자가 있었다고 주장합니다. 터키는 “대량 학살”이라는 용어 사용에 강력히 반대하며, 이를 인정하는 나라들에 외교적 압력을 가합니다. 이러한 부인 정책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계속되는 고통입니다.

예레반의 치체르나카베르드에는 대학살 추모 기념관이 세워져 있습니다. 이곳에는 영원의 불꽃이 타 오르고, 희생자들의 이름이 새겨진 벽이 있습니다. 박물관에는 생존자들의 증언, 사진, 문서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매년 4월 24일이 되면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곳을 방문하여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세계 각지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들도 이날 추모 행사를 엽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20세기 대량 학살의 선례가 되었습니다. 라파엘 렘킨이 “제노사이드(genocide, 집단 학살)”라는 용어를 만들 때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염두에 두었다고 합니다. 홀로코스트와 르완다 대학살 등 이후의 비극들과 비교 연구되며, 인류가 결코 잊지 말아야 할 역사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1915년은 단순한 과거가 아니라 현재에도 살아있는 기억이며, 정의를 향한 계속되는 투쟁입니다.

예레반 중심부 공화국 광장(Republic Square, Երևանի Հանրապետության հրապարակ)에서 학살기념관까지는 약 4킬로미터 거리로, 택시를 이용하면 10분 정도면 도착합니다. 대중교통을 이용하려면 지하철 사세룬(Sasuntsi Davit, Զասուճի Դավիթ) 역에서 내려 27번이나 68번 버스를 타고 ‘Tsitsernakaberd’ 정류장에서 하차하면 됩니다. 걸어 가기를 원한다면 공화국 광장에서 마슈토츠 거리(Mashtots Avenue, Թ. Մ. Մաշտոցի պողոտա)를 따라 남쪽으로 내려간 후, 하라즈단 협곡(Hrazdan Gorge, Կրկնաշղթա)을 가로지르는 다리를 건너 언덕길을 따라 올라가면 되는데, 약 40분 정도 소요됩니다. 언덕이 가파르므로 택시 이용을 권장합니다.

기념관은 연중무휴로 운영되며,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관합니다(여름철에는 오후 6시까지 연장). 방문 시 경건한 마음가짐과 적절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4월 24일 학살 추모일에는 수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방문하여 매우 혼잡합니다.

2. 소비에트 시대 - 이념 속 생존과 정체성 투쟁

1920년 12월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편입되었습니다. 1918년 독립을 선언했던 아르메니아 제1공화국은 2년 반 만에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졌습니다. 소비에트 연방의 일원이 된 아르메니아는 이후 70년 동안 공산주의 체제 아래에서 살아가야 했습니다. 이 시기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억압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동시에 근대화와 발전의 시간이기도 했습니다. 특히 종교와 문화를 지키려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노력은 소비에트 체제의 무신론 정책과 끊임없이 충돌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에 편입된 배경을 이해하려면 1918년부터 1920년까지의 혼란한 상황을 살펴봐야 합니다. 제1차 세계대전과 러시아 혁명, 그리고 오스만 제국의 붕괴로 카프카스 지역은 극도의 혼란에 빠졌습니다. 1918년 5월 독립을 선언한 아르메니아 공화국은 처음부터 엄청난 어려움에 직면했습니다. 대학살에서 살아남은 난민들이 계속 러시아 영토로 몰려왔고, 식량과 물자가 턱없이 부족했으며, 주변국들과 영토 분쟁을 겪었습니다.

1920년 9월 터키군이 동쪽으로 진격하여 아르메니아를 침공했습니다. 약하고 고립된 아르메니아는 터키의 공격을 막아낼 힘이 없었습니다. 카르스가 함락되고, 터키군은 예레반을 향해 진격했습니다. 절박한 상황에서 아르메니아 정부는 소비에트 러시아에 도움을 요청했습니다. 레닌의 볼셰비키 정부는 이를 카프카스 지역을 장악할 기회로 보았습니다. 붉은 군대가 아르메니아로 진격했고, 터키군의 진격은 멈췄습니다. 하지만 그 대가로 아르메니아는 독립을 포기해야 했습니다.

1920년 12월 2일 아르메니아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이 선포되었습니다. 다슈낙당이 이끌던 정부는 무너졌고, 볼셰비키가 권력을 장악했습니다. 1922년 아르메니아는 조지아, 아제르바이잔과 함

게 자카프카스 소비에트 연방 사회주의 공화국의 일원이 되었고, 1936년부터는 소비에트 연방의 구성 공화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이제 아르메니아의 운명은 모스크바에서 결정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체제는 종교에 적대적이었습니다. 마르크스-레닌주의는 종교를 "인민의 아편"으로 보았고, 공산주의 사회에서 종교는 사라져야 할 대상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르메니아 사도 교회는 단순한 종교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교회는 1700년 동안 아르메니아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외세의 지배 아래에서도 교회는 아르메니아 문화와 언어를 보존하는 중심이었습니다.

1920년대 초반에는 비교적 온건한 정책이 실시되었습니다. 레닌의 신경제정책(NEP) 시기에 종교에 대한 탄압이 덜했습니다. 에치미아진의 가톨리코스 게보르크 5세는 소비에트 정권과 협력하는 태도를 보였습니다. 그는 아르메니아 교회를 지키기 위해서는 새로운 정권과 타협해야 한다고 판단했습니다. 1920년대 중반까지 교회는 제한적이거나 활동을 계속할 수 있었습니다.

1928년 스탈린이 권력을 완전히 장악하고 급진적인 정책을 펼치면서 상황이 급변했습니다. 스탈린은 종교를 근절하기 위한 공격적인 무신론 캠페인을 시작했습니다. 1930년대는 아르메니아 교회에 가장 어두운 시기였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와 수도원이 폐쇄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교회 건물들은 창고, 공장, 박물관, 심지어 축사로 전용되었습니다. 귀중한 성물과 필사본들이 압수되거나 파괴되었습니다.

성직자들은 탄압의 주요 대상이었습니다. 수천 명의 사제들이 체포되어 시베리아의 강제 노동 수용소(굴라그)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문을 받고 처형되었습니다. 1930년 가톨리코스 게보르크 5세가 사망한 후, 소비에트 당국은 새로운 가톨리코스 선출을 허용하지 않았습니다. 에치미아진은 10년 넘게 가톨리코스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구조를 무너뜨리려는 의도였습니다.

종교 교육은 금지되었습니다. 신학교들이 폐쇄되었고, 새로운 사제를 양성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어린이들에게 종교를 가르치는 것은 범죄로 간주되었습니다. 세례, 결혼식, 장례식 같은 종교 의식을 치르는 것도 어려워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종교 의식이 금지되지 않았지만, 이를 행하는 사람들은 사회적으로 낙인찍히고 직장을 잃거나 박해를 받았습니다.

무신론 선전이 대대적으로 펼쳐졌습니다. 학교에서 아이들은 종교가 미신이며, 과학과 공산주의가 진리라고 배웠습니다. 공산당원은 공개적으로 종교를 믿을 수 없었습니다. 종교를 믿는다는 것이 알려지면 당에서 제명되고, 좋은 직장을 가질 수 없었습니다. 지식인, 예술가, 교사들은 특히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비밀리에 신앙을 지켰습니다. 집에서 몰래 기도하고, 성상을 숨겨두고, 명절을 조용히 지켰습니다.

1930년대 스탈린의 대숙청 시기에 아르메니아도 엄청난 고통을 겪었습니다. 공산당 간부들, 지식인들, 예술가들이 "인민의 적"으로 몰려 체포되고 처형되었습니다.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시베리아로 추방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오래된 문화와 전통도 "부르주아적"이거나 "민족주의적"이라는 이유로 공격받았습니다. 역사책들이 다시 쓰였고, 일부 역사적 사건들은 언급조차 할 수 없게 되었습니다. 특히 1915년 대학살을 공개적으로 논의하는 것이 금지되었습니다.

하지만 제2차 세계대전은 상황을 변화시켰습니다. 1941년 나치 독일이 소련을 침공하자 스탈린은 국민들을 단결시키기 위해 정책을 조정했습니다. 러시아 정교회를 포함한 전통 종교들에 대한 탄압

이 완화되었습니다. 애국심을 고취하기 위해 민족 정체성과 전통 문화가 어느 정도 허용되었습니다. 1943년 드디어 새로운 가톨릭코스 선출이 허용되었습니다. 게보르크 6세가 에치미아진의 가톨릭코스로 선출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전쟁에서 용감하게 싸웠습니다. 약 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붉은 군대에서 복무했고, 그중 10만 명 이상이 전사했습니다. 이반 바그라미안 원수, 아마자스프 바바자니안 원수 같은 뛰어난 군사 지도자들이 나왔습니다. 전쟁 영웅들 중에는 아르메니아인이 많았고, 이는 아르메니아인들의 명예를 높였습니다. 전쟁이 끝난 후 아르메니아 교회와 문화에 대한 태도가 조금 누그러졌습니다.

전후 시기에 대규모 본국 송환 운동이 벌어졌습니다. 스탈린은 해외에 흩어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를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로 돌아오게 하는 정책을 펼쳤습니다. 인구를 늘리고, 아르메니아를 강화하며, 동시에 해외 아르메니아인들을 소비에트 영향권 아래 두려는 의도였습니다. 1946년부터 1948년까지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중동, 유럽, 미국에서 소비에트 아르메니아로 이주했습니다.

하지만 이들을 기다리고 있던 것은 환멸이었습니다. 약속된 좋은 집과 일자리는 없었고, 물질적 조건은 열악했습니다. 더 나쁜 것은 이들이 "외국에서 온 사람들"로 의심받고 감시받았다는 점입니다. 일부는 스파이 혐의로 체포되어 수용소로 보내졌습니다. 많은 본국 송환자들은 돌아온 것을 후회했지만, 다시 떠날 수 없었습니다. 철의 장막이 그들을 가두었습니다.

1953년 스탈린이 사망하고 흐루시초프가 권력을 잡으면서 "해빙" 시기가 왔습니다. 정치적 탄압이 완화되고, 문화적 자유가 조금 늘어났습니다. 굴라그에 수감되었던 많은 사람들이 석방되었습니다. 종교에 대한 태도도 약간 부드러워졌습니다. 하지만 근본적인 변화는 없었습니다. 여전히 종교는 공식적으로 권장되지 않았고, 무신론 교육이 계속되었습니다.

1960년대와 1970년대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 내에서 비교적 발전한 공화국이 되었습니다. 산업화가 진행되고, 교육 수준이 높아졌으며, 생활 수준이 향상되었습니다. 예레반은 현대적인 도시로 변모했습니다. 화학 산업, 기계 제조, 전자 산업이 발전했습니다. 코냑 생산은 아르메니아의 자랑이 되었습니다. 아라랏트 브랜드의 코냑은 소련 전역에서 유명했습니다.

교육과 과학도 발전했습니다. 문맹률이 거의 사라졌고, 대학교육을 받는 인구가 크게 늘었습니다. 예레반 국립대학교는 캅카스 지역의 주요 학술 기관이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과학아카데미는 물리학, 수학, 화학, 천문학 등 여러 분야에서 중요한 연구를 수행했습니다. 부라칸 천문대는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연구 기관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화와 예술도 제한적이거나 번영했습니다. 소비에트 체제는 예술을 통제했지만, 동시에 지원도 했습니다. 국립 극장, 오페라 극장, 박물관들이 운영되었습니다. 아람 하차투리안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작곡가가 되었습니다. 그의 발레 음악 《가야네》에 나오는 "칼의 춤"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사랑하는 곡입니다.

영화 산업도 발전했습니다. 세르게이 파라자노프 감독의 《석류의 색》(1969)은 아르메니아 문화와 역사를 아름답게 표현한 걸작으로 평가받습니다. 비록 소비에트 검열과 충돌하여 파라자노프가 투옥되기도 했지만, 그의 작품은 아르메니아 예술의 독특함을 세계에 보여주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영화는 모스크바 영화제와 국제 영화제에서 여러 차례 상을 받았습니다.

모든 예술과 문화는 검열 아래 있었습니다. “사회주의 리얼리즘”이라는 공식 예술 노선을 따라야 했고, 체제를 비판하거나 민족주의적인 내용은 금지되었습니다. 1915년 대학살은 공개적으로 논의할 수 없는 주제였습니다. 1965년 대학살 50주년을 맞아 예레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을 때, 소비에트 당국은 놀랐습니다.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거리로 나와 대학살을 기억하고, 정의를 요구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 드문 자발적인 대중 시위였습니다.

이 시위 이후 소비에트 당국은 양보했습니다. 예레반에 대학살 추모 기념관인 치체르나카베르드 건물을 허용했습니다. 1967년 기념관이 완공되었고, 영원의 불꽃이 점화되었습니다. 소비에트 아르메니아에서 아르메니아 민족 정체성을 공개적으로 표현할 수 있는 유일한 장소가 되었습니다. 매년 4월 24일이 되면 수천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희생자들을 추모했습니다.

종교는 여전히 억압받았지만, 완전히 사라지지는 않았습니다. 에치미아진은 계속 기능했고, 가톨릭 코스는 아르메니아 교회의 상징적 지도자로 남았습니다. 일부 교회들은 개방되어 있었고, 특히 명절에는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찾았습니다. 노인들은 공개적으로 교회에 다닐 수 있었지만, 젊은이들은 조심해야 했습니다. 하지만 집에서는 많은 가정이 전통을 지켰습니다. 부활절과 크리스마스를 조용히 기념하고, 어린이들에게 이야기를 전했습니다.

1970년대 후반과 1980년대 초반 브레즈네프 시대의 정체기에 소련 경제는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아르메니아도 예외가 아니었습니다. 부패가 만연했고, 물자 부족이 일상화되었습니다. 사람들은 공식 경제보다 암시장과 개인적 연줄에 의존했습니다. 하지만 동시에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 의식은 점점 강해졌습니다. 특히 디아스포라와의 접촉이 늘어나면서 외부 세계에 대한 인식이 높아졌습니다.

1985년 고르바초프가 소련 공산당 서기장이 되면서 페레스트로이카(개혁)와 글라스노스트(개방) 정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는 소비에트 아르메니아에도 큰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확대되고, 정치적 논의가 가능해졌습니다. 오랫동안 금기시되던 주제들을 이제 공개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대학살에 대한 논의가 활발해졌고,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표면화되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주민의 대다수가 아르메니아인이었지만 행정적으로는 아제르바이잔에 속한 자치주였습니다. 1988년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로의 편입을 요구하면서 분쟁이 시작되었습니다. 예레반에서 대규모 시위가 벌어졌고,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왔습니다. 이는 소비에트 체제에 대한 도전이었고, 곧 독립 운동으로 발전했습니다.

1988년 12월 대지진이 아르메니아를 강타했습니다. 스피타크, 레니나칸(현재의 곱리), 키로바칸(현재의 바나조르) 등이 파괴되었습니다. 약 2만 5천 명이 사망하고, 50만 명 이상이 집을 잃었습니다. 재난은 소비에트 체제의 무능함을 드러냈습니다. 구호 활동이 비효율적이었고, 건물들이 부실하게 지어져 쉽게 무너졌다는 것이 밝혀졌습니다. 동시에 전 세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힘을 합쳐 돕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9년부터 1991년 사이 소련이 무너지면서 아르메니아는 독립을 향해 나아갔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 운동이 강력한 정치 세력이 되었고, 공산당의 지배가 약화되었습니다. 70년간의 소비에트 지배는 끝나가고 있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억압과 고난의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신앙과 정체성을 포기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끈기가 결국 독립을 가능하게 만들었습니다.

3. 1991년 독립 - 자유를 되찾은 아르메니아의 새로운 출발

1991년 9월 21일 아르메니아는 소비에트 연방으로부터의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국민투표에서 압도적인 지지를 얻어 아르메니아 공화국이 탄생했습니다. 6세기 만에 아르메니아인들이 다시 완전한 독립 국가를 가지게 된 순간이었습니다. 독립의 기쁨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새로운 국가는 경제 붕괴, 에너지 위기, 전쟁 등 엄청난 도전에 직면했습니다.

독립으로 가는 길은 1988년부터 시작되었습니다. 고르바초프의 개혁 정책이 소련 전역에서 민족주의 운동을 촉발했습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문제가 정치적 각성의 계기가 되었습니다. 1988년 2월 카라바흐의 지방 소비에트가 아르메니아로의 편입을 결의했습니다. 예레반에서는 수십만 명이 거리로 나와 이를 지지하는 시위를 벌였습니다. 극장 광장은 매일 대규모 집회의 장소가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 운동(HHSh)이 시위들을 주도했습니다. 레본 테르-페트로시안, 바즈겐 마누키안, 라피 호바니시안 같은 지식인들과 운동가들이 지도자로 부상했습니다. 그들은 처음에는 카라바흐 문제에 초점을 맞췄지만, 점차 민주화와 궁극적으로는 독립을 요구하기 시작했습니다. 소비에트 당국은 억압하려 했지만, 대중의 지지를 막을 수 없었습니다.

1988년 12월의 대지진은 아이러니하게도 독립 운동을 강화시켰습니다. 소비에트 정부의 무능한 대응은 사람들에게 모스크바에 대한 환멸을 심어주었습니다. 디아스포라를 포함한 아르메니아인들의 자발적인 구호 활동은 민족적 단결을 강화시켰습니다. 사람들은 스스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고, 또 그래야 한다고 느꼈습니다.

1989년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의 갈등이 격화되었습니다. 양측에서 폭력 사태가 벌어졌고, 수만 명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에 살던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르메니아로 피난했고, 아르메니아에 살던 아제르바이잔인들이 아제르바이잔으로 갔습니다. 사실상 인구 교환이었습니다. 1990년 1월 바쿠에서 아르메니아인들에 대한 포그롬(집단 학살)이 벌어졌고, 소비에트 군대가 개입했지만 많은 희생자가 발생했습니다.

1990년 5월 아르메니아 최고 소비에트(의회) 선거가 실시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민족 운동이 다수 의석을 차지했고, 레본 테르-페트로시안이 최고 소비에트 의장으로 선출되었습니다. 사실상 아르메니아의 대통령 역할이었습니다. 공산당의 일당 독재가 끝나고, 다당제 민주주의가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소련 내에서 가장 빠르게 민주화가 진행되는 공화국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1990년 8월 아르메니아 최고 소비에트는 독립 선언문을 채택했습니다. 즉각적인 독립은 아니었지만, 아르메니아가 주권 국가임을 선언하고 소련 법률보다 아르메니아 법률이 우선한다고 못 박았습니다. 점진적인 독립을 향한 중요한 단계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자체 군대 창설, 경제 정책 결정, 외교 관계 수립을 시작했습니다.

1991년 소련 전체가 급속히 붕괴하고 있었습니다. 발트 3국이 독립을 선언했고, 러시아의 보리스 예리친이 개혁파로 부상했습니다. 8월에는 모스크바에서 쿠데타가 시도되었지만 실패했습니다. 이 쿠데타의 실패는 소련의 종말을 앞당겼습니다. 아르메니아를 포함한 여러 공화국들이 독립을 가속화했습니다.

1991년 9월 21일 국민투표가 실시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가 소비에트 연방에서 독립한 민주 공화국이 되는 것에 동의하십니까?"라는 질문에 투표자의 99.5%가 찬성했습니다. 투표율은 95%였습니다. 이보다 명확한 민의 표현은 없었습니다. 같은 날 대통령 선거도 실시되어 레본 테르-페트로시

안이 아르메니아 공화국의 초대 대통령으로 당선되었습니다.

9월 23일 아르메니아 최고 소비에트는 공식적으로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12월 25일 소비에트 연방이 공식 해체되면서 아르메니아의 독립이 국제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유엔에 가입했고, 세계 각국과 외교 관계를 수립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를 포함한 많은 나라들이 아르메니아를 국가로 승인했습니다. 전 세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새로운 조국의 탄생을 축하했습니다.

독립의 초기는 매우 어려웠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심각한 경제 위기에 직면했습니다. 소련의 계획 경제 체계가 무너지면서 생산이 급감했습니다. 소련 시절 아르메니아 경제는 다른 공화국들과 긴밀히 연결되어 있었는데, 이 연결이 끊어지면서 원자재와 부품 공급이 중단되었습니다. 많은 공장들이 문을 닫았고, 실업률이 치솟았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에너지 위기였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에너지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했습니다. 1988년 대지진 이후 메츠아모르 원자력 발전소가 안전상의 이유로 폐쇄되면서 상황이 악화되었습니다. 아제르바이잔과의 전쟁으로 아제르바이잔을 통과하는 가스 파이프라인이 차단되었습니다. 터키는 카라바흐 전쟁을 이유로 아르메니아와의 국경을 봉쇄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말 그대로 고립된 섬이 되었습니다.

1992년부터 1995년까지 아르메니아는 "암흑의 겨울"을 겪었습니다. 전기는 하루에 겨우 몇 시간만 들어왔습니다. 난방이 없어 사람들은 혹독한 추위에 떨어졌습니다. 나무를 베어 난방 연료로 사용했고, 예레반의 공원들이 벌거숭이가 되었습니다. 엘리베이터가 작동하지 않아 사람들은 고층 아파트의 계단을 걸어 올라야 했습니다. 물 공급도 불규칙했습니다. 겨울에는 영하의 날씨에 난방 없이 지내야 했습니다.

식량도 부족했습니다. 빵을 사기 위해 긴 줄을 서야 했고, 많은 기본 식품들이 구하기 어려웠습니다. 인플레이션이 치솟아 저축이 순식간에 가치를 잃었습니다. 중산층이 붕괴했고, 많은 사람들이 빈곤에 빠졌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였습니다. 가족과 공동체가 서로 돕고, 디아스포라에서 보내온 송금이 많은 가정을 지탱했습니다. 국제 구호 단체들도 도움을 제공했습니다.

동시에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을 치르고 있었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전면전이 벌어졌습니다. 공식적으로는 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과 아제르바이잔 정부 사이의 전쟁이었지만, 실제로는 아르메니아가 깊이 개입했습니다.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 청년들이 자원하여 카라바흐로 가서 싸웠습니다. 수만 명이 전사하거나 부상당했습니다.

전쟁 초기에는 아제르바이잔이 우세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인구도 많고 자원도 풍부했습니다. 아르메니아군은 점차 전세를 역전시켰습니다. 1992년 슈시를 탈환하고, 1993년에는 카라바흐와 아르메니아 본토를 연결하는 라친 회랑을 확보했습니다. 1994년 5월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카라바흐와 그 주변 아제르바이잔 영토 7개 지역을 장악했습니다.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과 60만 명 이상의 아제르바이잔인이 난민이 되었습니다.

이 전쟁의 승리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큰 자부심을 주었지만, 엄청난 대가를 치렀습니다. 전쟁 비용으로 경제가 더욱 피폐해졌고, 아제르바이잔 및 터키와의 관계가 악화되어 고립이 심화되었습니다. 카라바흐 문제는 해결되지 않은 채 "얼어붙은 분쟁"으로 남았고, 이는 아르메니아의 안보와 발전에 계속해서 그림자를 드리웠습니다.

1995년 아르메니아는 새 헌법을 채택했습니다. 대통령제 공화국 체제를 확립하고, 삼권 분립을 규정했습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대통령에게 막강한 권한이 집중되었습니다. 테르-페트로시안 대통령은 권위주의적 방식으로 통치했고, 반대파를 억압했습니다. 언론의 자유가 제한되고, 선거의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1996년 대통령 선거는 부정 시비로 얼룩졌고, 시위를 진압하는 과정에서 유혈 사태가 벌어졌습니다.

경제적으로는 점차 안정을 찾기 시작했습니다. 1995년 메츠아모르 원자력 발전소가 재가동되면서 에너지 위기가 완화되었습니다. 시장 경제로의 전환이 진행되었고, 민영화가 추진되었습니다. 국제 통화기금(IMF)과 세계은행의 지원을 받아 경제 개혁을 실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 통제되고, 새로운 통화 드람이 도입되어 안정되었습니다.

디아스포라의 역할이 매우 중요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아르메니아인들이 조국을 지원했습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 중동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들이 자금을 보내고, 투자를 하고, 전문 지식을 제공했습니다. 커크 케르코리안 같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사업가들이 수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하야스탄” 전 아르메니아 기금 같은 조직들이 설립되어 학교, 도로, 병원 건설을 지원했습니다.

1998년 테르-페트로시안은 카라바흐 문제에서 타협안을 제시했다가 강경파의 반발을 받아 사임했습니다. 로베르트 코차리안이 새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코차리안은 카라바흐 출신으로 강경한 민족 주의자였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1998-2008) 동안 아르메니아는 경제 성장을 경험했지만, 동시에 권위주의가 강화되고 부패가 만연했습니다.

1999년 10월 의회 테러 사건이 발생했습니다. 무장한 괴한들이 의회에 난입하여 총리 바즈겐 사르키시안을 포함한 8명을 살해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치에 큰 충격을 주었고, 권력 구조에 변화를 가져왔습니다. 배후에 대해서는 여러 추측이 있지만, 밝혀지지 않았습니다.

2000년대 아르메니아 경제는 빠르게 성장했습니다. 연평균 10% 이상의 성장률을 기록했습니다. 건설 붐이 일어나고, 예레반은 대대적인 재개발을 겪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의 낡은 건물들이 철거되고, 현대적인 건물들이 들어섰습니다. 카페, 레스토랑, 쇼핑몰이 늘어났습니다. IT 산업이 발전하여 아르메니아는 “캅카스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기 시작했습니다.

경제 성장의 혜택은 고르게 분배되지 않았습니다. 부패한 과두 재벌들이 경제를 장악했고, 빈부 격차가 커졌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전히 가난했고, 젊은이들은 일자리를 찾아 해외로 떠났습니다. 러시아, 미국, 유럽으로의 노동 이민이 계속되었습니다. 인구가 감소하는 것이 큰 문제가 되었습니다. 독립 당시 350만 명이었던 인구가 300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정치적으로는 민주주의의 발전이 더뎠습니다. 선거는 정기적으로 실시되었지만, 공정성에 의문이 제기되었습니다. 야당은 탄압받았고, 언론의 자유는 제한되었습니다. 시민 사회는 활발했지만, 정치적 영향력은 제한적이었습니다. 국제 기구들은 아르메니아의 민주주의 수준을 “부분적으로 자유로운” 국가로 평가했습니다.

2008년 대통령 선거는 대규모 시위로 이어졌습니다. 세르지 사르키시안이 당선되었지만, 야당은 부정 선거라고 주장했습니다. 시위대와 경찰이 충돌하여 10명이 사망했습니다. 사르키시안은 2008년부터 2018년까지 대통령으로 재임했습니다. 그의 집권 기간 동안 경제는 계속 성장했지만, 부패와 불평등도 심화되었습니다. 2015년 헌법 개정으로 의회 중심제로 전환했고, 사르키시안은 2018년 총리가 될 계획이었습니다.

2018년 “벨벳 혁명”이라 불리는 평화적 시민 혁명이 일어났습니다. 니콜 파시니안이 이끄는 대중 시위로 사르키시안이 사임했습니다. 파시니안은 총리가 되어 부패 척결과 민주주의 강화를 약속했습니다. 아르메니아 현대사에서 중요한 전환점이었습니다. 처음으로 평화적이고 합법적인 방식으로 권력 교체가 이루어졌습니다.

파시니안 정부는 개혁을 추진했지만, 2020년 제2차 카라바흐 전쟁이라는 큰 시련에 직면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이 터키의 지원을 받아 공격을 시작했고, 44일 전쟁 끝에 아르메니아는 패배했습니다. 카라바흐의 상당 부분과 주변 7개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반환해야 했습니다. 큰 충격과 좌절을 안겨주었습니다. 독립 이후 30년이 넘는 시간 동안 많은 어려움을 겪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들의 국가를 지키고 발전시켜 왔습니다. 민주주의를 위한 투쟁은 계속되고 있고, 젊은 세대는 더 나은 미래를 향한 희망을 가지고 있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는 고대의 유산과 현대의 도전 사이에서 자신의 길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7장 아르메니아의 영혼과 문화적 DNA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 2000년을 이어온 신학과 전례의 보고

사도교회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국가 교회입니다. 서기 301년, 아르메니아는 로마 제국보다 먼저 기독교를 국교로 선포했습니다. 단순히 종교를 받아들인 것이 아니라 민족의 정체성 그 자체를 새롭게 정의하는 사건이었습니다. 17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민족의 생존과 문화를 지켜온 보루였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가 '사도교회'라고 불리는 이유는 예수의 열두 제자 중 두 명인 타대오와 바르톨로메오가 직접 아르메니아 땅에 와서 복음을 전했다는 전승 때문입니다. 이들이 뿌린 씨앗은 성 그레고리오스를 통해 꽃을 피웠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당시 아르메니아 왕 티리다테스 3세를 개종시켰고, 아르메니아 전체가 기독교 국가로 변모했습니다. 그레고리오스는 '조명자'라는 칭호를 얻었는데, 이는 그가 어둠 속에 있던 민족에게 빛을 가져왔다는 의미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신학은 초기 기독교 공의회들의 결정을 따르면서도 독특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의 결정을 받아들이지 않았다는 점에서 다른 동방 정교회나 가톨릭과 구별됩니다. 칼케돈 공의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두 본성으로 존재한다고 선언했지만, 아르메니아 교회는 이 두 본성이 하나로 결합되었다는 입장을 취했습니다. 이를 단성론(Monophysitism)과는 구별되는 합성론 혹은 통합론(Miaphysitism)이라고 부르는데, 사실 이는 오해에서 비롯된 명칭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예수의 신성만을 인정하는 것이 아니라, 신성과 인성이 완전히 하나로 결합되었다고 믿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입장은 아르메니아 교회가 로마 가톨릭이나 비잔틴 정교회와는 별도의 길을 걷게 만들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비잔틴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 사이에 끼어 있었고, 이후에는 이슬람 세력과 기독교 세력 사이에서 살아남아야 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독자적인 신학과 교회 체계를 유지하는 것은 민족의 정체성을 지키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전례, 예배 의식은 매우 고대적이고 장엄한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배는 대부분 고전 아르메니아어인 그라바르로 진행되며, 라틴어가 가톨릭 미사에서 사용되는 것과 비슷합니다. 전례는 여러 세기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예루살렘과 시리아, 비잔틴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아르메니아적 색채로 재해석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예배는 성찬례입니다. 아르메니아어로 '파타라그'라고 불리는 이 의식은 예수의 최후의 만찬을 재현하는 것입니다. 전례는 세 부분으로 구성됩니다. 첫 번째는 준비 예배로, 성직자들이 제단을 준비하고 성가를 부르며 회중을 준비시킵니다. 두 번째는 말씀의 전례로, 성경을 낭독하고 설교를 합니다. 세 번째는 성찬의 전례로, 빵과 포도주를 축성하여 신자들에게 나누어줍니다.

전례 특징 중 하나는 향을 많이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예배가 진행되는 동안 사제들은 향로를 들고 교회 안을 돌며 향을 피웁니다. 기도가 하늘로 올라가는 것을 상징하며, 동시에 공간을 거룩하게 만드는 의미가 있습니다. 향 연기가 피어오르는 가운데 고대 언어로 부르는 성가는 신비롭고 영적인 분

위기를 만들어냅니다.

또 다른 특징은 무발효빵을 사용한다는 점입니다. 가톨릭은 무발효빵을, 정교회는 발효빵을 사용하는데, 아르메니아 교회는 가톨릭과 같은 방식을 따릅니다. 포도주는 물과 섞지 않고 순수한 포도주만을 사용하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순수한 신성을 상징합니다.

성직자 제도도 독특합니다. 최고 지도자는 '카톨리코스'라고 불리는데, 총대주교와 비슷한 지위입니다. 현재 아르메니아 교회에는 두 명의 카톨리코스가 있습니다. 한 명은 아르메니아 본토의 에치미아진에 있고, 다른 한 명은 레바논의 실리시아에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이 역사적으로 여러 지역으로 흩어져 살아왔기 때문입니다.

사제들은 결혼할 수 있지만, 주교가 되려면 독신이어야 합니다. 이는 동방 정교회의 전통과 같습니다. 사제들은 검은색 수도복을 입고 원뿔 모양의 독특한 모자를 씩니다. 이 모자는 '베갈'이라고 불리며, 그리스도의 가시관을 상징한다고도 하고,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던 아라라트 산을 상징한다고도 합니다.

전례력, 즉 종교적 달력도 독특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에 예수의 탄생과 세례를 함께 기념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따르는 것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교회들이 12월 25일 성탄절과 1월 6일 주현절을 따로 지키는 것과는 다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에는 많은 성인들이 있습니다. 성 그레고리오스 조명자를 비롯해, 순교자들, 수도자들, 신학자들이 공경의 대상입니다. 특히 제노사이드의 희생자들도 순교자로 기억됩니다. 1915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학살당한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집단 순교자로 시성되었습니다. 이는 민족의 고통과 신앙이 하나로 결합된 독특한 예입니다.

성화, 즉 이콘도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이콘은 비잔틴 양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더 단순하고 절제된 느낌을 줍니다.

교회 안에는 예수, 성모 마리아, 성인들의 이콘이 걸려 있고, 신자들은 예배 전후에 이콘 앞에서 기도하고 촛불을 켭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신학과 전례는 민족의 역사와 불가분의 관계입니다. 수많은 침략과 박해 속에서도 이 전통을 지켜온 것은 단순히 종교적 믿음 때문만이 아닙니다. 그것은 곧 아르메니아인으로서의 정체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언어가 금지되고, 땅이 빼앗기고, 사람들이 흩어져도 교회는 남아서 아르메니아인들을 하나로 묶어주었습니다.

오늘날에도 전 세계에 흩어져 사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교회는 고향과 같은 곳입니다. 미국이든, 프랑스든, 러시아든, 중동이든, 아르메니아 교회가 있는 곳에서 그들은 같은 언어로 같은 전례를 경험하며 공동체를 형성합니다. 이것이 아르메니아 사도교회가 단순한 종교를 넘어서 민족의 영혼 그 자체인 이유입니다.

2. 수도원 건축 - 돌에 새긴 영혼의 상징성과 구조미

아르메니아의 산과 계곡을 여행하다 보면 놀라운 광경을 목격하게 됩니다. 험준한 산 중턱이나 깊은 협곡 속에 수백 년, 때로는 천 년이 넘는 수도원들이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단순히 종교 건물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문화와 정신의 결정체입니다. 건축물 하나하나에 신앙과 예술, 역사가 녹

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수도원 건축의 가장 큰 특징은 돌입니다. 아르메니아는 화산암이 풍부한 땅이며, 특히 검은색과 붉은색의 현무암과 화산암이 많습니다. 건축가들은 이 돌을 정교하게 다듬어 건물을 지었습니다. 시멘트나 모르타르를 최소한으로 사용하고 돌과 돌을 정확하게 맞물려 쌓았기 때문에, 수백 년이 지나도 무너지지 않는 견고한 구조를 만들 수 있었습니다.

수도원은 보통 여러 건물로 구성됩니다. 중심에는 교회당이 있고, 주변에 수도사들의 숙소, 식당, 도서관, 종탑 등이 배치됩니다. 전체를 성벽으로 둘러싸는 경우도 많은데, 이는 단순히 방어용이 아니라 세속 세계와 구별되는 거룩한 공간을 만들기 위함입니다.

교회당의 평면은 대부분 십자가 모양입니다. '중앙 집중형' 평면이라고 부르는데, 중앙에 돔이 있고 그 아래에 네 방향으로 팔이 뻗어 나가는 형태입니다. 비잔틴 건축의 영향을 받았지만, 아르메니아만의 독특한 해석이 더해졌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는 비잔틴 교회보다 더 수직적이고, 외부 장식은 더 절제되어 있습니다.

가장 인상적인 부분은 돔입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돔은 원뿔형으로 높이 솟아 있습니다. 이는 하늘을 향한 인간의 영적 열망을 상징합니다. 돔의 내부에서 위를 올려다보면 천장에 십자가나 그리스도의 형상이 그려져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빛이 돔의 창문을 통해 들어오면 그 형상이 신비롭게 빛나며, 마치 하늘에서 내려오는 신의 빛처럼 느껴집니다.

외부를 보면 벽면에 정교한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장 흔한 모티프는 십자가입니다. 아르메니아 십자가는 독특한데, 단순한 십자가가 아니라 팔 끝이 넓어지고 그 주변에 포도나무, 석류, 꽃 등의 문양이 더해집니다. 이를 '하치카르'라고 하는데, 이것 자체가 하나의 예술 장르입니다. 하치카르는 돌에 새긴 십자가 기념비로, 수도원 주변이나 묘지, 순례 길에 세워집니다.

하치카르의 문양을 자세히 보면 놀라운 정교함을 발견하게 됩니다. 십자가를 중심으로 기하학적 무늬가 대칭적으로 펼쳐지고, 그 사이사이에 식물 문양이 섬세하게 새겨져 있습니다. 같은 하치카르가 하나도 없을 만큼 각각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는 장인들의 창의성과 기술력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건축의 상징성은 곳곳에 숨어 있습니다. 교회의 방향은 대부분 동쪽을 향합니다. 이는 예수가 재림할 때 동쪽에서 온다는 믿음 때문입니다. 따라서 제단은 동쪽 끝에 위치하고, 입구는 서쪽에 있습니다. 신자들은 서쪽에서 들어와 동쪽을 향해 예배를 드립니다.

수도원의 위치도 상징적입니다. 많은 수도원이 산 중턱이나 외딴곳에 자리 잡고 있는데, 이는 세속을 떠나 신에게 가까이 가려는 수도자들의 열망을 반영합니다. 동시에 실용적인 이유도 있었습니다. 외딴곳은 침략자들의 눈에 잘 띄지 않았고, 따라서 전쟁과 박해의 시기에 안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많은 수도원이 아르메니아 문화를 보존하는 마지막 보루 역할을 했습니다.

대표적인 수도원들을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게하르트 수도원입니다. 게하르트는 '창'을 의미하는데, 이는 예수를 찔렀던 로마 병사의 창이 여기에 보관되었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이 수도원의 놀라운 점은 일부가 암벽에 직접 조각되었다는 것입니다. 자연 동굴을 확장하여 예배당을 만들었고, 천장과 벽에 섬세한 십자가와 문양을 새겼습니다. 바위 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는 독특한 음향 효과를 만들어냅니다.

하그파트와 사나한 수도원은 10세기에 지어진 대규모 수도원 단지입니다. 이곳은 단순히 예배의 장소가 아니라 학문과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필사본이 보관되었고, 수도사들은 신학, 철학, 과학, 의학을 연구했습니다. 건축적으로도 뛰어나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호르 비랍 수도원은 아라라트 산이 보이는 곳에 위치해 있습니다. 이곳은 성 그레고리오스가 13년간 갇혀 있던 지하 감옥이 있는 곳으로, 아르메니아 기독교의 시작과 관련된 가장 성스러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지하 감옥으로 내려가는 좁은 사다리를 타고 내려가면 작고 어두운 공간이 나타나는데, 그곳에서 그레고리오스가 어떻게 생존했는지 상상하면 경외심이 듭니다.

타테브 수도원은 깊은 협곡 위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곳에 가려면 세계에서 가장 긴 왕복 케이블 카를 타야 합니다. 수도원 자체도 인상적이지만, 주변 풍경이 압도적입니다. 수도원에서 내려다보면 깊은 협곡과 계곡이 펼쳐지고, 마치 세상 끝에서 있는 듯한 느낌을 받습니다.

수도원 건축에서 빛의 사용도 중요합니다. 작은 창문들이 전략적으로 배치되어 하루 중 특정 시간에 특정 부분을 비춥니다. 이른 아침 해가 뜨면 동쪽 창문을 통해 제단에 빛이 쏟아지고, 정오에는 돔의 창문을 통해 내부가 밝아집니다. 이러한 빛의 움직임은 시간의 흐름과 신의 임재를 시각적으로 경험하게 합니다.

음향도 건축 설계의 중요한 요소였습니다. 돔과 벽의 구조가 소리를 증폭시켜 작은 소리도 교회 전체에 울려 퍼지게 만듭니다. 사제가 제단에서 낮은 목소리로 기도를 해도 뒤편의 신자들이 들을 수 있을 만큼 음향이 뛰어납니다. 이는 단순히 우연이 아니라 건축가들의 계산된 설계였습니다.

수도원은 또한 사회적 기능도 수행했습니다. 중세 시대에 수도원은 병원, 학교, 고아원, 여행자를 위한 숙소 역할도 했습니다. 주변 마을 사람들에게 수도원은 영적인 중심일 뿐 아니라 실질적인 도움을 받을 수 있는 곳이었습니다. 기근이나 전쟁의 시기에 수도원은 식량을 나누고 피난처를 제공했습니다.

오늘날 이 수도원들은 여전히 기능하고 있습니다. 일부는 관광지가 되었지만, 많은 곳에서 여전히 수도사들이 살며 예배를 드립니다. 순례자들이 찾아와 기도하고, 전통적인 전례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이 오래된 돌 건물들은 과거와 현재를 잇는 다리이며, 아르메니아인들의 영적 여정이 계속되는 살아 있는 공간입니다.

3. 언어와 문자 - 그라바르에 담긴 민족의 언어 자긍심

언어는 민족의 영혼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아르메니아어, 특히 고전 아르메니아어인 그라바르는 단순한 의사소통 수단이 아닙니다. 그것은 신앙을 담는 그릇이며, 문화를 전승하는 매개체이며, 민족 정체성의 핵심입니다. 그라바르의 역사는 아르메니아 교회와 문화의 역사 그 자체입니다.

아르메니아어는 인도유럽어족에 속하지만 독자적인 가치를 형성합니다. 그리스어, 페르시아어, 라틴어와 친척 관계이지만, 어느 것과도 같지 않은 독특한 언어입니다. 수천 년 동안 코카서스 지역에서 발전하면서 주변 언어들의 영향을 받았지만, 핵심적인 구조와 어휘는 독자성을 유지했습니다.

그러나 4세기까지 아르메니아어는 문자가 없었습니다. 구전으로만 전해지거나, 그리스 문자나 시리아 문자를 빌려 쓰는 상황이었습니다. 이는 큰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번역할 수 없었고, 따라서 일반

사람들은 자신의 언어로 신의 말씀을 읽을 수 없었습니다. 교육과 문화 발전에도 한계가 있었습니다.

이 문제를 해결한 사람이 성 메스롭 마슈토츠입니다. 그는 신학자이자 언어학자로, 아르메니아어의 소리를 완벽하게 표현할 수 있는 고유의 문자를 만들기로 결심했습니다. 이는 단순한 학문적 프로젝트가 아니라 민족의 미래를 위한 거룩한 사명이었습니다.

마슈토츠는 오랜 연구 끝에 405년 아르메니아 문자를 완성했습니다. 36개의 글자로 구성된 이 문자 체계는 과학적이고 체계적이었습니다. 각 글자는 아르메니아어의 특정 소리를 정확하게 표현했고, 배우기도 쉬웠습니다. 문자의 형태도 아름다웠습니다. 우아한 곡선과 직선이 조화를 이루며, 마치 예술 작품처럼 보였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마슈토츠는 신의 계시를 받아 문자를 창제했다고 합니다. 그가 창제한 첫 번째 문장은 성경 잠언의 구절이었습니다. “지혜를 알고 훈계를 깨닫기 위하여.” 이는 상징적입니다. 문자의 목적이 단순히 일상적 의사소통이 아니라 신의 지혜를 전하고 배우는 것임을 보여줍니다.

문자가 만들어지자 곧바로 성경 번역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마슈토츠와 그의 제자들은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성경을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했습니다. 이 번역본은 매우 뛰어나 ‘번역의 여왕’이라는 찬사를 받았습니다. 원문의 의미를 정확하게 전달하면서도 아르메니아어의 아름다움을 살렸기 때문입니다.

5세기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황금기가 되었습니다. 문자를 가지게 되자 문학, 역사, 철학, 과학 등 모든 분야에서 저작물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시기를 ‘황금 시대’라고 부릅니다. 신학자들은 교리서를 썼고, 역사가들은 민족의 역사를 기록했으며, 시인들은 찬송가를 지었습니다.

그라바르, 즉 고전 아르메니아어는 이 시기에 형성된 문어체입니다. ‘그라바르’는 ‘쓰인 것’을 의미합니다. 이는 일상 구어와는 구별되는 격식 있고 고상한 언어였습니다. 라틴어가 중세 유럽에서 학문과 종교의 언어였던 것처럼, 그라바르는 아르메니아에서 천 년 이상 그러한 역할을 했습니다.

그라바르의 문법은 복잡하고 정교합니다. 명사는 7개의 격을 가지고, 동사는 다양한 시제와 서법을 표현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복잡성은 미묘한 의미의 차이를 표현하는 데 유리했습니다. 신학적 논쟁이나 철학적 사고를 정밀하게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어휘도 풍부했습니다. 일상 용어부터 추상적 개념까지 모두 표현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스어나 시리아어에서 차용한 단어도 있었지만, 대부분은 고유 아르메니아어 어근에서 만들어졌습니다. 예를 들어 ‘신학’을 의미하는 단어는 그리스어를 그대로 가져오지 않고 아르메니아어 어근으로 새로 만들었습니다.

필사본 전통도 중요합니다. 인쇄술이 발명되기 전까지 모든 책은 손으로 필사되었습니다. 수도원의 필사실에서 수도사들은 양피지에 그라바르로 성경과 전례서, 신학서를 베껴 썼습니다. 이 작업은 단순한 복사가 아니라 경건한 수행이었습니다. 필사자들은 글자 하나하나를 정성껏 썼고, 책의 여백에는 아름다운 장식을 그려 넣었습니다.

아르메니아 필사본은 예술 작품입니다. 첫 페이지에는 정교한 장식 글자가 있고, 중요한 부분에는 삽화가 들어갑니다. 복음서의 경우 네 복음사가의 초상화가 그려지고, 예수의 생애를 묘사한 그림들이 포함됩니다. 색채는 화려하면서도 조화롭고, 금박이 사용되어 빛을 받으면 반짝입니다.

가장 유명한 필사본은 에치미아진 복음서입니다. 6세기에 제작된 이 책은 현존하는 아르메니아 필사본 중 가장 오래되었습니다. 상아로 만든 표지에는 성모 마리아와 성인들이 조각되어 있고, 내부에는 복음서 전체가 정교하게 필사되어 있습니다. 이 책은 아르메니아의 국보이며, 에치미아진 대성당의 보물 창고에 보관되어 있습니다.

그라바르는 전례 언어로서의 역할도 중요합니다. 오늘날까지 아르메니아 교회의 예배는 그라바르로 진행됩니다. 일반 신자들은 일상적으로 현대 아르메니아어를 사용하지만, 미사에 참석하면 천 년 전의 언어를 듣습니다. 이는 과거와의 연결을 유지하는 방식입니다. 같은 단어와 문장으로 조상들이 기도했다는 사실이 시간을 초월한 공동체 의식을 만들어냅니다.

그라바르로 쓰인 기도문과 찬송가는 리듬감과 음악성이 뛰어납니다. 소리 내어 읽으면 마치 시와 같습니다. 특히 성 나레크의 기도문은 언어의 아름다움이 극에 달합니다. 그는 그라바르의 가능성을 최대한 활용하여 신비롭고 감동적인 문장들을 만들어냈습니다.

언어는 억압의 시기에 더욱 중요해졌습니다. 오스만 제국 지배 하에서 아르메니아어 사용이 금지되고 교회가 폐쇄될 때, 사람들은 몰래 그라바르를 가르치고 배웠습니다. 필사본을 땅에 묻어 숨기고, 전쟁이 끝난 후 다시 꺼내 읽었습니다. 언어를 지키는 것이 곧 민족을 지키는 일이었습니다.

소비에트 시대에도 그라바르는 탄압받았습니다. 공산당은 종교를 억압했고, 교회 예배를 금지했습니다. 그러나 그라바르는 '고전 언어'라는 명목으로 학문적 연구는 허용되었습니다. 학자들은 겉으로는 언어학을 연구한다고 하면서 실제로는 전통을 보존했습니다.

그라바르는 살아있는 전통입니다. 신학교에서는 여전히 그라바르를 필수 과목으로 가르칩니다. 사제가 되려면 그라바르로 전례를 집전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일반 대학에서도 고전어 과정으로 그라바르를 제공합니다. 문학과 역사를 전공하는 학생들은 원전을 읽기 위해 그라바르를 배웁니다.

아르메니아 문자 자체도 문화적 상징입니다. 문자의 형태는 조각, 회화, 디자인에 사용됩니다. 예레반에는 아르메니아 문자 기념비가 있는데, 36개의 거대한 돌 글자가 산 중턱에 세워져 있습니다. 사람들은 그곳을 찾아가 글자 사이를 걸으며 자신들의 언어와 문화를 기념합니다.

그라바르는 단순한 옛 언어가 아닙니다. 신앙의 그릇이며, 조상들의 목소리이며, 민족의 정체성을 담은 보물입니다. 천 년이 넘는 세월 동안 수많은 기도와 찬송, 눈물과 희망이 이 언어로 표현되었습니다. 오늘날도 아르메니아의 교회에서는 그라바르로 된 성가가 울려 퍼지며,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이어주고 있습니다.

4. 음악과 시, 그리고 기도 샤라칸과 나레크의 영성이 깃든 예술

영성은 표현방식은 다양하지만 그 중 하나는 소리일 것입니다. 수도원의 돌벽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 시로 쓰인 기도문, 그리고 그것들이 만들어내는 영적 경험은 아르메니아 문화의 가장 깊은 차원입니다. 이 중에서도 샤라칸이라는 찬송가 전통과 성 나레크의 기도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샤라칸은 아르메니아 전례 음악의 핵심입니다. '연속적인 노래' 또는 '줄지어 부르는 노래'를 의미합니다. 샤라칸은 단순히 음악이 아니라 신학을 노래로 표현한 것입니다. 각 찬송가는 특정한 교리나 성경 이야기, 성인의 생애를 다룹니다. 따라서 샤라칸을 부르는 것은 곧 신학을 배우고 신앙을 고백하는 행위입니다.

샤라칸의 역사는 5세기까지 거슬러 올라갑니다. 아르메니아 문자가 만들어진 직후, 신학자들은 그리스어와 시리아어 찬송가를 번역하기 시작했습니다. 단순한 번역에 그치지 않고 아르메니아만의 독특한 선율과 리듬을 개발했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민요와 전통 음악의 영향을 받았습니다.

위대한 샤라칸 작곡가는 8세기의 성 코스탄딘과 9-10세기의 성 그리고르 나레카치입니다. 이들은 수백 곡의 찬송가를 작곡했고, 많은 곡이 오늘날까지 불리고 있습니다. 단순하면서도 깊이가 있고, 반복되는 선율 속에 명상적인 분위기를 담고 있습니다.

샤라칸은 서양 음악의 장조나 단조와는 다른 선법을 사용합니다. 이를 '교회 선법'이라고 부르는데, 비잔틴 음악과 유사하면서도 아르메니아만의 색채가 있습니다. 음정의 간격이 독특하여 때로는 이국적으로 들리기도 하고, 때로는 애수에 차 있기도 합니다.

리듬도 흥미롭습니다. 서양 음악처럼 일정한 박자가 반복되는 것이 아니라, 가사의 자연스러운 흐름을 따릅니다. 그라바르의 음절 길이에 따라 음표의 길이가 결정됩니다. 따라서 샤라칸을 부르려면 그라바르의 발음과 리듬을 정확히 알아야 합니다.

샤라칸은 대부분 무반주로 부릅니다. 악기 없이 오직 인간의 목소리만으로 노래합니다.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목소리는 가장 순수한 악기이며, 신에게 드리는 찬양에 가장 적합하다고 믿었습니다. 돌로 된 교회 건물의 음향 효과와 결합하면 샤라칸은 더욱 신비롭게 들립니다.

합창으로 부르는 경우도 있지만, 아르메니아의 합창은 서양의 화성과는 다릅니다. 모든 사람이 같은 선율을 부르지만, 약간씩 다른 높이와 음색으로 부릅니다. 이것이 만들어내는 소리는 마치 하나의 거대한 목소리 같으면서도 풍부한 질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샤라칸의 가사는 시적입니다. 은유와 상징이 풍부하고, 성경의 이미지들이 아름답게 엮여 있습니다. 예를 들어 부활절 샤라칸은 어둠에서 빛으로, 죽음에서 생명으로의 전환을 노래합니다. 크리스마스 샤라칸은 하늘에서 땅으로 내려온 신의 사랑을 묘사합니다.

전례 시기에 따라 다른 샤라칸이 불립니다. 대림절, 성탄절, 사순절, 부활절 등 각 시기마다 고유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성인의 축일에도 그 성인을 기념하는 특별한 샤라칸이 있습니다. 따라서 1년 내내 다양한 샤라칸을 경험하게 됩니다.

성 나레크의 음악과 시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그리고르 나레카치(951-1003)는 10세기 아르메니아의 수도사이자 신학자, 시인, 작곡가였습니다. 그는 나레크 수도원에서 평생을 보냈으며, 그곳에서 위대한 영적 작품들을 창조했습니다.

나레크의 가장 유명한 작품은 '비탄의 책'입니다. 아르메니아어로 '마타얀 보가크'라고 불리는 이 책은 95개의 기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각 기도는 죄의 고백, 회개, 그리고 신의 자비를 간구하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단순한 참회문이 아닙니다. 그것은 인간 영혼의 가장 깊은 곳을 탐구하는 시적 여정입니다. 나레크의 언어는 그라바르의 가능성을 극한까지 끌어올립니다. 그는 새로운 단어를 만들어내고, 독특한 문법 구조를 사용하며, 놀라운 이미지들을 창조합니다. 그의 문장은 길고 복잡하지만, 리듬감이 있어 소리 내어 읽으면 음악처럼 들립니다.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나레크는 자신의 죄를 고백하면서 이렇게 씁니다. "나는 땅에 떨어진 씨앗이며, 폭풍에 날리는 먼지이며, 파도에 휩쓸리는 모래입니다." 이러한 이미지들은 인간의 나약함을 표

현하면서도 아름다움을 잃지 않습니다. 그는 신의 자비를 이렇게 묘사합니다. “당신의 자비는 바다보다 넓고, 하늘보다 높으며, 별들의 수보다 많습니다.” 무한한 신의 사랑을 유한한 언어로 표현하려는 시도입니다. 이러한 노력 자체가 영적 수행인 것입니다.

‘비탄의 책’은 개인의 기도서이면서 동시에 공동체의 목소리입니다. 나레크는 ‘나’라고 말하면서도 모든 인류를 대변합니다. 그의 죄 고백은 개인적이면서도 보편적입니다. 따라서 이 책을 읽는 모든 사람이 자신의 이야기를 발견하게 됩니다. 이 책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성경 다음으로 중요한 영적 텍스트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어려운 시기에 이 책을 읽으며 위로를 받았습니다. 병자의 침대 곁에서, 전쟁터에서, 감옥에서, 그리고 평범한 일상에서 이 기도문들이 낭송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책의 일부를 암송할 수 있을 정도로 널리 사랑받았습니다.

나레크는 2015년 교황 프란치스코에 의해 ‘교회 박사’로 선포되었습니다. 이는 가톨릭 교회가 아르메니아 교회의 성인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드문 사례입니다. 이를 통해 나레크의 영성이 단지 아르메니아만의 것이 아니라 전 기독교 세계의 보물임이 확인되었습니다.

음악과 시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일상에도 깊이 스며들어 있습니다. 가정에서 기도할 때, 순례를 떠날 때, 축제를 기념할 때 샤라칸이 불립니다. 결혼식과 장례식에서도 특별한 찬송가가 있습니다. 이는 삶의 모든 순간이 영적 의미를 가진다는 것을 보여줍니다. 현대에 와서도 이 전통은 계속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성가대들은 전 세계를 순회하며 샤라칸을 공연합니다. 콤시타스 사중창단과 같은 유명한 그룹들은 고대 찬송가를 현대 청중에게 소개합니다. 젊은 음악가들도 전통을 배우고 계승하고 있습니다.

유튜브와 스트리밍 플랫폼에서 수많은 녹음을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실제로 교회에서 듣는 경험은 다릅니다. 돌벽 사이에서 울려 퍼지는 소리, 향의 냄새, 촛불의 빛, 그리고 함께 기도하는 공동체의 존재가 만들어내는 전체적 경험은 녹음으로 완전히 재현할 수 없습니다. 샤라칸과 나레크의 영성은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정체성의 원천입니다. 언어가 달라도, 나라가 달라도, 세대가 달라도 같은 찬송가를 부르고 같은 기도문을 읽을 때 그들은 하나가 됩니다. 이것이 천 년 넘게 흩어져 살아온 민족을 하나로 묶어준 힘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8장 세계 속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디아스포라의 기원 - 역사적 확산과 글로벌 네트워크 구축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되고 광범위한 민족 이산의 역사 중 하나입니다. 고향을 떠나 세계 곳곳에 흩어진 아르메니아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이주의 역사가 아니라, 생존과 적응, 그리고 정체성 보존의 드라마입니다.

시작은 고대로 거슬러 올라갑니다. 로마 제국 시대에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실크로드를 따라 동서양을 오가며 무역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그들은 콘스탄티노플, 알렉산드리아, 예루살렘 같은 대도시에서 정착하며 초기 디아스포라의 토대를 마련했습니다. 이 시기의 이주는 주로 경제적 기회를 찾아 자발적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본격적인 이산은 11세기부터 시작됩니다. 1071년 만지케르트 전투에서 비잔틴 제국이 셀주크 투르크에게 패배하면서 아르메니아 고원은 점차 투르크계 세력의 지배 아래 놓이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남쪽으로 이동하여 킬리키아 지역에 새로운 아르메니아 왕국을 세웠습니다. 킬리키아 아르메니아 왕국은 1198년부터 1375년까지 지중해 연안에서 번영했지만, 결국 맘루크 술탄국에게 멸망당하면서 또 다른 이산의 물결이 시작됩니다.

14세기부터 16세기까지 아르메니아인들은 크림 반도, 폴란드, 우크라이나, 루마니아 등 동유럽으로 퍼져나갔습니다. 특히 르보프(현재 우크라이나의 리비우)에는 활발한 아르메니아 상인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그들만의 교회와 학교를 세웠습니다. 이들은 현지 사회와 교류하면서도 아르메니아어와 전통을 지키려 노력했습니다.

16세기 초 오스만 제국과 사파비 페르시아 간의 전쟁은 또 다른 대규모 이주를 초래했습니다. 두 제국 사이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고원은 끊임없는 전장이 되었고,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안전을 찾아 페르시아 내륙이나 오스만 제국의 대도시로 이주했습니다. 1604년 샤 압바스 1세는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을 이란 이스파한으로 이주시켰는데, 이것이 나중에 번영하는 뉴 줄파 공동체의 시작이 됩니다.

(세계 각국에 위치한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공동체)

19세기 들어 러시아 제국이 코카서스 지역을 정복하면서 새로운 국면을 맞이합니다. 1828년 투르크만차이 조약으로 동아르메니아가 러시아 영토가 되면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에서 러시아령 아르메니아로 이주했습니다. 동시에 트빌리시(현재의 트빌리시), 바쿠,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같은 러시아 대도시에도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형성되었습니다.

가장 비극적인 장은 20세기 초에 쓰여집니다.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제국에서 벌어진 아르메니아 대학살은 150만 명 이상의 목숨을 앗아갔고, 살아남은 사람들은 세계 각지로 흩어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것이 현대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원인입니다.

학살에서 살아남은 난민들은 주로 중동, 특히 레바논, 시리아, 이집트, 이라크로 피난했습니다. 프랑스 위임통치령이었던 레바논과 시리아는 많은 아르메니아 난민을 받아들였고, 이들은 베이루트와 알레포에 대규모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프랑스 본토로 간 사람들은 마르세유와 파리에 정착했고, 미국으로 건너간 이들은 보스턴, 로스앤젤레스, 뉴욕에 뿌리를 내렸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중동의 정치적 불안정은 또 다른 이주의 물결을 만들었습니다. 1948년 이스라엘 건국, 1950년대 이집트 혁명, 1975년부터 시작된 레바논 내전, 그리고 최근의 시리아 내전은 중동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를 다시 한번 흩어지게 만들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유럽, 북미, 호주로 재이주했습니다.

소련의 붕괴도 새로운 이산을 가져왔습니다. 1991년 아르메니아가 독립했지만, 경제적 어려움과 1988년 대지진,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인해 수십만 명이 러시아, 유럽, 미국으로 일자리를 찾아 떠났습니다. 이것은 경제적 이주의 성격이 강했지만, 결과적으로 디아스포라 인구를 더욱 증가시켰습니다.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약 700만에서 1000만 명으로 추산되며, 본국 인구 300만의 두 배 이상입니다. 이들은 러시아(약 200만), 미국(약 150만), 프랑스(약 60만), 레바논(약 15만, 시리아 내전 이전), 아르헨티나(약 13만), 이란(약 12만), 캐나다(약 10만) 등 전 세계 100개 이상의 국가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의 특징은 강한 민족 정체성과 조직화입니다. 주요 디아스포라 지역에는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학교, 문화센터, 정치 조직이 존재합니다. 교회는 언어와 문화를 전승하는 핵심 기관으로 기능해왔습니다. 디아스포라는 또한 정치적으로도 활발하여 아르메니아 대학살 인정 운동,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원, 본국 경제 지원 등에서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각 지역의 디아스포라가 현지 문화와 융합하면서도 독특한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유지한다는 것입니다. 레바논의 아르메니아인은 아랍어와 아르메니아어를 모두 구사하며, 프랑스의 아르메니아인은 프랑스 문화와 아르메니아 전통을 결합합니다. 미국의 2세대, 3세대는 영어를 주로 사용하지만 여전히 자신을 아르메니아인으로 정체화합니다.

디아스포라는 본국에 경제적 지원을 제공하고, 국제 사회에서 아르메니아의 목소리를 대변하며, 새로운 아이디어와 기술을 본국에 전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러한 네트워크는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가 세계 무대에서 영향력을 행사할 수 있는 중요한 자산입니다.

2. 세계로 뻗어나간 민족 네트워크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가장 큰 집중 지역은 러시아, 유럽, 그리고 중동입니다. 각 지역의 공동체는 서로 다른 역사적 배경과 현재의 도전 과제를 가지고 있지만, 모두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유지하려는 강한 의지를 보여줍니다.

러시아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디아스포라 중 가장 큼니다. 200만에서 250만 명으로 추산되는 이들은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소치, 로스토프나도누 등 러시아 전역에 분포되어 있습니다. 러시아-아르메니아 관계는 19세기 러시아 제국 시대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르메니아인들은 오스만 제국과 페르시아의 압박에서 벗어나 러시아를 보호자로 여겼습니다.

러시아의 아르메니아인들은 경제적으로 상당히 성공적입니다. 많은 이들이 상업, 건설업, 식당업, 제조업에 종사하며, 일부는 러시아 정치와 경제의 상층부까지 진출했습니다. 모스크바에는 화려한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들이 있으며, 아르메니아 학교와 문화센터도 활발히 운영됩니다. 특히 소치는 “러시아의 아르메니아”로 불릴 정도로 아르메니아인 비율이 높습니다.

러시아 내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때때로 반이민 정서와 민족주의의 대상이 되기도 합니다. 2000년대 중반 일부 지역에서 아르메니아인을 대상으로 한 폭력 사건이 발생했고, 경제 위기 시기에는 “외국인이 일자리를 빼앗는다”는 비난의 대상이 되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러시아와 아르메니아는 군사 동맹 관계를 유지하고 있으며, 러시아는 아르메니아의 안보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유럽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프랑스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습니다. 프랑스에는 약 60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주민이 살고 있으며, 파리, 마르세유, 리옹에 대규모 공동체가 있습니다. 프랑스-아르메니아 관계는 십자군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 공동체의 대부분은 1915년 대학살 이후 도착한 난민의 후손들입니다.

프랑스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문화, 예술, 정치 분야에서 두드러진 활약을 보입니다. 유명한 샹송 가수 샤를 아즈나부르(본명 샤누르 아즈나부르얀), 영화감독 앙리 베르네유, 정치인 패트릭 데베지안 등이 아르메니아계입니다. 프랑스는 2001년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 인정한 최초의 주요 서방 국가 중 하나이며,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이 이를 가능하게 했습니다.

파리의 아르메니아 지구는 문화적 중심지입니다. 9구와 10구를 중심으로 아르메니아 레스토랑, 식료품점, 서점, 교회가 밀집해 있습니다. 매년 4월 24일 대학살 추모일에는 대규모 집회와 행진이 열리며, 프랑스 정치인들도 참석합니다. 파리의 아르메니아 대성당은 단순한 종교 시설이 아니라 공동체의 사회적, 문화적 구심점입니다.

독일에도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으며, 1990년대 이후 경제적 이주자들이 많습니다. 쾰른은 독일 내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중심지로, 교회와 문화협회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영국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상대적으로 작지만, 런던을 중심으로 전문직 종사자들이 많으며, 학술과 비즈니스 분야에서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습니다.

중동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가장 오래된 디아스포라 중 하나입니다. 레바논과 시리아는 1915년 대학살 이후 가장 많은 난민을 받아들인 나라들이며, 한때 각각 40만과 30만의 아르메니아인이 살았습니다. 그러나 레바논 내전과 시리아 내전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다시 떠나면서 현재는 크게 줄어든 것입니다.

중동의 아르메니아인들은 독특한 이중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그들은 아랍어를 구사하고 아랍 문화에 익숙하면서도, 기독교 신앙과 아르메니아어, 전통을 유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중산층 이상의 경제적 지위를 누리며, 금융세공, 상업, 제조업, 전문직에 종사합니다.

이란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특별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이슬람 공화국임에도 불구하고 이란은 아르메니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민족으로 대우하며, 의회에 예약된 의석도 있습니다. 테헤란과 이스파한에 약 12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으며, 그들만의 학교와 교회를 운영할 수 있습니다. 이스파한의 뉴 줄파는 17세기 이래 계속된 역사적 공동체로, 아르메니아 문화유산의 보고입니다.

중동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도전은 정치적 불안정입니다. 2011년 이후 시리아 내전으로 알레포의 아르메니아 지구가 파괴되었고, 수만 명이 레바논, 아르메니아 본국, 또는 서방으로 피난했습니다. 레바논도 경제 위기와 정치적 혼란으로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떠나고 있습니다. 이라크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사담 후세인 정권과 이후의 혼란 속에서 거의 사라졌습니다.

중동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수십 년간의 전쟁과 박해에도 불구하고 교회와 학교를 재건하고, 문화를 보존하며, 다음 세대에게 정체성을 전달해왔습니다. 중동의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단순한 예배 장소가 아니라 난민 구호, 교육, 사회 복지의 중심지로 기능합니다.

(1) 레바논 베이루트 - 부르주 함무드 공동체

베이루트의 부르주 함무드는 세계에서 가장 독특하고 활기찬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공동체 중 하나입니다. 베이루트 동북쪽에 위치한 이 지역은 “레바논의 작은 아르메니아”로 불리며, 거리 곳곳에서 아르메니아어 간판을 볼 수 있고, 아르메니아 음식과 음악이 넘쳐납니다.

부르주 함무드의 역사는 비극에서 시작됩니다. 1915년 오스만 제국의 아르메니아 대학살에서 살아 남은 난민들이 시리아 사막을 건너 레바논으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프랑스 위임통치령이었던 레바논은 이들을 받아들였고, 처음에는 베이루트 항구 근처의 임시 텐트촌에서 살게 했습니다. 1920년대 초 프랑스 당국은 베이루트 북동쪽의 습지대와 농경지를 난민들에게 할당했고, 이곳이 부르주 함무드가 됩니다.

초기 정착민들은 극심한 빈곤 속에서 살았습니다. 그들은 나무 판자와 함석으로 임시 집을 지었고, 말라리아와 질병에 시달렸습니다. 많은 이들이 고향을 떠날 때 가진 것이라곤 몸에 걸친 옷뿐이었습니다. 생존자들의 증언에 따르면, 밤이면 어린이들의 울음소리와 부모들의 한숨 소리가 진영 전체에 울려 퍼졌다고 합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인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그들은 금은세공, 구두 제작, 목공, 재봉 같은 전통 기술을 활용하여 작은 작업장을 열기 시작했습니다. 여성들은 자수와 레이스 제작으로 수입을 보탬했습니다. 1930년대가 되자 부르주 함무드는 빠르게 성장하는 상업 지구로 변모했습니다. 좁은 골목길을 따라 상점과 작업장이 들어섰고, 아르메니아어로 된 간판들이 나타났습니다.

공동체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단순히 종교 기관이 아니라 사회 복지, 교육, 문화 활동의 중추였습니다. 성 그리고리 계몽자 대성당을 비롯한 여러 교회들이 세워졌고, 각 교회는 부속 학교를 운영했습니다. 이 학교들은 아르메니아어와 역사, 문화를 가르치며 정체성을 보존하는 핵심 역할을 했습니다.

부르주 함무드는 또한 정치적으로도 조직화되었습니다. 세 개의 주요 아르메니아 정당 - 다슈나크, 람카바르, 훈차크 - 이 각각의 지지 기반을 확립했습니다. 이들은 청년 조직, 스카우트 단체, 스포츠 클럽을 운영하며 공동체를 결속시켰습니다. 정치적 성향은 달랐지만, 모두 아르메니아 정체성 보존과 대학살 인정이라는 공통 목표를 공유했습니다.

1950년대와 1960년대는 부르주 함무드의 황금기였습니다. 레바논 경제가 번영하면서 아르메니아 공동체도 함께 성장했습니다. 부르주 함무드는 중동 전역의 아르메니아 제품 제조와 유통의 중심지가 되었습니다. 금은세공업자들은 정교한 장신구를 만들었고, 구두 제작자들은 고급 신발을 생산했으며, 기계 공장들은 각종 부품을 제조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중산층으로 상승했고, 자녀들을 대학

에 보낼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문화적으로도 부르주 함무드는 꽃을 피웠습니다. 아르메니아 극장, 영화관, 문화센터가 문을 열었습니다. 유명한 아르메니아 가수와 음악가들이 공연했고, 문학 살롱에서는 시와 소설이 낭독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신문과 잡지들이 발행되었고, 출판사들은 아르메니아어 서적을 인쇄했습니다. 부르주 함무드는 단순한 주거 지역이 아니라 살아있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소유주였습니다.

1975년부터 1990년까지 계속된 레바논 내전은 부르주 함무드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이 지역은 종종 교전 지역이 되었고, 포격과 저격으로 많은 주민들이 목숨을 잃거나 다쳤습니다. 상점과 집들이 파괴되었고, 많은 가족들이 안전을 찾아 다른 나라로 이주했습니다. 그러나 대다수는 남아서 공동체를 지켰습니다. 전쟁 중에도 학교는 가능한 한 문을 열었고, 교회는 피난처와 구호 센터 역할을 했습니다.

내전이 끝난 후 부르주 함무드는 천천히 재건되었습니다. 1990년대와 2000년대 초반, 새로운 건물들이 올라갔고 상업이 다시 활기를 띠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본국의 독립(1991년)은 공동체에 새로운 자부심을 가져왔습니다. 많은 레바논 아르메니아인들이 본국을 방문하기 시작했고, 일부는 투자하거나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오늘날 부르주 함무드를 걸으면 독특한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주요 거리인 아르메니아 거리에는 금은방, 가전제품 상점, 식료품점, 레스토랑이 늘어서 있습니다. 간판은 대부분 아르메니아어로 되어 있고, 아랍어와 영어가 병기되어 있습니다. 거리를 걷는 사람들 사이에서 아르메니아어가 자연스럽게 들립니다. 빵집에서는 전통 라바시 빵과 가타 과자를 팔고, 레스토랑에서는 돌마, 케밥, 바클라바를 제공합니다.

부르주 함무드의 건축은 기능적이면서도 문화적 정체성을 반영합니다. 대부분의 건물은 실용적인 콘크리트 구조이지만, 교회와 문화센터는 아르메니아 건축 요소를 포함합니다. 성 그리고리 대성당은 전통적인 원추형 돔과 십자가를 갖추고 있으며, 내부에는 아르메니아 성인들의 이콘으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교회 벽에는 대학살 희생자들을 추모하는 명판이 걸려 있습니다.

교육은 여전히 공동체의 우선순위입니다. 부르주 함무드에는 여러 아르메니아 학교가 있으며,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닙니다. 이 학교들은 레바논 정부 커리큘럼을 따르면서도 아르메니아어, 역사, 문화를 집중적으로 가르칩니다. 학생들은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영어 또는 프랑스어를 모두 배우는 3개 국어 또는 4개 국어 교육을 받습니다. 학교는 단순한 학습 장소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다음 세대에 전달하는 핵심 수단입니다.

그러나 부르주 함무드는 현재 여러 도전에 직면해 있습니다. 레바논의 경제 위기, 특히 2019년 이후의 금융 붕괴는 공동체에 큰 타격을 주었습니다. 레바논 파운드의 가치가 폭락하면서 많은 상인과 제조업자들이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전기와 물 공급이 불안정하고, 인플레이션으로 생활비가 치솟았습니다. 이로 인해 특히 젊은 세대가 더 나은 기회를 찾아 아르메니아 본국이나 서방으로 이주하고 있습니다.

2020년 8월 베이루트 항구 폭발 사고는 부르주 함무드에도 피해를 주었습니다. 지역의 많은 건물이 손상되었고, 일부 아르메니아 주민들도 희생자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공동체는 다시 한번 회복력을 보여주며 재건에 나섰습니다. 교회와 NGO들이 피해자를 돕기 위해 발 빠르게 움직였고, 세계 각지의 디아스포라가 지원을 보냈습니다.

부르주 함무드는 또한 변화하는 인구 구성에 적응하고 있습니다. 시리아 내전 이후 많은 시리아 난민들이 부르주 함무드로 유입되었고, 이 중에는 알레포의 아르메니아인들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이들은 같은 언어와 문화를 공유하지만, 레바논 아르메니아인들과는 다른 경험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동체는 이들을 환영하고 지원하면서도 통합의 과제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의 정체성도 진화하고 있습니다. 3세대, 4세대 레바논 아르메니아인들은 조부모 세대와는 다른 방식으로 아르메니아성을 경험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르메니아어를 유창하게 구사하지 못하고, 아랍어나 영어가 더 편합니다. 그러나 대부분은 여전히 자신을 아르메니아인으로 정체화하며, 문화 행사와 종교 의식에 참여합니다. 소셜 미디어는 이들이 본국과 다른 디아스포라와 연결되는 새로운 방식을 제공합니다.

부르주 함무드의 의의는 단순히 아르메니아인이 많이 사는 동네라는 것을 넘어섭니다. 이곳은 대학살 생존자들이 폐허에서 일어나 새로운 삶을 건설한 회복력의 상징입니다. 이곳은 다문화 중동에서 소수민족이 정체성을 유지하면서도 더 넓은 사회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그리고 이곳은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역동성을 보여주는 생생한 증거입니다 - 끊임없이 변화하고 도전에 직면하지만, 결코 소멸하지 않는 공동체의 모습입니다.

(2) 시리아 - 알레포의 천년 교회와 학교

시리아의 알레포는 한때 중동에서 가장 크고 번영하는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본거지였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 이전까지 약 10만에서 15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알레포에 살았으며, 이들은 도시 경제와 문화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교회와 학교를 중심으로 조직되었고, 이 기관들은 단순한 종교적, 교육적 기능을 넘어 공동체의 심장이자 영혼이었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 역사는 중세까지 거슬러 올라가지만, 현대 공동체의 기원은 1915년 대학살입니다. 오스만 제국의 학살과 추방에서 살아남은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시리아 사막을 가로질러 알레포로 피신했습니다. 당시 오스만 제국의 일부였던 알레포는 학살의 주요 무대 중 하나였지만, 동시에 생존자들이 모이는 집결지이기도 했습니다. 일부 아랍인과 쿠르드인들은 목숨을 걸고 아르메니아인들을 숨겨주었고, 서양 선교사들은 구호 활동을 펼쳤습니다.

1920년대 프랑스가 시리아를 위임통치하면서 난민들에게 정착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졌습니다. 프랑스 당국은 알레포 북동쪽의 술레이마니에 지구를 아르메니아 난민들에게 할당했고, 이곳은 빠르게 "아르메니아 지구"로 알려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텐트와 임시 막사에서 시작했지만, 곧 영구적인 주택, 상점, 교회, 학교가 들어섰습니다.

알레포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중심에는 교회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여러 교구로 나뉘어 있었고, 각 교구는 자체 교회와 부속 학교를 가지고 있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교회 중 하나는 40명의 순교자 대성당(Forty Martyrs Cathedral)으로, 알레포 구시가지에 위치해 있었습니다. 이 성당은 15세기에 처음 세워졌으나 여러 차례 재건되었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아름다운 건축과 성화를 자랑했습니다.

술레이마니에 지구에는 성 엘리야 교회를 비롯한 여러 새로운 교회들이 세워졌습니다. 이 교회들은 단순히 일요일 예배 장소가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매일 열려 있었고, 세례, 결혼식, 장례식은 물론 공동체 회의, 자선 활동, 문화 행사의 장소였습니다. 교회 마당은 아이들의 놀이터이자 어른들의 사교 공간이었습니다. 특히 4월 24일 대학살 추모일과 9월 21일 독립기념일 같은 중요한 날에는 교회가

공동체 전체를 하나로 묶는 구심점이 되었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놀라운 문화유산을 보존하고 있었습니다. 고대 사본, 성화, 전례용품, 역사적 문서들이 교회 도서관과 박물관에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 사본은 중세로 거슬러 올라가며, 아르메니아 서예와 세밀화 예술의 걸작들이었습니다. 이 유물들은 단순한 골동품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민족의 연속성을 증명하는 살아있는 증거였습니다.

교회 못지않게 중요한 것이 학교였습니다. 알레포에는 수십 개의 아르메니아 학교가 있었고, 수천 명의 학생들이 다녔습니다. 이 학교들은 여러 교과와 정치 조직에 의해 운영되었습니다. 카렌 자데 학교, 굴베니안 학교, 서로필리안 학교 등이 가장 유명했습니다. 각 학교는 시리아 정부 커리큘럼을 따르면서도 아르메니아어와 역사, 문화에 상당한 시간을 할애했습니다.

알레포 아르메니아 학교의 특징은 높은 교육 수준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랍어, 아르메니아어, 영어나 프랑스어를 배우는 다언어 교육을 받았습니다. 교사들은 대부분 아르메니아인이었고, 많은 이들이 본국이나 레바논의 대학에서 교육받았습니다. 학교는 단순히 읽고 쓰기를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형성하는 곳이었습니다. 학생들은 아르메니아 시와 노래를 배우고, 역사적 사건을 기념하며, 전통 춤과 음악을 배웠습니다.

학교는 또한 사회적 이동성의 사다리였습니다. 많은 가난한 가정의 자녀들이 학교 교육을 통해 전문직이나 사업에 진출할 수 있었습니다. 졸업생들은 알레포 대학이나 다마스쿠스 대학, 또는 레바논과 유럽의 대학으로 진학했습니다. 교육을 중시하는 문화 덕분에 알레포 아르메니아인들은 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수로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학교와 교회 외에도 알레포에는 풍부한 문화 인프라가 있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문화센터, 청년회, 스포츠 클럽, 스카우트 조직이 활발히 활동했습니다. 하마스키엔 문화협회 같은 단체는 연극 공연, 음악회, 강연을 정기적으로 개최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도서관에는 수천 권의 아르메니아어 책과 잡지가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여름이면 아이들은 교회나 청년회가 조직하는 캠프에 참가했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인들은 경제적으로도 성공적이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전통적으로 금은세공, 구두 제작, 가죽 제품, 직물업에 종사했습니다. 알레포는 수세기 동안 중동의 주요 상업 중심지였고,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이 네트워크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일부는 대규모 제조업이나 수출입 사업을 운영했습니다. 아르메니아 지구의 상점과 작업장은 항상 북적였고, 정직한 장인정신으로 명성이 높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또한 알레포의 사회적 다양성에 기여했습니다. 아랍인, 쿠르드인, 다른 기독교 공동체들과 평화롭게 공존했습니다.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아랍어를 유창하게 구사했고, 일부는 아랍 문화에 깊이 통합되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했으며, 시리아 사회는 대체로 이 다양성을 존중했습니다.

2011년 시리아 내전이 발발하면서 모든 것이 변했습니다. 알레포는 가장 격렬한 전투가 벌어진 도시 중 하나가 되었고, 술레이마니예 아르메니아 지구는 교전 지역의 한가운데 놓였습니다. 교회와 학교, 주택과 상점이 포격과 공습으로 파괴되었습니다. 수백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목숨을 잃었고, 더 많은 이들이 부상을 입었습니다.

가장 상징적인 손실은 순교자 대성당의 파괴였습니다. 2015년 반군 포격으로 성당의 종탑이 무너지고 건물 대부분이 손상되었습니다. 수세기 된 성화와 사본들이 소실되었습니다. 다른 여러 교회와 학교도 비슷한 운명을 겪었습니다. 카렌 자데 학교의 건물은 폐허가 되었고, 성 엘리아 교회는 심각한 피해를 입었습니다.

공동체 구성원의 대다수가 떠났습니다. 일부는 다마스쿠스나 시리아의 다른 지역으로 피신했고, 많은 이들이 레바논, 아르메니아 본국, 또는 서방으로 이주했습니다. 2011년 15만 명이었던 알레포의 아르메니아 인구는 2020년경에는 2만 명 이하로 줄어들었습니다. 세대를 이어온 가족들이 뿔뿔이 흩어졌고, 어떤 이들은 다시는 만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남은 사람들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주었습니다. 전쟁 중에도 일부 교회는 계속 문을 열었고, 신부들은 목숨을 걸고 예배를 집전했습니다. 교회는 피난처, 구호 센터, 의료 지원처로 변모했습니다. 일부 학교는 폐허에서도 수업을 계속했고, 교사들은 자원봉사로 가르쳤습니다. 공동체 조직들은 식량, 의료품, 생필품을 배포했습니다.

2016년 말 시리아 정부군이 알레포를 재탈환한 후, 천천히 재건이 시작되었습니다. 일부 아르메니아인들이 돌아왔고, 교회와 학교 복구 작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본국 정부와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재건을 지원했습니다. 40명의 순교자 대성당은 부분적으로 복구되었고, 다시 예배를 시작했습니다. 몇몇 학교도 문을 다시 열었습니다.

이전의 활기를 되찾기는 어렵습니다. 경제는 파탄났고, 많은 젊은이들이 미래가 없다고 느껴 계속 떠나고 있습니다. 남은 공동체는 고령화되고 있으며, 학교의 학생 수는 과거의 일부에 불과합니다. 한때 북적이던 아르메니아 지구의 거리는 이제 조용하고, 많은 건물이 여전히 파괴된 채로 남아 있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인들은 포기하지 않습니다. 그들은 조상들이 1915년 이후 폐허에서 공동체를 재건한 것처럼, 다시 한번 재건할 것을 다짐합니다. 교회 종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학교 교실에는 여전히 아이들의 웃음소리가 들립니다. 알레포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이야기는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것은 계속되고 있으며, 비록 이전보다 작고 약하지만, 여전히 살아있고 희망을 품고 있습니다.

알레포의 교회와 학교는 단순한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그들은 공동체의 정체성, 기억, 희망이 구현된 장소였습니다. 그들의 파괴는 물리적 손실을 넘어 문화적, 영적 손실입니다. 그러나 역사가 보여주듯이, 건물은 파괴될 수 있어도 공동체의 정신은 그렇게 쉽게 꺾이지 않습니다. 알레포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어디에 있든, 교회와 학교를 다시 세우고, 언어를 가르치며, 신앙을 지킬 것입니다. 그것이 그들이 천 년 넘게 해온 일이기 때문입니다.

(3) 이란 이스파한의 뉴 줄파와 방크 수도원(Vank Monastery)

이란 이스파한의 뉴 줄파와 방크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역사에서 가장 독특하고 문화적으로 풍요로운 장소 중 하나입니다. 400년이 넘는 역사를 가진 이 공동체는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문화의 놀라운 융합을 보여주며, 오늘날까지도 활기찬 아르메니아 생활의 중심지로 남아 있습니다.

사파비 왕조 시절 강제 이주

뉴 줄파의 이야기는 17세기 초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 간의 지정학적 경쟁에서 시작됩니다. 사파비 왕조의 샤 압바스 1세(재위 1588-1629)는 페르시아를 강력한 제국으로 만들고자 했습니다. 그는 오스만 제국과의 전쟁에서 전략적 요충지인 아르메니아 지역을 통제하려 했지만, 이 지역을 오스만에게 완전히 빼앗길 위험에 직면했습니다.

1604년, 샤 압바스는 과감한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라스강 유역의 번영하는 아르메니아 도시 줄파와 주변 지역 주민들을 강제로 페르시아 내륙으로 이주시키기로 한 것입니다. 초토화 전략의 일환이었습니다 - 오스만군이 이 지역을 점령하더라도 얻을 것이 없도록 만들기 위함이었습니다. 동시에 샤 압바스는 아르메니아 상인들의 경제적 재능과 무역 네트워크를 자신의 수도 이스파한으로 가져와 페르시아 경제를 활성화하려 했습니다.

강제 이주는 비극적이었습니다. 약 3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겨울철에 산악 지대를 가로질러 이스파한으로 행군해야 했습니다. 많은 이들, 특히 노인과 어린이들이 추위, 기아, 질병으로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스파한에 도착한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원에 루드 강 남쪽 기슭에 정착지를 할당받았습니다. 이곳은 샤의 화려한 궁전과 정원이 있는 북쪽 지역과 강으로 분리되어 있었지만, 충분히 가까워 경제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습니다. 이들은 고향을 기리기 위해 정착지를 "뉴 줄파" (New Julfa, 페르시아어로 Jolfa-ye Now)라고 명명했습니다.

샤 압바스는 아르메니아인들에게 상당한 자율권과 특권을 부여했습니다. 지방자치를 할 수 있었고, 교회를 세우고 신앙을 자유롭게 실천할 수 있었습니다. 무역에서 특별한 권리를 얻은 것입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페르시아의 귀중한 비단 무역을 독점적으로 다룰 수 있게 되었고, 그들의 번영의 기초가 되었습니다.

17세기 중반부터 뉴 줄파는 놀라운 번영을 누렸습니다. 아르메니아 상인들은 페르시아 비단을 인도, 동남아시아, 멀리 유럽까지 수출하는 광대한 무역 네트워크를 구축했습니다. 암스테르담, 베네치아, 리보르노, 마르세유 같은 유럽 도시들뿐만 아니라 마닐라, 마카오, 캘커타에도 무역 기지를 두었습니다. 줄파 상인들의 네트워크는 세계에서 가장 정교한 무역 시스템 중 하나였으며, 근대 초기 세계 경제의 중요한 부분이었습니다.

부의 축적과 함께 뉴 줄파는 문화적으로도 꽃을 피웠습니다. 17세기 말에는 인구가 3만에서 5만 명에 달했고, 13개의 교회, 수도원, 수백 개의 상점과 작업장이 있었습니다. 거리는 활기로 넘쳤고, 아르메니아어가 공용어였습니다. 부유한 상인들은 화려한 저택을 짓고, 예술가와 학자들을 후원했습니다.

페르시아-아르메니아 혼합 건축양식과 벽화

뉴 줄파의 건축은 아르메니아와 페르시아 전통이 아름답게 융합된 독특한 양식을 발전시켰습니다. 이것은 단순한 절충이 아니라 두 문화의 최고 요소가 유기적으로 결합된 새로운 미학의 탄생이었습니다.

방크 수도원(정식 명칭은 성 구세주 대성당, Holy Savior Cathedral)은 이 혼합 양식의 가장 위대한 걸작입니다. 1606년에 시작되어 1664년에 완공된 이 성당은 외관상으로는 전형적인 사파비 페르시아 건축처럼 보입니다. 건물은 페르시아식 벽돌로 지어졌고, 돔은 페르시아 모스크에서 볼 수 있는

둥근 형태를 하고 있습니다. 황갈색과 베이지색의 벽돌은 이스파한의 다른 이슬람 건축물들과 조화를 이룹니다.

그러나 성당에 들어서면 순간, 완전히 다른 세계가 펼쳐집니다. 내부에는 화려한 프레스코화로 완전히 뒤덮여 있습니다. 벽, 천장, 돔, 아치 - 모든 표면이 성경 이야기, 성인의 생애, 천국과 지옥의 장면, 꽃과 기하학적 무늬로 장식되어 있습니다. 이 벽화들은 17세기 후반에 그려졌으며, 아르메니아, 페르시아, 그리고 유럽의 바로크 영향이 독특하게 혼합되어 있습니다.

벽화의 색채는 숨막히게 아름답습니다. 금박, 청록색, 코발트 블루, 붉은색, 초록색이 조화롭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특히 돔 내부의 천국 장면은 황금빛으로 빛나며, 천사들과 성인들이 그리스도를 둘러싸고 있습니다. 페르시아 세밀화의 섬세함과 아르메니아 종교 예술의 영성이 만나 독특한 시각 언어를 만들어냅니다.

가장 인상적인 것은 최후의 심판 장면입니다. 성당 서쪽 벽 전체를 덮고 있는 이 거대한 프레스코는 천국과 지옥을 대비시킵니다. 위쪽에는 구원받은 영혼들이 천사들에게 인도되어 천국의 정원으로 들어가는 모습이 그려져 있고, 아래쪽에는 죄인들이 불 속에서 고통받는 지옥의 장면이 생생하게 묘사되어 있습니다. 이 장면들은 중세 유럽의 종교화 전통을 따르지만, 인물의 의상과 장식 요소에는 페르시아적 세부 사항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벽화에는 역사적 장면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604년 강제 이주의 장면을 보여주며, 아르메니아인들이 산을 넘어 페르시아로 행군하는 모습이 그려져 있습니다. 샤 압바스와 아르메니아 주교들의 만남을 묘사합니다. 이러한 장면들은 공동체의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성당의 타일 장식도 주목할 만합니다. 아르메니아 십자가와 기독교 상징들이 페르시아 꽃무늬와 서예적 문양과 결합되어 있습니다. 일부 타일에는 아르메니아어 비문이 새겨져 있고, 다른 타일에는 페르시아 시가 적혀 있습니다. 이것은 두 문화의 평화로운 공존과 상호 영향을 시각적으로 보여줍니다.

방크 수도원 외에도 뉴 줄파에는 베스레헴 교회(Bethlehem Church), 성 메리 교회 등 여러 아름다운 교회들이 있었습니다. 각각 독특한 건축적 특징을 가지고 있지만, 모두 페르시아-아르메니아 혼합 양식을 공유합니다. 일부 교회는 사파비 시대의 정원 건축을 통합하여, 교회 앞에 페르시아식 정원과 분수가 있습니다.

부유한 줄파 상인들의 저택은 페르시아식 안뜰 주택 구조를 따르지만, 내부 장식에는 아르메니아 기독교 요소가 포함됩니다. 일부 저택에는 개인 예배당이 있었고, 벽에는 성가족이나 성인의 이콘이 걸려 있었습니다. 동시에 천장과 벽의 치장벽토 장식, 스테인드글라스 창문은 페르시아 전통을 따릅니다.

융합은 단순히 스타일의 혼합이 아닙니다. 그것은 아르메니아인들이 페르시아 환경에 적응하면서도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한 방식을 상징합니다. 외부에는 페르시아적이지만 내부에는 아르메니아적인 건축은, 외적으로는 페르시아 사회에 통합되면서도 내적으로는 기독교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지킨 공동체의 은유입니다.

세계 최초 인쇄기와 사본 문화의 중심지

뉴 줄파는 단순히 무역 중심지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문화와 학문의 등대였습니다. 특히 인쇄와 출판 분야에서 선구적 역할을 했습니다.

1636년, 뉴 줄파에 중동 최초의 아르메니아 인쇄기가 설립되었습니다. 이것은 구텐베르크가 유럽에서 인쇄기를 발명한 지 약 180년 후이지만, 중동 지역에서는 획기적인 사건이었습니다. 이 인쇄기는 호자 아브라함이라는 아르메니아 주교에 의해 설립되었으며, 그는 유럽에서 인쇄술을 배워왔습니다.

최초의 인쇄물은 1638년에 출간된 시편집이었습니다. 이후 뉴 줄파 인쇄소는 성경, 전례서, 신학 논문, 문법서, 역사서 등 다양한 아르메니아어 서적을 출판했습니다. 이 책들은 뉴 줄파뿐만 아니라 오스만 제국, 러시아, 인도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로 배포되어, 전 세계 아르메니아인들을 문화적으로 연결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인쇄술의 도입은 아르메니아 문화에 혁명적 영향을 미쳤습니다. 이전에는 책이 손으로 필사되어야 했기 때문에 매우 귀하고 비쌌습니다. 인쇄술로 인해 책이 더 저렴하고 널리 보급될 수 있었고, 이것은 문맹률을 낮추고 교육을 확산시켰습니다. 뉴 줄파의 아르메니아 가정에서는 성경과 기도서를 소유하는 것이 일반화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가 도입되었다고 해서 사본 문화가 사라진 것은 아닙니다. 오히려 뉴 줄파는 아르메니아 사본 예술의 마지막 위대한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방크 수도원과 다른 교회들의 스크립토리움(필사실)에서는 계속해서 아름다운 조명 사본이 제작되었습니다.

17세기와 18세기 뉴 줄파에서 제작된 사본들은 예술적 걸작입니다. 세밀화가들은 페르시아 세밀화 기법을 아르메니아 사본 전통과 결합했습니다. 복음서의 여백은 금박을 입힌 꽃무늬, 새, 환상적인 동물들로 장식되었습니다. 복음사가들(마태, 마가, 누가, 요한)의 초상화는 페르시아 궁정화의 영향을 받아 화려한 의상과 정교한 배경으로 그려졌습니다.

일부 사본은 후원자의 초상화도 포함합니다. 부유한 상인들이 자신과 가족의 초상화를 복음서에 그려 넣도록 의뢰했는데, 종종 페르시아식 터번과 로브를 입고 있지만 기독교 십자가를 들고 있습니다. 이러한 초상화는 당시 줄파 아르메니아인들의 의복, 장신구, 사회적 지위에 대한 귀중한 시각 자료입니다.

방크 수도원의 도서관은 이러한 사본들의 보고였습니다. 수백 권의 중세 및 근대 초기 아르메니아 사본이 소장되어 있었습니다. 일부는 뉴 줄파에서 제작된 것이고, 다른 일부는 아르메니아 본토나 킬리키아에서 가져온 것입니다. 이 사본들은 성경 텍스트, 전례서, 역사 연대기, 의학 논문, 철학 저작 등 다양한 주제를 다룹니다.

18세기에 뉴 줄파는 아르메니아 계몽주의의 중심지 중 하나가 되었습니다. 학자들과 신학자들이 모여 아르메니아 문법을 표준화하고, 역사를 연구하며, 유럽의 새로운 사상을 아르메니아어로 번역했습니다. 방크 수도원의 학교는 고급 교육 기관으로 발전하여, 신학뿐만 아니라 수학, 천문학, 의학도 가르쳤습니다.

뉴 줄파는 다른 아르메니아 공동체와의 문화적 교류에서도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인도 마드라스(현재의 첸나이)와 캘커타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뉴 줄파 출신 이주자들이 세운 것이며, 이들은 뉴 줄파에서 인쇄된 책을 가져가 인도의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공급했습니다. 이스탄불과 예루살렘의 아르메니아 인쇄소도 뉴 줄파의 기술자들로부터 배웠습니다.

오늘날 방크 수도원 박물관에는 이 풍부한 문화유산의 일부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방문자들은 17-18세기의 조명 사본, 초기 인쇄본, 아르메니아 서예의 걸작들을 볼 수 있습니다. 일부 사본은 너무 귀중하여 특별한 보존 환경에서 보관되지만, 디지털 복제본을 통해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습니다.

뉴 줄파의 인쇄와 사본 문화는 단순히 책을 만드는 것 이상의 의미를 가졌습니다. 그것은 아르메니아 언어와 정체성을 보존하는 핵심 수단이었습니다. 고국을 떠나 페르시아에 살았지만, 책을 통해 아르메니아인들은 자신의 문화적 뿌리와 연결될 수 있었습니다. 성경과 전례서는 종교적 정체성을 유지시켰고, 역사서는 민족적 자부심을 길러주었으며, 문학 작품은 아르메니아어를 살아있는 언어로 유지했습니다.

디아스포라 영성의 상징적 공간

방크 수도원과 뉴 줄파는 단순히 역사적 유적지나 관광 명소가 아닙니다. 그것은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영성의 살아있는 상징이며, 고향을 떠나서도 신앙과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교회는 민족 정체성의 핵심이었습니다. 301년 아르메니아가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래,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민족의 영혼이었습니다. 여러 제국의 지배 아래서도, 교회는 아르메니아 언어, 문화, 집단 기억을 보존하는 역할을 했습니다.

방크 수도원은 이 전통을 페르시아 땅에서 계속했습니다. 매주 일요일 신성한 전례(Divine Liturgy)가 고대 아르메니아어로 거행되었고, 신도들은 수세기 동안 변하지 않은 찬송을 불렀습니다. 전례의 향연과 촛불, 성가의 울림은 신도들을 영적으로 본토의 에치미아진 대성당이나 예루살렘의 성 야고보 성당과 연결시켰습니다.

교회 달력은 공동체의 리듬을 결정했습니다. 성탄절(아르메니아 교회는 1월 6일에 기념), 부활절, 성모 마리아의 승천일, 성 그리고리 계몽자 축일 같은 주요 축제일에는 뉴 줄파 전체가 축하했습니다. 이날들은 단순히 종교 행사가 아니라 공동체 전체가 하나로 모이는 사회적, 문화적 사건이었습니다.

특히 의미 있는 것은 4월 24일 대학살 추모일입니다. 비록 1915년 대학살은 뉴 줄파의 직접적 경험이었지만, 20세기 이후 전 세계 아르메니아인들의 집단 트라우마가 되었습니다. 매년 이날 방크 수도원에서는 특별 예배가 열리고, 희생자들을 위한 기도가 올려집니다. 이것은 뉴 줄파가 단순히 이란의 한 지역 공동체가 아니라 글로벌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일부임을 상기시킵니다.

방크 수도원은 또한 순례지로서의 역할을 합니다. 전 세계의 아르메니아인들이 뉴 줄파를 방문하여 이곳의 역사적, 영적 유산을 경험합니다. 미국이나 프랑스에서 자란 젊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이곳에 와서 자신의 뿌리와 연결되는 것을 느낍니다. 화려한 벽화 앞에 서서, 그들은 조상들이 고난 속에서도 신앙과 문화를 지킨 이야기를 듣습니다.

수도원은 또한 개인적 영성의 공간입니다. 많은 이란 아르메니아인들은 인생의 중요한 순간 - 세례, 첫 성찬, 결혼, 장례 - 을 방크 수도원에서 거행하기를 원합니다. 이곳에서 태어나고 자란 사람들에게, 방크는 단순히 역사적 기념물이 아니라 개인적 기억과 감정이 깃든 장소입니다.

방크 수도원은 이슬람 이란에서 기독교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상징으로 기능하면서도, 동시에 종교 간 대화와 상호 존중의 모델을 보여줍니다. 이란 무슬림들이 방크를 방문하여 그 예술적 아름다움에 감탄하고, 아르메니아 문화에 대해 배웁니다. 이란 정부는 방크를 국가 문화유산으로 보호하며, 관광 명소로 홍보합니다.

2008년 방크 수도원을 포함한 이스파한의 아르메니아 성당들이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었습니다. 이것은 국제적으로 그 문화적, 역사적 중요성을 인정받은 것입니다. 유네스코는 이 성당들을 "아르메니아 기독교 예술과 건축이 페르시아 문화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를 보여주는 탁월한 증거"라고 평가했습니다.

뉴 줄파와 방크 수도원은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이란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점차 줄어들고 있습니다. 1979년 이슬람 혁명 이전 이란에는 약 3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았지만, 현재는 약 10만에서 12만 명으로 추산됩니다. 젊은이들이 더 나은 경제적 기회를 찾아 미국, 캐나다, 유럽, 또는 아르메니아 본국으로 이주했습니다.

이란의 정치적, 경제적 상황도 공동체에 압력을 가합니다. 국제 제재는 경제를 어렵게 만들었고, 보수적인 이슬람 정권 하에서 종교적 소수자로 살아가는 것은 때때로 미묘한 차별을 경험하게 합니다. 그럼에도 이란 정부는 아르메니아인을 공식적으로 인정된 소수민족으로 대우하며, 의회에 예약 의석을 제공하고, 자체 학교와 교회를 운영할 수 있게 합니다.

뉴 줄파의 물리적 유산도 보존이 필요합니다. 400년 된 건물들은 자연적 노화, 오염, 때로는 부적절한 복원으로 손상을 입고 있습니다. 방크 수도원의 벽화는 습기와 온도 변화로 조금씩 퇴색하고 있습니다. 국제 기구들과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보존 프로젝트에 자금을 지원하고 있지만, 더 많은 노력이 필요합니다. 방크 수도원과 뉴 줄파는 계속해서 생명력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매주 일요일 종소리는 여전히 울리고, 신도들은 여전히 모입니다. 아르메니아 학교의 아이들은 여전히 그들의 언어와 역사를 배웁니다. 뉴 줄파의 거리에서는 여전히 아르메니아어가 들립니다.

방크 수도원은 단순히 과거의 기념물이 아닙니다. 그것은 디아스포라의 회복력과 적응력의 살아있는 증거입니다. 그것은 아르메니아인들이 어떻게 낯선 땅에서 뿌리를 내리고, 현지 문화와 조화를 이루면서도 자신의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할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그것은 신앙이 어떻게 공동체를 하나로 묶고, 고난의 시기에 희망을 제공하며, 세대를 이어 정체성을 전달하는지를 상징합니다.

오늘날 방크 수도원을 방문하는 사람들 - 아르메니아인이든 그렇지 않든 - 은 단순히 아름다운 예술 작품을 보는 것이 아닙니다. 그들은 400년에 걸친 생존과 번영, 고난과 회복, 상실과 보존의 이야기를 목격합니다. 그들은 작은 민족이 강대국들 사이에서 어떻게 자신의 목소리를 유지하고, 문화적 풍요를 세계에 기여할 수 있는지를 봅니다. 그리고 그들은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고향을 잃은 사람들이 아니라, 여러 세계 사이의 다리가 되고, 새로운 형태의 아름다움과 의미를 창조할 수 있음을 배웁니다.

3. 아메리카 대륙의 아르메니아 미국·아르헨티나·우루과이

아메리카 대륙은 20세기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가장 중요한 목적지가 되었습니다. 미국은 가장 많은 아르메니아인이 사는 나라이며, 남미의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도 상당한 공동체를 형성했습니다. 각자 환경에서 독특한 아르메니아-아메리카 정체성을 발전시켰습니다.

미국의 아르메니아 이민은 19세기 말부터 시작되었습니다. 1890년대 오스만 제국의 압두르하미드 학살(Hamidian Massacres)을 피해 처음으로 아르메니아인들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주로 동부 해안의 보스턴, 뉴욕, 뉴저지에 정착했고, 일부는 중서부의 디트로이트, 시카고로 갔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대부분 가난했고, 공장이나 섬유 산업에서 노동자로 일했습니다.

본격적인 이주는 1915년 대학살 이후에 일어났습니다. 1920년대까지 수만 명의 생존자와 난민이 미국에 도착했습니다. 1924년 이민법(Immigration Act of 1924)이 통과되면서 아시아와 동유럽으로부터의 이민이 제한되었고, 아르메니아인들도 영향을 받았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1930년대까지 약 5만에서 7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미국에 정착했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이후 새로운 이주의 물결이 시작되었습니다. 유럽의 난민 캠프에 있던 아르메니아인들이 미국으로 재정착되었고, 1950년대와 1960년대에는 중동으로부터의 이민이 증가했습니다. 1975년부터 시작된 레바논 내전은 이주를 촉발했습니다. 1980년대와 1990년대에는 이란 혁명과 소련 붕괴로 인해 이란과 아르메니아 본국으로부터 대규모 이민이 있었습니다.

오늘날 미국에는 약 100만에서 150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이 살고 있습니다. 가장 큰 집중 지역은 캘리포니아, 특히 로스앤젤레스 대도시권입니다. 글렌데일(Glendale)은 미국에서 아르메니아인 비율이 가장 높은 도시로, 인구의 약 40%가 아르메니아계입니다. 할리우드, 버뱅크, 파사데나에도 대규모 공동체가 있습니다. 캘리포니아에만 약 50만에서 7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어, "작은 아르메니아(Little Armenia)"라는 별명을 얻었습니다.

동부에서는 보스턴 대도시권(특히 워터타운)이 전통적인 아르메니아 중심지입니다. 뉴욕과 뉴저지, 미시간주 디트로이트 교외 지역에도 상당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플로리다와 텍사스로도 확산되고 있습니다.

미국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특징은 높은 교육 수준과 경제적 성공입니다. 많은 2세대와 3세대는 전문직(의사, 변호사, 엔지니어, 교수), 사업, 예술, 엔터테인먼트 분야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유명한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으로서는 카다시안 가족(리얼리티 TV 스타), 시스템 오브 어 다운(록 밴드), 코미디언 조지 카를린(할머니가 아르메니아인), 영화 감독 아툼 예고얀, 투자자 커크 케르코리안 등이 있습니다.

정치적으로도 아르메니아계 미국인들은 활발합니다. 미국 정부가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하도록 수십 년간 로비 활동을 벌여왔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민위원회(Armenian National Committee of America, ANCA)와 아르메니아 의회(Armenian Assembly of America)는 강력한 로비 조직입니다. 2019년 미국 하원과 상원이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 인정하는 결의안을 통과시켰을 때, 디아스포라의 끈질긴 노력의 결실이었습니다.

미국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조직화되어 있습니다. 수백 개의 교회(사도교회, 가톨릭, 개신교), 학교, 문화센터, 정치 조직이 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의 성 그리고리 계몽자 성당은 서반구에서 가장 큰 아르메니아 사도교회 성당입니다. 보스턴에는 하이드 파크에 역사적인 아르메니아 헤리티지 파크가 있어 대학살을 추모합니다.

교육도 우선순위입니다. 아르메니아 학교들이 있으며, 일부는 유치원부터 고등학교까지 완전한 커리큘럼을 제공합니다. UCLA, USC 같은 주요 대학들은 아르메니아 연구 프로그램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디아스포라의 기부로 설립되었습니다. 남가주대학교(USC)의 아르메니아 연구소는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미국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동화와 정체성 유지 사이의 긴장을 경험합니다. 3세대와 4세대는 아르메니아어를 거의 구사하지 못하고, 영어가 주 언어입니다. 혼인도 증가하여 많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이 비아르메니아인과 결혼합니다. 젊은이들은 자신을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으로 정체화하지만, 그 의미는 조부모 세대와는 다릅니다.

흥미롭게도 소셜 미디어와 디지털 기술은 새로운 형태의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가능하게 합니다. 젊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들은 인스타그램, 유튜브, 틱톡을 통해 아르메니아 음악, 음식, 문화를 공유합니다. 온라인 아르메니아어 학습 플랫폼, 팟캐스트, 유튜브 채널이 언어와 문화를 전파합니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중에는 수천 명의 젊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들이 소셜 미디어를 통해 아르메니아를 지원하는 운동을 벌였고, 수백만 달러의 인도적 지원을 모금했습니다.

남미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덜 알려져 있지만 역시 중요합니다. 아르헨티나에는 약 13만 명, 우루과이에는 약 1만 9천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습니다. 이들의 역사는 미국과 유사하게 1915년 대학살에서 시작됩니다.

1920년대와 1930년대, 수천 명의 아르메니아 난민들이 오스만 제국의 잔혹한 추방에서 살아남아 중동에서 남미로 이주했습니다. 일부는 레바논이나 시리아에서 몇 년간 머문 후 새로운 기회를 찾아 대서양을 건넜습니다. 아르헨티나와 우루과이는 당시 이민자들에게 상대적으로 개방적었고, 경제도 성장하고 있었습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는 남미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의 중심이 되었습니다. 팔레르모와 플로레스 같은 동네에 아르메니아 공동체가 형성되었고, 교회, 학교, 문화센터가 설립되었습니다. 초기 이민자들은 가난했지만, 근면과 기업가 정신으로 빠르게 경제적 기반을 다졌습니다. 많은 이들이 섬유, 가죽 제품, 보석, 카펫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아르헨티나 아르메니아인들의 독특한 특징은 다중 언어 능력입니다. 그들은 아르메니아어, 스페인어, 그리고 많은 경우 프랑스어나 영어까지 구사합니다. 이것은 그들의 이주 경로를 반영합니다 - 오스만 제국에서 태어나 중동 프랑스 위임통치령을 거쳐 남미에 도착한 여정입니다.

아르헨티나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문화적으로 매우 활발합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여러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와 가톨릭 교회가 있으며, 각 교회는 부속 학교와 문화센터를 운영합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 박물관도 있어 역사를 보존하고 교육합니다. 매년 4월 24일에는 대규모 추모 행사가 열리며, 부에노스아이레스 시내에서 수천 명이 행진합니다.

1990년대 아르헨티나는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남미 최초의 국가가 되었습니다. 2000년에는 부에노스아이레스에 아르메니아 대학살 기념비가 세워졌습니다. 이러한 성과는 아르메니아계 아르헨티나인들의 정치적 영향력을 보여줍니다.

스포츠도 통합의 매개체입니다. 부에노스아이레스에는 클럽 아틀레티코 아르메니아(Club Atletico Armenia)라는 클럽이 있어, 축구, 농구, 배구 팀을 운영합니다. 사회적 구심점이며, 젊은이들이 아르메니아 정체성과 연결되는 장소입니다.

우루과이의 몬테비데오에도 비슷한 공동체가 있습니다. 규모는 작지만 긴밀하게 조직되어 있으며, 교회와 문화협회가 활발히 활동합니다. 우루과이는 2004년 아르메니아 대학살을 인정했으며, 이는 작지만 영향력 있는 아르메니아 공동체의 노력 덕분이었습니다.

남미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종종 “이중 디아스포라”라고 불립니다. 그들은 본토 아르메니아뿐만 아니라 중동의 레바논이나 시리아와도 연결되어 있습니다. 많은 가족들이 여전히 베이루트나 알레포에 친척이 있으며, 중동 요리와 음악이 그들의 문화에 녹아 있습니다. 동시에 그들은 라틴 아메리카 문화도 깊이 흡수했습니다. 탱고, 마테차, 아사도(아르헨티나식 바비큐)는 그들의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브라질에도 약 4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살고 있으며, 주로 상파울루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칠레, 베네수엘라, 멕시코에도 작은 공동체가 있습니다. 각 공동체는 규모는 작지만 교회와 문화 조직을 유지하며 정체성을 보존하려 노력합니다.

캐나다도 주요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 국가입니다. 약 10만 명의 아르메니아계 캐나다인이 있으며, 주로 토론토와 몬트리올에 집중되어 있습니다. 캐나다 공동체는 미국과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캐나다의 다문화주의 정책 덕분에 정체성 보존에 더 우호적인 환경을 누립니다.

아메리카 대륙의 아르메니아 공동체들은 본국과 강한 유대를 유지합니다. 많은 이들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고, 본국 경제에 투자하며, 가족에게 송금합니다. 1991년 독립 이후 특히 이러한 연결이 강화되었습니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동안 아메리카의 디아스포라는 수천만 달러를 모금하여 인도적 지원과 재건에 기여했습니다.

동화의 압력도 존재합니다. 미국과 캐나다에서 젊은 세대는 주류 사회에 깊이 통합되어 있으며, 일부는 아르메니아어를 잃어가고 있습니다. 공동체 지도자들은 언어 교육, 문화 프로그램, 청년 조직을 통해 이에 대응하려 노력합니다.

흥미롭게도 “디아스포라 관광”이 증가하고 있습니다. 젊은 아르메니아계 미국인이나 아르헨티나인들이 뿌리를 찾기 위해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고, 일부는 몇 달 또는 몇 년간 본국에서 일하거나 공부합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와 본국 사이의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만들고 있습니다.

아메리카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성공의 이야기입니다. 대학살의 난민으로 도착한 사람들의 후손이 이제는 의회, 기업, 대학, 예술계에서 영향력 있는 위치에 있습니다. 그들은 입양한 나라에 기여하면서도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유지하며, 본국을 지원하고 전 세계에 아르메니아 문화를 전파합니다. 이것은 디아스포라가 단순히 손실이 아니라 문화적 풍요와 초국가적 연결의 원천이 될 수 있음을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본국과 연결 송금, 문화, 교육, 신앙으로 이어진 고리

아르메니아 본국과 전 세계에 흩어진 디아스포라 사이의 관계는 단순히 감상적인 유대가 아닙니다. 그것은 경제적, 문화적, 정치적, 영적 차원에서 본국의 생존과 발전에 실질적으로 기여하는 다층적 연결입니다. 이 연결은 송금, 문화적 교류, 교육 지원, 그리고 신앙이라는 네 가지 주요 고리를 통해 유지됩니다.

경제적 연결: 송금과 투자

디아스포라의 경제적 기여는 아르메니아 경제에서 결정적으로 중요합니다. 세계은행 자료에 따르면, 아르메니아는 GDP 대비 송금 비율이 세계에서 가장 높은 국가 중 하나입니다. 2019년 기준으로 아르메니아의 송금액은 GDP의 14%에 달했으며, 연간 20억 달러에 해당합니다.

송금의 대부분은 러시아에서 일하는 아르메니아인들로부터 옵니다. 200만 명의 아르메니아인이 러시아에 살고 있으며, 많은 이들이 모스크바나 상트페테르부르크에서 일하면서 본국의 가족에게 정기적으로 돈을 보냅니다. 이 송금은 수백만 가정의 생계를 지탱하며, 특히 지방 농촌 지역에서는 주요 수입원입니다.

가족 간의 지원을 넘어섭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은 본국에 사업을 투자합니다. 미국, 프랑스, 러시아의 성공한 아르메니아 기업가들이 아르메니아에 제조업, IT 기업, 호텔, 레스토랑을 설립합니다. IT 산업에서 디아스포라의 투자가 두드러집니다. 예레반은 “코카서스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많은 기술 스타트업이 디아스포라 투자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디아스포라 채권(Diaspora Bonds)도 혁신적인 자금 조달 방식입니다. 이스라엘의 선례를 따라, 아르메니아 정부는 때때로 디아스포라를 대상으로 채권을 발행하여 인프라 프로젝트나 경제 개발에 필요한 자금을 조달합니다.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은 단순히 투자 수익뿐만 아니라 애국심에서 이러한 채권을 구매합니다.

부동산 시장도 디아스포라의 영향을 받습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이 예레반이나 고향 마을에 집이나 아파트를 구매합니다. 일부는 은퇴 후 돌아올 계획이고, 다른 이들은 휴가용이거나 투자 목적입니다. 이것은 부동산 시장을 활성화하지만, 동시에 현지인들에게는 가격 상승을 초래하기도 합니다.

자선과 인도적 지원도 중요합니다. 1988년 스피타크 대지진 이후, 재건을 위해 수억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동안에는 전 세계 디아스포라가 “Armenia Fund”와 다른 조직을 통해 1억 달러 이상을 모금했습니다.

취약성도 있습니다. 러시아 경제가 어려울 때마다(예: 2014-2015년 루블 위기) 송금이 급감하며 아르메니아 경제에 즉각적인 타격을 줍니다. 이것은 경제 다각화의 필요성을 강조합니다.

문화적 연결: 언어, 예술, 전통의 보존과 교류

문화적 차원에서 디아스포라와 본국의 관계는 양방향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본국 문화를 보존하고 전파하는 역할을 하며, 동시에 본국은 디아스포라에게 문화적 뿌리와 정체성을 제공합니다.

언어는 가장 중요한 문화적 고리입니다. 아르메니아어는 독립적인 어족을 형성하는 고유한 언어이며, 5세기에 만들어진 고유의 알파벳을 가지고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공동체는 세대를 거쳐 언어를 보존하려 노력해왔습니다. 전 세계의 아르메니아 학교는 아르메니아어를 가르치며, 일부는 주말 학교로, 다른 일부는 정규 학교로 운영됩니다.

최근에는 온라인 플랫폼이 언어 학습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HyeLearning”, “Armenian Virtual College” 같은 웹사이트는 무료로 아르메니아어 강좌를 제공하며, 전 세계 어디서나 접근할 수 있습니다. 유튜브 채널들은 아르메니아어 레슨을 제공하고, 언어 학습 앱도 개발되고 있습니다. 이것은 3세대, 4세대 디아스포라가 조상의 언어를 재발견할 수 있게 합니다.

문학과 예술에서도 활발한 교류가 있습니다. 디아스포라 작가들은 아르메니아어뿐만 아니라 영어, 프랑스어, 러시아어로 작품을 쓰며, 아르메니아 경험을 세계에 알립니다. 미국의 소설가 크리스 보잘리안(Chris Bohjalian)은 《샌드캐슬 걸스》(The Sandcastle Girls)에서 대학살을 다루어 베스트셀러가 되었습니다. 프랑스의 작가 앙드레 뤼르베르(Andre Makine, 아르메니아계)는 공쿠르상을 수상했습니다.

음악은 강력한 연결 고리입니다. 전통 아르메니아 음악은 두둑(duduk, 아르메니아 목관 악기)의 애절한 소리로 유명합니다. 디아스포라 음악가 조바니 호바네시안(Djivan Gasparyan)은 두둑을 세계에 알렸고, 그의 음악은 영화 《글래디에이터》 사운드트랙에도 사용되었습니다. 젊은 세대는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며, 미국의 시스템 오브 어 다운 같은 밴드는 아르메니아 정체성과 록 음악을 결합합니다.

영화도 중요한 매체입니다. 아툼 예고얀 같은 디아스포라 감독들은 아르메니아 역사와 정체성을 주제로 작품을 만듭니다. 그의 영화 《아라라트》(Ararat, 2002)는 대학살을 다루며 국제적 주목을 받았습니다. 본국의 영화제에는 디아스포라 감독들이 초대되고, 그들의 작품은 본국 관객에게 새로운 시각을 제공합니다.

시각 예술에서도 교류가 활발합니다. 세계적인 설치 미술가 피터 파커(Paik이 아니라 Peter Fetterman) 같은 아르메니아계 예술가들이 국제 무대에서 활약하며, 예레반의 현대 미술관(Modern Art Museum of Yerevan)은 디아스포라 예술가들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요리는 접근하기 쉬운 연결입니다. 돌마(포도 잎에 싼 쌀과 고기), 케밥, 라바시 빵, 바클라바는 전 세계 아르메니아 가정과 레스토랑에서 즐겨집니다. 디아스포라는 이 요리들을 현지 문화와 융합시키기도 합니다 -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아르메니아 레스토랑에서는 아르메니아 요리에 캘리포니아식 트위스트를 가합니다.

축제와 기념일도 공동체를 하나로 묶습니다. 4월 24일 대학살 추모일은 전 세계 아르메니아인이 동시에 기념하는 날입니다. 예레반의 대학살 기념관에서부터 파리, 로스앤젤레스, 시드니까지, 아르메니아인들은 촛불을 들고 행진하며 희생자를 추모합니다. 9월 21일 독립기념일도 마찬가지로 전 세계에서 축하됩니다.

교육적 연결: 장학금, 교환 프로그램, 지식 전달

교육은 디아스포라와 본국을 연결하는 또 다른 중요한 고리이며, 미래 세대를 위한 투자입니다.

장학금 프로그램은 가장 직접적인 교육 지원입니다. 많은 디아스포라 조직과 부유한 개인들이 본국 학생들을 위한 장학금을 제공합니다. 아르메니아 학생들이 국내 대학뿐만 아니라 해외 명문 대학에서 공부할 수 있게 합니다. 예를 들어, "AGBU(Armenian General Benevolent Union)"는 전 세계적으로 수백 개의 장학금을 제공하는 가장 큰 아르메니아 자선 단체입니다.

교환 프로그램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이 본국을 경험할 수 있게 합니다. "Birthright Armenia" 프로그램(이스라엘의 Birthright 프로그램을 모델로 함)은 디아스포라 청년들에게 아르메니아에서 몇 주에서 몇 달간 자원봉사하거나 인턴십을 할 기회를 제공합니다. 참가자들은 NGO, 학교, 기업에서 일하며 본국과 직접 연결됩니다. 많은 참가자들이 이 경험이 자신의 아르메니아 정체성을 강화했다고 말합니다.

반대 방향의 교류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학생들이 디아스포라 국가에서 공부하고, 일부는 그곳에 정착합니다. 이것은 새로운 디아스포라를 만들지만, 동시에 본국과 정착지 사이의 네트워크를 강화합니다. 이들은 종종 귀국하여 해외에서 배운 지식과 기술을 적용합니다.

대학 간 협력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예레반 주립대학, 아르메니아-미국 대학(American University of Armenia) 같은 기관들은 디아스포라의 대학들과 파트너십을 맺고 있습니다. 교수 교환, 공동 연구 프로젝트, 이중 학위 프로그램이 실행됩니다. 미국과 유럽의 주요 대학들은 아르메니아 연구 센터를 설립했으며, 이는 디아스포라 기부자들의 지원을 받습니다.

예레반에서 열리는 국제 여름 학교는 디아스포라 학생들을 초대하여 아르메니아 역사, 문화, 언어를 집중적으로 학습하게 합니다. 이것은 학습뿐만 아니라 전 세계 아르메니아 청년들 간의 네트워킹 기회를 제공합니다. 디아스포라 조직들은 아르메니아어 교과서, 역사책, 문화 자료를 제작하여 전 세계 아르메니아 학교에 배포합니다. 온라인 도서관과 디지털 아카이브는 희귀한 아르메니아 사본과 역사 문서를 디지털화하여 전 세계 연구자와 학생들이 접근할 수 있게 합니다.

신앙의 연결: 교회의 통합적 역할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디아스포라와 본국을 연결하는 가장 오래되고 강력한 제도입니다. 301년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한 이래, 교회는 단순한 종교 기관이 아니라 아르메니아 정체성의 수호자였습니다.

교회의 본부는 에치미아진(Etchmiadzin)에 있으며, 이곳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바티칸이라 할 수 있습니다. 모든 아르메니아 총대주교(Catholicos of All Armenians)가 이곳에서 선출되고 즉위합니다. 에치미아진 성당은 301년에 세워진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이며,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전 세계의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에치미아진과 영적으로 연결되어 있습니다. 교구 신부들은 에치미아진에서 임명되거나 승인받으며, 중요한 교회 문제에 대한 지침을 받습니다. 지리적으로 흩어진 디아스포라에 통일성과 연속성을 제공합니다.

순례는 신앙의 연결을 구체화합니다. 매년 수천 명의 디아스포라 아르메니아인들이 에치미아진, 코르 비랍 수도원(아라라트 산이 보이는 곳에 위치), 게하르트 수도원(바위에 새겨진 중세 수도원) 같은 성지를 방문합니다. 이러한 순례는 종교적 경험일 뿐만 아니라 본국과의 정서적, 문화적 재연결입니다.

교회는 또한 사회 복지와 교육의 중심입니다. 전 세계의 아르메니아 교회들은 일요 학교, 청년 그룹, 자선 활동을 조직합니다. 레바논 내전이나 시리아 내전 같은 위기 시, 교회는 난민 구호의 최전선에 섰습니다. 교회 네트워크는 디아스포라의 한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그리고 본국으로 지원을 전달하는 효율적인 채널입니다.

현대에 교회는 디아스포라 정체성의 중추로서의 역할에 도전받고 있습니다. 서방의 젊은 세대는 교회에 덜 참여하며, 세속화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회는 적응하고 있습니다. 많은 교회들이 현대적인 청년 프로그램, 영어 예배, 소셜 미디어 활용을 도입했습니다. 일부 신부들은 팟캐스트를 시작하거나 유튜브 채널을 운영하며 젊은 세대와 소통합니다.

대학살 추모도 교회의 중요한 역할입니다. 매년 4월 24일, 전 세계 아르메니아 교회에서 특별 전례가 거행됩니다. 에치미아진에서는 총대주교가 집전하는 대규모 추도식이 열리며, 수만 명이 참석합니다. 이것은 단순히 과거를 기억하는 것이 아니라 디아스포라를 하나의 민족으로 묶는 의식입니다.

교회는 또한 디아스포라 간의 다리 역할을 합니다. 예를 들어, 로스앤젤레스의 아르메니아인이 파리를 방문하면 현지 아르메니아 교회를 찾아가며, 그곳에서 환영받고 공동체와 연결됩니다. 교회는 초국가적 아르메니아 네트워크의 노드(node)입니다.

도전과 미래

연결 고리는 강력하지만 도전에도 직면하고 있습니다. 현지국가로의 동화는 특히 3세대, 4세대 디아스포라에서 정체성을 약화시킵니다. 경제적 의존은 취약성을 만듭니다 - 러시아 경제 위기는 즉시 아르메니아에 영향을 줍니다. 정치적 차이도 때때로 디아스포라와 본국 사이의 긴장을 만듭니다.

기술발전은 새로운 형태의 연결을 가능하게 합니다. 소셜 미디어, 화상 통화, 온라인 플랫폼은 디아스포라가 본국과 실시간으로 연결되게 합니다. 가상 공동체가 형성되고, 국경을 넘어 협력이 이루어집니다. 크라우드펀딩 플랫폼은 디아스포라가 본국의 프로젝트에 직접 기여할 수 있게 합니다.

“다중 정체성”의 수용도 새로운 트렌드입니다. 젊은 디아스포라는 자신을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또는 “아르메니아계 프랑스인”으로 편안하게 정체화하며, 두 문화를 모두 포용합니다. 이것은 전통적인 정체성 개념과 다르지만, 21세기 세계화된 세계에서는 자연스러운 진화일 수 있습니다.

본국과 디아스포라의 관계는 단순한 일방향 지원이 아닙니다. 그것은 상호적이고 역동적인 교환입니다. 디아스포라는 본국에 경제적 지원, 국제적 목소리, 지식과 기술을 제공합니다. 본국은 디아스포라에게 문화적 뿌리, 정체성의 원천, 영적 고향을 제공합니다. 이 관계는 작은 나라 아르메니아가 세계 무대에서 그 크기를 훨씬 뛰어넘는 영향력을 가질 수 있게 하는 핵심 자산입니다.

본국은 디아스포라에게 더 많은 참여 기회를 제공하고, 귀환을 쉽게 만들며, 이중 국적과 투표권 같은 제도적 연결을 강화해야 합니다. 디아스포라는 언어와 문화를 다음 세대에 전달하고, 본국을 지원하며, 국제 사회에서 아르메니아의 대변자 역할을 계속해야 합니다. 이 상호 노력이 계속되는 한, 아르메니아 민족은 지리적으로 흩어져 있어도 하나의 공동체로 남을 것입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9장 오늘의 아르메니아와 미래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1. 수도 예레반 고대와 현대가 만나는 도시

예레반은 아르메니아의 수도이자 가장 큰 도시입니다. 기원전 782년에 세워졌다고 알려져 있어, 로마보다도 29년이나 앞서 건설된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도시 중 하나입니다. 예레반이라는 이름은 노아의 방주가 아라라트 산에 멈춘 후 노아가 이곳을 보며 “예레바니”(나타났다)라고 외친 데서 유래했다는 전설이 있습니다.

예레반의 가장 큰 특징은 도시 전체가 분홍빛을 띠는 점입니다. 이는 건물 대부분이 화산암의 일종인 분홍색 화산암으로 지어졌기 때문입니다. 해질 무렵이면 도시 전체가 부드러운 장미빛으로 물들어 ‘분홍 도시’ 또는 ‘장미 도시’라는 애칭으로 불립니다. 이러한 독특한 경관은 도시에 따뜻하고 아늑한 분위기를 더해줍니다.

(예레반 시내 중심가 공화국 광장) 예레반의 중심에는 공화국 광장이 있습니다. 이 광장은 소련 시대인 1924년에 건축가 알렉산더 타마니안이 설계한 것으로, 고전적인 아르메니아 건축 양식과 소련의 계획도시 개념이 조화를 이루고 있습니다. 광장 주변에는 정부청사, 국립역사박물관, 국립미술관, 중앙우체국 등의 중요 건물들이 배치되어 있으며, 모두 분홍색 화산암으로 지어져 통일감을 줍니다. 저녁이 되면 광장의 분수에서 음악에 맞춰 물과 조명이 춤추는 쇼가 펼쳐지는데, 이는 예레반 시민들과 관광객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예레반에는 아르메니아의 비극적 역사를 기억하는 중요한 장소가 있습니다. 바로 치치르나카베르트 언덕에 세워진 대학살 기념관입니다. 이곳은 1915년 오스만 제국에 의해 자행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추모하기 위해 1967년에 건립되었습니다. 기념관의 중심에는 12개의 현무암 기둥이 원형으로 배치되어 있는데, 이는 오스만 제국의 지배 아래 있던 12개의 아르메니아 지역을 상징합니다. 기둥들은 안쪽으로 기울어져 있어 애도하는 모습을 나타냅니다. 중앙에는 영원한 불꽃이 타오르고 있으며, 매년 4월 24일 대학살 추모일에는 수십만 명의 사람들이 이곳을 찾아 추모합니다.

(예레반 시내 어디든 설치된 자연수 음수대)

예레반의 현대적 면모는 북쪽 대로를 따라 펼쳐집니다. 이 거리는 고급 상점, 카페, 레스토랑이 즐비한 예레반의 샹젤리제라고 할 수 있습니다. 특히 아르메니아 특유의 카페 문화가 발달해 있어, 거리 곳곳에서 사람들이 커피나 코냑을 마시며 여유로운 시간을 보내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코냑 생산으로도 유명한데, 아라라트 코냑은 세계적으로 인정받는 명품입니다. 윈스턴 처칠도 이 코냑의 열렬한 팬이었다고 전해집니다.

예레반의 문화 중심지로는 캐스케이드를 빼놓을 수 없습니다. 이것은 도시 중심부에서 언덕 위까지 이어지는 거대한 계단식 건축물로, 1971년에 시작되어 2009년에 완성되었습니다. 총 57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이 구조물은 단순한 계단이 아니라 야외 미술관입니다. 각 층마다 조각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고, 내부에는 현대 미술관인 카페스지안 센터가 있습니다. 계단을 오르면서 예레반 시내를 한눈에 조망할 수 있으며, 날씨가 좋은 날에는 멀리 아라라트 산까지 볼 수 있습니다. 많은 젊은이들

이 이곳에서 만나고, 예술가들이 공연을 하며, 관광객들이 사진을 찍는 예레반의 대표적인 명소입니다.

예레반은 또한 교육과 과학의 중심지입니다. 예레반 국립대학교는 1919년에 설립된 아르메니아 최고의 고등교육기관으로, 수많은 학자와 전문가를 배출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인구 대비 박사 학위 소지자 비율이 매우 높은 나라로, 소련 시대부터 이어진 강력한 교육 전통을 자랑합니다. 특히 수학, 물리학, 컴퓨터 과학 분야에서 뛰어난 인재들이 많이 배출되었습니다.

예레반은 IT 산업의 허브로 급부상하고 있습니다. '코카서스의 실리콘 밸리'라고 불릴 만큼 소프트웨어 개발, 스타트업 생태계가 활발합니다. 많은 글로벌 IT 기업들이 예레반에 개발센터를 두고 있으며, 젊은 프로그래머들이 세계 시장을 상대로 일하고 있습니다. 정부도 디지털 경제를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아 적극적으로 지원하고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 중심가 캐스케이드, 건물 내부 에스컬레이터를 타고 올라가도 된다)

음식 문화도 매우 풍부합니다. 아르메니아 요리는 중동, 지중해, 러시아 음식의 영향을 받았지만 독특한 정체성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케밥, 돌마(포도잎에 싼 밥), 라바시(얇은 빵), 하리사(닭고기와 밀죽) 같은 전통 음식부터 현대적으로 재해석된 퓨전 요리까지 다양합니다. 베르니사지 시장은 전통 공예품과 함께 신선한 과일, 채소, 향신료를 파는 곳으로 예레반의 일상을 느낄 수 있는 장소입니다.

교통 시스템도 점차 현대화되고 있습니다. 지하철은 1981년에 개통되었으며, 현재 한 개 노선이 운영되고 있습니다. 소련 시대에 건설된 지하철역들은 화려한 샹들리에와 대리석 장식으로 꾸며져 있어 그 자체로 볼거리입니다. 최근에는 버스 시스템이 개선되고, 공유 자전거 서비스도 도입되는 등 친환경 교통수단이 확대되고 있습니다.

예레반 사람들의 삶은 가족과 공동체를 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저녁이 되면 가족들이 함께 식사를 하고, 주말에는 친척들과 모여 시간을 보냅니다. 현대의 문화가 강해서 손님을 집으로 초대하고 음식을 대접하는 것을 중요하게 여깁니다. 이러한 전통적 가치관과 현대적 생활방식이 공존하는 것이 오늘날 예레반의 모습입니다.

예레반은 계절마다 다른 매력을 보여줍니다. 봄에는 살구꽃이 만개하고, 여름에는 뜨거운 햇살 아래 카페 테라스가 활기를 띠니다. 가을에는 포도 수확철을 맞아 와인 축제가 열리고, 겨울에는 눈 덮인 아라라트 산을 배경으로 한 도시의 풍경이 특히 아름답습니다. 이처럼 예레반은 3000년의 역사와 현대 문명이 조화롭게 어우러진, 과거와 미래가 공존하는 독특한 도시입니다.

2. 세반 호수 - 아르메니아의 푸른 보석, 자연이 선사한 순례길

세반 호수는 아르메니아의 가장 소중한 자연 자원이자 영혼과도 같은 존재입니다. 해발 1900미터 높이에 위치한 이 호수는 코카서스 지역에서 가장 큰 고산 호수이며, 면적은 약 1240제곱킬로미터에 달합니다. 세반이라는 이름은 아르메니아어로 '검은 수도원'을 의미하는데, 호수 반도에 있는 세반반크 수도원에서 유래했다는 설이 있습니다.

세반 호수의 물은 놀랍도록 맑고 깨끗합니다. 맑은 날에는 물속 깊은 곳까지 들여다볼 수 있을 정도입니다. 물빛은 하늘의 색깔에 따라 시시각각 변하는데, 아침에는 은빛으로, 한낮에는 짙은 청록색으로, 석양 무렵에는 황금빛으로 빛납니다. 이러한 변화무쌍한 아름다움 때문에 아르메니아 사람들은

세반 호수를 '하늘에서 떨어진 청옥'이라고 부릅니다.

세반 호수는 단순한 관광지가 아니라 아르메니아 국민의 생존과 직결된 자원입니다. 호수가 아르메니아 전체 용수의 약 90%를 공급하며, 식수, 관개용수, 수력발전에 사용됩니다. 또한 호수에는 세반 송어를 비롯한 다양한 물고기가 서식하여 중요한 식량원이 되어왔습니다. 세반 송어는 아르메니아의 별미로, 특유의 붉은 살과 고소한 맛으로 유명합니다.

하지만 20세기에 세반 호수는 심각한 위기를 맞았습니다. 소련 시대인 1930년대부터 농업과 수력발전을 위해 호수의 물을 대량으로 끌어다 쓰면서 수위가 급격히 낮아졌습니다. 50년 동안 수위가 무려 20미터나 하락했고, 호수 면적도 15% 이상 줄어들었습니다. 수질도 악화되어 생태계가 위협받았습니다. 이는 아르메니아 국민에게 큰 충격이었고, 호수를 살리기 위한 노력이 시작되었습니다.

1960년대부터 환경보호 운동이 일어났고, 학자들과 시민들은 세반 호수를 구하기 위해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그 결과 정부는 호수 사용을 제한하고, 다른 수원을 개발하기 시작했습니다. 1981년에는 아르파-세반 터널이 건설되어 다른 강의 물을 세반 호수로 끌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노력 덕분에 호수 수위는 조금씩 회복되고 있지만, 완전한 복원까지는 아직 많은 시간이 필요합니다.

세반 호수를 찾는 사람들이 가장 먼저 방문하는 곳은 세반반크 수도원입니다. 이 수도원은 9세기에 세워진 것으로, 원래는 섬에 있었지만 호수 수위가 낮아지면서 지금은 반도가 되었습니다. 수도원까지 가려면 300개가 넘는 계단을 올라가야 하는데, 계단을 오르며 점점 넓어지는 호수의 전망은 숨이 찰 정도로 아름답습니다. 정상에 서면 세반 호수 전체가 한눈에 들어오고, 멀리 산맥들이 호수를 둘러싸고 있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세반반크는 두 개의 교회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성모 마리아 교회와 사도 교회인데, 둘 다 전형적인 아르메니아 건축 양식으로 지어졌습니다. 검은색 현무암으로 지어진 건물은 오랜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하고 있습니다. 수도원 내부는 소박하지만, 돌에 새겨진 십자가와 문양들은 당시 장인들의 뛰어난 솜씨를 보여줍니다. 이곳은 중세 시대에 수도사들이 수행하며 성서를 필사하던 곳으로, 지금도 조용한 명상과 기도의 장소로 사랑받고 있습니다.

세반 호수 주변에는 역사적 장소들도 많습니다. 북쪽 해안에는 하그파트와 디리지 수도원이 있습니다. 10-13세기에 건설된 중세 아르메니아 건축의 걸작으로,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등재되어 있습니다. 이 수도원들은 단순히 종교 시설이 아니라 중세 아르메니아의 학문과 예술의 중심지였습니다. 수도사들은 여기서 책을 필사하고, 음악을 작곡하고, 철학을 연구했습니다.

세반 호수는 또한 휴양지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여름이 되면 아르메니아 사람들이 가족이나 친구들과 함께 호수를 찾아 수영을 하고 일광욕을 즐깁니다. 호숫가에는 해변, 식당, 숙박시설이 조성되어 있습니다. 특히 신선한 호수 생선을 구워 먹는 것은 세반 호수 방문의 백미입니다. 식당들은 갓 잡은 송어나 흰살 생선을 숯불에 구워 레몬과 허브를 곁들여 내는데, 그 맛이 일품입니다.

세반 호수 주변은 자연 애호가들에게도 천국입니다. 호수 주변에는 세반 국립공원이 조성되어 있어 다양한 야생동물과 식물을 볼 수 있습니다. 봄과 가을에는 철새들이 이곳을 거쳐가는데, 특히 아르메니아 갈매기는 세반 호수에서만 번식하는 희귀종입니다. 호수 주변 산악지대에는 하이킹 코스가 잘 조성되어 있어, 트레킹을 즐기는 사람들이 많이 찾습니다.

남쪽으로 가면 노라투스 묘지가 있습니다. 이곳은 세계에서 가장 큰 하치카르(십자가 돌) 집합지입니다. 하치카르는 아르메니아 특유의 석조 예술품으로, 돌에 십자가와 복잡한 문양을 정교하게 새긴 것입니다. 노라투스에는 9세기부터 17세기까지 만들어진 약 900개의 하치카르가 있는데, 각각이 독특한 디자인과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일몰 무렵에 이곳을 방문하면, 석양 빛에 비친 하치카르들이 만들어내는 신비로운 분위기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반 호수는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단순한 자연 경관 이상의 의미를 지닙니다. 이곳은 민족의 정체성과 연결된 영적인 장소입니다. 많은 아르메니아 시인과 작가들이 세반 호수를 주제로 작품을 썼고, 화가들은 호수의 아름다움을 캔버스에 담았습니다. 가족의 중요한 행사나 휴가 때 세반 호수를 찾는 것은 아르메니아 사람들에게 하나의 전통이 되었습니다.

지속 가능한 관광 개발에 관심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정부와 환경단체들은 호수의 생태계를 보호하면서도 관광객들이 아름다운 자연을 즐길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숙박시설이 늘어나고, 쓰레기 관리가 강화되고 있습니다. 세반 호수는 아르메니아의 과거와 현재, 그리고 미래를 잇는 상징적인 장소로, 앞으로도 잘 보존되어 후손들에게 물려줘야 할 소중한 유산입니다.

3. 나고르노-카라바흐의 분쟁과 평화의 과제

나고르노-카라바흐는 남코카서스 지역에 위치한 작은 땅이지만,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 사이에 30년 넘게 이어진 갈등의 핵심입니다. 면적은 약 4400제곱킬로미터로 제주도보다 조금 큰 정도이지만, 이곳을 둘러싼 분쟁은 수만 명의 목숨을 앗아갔고, 수십만 명의 난민을 발생시켰으며, 지역 전체의 발전을 가로막았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라는 이름은 러시아어와 튀르크어가 합쳐진 것입니다. '나고르노'는 러시아어로 '산악'을 의미하고, '카라바흐'는 튀르크어로 '검은 정원'을 뜻합니다.

아르메니아어로는 '아르차흐'라고 부르는데, 이는 고대부터 아르메니아인들이 이 지역을 부르던 이름입니다. 이처럼 이름부터 양측의 역사적 주장이 엇갈립니다.

분쟁의 뿌리는 깊습니다. 역사적으로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아르메니아 왕국의 일부였으며, 중세 시대에는 아르메니아 귀족들이 통치했습니다. 4세기부터 기독교를 받아들인 아르메니아인들은 이곳에 많은 교회와 수도원을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슬람교를 믿는 튀르크계 민족들이 이 지역으로 이주하면서 민족 구성이 복잡해졌습니다. 페르시아와 오스만 제국의 지배를 거치며 때로는 아르메니아인이, 때로는 튀르크계 주민이 다수를 이루었습니다.

현대의 분쟁은 20세기 초 러시아 혁명과 소련의 성립 과정에서 시작되었습니다. 1918년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독립을 선언했고, 나고르노-카라바흐의 귀속을 놓고 충돌했습니다. 1920년 소련이 이 지역을 점령한 후, 1923년 스탈린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아제르바이잔 소비에트 사회주의 공화국의 자치주로 편입시켰습니다. 당시 이 지역 인구의 약 94%가 아르메니아인이었음에도 불구하고 말입니다. 이 결정은 소련의 분할 통치 정책의 일환이었습니다. 서로 다른 민족을 갈라놓고 갈등을 조장함으로써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도를 높이려는 의도였습니다.

소련 시대 내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차별을 경험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교육이 제한되고, 경제적 투자가 부족했으며, 아르메니아와의 교통과 통신이 차단되었습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 정부는 튀르크계 주민들의 이주를 장려했습니다. 이러한 정책에 대해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인들은 지속적으로 아르메니아 편입을 요구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습니다.

1980년대 후반 소련의 개혁·개방 정책인 페레스트로이카와 글라스노스트가 진행되면서 억눌렸던 민족 갈등이 표출되기 시작했습니다. 1988년 2월, 나고르노-카라바흐 자치주 의회는 아르메니아로의 편입을 공식 요청했습니다. 이에 대해 아제르바이잔 정부가 강경하게 반발하면서 양측 간 폭력 충돌이 시작되었습니다. 1988년 2월 아제르바이잔의 수므가이트에서 아르메니아인에 대한 대규모 학살이 발생했고, 이는 분쟁을 더욱 격화시켰습니다.

1991년 소련이 해체되자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각각 독립 국가가 되었고, 나고르노-카라바흐도 독립을 선언했습니다. 이어서 전면전이 발발했습니다. 1991년부터 1994년까지 이어진 첫 번째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에서 약 3만 명이 사망했고, 100만 명 이상의 난민이 발생했습니다. 전쟁 결과 아르메니아와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세력이 이 지역과 주변 7개 구역을 장악했습니다. 1994년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체결되었지만, 평화 조약은 맺어지지 않았고 분쟁은 동결 상태로 남았습니다.

이후 약 26년간 산발적인 충돌은 있었지만 전면전은 피했습니다. 그러나 2020년 9월, 두 번째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이 발발했습니다. 이번에는 양상이 완전히 달랐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은 터키의 군사적 지원을 받으며 현대식 무기, 특히 드론을 대량으로 사용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구식 무기 체계로 맞서야 했고, 6주간의 전쟁에서 패배했습니다. 2020년 11월 러시아의 중재로 휴전 협정이 맺어졌고, 아르메니아는 나고르노-카라바흐 대부분과 주변 지역을 아제르바이잔에 넘겨야 했습니다. 러시아 평화유지군이 일부 지역에 주둔하게 되었습니다.

2020년 전쟁의 패배는 아르메니아 사회에 큰 충격을 주었습니다. 수천 명의 군인이 전사했고, 많은 가족이 사랑하는 이를 잃었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에 살던 수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고향을 떠나야 했습니다. 천년 이상 아르메니아인들이 지켜온 교회와 수도원, 문화유산들이 아제르바이잔의 통제 하에 들어갔고, 이들의 보존에 대한 우려가 커졌습니다. 실제로 전쟁 이후 일부 아르메니아 문화유산이 파괴되거나 훼손되었다는 보고가 있습니다.

2023년 9월, 아제르바이잔은 남아 있던 나고르노-카라바흐 지역에 대해 전격적인 군사 작전을 벌였습니다. 24시간 만에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정부는 항복했고, 주민 대부분이 아르메니아로 피난했습니다. 약 10만 명에 달하는 아르메니아인들이 며칠 만에 고향을 떠났습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아르메니아계 정부는 공식 해체되었고, 이로써 30년 넘게 이어진 나고르노-카라바흐의 사실상 독립은 막을 내렸습니다.

이 분쟁은 단순한 영토 분쟁이 아니라 역사, 종교, 민족 정체성이 복잡하게 얽힌 문제입니다. 아르메니아인들에게 나고르노-카라바흐는 조상 대대로 살아온 땅이며, 중세 아르메니아 문화의 중심지였습니다. 이곳의 수많은 교회와 수도원은 아르메니아 역사와 정체성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반면 아제르바이잔은 국제법상 주권을 주장하며, 영토 보전의 원칙을 강조합니다. 또한 이 지역에 튀르크계 주민들도 살았으며, 전쟁 중 그들도 피해를 입었다고 주장합니다.

국제사회는 이 분쟁을 해결하기 위해 여러 노력을 기울였습니다. OSCE(유럽안보협력기구)의 민스크 그룹이 중재를 시도했지만, 30년간 의미 있는 진전을 이루지 못했습니다. 러시아는 전통적으로 아르메니아의 동맹이었지만, 최근에는 아제르바이잔과의 관계도 강화하면서 중립적 입장을 취하고 있습니다. 터키는 아제르바이잔을 적극 지원했고, 이란은 국경을 접한 이해당사자로서 우려를 표명

했습니다. 서방 국가들은 대체로 방관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어려운 선택에 직면해 있습니다. 전통적 동맹국인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여력이 없고, 아르메니아를 충분히 보호하지 못했다는 실망감이 큼니다. 아르메니아는 서방과의 관계를 강화하려 하고 있습니다. 미국, EU와의 협력을 확대하고, NATO와의 훈련에도 참여하고 있습니다. 지정학적 위치 때문에 러시아와 완전히 결별하기는 어려운 상황입니다.

평화를 향한 길은 험난합니다. 아르메니아와 아제르바이잔은 국경 확정, 교통로 개설, 전쟁 포로 교환 등을 놓고 협상을 진행 중이지만, 진전은 더딤니다. 양국 국민들 사이에는 깊은 불신과 적대감이 남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나고르노-카라바흐를 잃은 상실감과 문화유산의 파괴에 대한 분노를 느끼고 있습니다. 아제르바이잔인들은 영토를 되찾았지만, 여전히 아르메니아가 점령했던 지역의 재건과 난민 귀환 문제를 안고 있습니다.

진정한 평화를 위해서는 역사적 진실에 대한 공동 이해, 문화유산의 보호, 소수 민족의 권리 보장, 경제 협력, 그리고 무엇보다 화해와 용서의 정신이 필요합니다. 이는 몇 년 안에 달성할 수 있는 목표가 아니며, 세대를 거쳐 이루어져야 할 과제입니다.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은 작은 땅을 둘러싼 갈등이 얼마나 큰 비극을 낳을 수 있는지, 평화가 얼마나 소중한지를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4. 디지털 시대의 아르메니아 - 테크 혁신과 스타트업 강국으로의 도약

아르메니아의 디지털 전환은 놀라운 속도로 진행되고 있습니다. 2010년대 이후 아르메니아 정부는 IT 산업을 국가 발전의 핵심 전략으로 삼았습니다. '디지털 아르메니아' 정책을 통해 전자정부 서비스를 확대하고, IT 교육을 강화하고, 스타트업 생태계를 육성했습니다. 그 결과 아르메니아는 '코카서스의 실리콘 밸리'로 불리며 지역의 IT 허브로 자리잡았습니다.

아르메니아의 IT 산업 성장은 여러 요인이 결합된 결과입니다.

첫째, 소련 시대부터 이어진 강력한 수학 및 과학 교육 전통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인구 대비 엔지니어 비율이 매우 높으며, 프로그래밍 올림피아드에서 우수한 성적을 거두는 학생들이 많습니다.

둘째, 영어 구사 능력이 높아 글로벌 시장과 소통이 용이합니다.

셋째, 인건비가 상대적으로 낮으면서도 기술 수준은 높아 비용 대비 효율이 좋습니다.

넷째, 정부가 세제 혜택과 규제 완화를 통해 IT 기업을 적극 지원합니다.

아르메니아에는 수백 개의 IT 기업이 있으며, 약 2만 명 이상이 IT 산업에 종사하고 있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 구글, IBM, 시스코 같은 글로벌 기업들이 예레반에 개발센터를 두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기업들도 세계 시장에 진출하고 있습니다. PicsArt는 아르메니아에서 시작된 사진 편집 앱으로 전 세계에서 수억 명이 사용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정부는 디지털 거버넌스에도 적극적입니다. 전자정부 포털을 통해 시민들은 각종 행정 서비스를 온라인으로 이용할 수 있습니다. 세금 신고, 사업자 등록, 출생 신고 같은 업무를 집에서 처리할 수 있어 편리성과 투명성이 크게 향상되었습니다.

교육 분야에서도 디지털 혁신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정부는 초·중·고등학교에서 프로그래밍 교육을 의무화했고, 교사들을 대상으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민간 부문에서도 코딩 부트캠프, 온라인 강좌, IT 아카데미가 급증했습니다. 튜모 센터는 청소년들에게 무료로 IT, 디자인, 로봇공학 등을 가르치는 혁신적인 교육 기관으로 국제적 주목을 받고 있습니다. 이곳에서 배운 많은 청소년들이 IT 스타트업을 창업하거나 글로벌 기업에 취업하고 있습니다.

도전과제도 가져왔습니다. 무엇보다 디지털 격차가 문제입니다. 수도 예레반과 대도시는 빠르게 변화하지만, 농촌 지역은 여전히 인터넷 접근성이 낮고 디지털 기술 활용 능력이 부족합니다. 고령층은 새로운 기술을 사용하는 데 어려움을 겪습니다. 격차는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킬 우려가 있어, 정부는 농촌 지역의 인터넷 인프라를 확충하고 디지털 교육을 확대하려 노력하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문화 유산을 보존하고 전파하는 새로운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국립도서관은 고대 필사본을 디지털화하여 온라인으로 공개하고 있습니다. 마테나다란(고대 필사본 보관소)의 귀중한 자료들도 스캔되어 전 세계 연구자들이 접근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의 전례 음악, 전통 무용, 민속 예술도 동영상으로 기록되어 유튜브 같은 플랫폼에서 공유됩니다. 이를 통해 전 세계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가 자신의 뿌리와 연결될 수 있습니다.

소셜 미디어는 아르메니아 커뮤니티를 연결하는 중요한 도구가 되었습니다. 전 세계에 흩어진 1000만 명의 아르메니아 디아스포라는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을 통해 서로 소통하고 아르메니아 문화를 공유합니다. 아르메니아 요리 레시피, 전통 의상 사진, 민요 영상이 널리 퍼지며 젊은 세대가 자신의 문화를 새롭게 발견하고 자랑스러워하게 됩니다. 특히 2020년 나고르노-카라바흐 전쟁 때는 소셜 미디어가 정보 공유와 국제 여론 형성에 중요한 역할을 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의 보존도 중요한 과제입니다. 디지털 환경에서 영어가 지배적이 되면서 소수 언어들이 위협받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르메니아는 이에 적극 대응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키보드, 번역 프로그램, 맞춤법 검사기가 개발되었습니다. 구글, 애플 같은 글로벌 기업들도 아르메니아어를 지원하기 시작했습니다. 아르메니아어 위키피디아도 활발히 운영되어 지식의 민주화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젊은이들은 소셜 미디어에서 아르메니아어와 영어를 섞어 쓰는 독특한 언어 문화를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디지털 창작 분야에서도 아르메니아 정체성이 표현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디자이너들은 전통 문양을 현대적으로 재해석하여 그래픽 디자인, 패션, 제품 디자인에 적용합니다. 하치카르(십자가 돌)의 문양, 전통 카펫의 패턴, 고대 문자의 아름다움이 디지털 아트에 영감을 줍니다. 아르메니아 음악가들은 전통 악기인 두둑과 카마차의 소리를 전자음악과 결합한 퓨전 음악을 만듭니다. 융합은 전통을 박제된 과거가 아닌 살아 숨 쉬는 현재로 만듭니다.

게임 산업도 아르메니아 문화를 알리는 매체가 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개발자들은 자국의 역사와 신화를 소재로 한 게임을 제작하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아르메니아의 고대 왕국, 전설 속 영웅, 역사적 전투를 배경으로 한 게임들이 있습니다. 이러한 게임을 통해 젊은 세대와 외국인들이 아르메니아 역사를 재미있게 배울 수 있습니다.

관광 산업에서도 디지털 기술이 활용됩니다. 증강현실(AR) 앱을 사용하면 고대 유적지에서 과거의 모습을 재현해 볼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폐허가 된 조바르트노츠 성당에서 앱을 실행하면 7세기의 웅장한 모습이 화면에 나타납니다. 가상현실(VR) 투어를 통해 멀리 있는 사람들도 아르메니아의 문

화유산을 체험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기술은 문화 교육과 관광 진흥에 모두 기여합니다.

디지털 시대의 아르메니아 정체성은 고정된 것이 아니라 계속 진화하고 있습니다. 전통을 지키되 과거에 갇히지 않고, 혁신을 받아들이되 정체성을 잃지 않는 균형을 찾아가고 있습니다. 젊은 세대는 세계 시민이면서 동시에 자랑스러운 아르메니아인으로 자라고 있습니다. 그들은 실리콘 벨리에서 일하면서도 집에서는 아르메니아 요리를 먹고, 글로벌 음악을 듣지만 아르메니아 민요도 사랑하며, 영어로 소통하지만 아르메니아어로 생각합니다.

기술을 문화의 적이 아닌 동료로 받아들입니다. 세계화를 위협이 아닌 기회로 봅니다. 아르메니아는 작은 나라지만 오랜 역사와 풍부한 문화를 가지고 있습니다. 디지털 기술은 이러한 자산을 세계와 공유하고, 미래 세대에게 물려주며, 새로운 방식으로 표현하는 강력한 도구입니다. 아르메니아가 디지털 시대에 어떻게 자신의 정체성을 유지하고 발전시켜 나가는지 지켜보는 것은, 모든 문화가 직면한 공통의 과제를 이해하는 데 많은 통찰을 줍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김경진 변호사

10장 여행자를 위한 아르메니아 가이드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기독교 국가이자 독특한 문화유산을 간직한 나라입니다. 코카서스 산맥의 험준한 지형 속에 자리 잡은 이 작은 나라는 3,000년이 넘는 역사와 깊은 영성, 그리고 따뜻한 환대 정신으로 방문객들을 맞이합니다. 이 가이드는 아르메니아를 처음 방문하는 여행자들이 알아야 할 핵심 정보를 담고 있습니다.

1. 방문 전 알아두면 좋은 역사·종교 상식

아르메니아를 제대로 이해하려면 이 나라의 역사와 종교를 알아야 합니다. 아르메니아는 기원전 6세기부터 독립 왕국으로 존재했으며, 301년에 세계 최초로 기독교를 국교로 채택했습니다. 이는 로마 제국이 기독교를 공인하기 약 12년 전의 일로,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에서 기독교 신앙이 차지하는 비중을 잘 보여줍니다.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동방정교회나 가톨릭과는 구별되는 독자적인 교회입니다. 451년 칼케돈 공의회에서 그리스도의 합성론(神人性)을 둘러싼 신학적 논쟁으로 다른 교회들과 분리되었습니다. 아르메니아교회는 예수 그리스도의 신성과 인성이 하나로 결합되어 있다고 믿는 '단성론'을 고수했습니다. 이러한 신학적 독립성은 아르메니아인들의 민족 정체성과 깊이 결합되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역사는 생존과 저항의 역사이기도 합니다. 지리적으로 페르시아, 로마, 비잔틴, 오스만 제국, 러시아 등 강대국들 사이에 위치해 있어 끊임없는 침략과 지배를 받았습니다. 특히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제노사이드)은 150만 명에 가까운 아르메니아인들의 목숨을 앗아갔으며, 이는 현대 아르메니아인들의 집단 기억에 깊은 상처로 남아 있습니다.

1991년 소련으로부터 독립한 후 아르메니아는 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채택했지만, 이웃 국가 아제르바이잔과의 나고르노-카라바흐 분쟁으로 어려움을 겪어왔습니다. 2020년과 2023년의 전쟁으로 많은 영토를 잃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여전히 강한 민족 정체성과 문화적 자긍심을 유지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를 방문할 때 알아두면 좋은 몇 가지 문화적 특징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가족 중심적이며, 손님을 극진히 대접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교회나 수도원을 방문할 때는 단정한 복장을 갖추는 것이 좋으며, 여성의 경우 머리를 가리는 스카프를 준비하면 유용합니다. 사진 촬영은 대부분 허용되지만, 예배 중에는 자제하는 것이 예의입니다.

아르메니아 문자는 405년 메스롭 마슈토츠에 의해 창제된 독특한 알파벳으로, 36개(후에 2개 추가)의 문자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이 문자 체계는 아르메니아 문화와 정체성의 핵심 요소이며, 예레반에는 아르메니아 알파벳을 기념하는 기념비 공원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국가 상징인 아라라트 산은 실제로는 터키 영토에 있지만, 아르메니아인들에게는 성스러운 산으로 여겨집니다. 성경에서 노아의 방주가 머물렀다고 전해지는 이 산은 아르메니아의 국장

에도 그려져 있으며, 예레반 시내 여러 곳에서 볼 수 있습니다.

음식 문화도 아르메니아 이해에 중요합니다. 라바시(얇은 빵), 돌마(포도잎에 싼 속 요리), 케밥, 하리사(밀과 고기를 끓인 죽), 그리고 코낙이 유명합니다. 아르메니아 코낙은 처칠이 애호했다고 알려져 있을 정도로 품질이 뛰어납니다. 식사 시 건배할 때는 "겐아츠(Genats, 건강을 위하여)"라고 말합니다.

2. 주요 관광지와 수도원 - 꼭 가봐야 할 성지 곳

아르메니아의 성지 순례는 이 나라의 영혼을 만나는 가장 좋은 방법입니다. 각 성지는 독특한 역사와 건축적 아름다움을 지니고 있으며, 산과 협곡의 극적인 자연 풍경과 어우러져 있습니다.

에치미아진(Etchmiadzin) 성당은 아르메니아 사도교회의 본산으로, 예레반에서 서쪽으로 약 20km 떨어져 있습니다.

301년 기독교 국교화 직후 건립된 에치미아진 대성당은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성당 중 하나입니다. 이곳은 아르메니아 교회의 총대주교(카톨리코스)가 머무는 곳이며, UNESCO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어 있습니다. 대성당 내부에는 예수를 찔렀다는 '성창(聖槍)'의 일부가 보관되어 있다고 전해집니다.

에치미아진이라는 이름 자체가 "외아들이 내려온 곳"이라는 의미로, 성 그레고리오가 환상 중에 예수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내려와 대성당 터를 지정하는 것을 보았다는 전설에서 유래했습니다. 성당 주변에는 7세기에 건립된 성 리프시메 교회와 성 가야네 교회가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방문 시간은 2-3시간 정도면 충분하며, 박물관에서는 귀중한 종교 유물들을 볼 수 있습니다.

게하르트 수도원(Geghard Monastery)은 예레반에서 동쪽으로 약 40km 떨어진 아자트 강 협곡의 절벽에 위치해 있습니다.

4세기에 창건된 이 수도원의 이름은 '창(spear)'을 의미하는데, 예수를 찔렀다는 성창이 이곳에 보관되어 있었기 때문입니다(현재는 에치미아진에 있음). 게하르트의 특징은 수도원의 상당 부분이 거대한 바위를 깎아 만들어졌다는 점입니다. 바위를 뚫어 만든 교회 내부는 뛰어난 음향 효과를 자랑하며, 운이 좋으면 아르메니아 성가를 듣는 특별한 경험을 할 수 있습니다. 13세기에 건립된 주 성당과 바위 교회들은 아르메니아 중세 건축의 걸작으로 평가받으며, UNESCO 세계문화유산입니다.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는 가바니 요새와 아자트 저수지가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게하르트 입구에서는 전통 빵인 라바시를 구워 파는 모습을 볼 수 있는데, 갓 구운 따끈한 라바시를 맛보는 것도 좋은 경험입니다.

타테브 수도원(Tatev Monastery)은 아르메니아 남부 시우닉 주의 보로탄 협곡 위 해발 1,500m에 자리한 장엄한 수도원입니다. 9세기에 건립된 타테브는 중세 아르메니아의 중요한 대학이자 문화 중심지였으며, 최성기에는 1,000명 이상의 수도사들이 거주했습니다.

'타테브의 날개(Wings of Tatev)'라 불리는 세계에서 가장 긴(5.7km) 왕복 케이블카를 이용하는 것입니다. 12분간의 케이블카 여행 동안 보로탄 협곡의 숨막히는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수도원에는 성 베드로와 바울에게 헌정된 주 성당, 성 그레고리오 교회, 그리고 지진을 감지한다는 전설의 가비트(흔들리는 기둥) 등이 있습니다. 타테브는 예레반에서 약 250km 떨어져 있어 당일치기

보다는 1박 2일 일정으로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현지 여행사의 당일 여행프로그램을 이용해도 좋습니다. 근처에는 악마의 다리(Devil's Bridge)라는 자연 암석 다리와 온천이 있어 함께 둘러볼 수 있습니다. 호르 비랍 수도원(Khor Virap Monastery)은 아라라트 평원에 위치하며, 배경으로 우뚝 솟은 아라라트 산의 장엄한 모습으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아르메니아를 기독교 국가로 만든 성 그레고리오가 13년간 지하 감옥에 갇혀 있던 곳으로, 아르메니아 기독교화의 성지입니다. 수도원 이름 자체가 '깊은 구덩이'를 의미합니다. 좁은 계단을 통해 지하 6m 깊이의 어두운 감옥으로 내려갈 수 있는데,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은 주의해야 합니다. 17세기에 재건된 현재의 성당 건물은 비교적 단순하지만, 아라라트 산을 배경으로 한 풍경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상징적인 이미지입니다. 일몰 시간에 방문하면 아라라트 산이 황금빛으로 물드는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호르 비랍은 예레반에서 남쪽으로 약 45km 거리에 있으며, 터키 국경과 매우 가까워 국경 철조망도 볼 수 있습니다.

노라반크 수도원(Noravank Monastery)은 붉은 암석 협곡 안에 자리한 13-14세기 수도원으로,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아름다운 수도원 중 하나로 꼽힙니다. 예레반에서 남동쪽으로 약 120km 떨어진 아마그 협곡 끝에 위치해 있으며, 협곡으로 가는 길 자체가 아름답습니다. 노라반크의 하이라이트는 1339년에 건축가 모미크가 설계한 2층 구조의 성모 마리아 교회(Surb Astvatsatsin)입니다.

교회 정면의 섬세한 조각과 2층으로 올라가는 좁고 가파른 외부 계단이 인상적입니다. 주 성당인 성 요한 세례자 교회에는 뛰어난 십자가 조각석(khachkar)들이 있습니다. 노라반크를 둘러싼 붉은 절벽과 수도원의 크림색 돌이 어우러진 풍경은 특히 석양 무렵에 장관을 이룹니다. 입구 근처에는 와인을 맛볼 수 있는 곳도 있어, 아르메니아의 고대 와인 문화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세반 호수와 세바나반크(Lake Sevan & Sevanavank)은 예레반에서 북동쪽으로 약 60km 떨어진 곳에 있습니다.

세반 호수는 해발 1,900m에 위치한 코카서스 지역 최대의 고산 호수로, 면적은 약 1,240km²에 달합니다. 맑고 푸른 물과 주변 산맥의 절경으로 '아르메니아의 진주'라 불립니다. 호수의 반도(과거에는 섬이었으나 수위 하강으로 반도가 됨)에 자리한 세바나반크는 9세기에 건립되었으며, 언덕 위에서 내려다보는 호수의 전망이 압권입니다.

흑색 화산암으로 지어진 두 개의 교회(성 아라켈레츠와 성 아스트바트사친)가 남아 있습니다. 여름에는 해변에서 수영을 즐길 수 있으며, 현지인들에게도 인기 있는 휴양지입니다. 호수 주변 레스토랑에서는 송어 요리를 맛볼 수 있는데, 세반 호수의 송어(ishkhan, '왕자'라는 뜻)는 아르메니아의 명물입니다. 세반 호수는 겨울에도 아름답지만, 방문하기 가장 좋은 시기는 5월부터 9월까지입니다. 사그모사방크(Saghmosavank) 수도원은 13세기 초에 설립된 고대 아르메니아 수도원으로, 그림 같은 카사흐 협곡(Kasakh Gorge) 절벽 가장자리에 자리 잡고 있습니다. 이 수도원 복합 단지는 수르브 시온 성당(Surb Sion), 성 아스트바차신 교회(St Astvatsatsin), 나르텍스(narthex), 서고, 그리고 종탑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사그모사방크는 대대로 세심하게 보존되어 온 고대 필사본 컬렉션으로 특히 유명하며, 이는 아르메니아의 풍부한 영적, 문화적 유산을 반영하고 있습니다. 종교적 역할 외에도 이 수도원은 중세 시대의 저명한 학자들과 계몽주의자들이 공부하고 아르메니아 사상 발전에 기여했던 교육 센터로 기능했습니다.

엄격하면서도 절제된 아름다움으로 유명한 이 수도원의 건축 양식은 숨 막히는 산악 풍경과 완벽하게 조화를 이루며, 아르메니아의 영속적인 유산을 상징하는 사그모사방크의 위엄을 더욱 강조합니다. 특히 협곡 가장자리에 서 있는 수도원의 모습은 아찔하면서도 장엄한 광경을 선사합니다. 맑은 날에는 멀리 아라라트 산(Mount Ararat)의 눈 덮인 봉우리까지 조망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레반(Yerevan)에서 사그모사방크까지는 약 50킬로미터 거리로, 차량으로 약 50분에서 1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M3 고속도로를 따라 북쪽으로 이동하여 아라가츠(Aragats) 지역 방향으로 진행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예레반 키리키아 버스 정류장(Kilikia Bus Station)에서 아슈타라크(Ashtarak) 행 마르슈루트카(marshrutka)를 탑승한 후, 아슈타라크에서 택시를 이용하거나 도보로 약 3킬로미터를 이동해야 합니다. 인근의 오브하누츠 수도원(Hovhannavank Monastery)과 함께 방문하는 것을 추천하며, 두 곳 사이의 거리는 약 5킬로미터입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이른 아침이나 석양 시간대에 방문하면 협곡과 수도원이 만들어내는 환상적인 풍경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딜리잔(Dilijan)은 '아르메니아의 스위스'라 불리는 아름다운 산악 휴양 도시입니다. 예레반에서 북동쪽으로 약 100km, 세반 호수에서 북쪽으로 약 40km 떨어져 있습니다. 울창한 숲으로 둘러싸인 이 지역은 딜리잔 국립공원의 일부로, 신선한 공기와 미네랄 워터로 유명합니다.

(딜리잔 구시가지 건물 모습)

구시가지는 19세기 아르메니아 전통 건축 양식으로 복원되어 있으며, 공예품 가게와 갤러리, 카페들이 늘어서 있습니다. 딜리잔 근처에는 세 개의 아름다운 수도원이 있습니다. 하그하르친 수도원(Haghartsin Monastery)은 11-13세기에 건립된 수도원으로 울창한 숲 속에 자리해 있으며, 세 개의 교회와 식당 건물이 조화롭게 배치되어 있습니다.

고샤반크 수도원(Goshavank)은 12-13세기의 수도원으로 정교한 khachkar(십자가 조각석)들로 유명하며, 중세 아르메니아의 저명한 학자 므히타르 고쉬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아가르친 수도원(Aghartsin Monastery)도 숲 속에 숨겨진 보석 같은 곳입니다. 딜리잔은 하이킹을 좋아하는 여행자들에게 특히 추천할 만한 곳으로, 파르즈 리치 폭포(Parz Lich Waterfall) 트레일 등 여러 하이킹 코스가 있습니다.

예레반에서 동쪽으로 약 30km 떨어진 가르니 마을에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독특한 두 가지 명소가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은 1세기에 건립된 헬레니즘 양식의 신전으로, 태양신 미트라에게 헌정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 신전은 아르메니아에 남아 있는 유일한 그리스-로마 양식의 기둥 건축물이자 구소련 전체에서도 유일하게 보존된 헬레니즘 건물입니다.

(가르니 신전, 기독교 국교화 이후 아르메니아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신전이다)

이오니아 양식의 24개 기둥이 직사각형 구조를 받치고 있으며, 기둥 머리 부분에는 정교한 아칸서스 잎 조각이 새겨져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은 301년 기독교가 국교로 채택된 이후에도 파괴되지 않고 왕실의 여름 별장으로 사용되었다가 1679년 지진으로 무너졌습니다. 1969년부터 1975년까지 원래의 돌을 사용하여 아나스틸로시스 기법으로 재건되었으며, 원래 부재가 약 3분의 1을 차지하고 나머지는 같은 색과 재질의 새 석재로 보완되었습니다.

신전이 서 있는 절벽 아래로는 아자트 강 협곡이 펼쳐지며, 날씨가 맑은 날에는 아라라트 산을 볼 수 있습니다. 신전 근처에는 왕궁 터와 모자이크로 장식된 목욕탕 유적도 남아 있습니다.

가르니 신전 바로 아래 협곡에는 '돌들의 교향곡'이라 불리는 자연의 경이가 숨어 있습니다. 심포니 오브 스톤즈는 약 4천만 년 전 화산 활동으로 형성된 현무암 기둥들로 이루어진 자연 기념물로, 수 천 개의 육각형과 오각형 현무암 기둥이 최고 50미터 높이까지 솟아 있습니다. 뜨거운 용암이 급격히 식으면서 수축하여 이러한 놀라운 기하학적 형태로 갈라진 것입니다. 이 기둥들이 마치 거대한 오르간 파이프처럼 보인다 하여 '현무암 오르간'이라고도 불리며, 아자트 강물이 흐르는 소리와 어우러져 진정한 '교향곡'을 만들어냅니다.

(가르니 신전 바로 옆 돌들의 교향곡 주상 절리대)

입장료는 300 드람(약 1달러 미만)으로 매우 저렴하며, 운영 시간은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입니다. 가르니 신전에서 이곳으로 내려가는 길은 비포장 자갈길로 약 2km이며, 도보로는 35분 정도 걸립니다. 길이 다소 울퉁불퉁하고 경사가 가파른 곳도 있어 편안한 신발을 신는 것이 권장되며, 올라올 때 힘들다면 소형 기차 형태의 가르니 익스프레스를 이용할 수 있습니다. 현무암 기둥 근처에는 11세기 중세 다리가 있어 호스로브 숲 국립 보호구역으로 연결되며, 협곡을 따라 계속 걸어가면 아자트 저수지에 도착합니다. 이 지역은 사진 촬영 명소로도 인기가 높아, 결혼사진 촬영지로도 자주 이용됩니다.

암베르드 요새는 아라가츠 산 남쪽 경사면에 해발 2,300미터 이상에 위치한 중세 아르메니아 건축의 뛰어난 사례입니다. '구름 속의 요새'라는 뜻을 가진 이 이름은 그 높은 고도를 잘 표현합니다. 7세기에 건설된 이 요새는 아르메니아 왕자들의 전략적 방어 거점이자 여름 별장으로 기능했습니다. 요새 단지는 거대한 석벽, 원형 탑, 궁전, 그리고 11세기에 건립된 수르브 아스트바트사친 교회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두 강의 합류점에 위치하고 깊은 협곡으로 둘러싸인 암베르드의 자연 방어선은 거의 난공불락이었습니다. 요새의 벽은 두께가 4미터에 달하는 곳도 있으며, 거대한 현무암 블록으로 건설되었습니다. 요새 내부에는 목욕탕, 비밀 통로, 물 공급 시설의 유적이 남아 있습니다.

암베르드에서는 아라라트 산, 아라가츠 산, 그리고 11세기 바흐라마센 교회와 강 협곡이 어우러진 장관을 볼 수 있습니다. 예레반에서 약 50km 거리에 있으며, 비우라칸 천문대가 있는 비우라칸 마을에서 가깝습니다. 겨울에는 눈이 많이 쌓여 접근이 어려울 수 있으므로 5월부터 10월 사이에 방문하는 것이 좋습니다. 암베르드를 방문한 후 계속 올라가면 아라가츠 산 정상 근처의 카리 호수에 도착할 수 있는데, 이곳은 해발 3,200미터가 넘는 고산 호수입니다.

아레니 와인 지역은 6,000년 이상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의 역사를 가진 곳입니다. 이 지역의 중심에 있는 아레니-1 동굴은 고고학적으로 엄청난 중요성을 지닙니다. 동굴에서는 약 6,1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양조장이 발견되었으며, 포도 압착기, 포도씨, 향아리, 발효 통 등이 출토되었습니다. 동굴에서는 또한 5,500년 전의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가죽 신발도 발견되었습니다.

아레니 마을 자체는 아르메니아 고유 품종인 아레니 포도로 만든 와인으로 유명합니다. 이 검은색의 달콤한 포도는 풍부한 풍미를 지닌 와인을 만들어냅니다. 마을에는 여러 현지 와이너리가 있어 와인 시음을 할 수 있으며, 매년 10월에는 아레니 와인 페스티벌이 열립니다.

아레니는 노라반크 수도원으로 가는 길에 위치해 있어 함께 방문하기 좋습니다. 마을 근처에는 14세기에 건립된 아스트바트사친 교회도 있습니다. 이 지역의 산악 풍경은 계단식 포도밭과 작은 농가들로 아름답게 꾸며져 있으며, 특히 가을 수확기에 방문하면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카라훈즈(조라츠 카레르)는 아르메니아 남부 시우닉 주의 시시안 마을 근처에 위치한 선사시대 유적지로, 흔히 '아르메니아의 스톤헨지'라 불립니다. 과학적 조사 결과 카라훈즈는 약 7,500년 전의 것으로 추정되며,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천문 관측소 중 하나로 여겨집니다. 유적지는 7헥타르의 면적에 걸쳐 있으며, 200개 이상의 거대한 현무암 돌들이 타원형과 원형의 배열을 이루고 있습니다. 돌의 크기는 0.5미터에서 3미터까지이며, 무게는 최대 10톤에 달합니다. 중앙부에는 두 개의 동심원 형태로 돌들이 배열되어 있습니다.

특징은 약 80개의 돌에 뚫려 있는 정교한 구멍들입니다. 이 구멍들은 다양한 각도에서 뚫려 있으며 천문 관측에 사용되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일부 돌들은 동지, 하지, 월식 주기 등의 천체 현상과 정렬되어 있습니다.

(카라 훈즈 유적)

카라훈즈라는 이름은 '돌'을 뜻하는 'kar'와 '소리'를 뜻하는 'hunj'에서 유래했는데, 바람이 돌의 구멍을 통과할 때 휘파람 소리를 내기 때문입니다. 조라츠 카레르라는 이름은 '힘의 돌' 또는 '수직의 돌'을 의미합니다.

입장료는 성인 1,500 드람이며, 학생과 연금 수급자는 반액입니다. 12세 미만 어린이는 무료입니다. 아르메니아어 가이드는 3,000 드람, 영어나 러시아어 가이드는 5,000 드람입니다. 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6시까지 운영되며, 입장은 오후 5시 30분까지 가능합니다. 시시안 시내에는 카라훈즈의 발굴 유물을 전시하는 작은 박물관이 있습니다. 카라훈즈는 광공해가 거의 없는 지역이므로, 밤하늘 관측에도 여전히 훌륭한 장소입니다. 망원경을 가져와 별을 관찰하는 방문객들도 많습니다.

즈바르트노츠 성당(Zvartnots Temple)

예레반에서 서쪽으로 약 20킬로미터, 자동차로 30분 거리에 있는 즈바르트노츠 성당은 7세기 아르메니아 건축의 가장 찬란한 걸작입니다. "즈바르트노츠"는 고대 아르메니아어로 "천사들의 집" 또는 "천상의 군대"를 의미하며, 641년부터 661년까지 카톨릭코스 네르세스 3세의 지휘 아래 건설된 이 원형 대성당은 중세 아르메니아 건축에서 유례를 찾기 힘든 독창적 구조를 자랑했습니다. 불행히도 930년경 강력한 지진으로 완전히 무너져 폐허로 남았지만, 그 유적만으로도 당시의 장엄한 아름다움을 충분히 짐작할 수 있습니다.

성당은 높이 약 45미터의 3층 구조로, 서로 다른 크기의 세 개 원통형이 차례로 쌓여 올라가고 그 위에 구형 피라미드 모양의 돔이 얹혀진 형태였습니다. 외부는 32면체의 다각형으로 이루어져 멀리서 보면 완벽한 원형으로 보였고, 내부는 그리스 십자가 모양의 테트라콘치 구조였습니다. 건물 전체를 떠받치던 네 개의 거대한 기둥은 높이 20미터에 달했으며, 계단식 받침대 위에 세워진 성당의 벽은 포도나무 덩굴, 석류나무 가지, 정교한 기하학 문양으로 장식되어 있었습니다.

성당 벽을 장식했던 허리까지 나오는 인물 조각상들입니다. 자유로운 자세와 옷의 세밀한 표현, 거의 초상화 같은 얼굴 묘사는 중세 아르메니아인들의 모습을 생생하게 전해줍니다. 일부 조각상은 손에

건축 도구를 들고 있으며, 그중 하나에는 "요한(Johan)"이라는 이름이 새겨져 있어 그가 성당 건설의 총책임자였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바구니 모양의 기둥 머리에는 독수리 조각이 새겨져 있는데, 이는 하늘을 상징하는 돛을 떠받치는 독수리의 모습으로 아르메니아에서 유일한 형태입니다.

20세기 초 저명한 아르메니아 건축가 토로스 토라마니안이 발굴과 복원 작업을 시작했으며, 그의 연구를 바탕으로 1940년대 부분적 복원이 이루어졌습니다. 놀랍게도 파리의 생트샤펠 성당 부조에 노아의 방주와 함께 즈바르트노츠 성당이 묘사되어 있어, 토라마니안의 복원 설계가 정확했음이 증명되었습니다. 1937년 개관한 현장 박물관에는 성당의 복원 모형과 거대한 석판 조각, 해시계, 포도송이와 석류 문양 등이 전시되어 있으며, 2000년 유네스코 세계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예레반에서 즈바르트노츠로 가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예레반 중앙역이나 북부 버스터미널에서 에치미아진(Echmiadzin) 행 버스나 미니버스(마르슈루트카)를 타고 가다가 즈바르트노츠에서 내리면 됩니다. 택시를 이용하면 예레반 시내에서 30분 이내에 도착하며, 에치미아진 대성당을 함께 방문하는 것을 강력히 추천합니다. 에치미아진은 즈바르트노츠에서 불과 5킬로미터 떨어져 있어 하루 일정으로 두 곳을 모두 둘러볼 수 있습니다. 성당 유적은 즈바르트노츠 국제공항 근처에 위치해 있어 공항에서도 쉽게 접근할 수 있으며, 대부분의 여행사에서 에치미아진과 즈바르트노츠를 포함하는 반나절 투어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노라투스 묘지(Noratus Cemetery)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큰 규모의 고대 하치카르(십자가 돌) 집결지로, 중세 시대의 예술적, 영적 유산을 간직하고 있는 신비로운 장소입니다. 이곳에는 수백 개의 정교하게 조각된 묘비들이 세워져 있으며, 대부분은 16세기와 17세기에 제작되었지만 가장 오래된 것은 약 천 년 전의 것으로 추정됩니다.

고대 장인들이 돌에 새긴 문양은 매우 다양합니다. 장식적인 디자인과 성경 속 장면은 물론, 결혼 의식, 새와 동물들, 그리고 일상생활의 모습까지 담겨 있습니다. 각각의 하치카르는 독특한 예술 작품으로, 하나를 완성하는 데 수개월의 헌신적인 노력이 필요했다고 합니다. 묘지 전체를 거닐다 보면 마치 시간을 거슬러 중세 아르메니아로 돌아간 듯한 신비롭고 초현실적인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이곳은 아르메니아의 깊은 정신적 전통과 고대의 역사를 직접 체험할 수 있는 특별한 공간입니다. 석양 무렵 방문하면 돌에 비치는 빛이 더욱 드라마틱한 장면을 연출하여 사진 촬영에도 완벽합니다.

예레반에서 노라투스까지는 약 90킬로미터 거리로, 차량으로 약 1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세반 호수 방향으로 가는 M4 고속도로를 따라 이동하다가 게하르쿠니크 지방의 노라투스 마을로 진입하면 됩니다. 대중교통으로는 예레반 북부 버스 터미널에서 세반 행 미니버스(마르슈루트카)를 타고 노라투스에서 하차할 수 있습니다. 세반 호수와 가까운 위치에 있어 두 곳을 함께 방문하는 일정을 추천합니다. 입장료는 무료이며, 현지 가이드를 고용하면 하치카르에 담긴 역사적 의미와 상징을 더욱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차그카조르 는 마르마릭 강 계곡에 위치한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키 리조트입니다. '꽃의 계곡'이라는 뜻을 가진 이 마을은 예레반에서 북동쪽으로 약 50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1,800~2,800미터에 위치합니다.

겨울에는 스키와 스노보드를 즐길 수 있으며, 하루 리프트권은 약 12,000 드람입니다. 슬로프는 초보자부터 중급자를 위한 코스가 주를 이루며, 숲속을 통과하는 코스도 있습니다. 케이בל카로 산 정상까지 올라가면 주변 산맥의 장관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여름에는 하이킹, 집라인, 산악자전거, 승마

등 다양한 야외 활동을 즐길 수 있으며, 스파 리조트에서 휴식을 취할 수도 있습니다.

마을에는 중세의 아름다운 케차리스 수도원 이 있습니다. 이 수도원 단지는 11~13세기에 건립되었으며, 네 개의 교회와 예배당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차그카조르는 소련 시대 올림픽 선수들의 훈련 장소였으며, 지금도 깨끗한 공기와 높은 고도 덕분에 스포츠 훈련에 이상적인 곳으로 여겨집니다. 근처의 메그라조르 마을에는 독특한 거리 예술, 폭포, 하이킹 트레일이 있어 함께 둘러볼 만합니다.

예르묵은 천연 온천 으로 유명한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인기 있는 스파 타운입니다. 시우닉 주에 위치한 이 도시는 예레반에서 남쪽으로 약 175km 떨어져 있으며, 해발 2,000미터가 넘는 고지대에 자리합니다. 40개 이상의 천연 온천이 있으며, 다양한 리조트 호텔과 스파 시설이 있습니다. 물의 갤러리에서는 다섯 개의 돌 항아리에서 흘러나오는 무료 미네랄 워터를 맛볼 수 있으며, 각각 다른 치유 효과와 온도를 지니고 있습니다.

예르묵의 미네랄 워터는 소화기 질환, 신장 질환, 신경계 질환 등에 효과가 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르묵 폭포는 높이 70미터로 아르메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폭포입니다. 늦봄에는 차가운 공기가 폭포 주변에 머물러 독특한 분위기를 자아냅니다. 가을에는 주변 숲이 황금빛과 붉은빛으로 물들어 아름다운 경치를 선사합니다.

예르묵에서 타테브 수도원까지는 약 100km 거리로, 많은 여행자들이 타테브를 방문한 후 예르묵에서 하룻밤을 묵으며 온천을 즐깁니다. 마을에는 케이블카도 있어 주변 협곡의 경치를 감상할 수 있습니다.

규므리 는 아르메니아에서 두 번째로 큰 도시로, 약 3,000년의 역사를 지닌 고대 정착지입니다. 예레반에서 북서쪽으로 약 126km 떨어져 있으며, 이 도시는 19세기와 20세기 초의 건축물이 잘 보존되어 있어 '박물관 도시'라 불립니다. 도시 중심의 바르다난츠 광장에서 시작하여 쿠마이리 역사 지구를 둘러볼 수 있는데, 이곳은 야외 박물관처럼 역사적 건물들로 가득합니다. 세브 굴 요새와 파리 호텔(소련 시대에는 산부인과 병원으로 사용됨) 같은 건축물들이 인상적입니다.

(아르메니아 제2 도시 규므리 시가지) 지토크차얀 사회생활 박물관(입장료 1,000 드람)은 19세기부터 1920년대까지 이 지역의 생활상을 보여주며, 아슬라마잔 자매 박물관(입장료 300 드람)은 아르메니아 여성의 평등을 위해 노력한 두 자매예술가의 작품을 전시합니다.

규므리는 1988년 대지진으로 큰 피해를 입었지만, 복구 과정에서 많은 역사적 건축물이 복원되었습니다. 이 도시는 아르메니아 문화의 중심지로, 독특한 유머 감각과 방언으로도 유명합니다. 규므리의 레스토랑에서는 전통 아르메니아 요리를 맛볼 수 있으며, 현지 맥주인 규므리 맥주도 유명합니다.

예레반 시내에도 놓쳐서는 안 될 명소들이 많습니다.

캐스케이드 콤플렉스 는 예레반의 상징적인 건축물로, 572개의 계단으로 이루어진 거대한 계단식 구조물입니다. 1920년대 건축가 알렉산드르 타마난의 도시 계획에서 처음 구상되었으며, 1971년에 착공했지만 소련 붕괴로 중단되었다가 2002년 아르메니아계 미국인 자선가 제라르 카페스지안의 지원으로 재건이 재개되었습니다. 카페스지안은 이 프로젝트에 1억 2천 8백만 달러를 기부했습니다.

캐스케이드 내부에는 에스컬레이터가 있어 편하게 올라갈 수 있으며, 각 층마다 현대 미술 작품들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카페스지안 예술센터는 제라르 카페스지안의 개인 소장품 중 5,000점 이상을 전시하고 있으며, 페르난도 보테로, 린 채드윅, 하우메 플렌사, 배리 플래너건 등 세계적인 예술가들의 작품을 볼 수 있습니다.

캐스케이드 앞 정원에는 보테로의 세 작품인 '로마 전사', '고양이', '담배 피우는 여인'이 전시되어 있어 가장 인기 있는 포토 스팟입니다. 캐스케이드 정상에 오르면 예레반 시내 전경과 날씨가 맑으면 아라라트 산까지 조망할 수 있습니다. 정상 근처에는 어머니 아르메니아 동상과 승리 공원이 있습니다. 에스컬레이터는 매일 오전 8시부터 오후 8시까지 운영되며, 전시 갤러리는 금요일, 토요일, 일요일 오전 10시부터 오후 8시까지 개방됩니다.

공화국 광장은 예레반의 중심이자 도시의 상징적인 장소로, 1928년에 건설되었으며 소련의 기념비적 양식과 아르메니아 전통 양식이 조화를 이룹니다. 광장은 다섯 개의 주요 건물로 둘러싸여 있으며, 건물의 기둥과 아치에는 섬세한 고대 아르메니아 문양이 장식되어 있습니다. 광장의 건물들은 분홍빛과 노랑빛을 띠는 화산암인 화산암로 지어져 '핑크 시티' 예레반의 특징을 잘 보여줍니다.

광장 중앙에는 분수가 있으며, 5월 초부터 가을 중순까지 밤마다 화려한 음악 분수 쇼가 펼쳐집니다. 분수는 다양한 장르의 음악에 맞춰 춤추듯 물을 뿜어 올리며, 조명과 어우러져 환상적인 광경을 연출합니다. 이 쇼는 무료이며 많은 시민과 관광객이 모여 함께 즐깁니다. 광장 주변에는 아르메니아 국립 역사 박물관과 국립 미술관이 있어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문화를 깊이 있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공화국 광장은 국경일이나 중요한 국가 행사 때 축제와 퍼레이드가 열리는 장소이기도 합니다.

마테나다란(메스롭 마슈토츠 고문서 연구소)은 예레반 북쪽 마슈토츠 거리에 위치한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필사본 보관소 중 하나입니다. 이곳에는 23,000점 이상의 필사본, 두루마리, 단편이 소장되어 있습니다. 컬렉션에는 5세기부터 중세까지의 성경 사본, 역사 기록, 철학서, 의학서, 수학서 등이 포함되어 있으며, 일부는 세계에서 유일한 사본입니다.

전시관에는 아름답게 채색된 세밀화로 장식된 필사본들이 전시되어 있으며, 화재나 전쟁으로 부분적으로 불타버린 책들도 전시되어 역사의 어려움을 보여줍니다. 건물 외관은 인상적인 브루탈리즘 양식의 회색 구조로 되어 있으며, 그 자체로 건축적 가치가 있습니다.

마테나다란 앞에는 메스롭 마슈토츠의 동상이 있는데, 그는 405년 아르메니아 문자를 창제한 인물입니다. 화요일부터 토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 30분까지 개방되며, 월요일과 일요일은 휴관합니다. 입장료는 1,500 드람입니다. 마테나다란은 2013년 유네스코 세계기록유산에 등재되었습니다.

치체르나카베르드 학살 추모관은 1915년부터 1923년까지 오스만 제국에서 발생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의 희생자들을 추모하기 위한 장소입니다.

기념비 중앙에는 영원한 불꽃이 있는 추모 묘실이 있으며, 12개의 높은 현무암 석판이 불꽃을 향해 기울어져 있습니다. 기념비의 일부인 44미터 높이의 화강암 첨탑은 아르메니아 민족의 영적 재탄생과 대담한 정신을 상징합니다. 첨탑의 밑부분부터 꼭대기까지 뻗은 균열은 분열된 아르메니아 민족(대부분이 아르메니아가 아닌 해외에 거주)을 상징하며, 첨탑 자체는 재생의 의지를 나타냅니다.

기념관 옆에는 학살에 관한 사진, 문서, 신문 기사, 영화 등을 전시한 박물관이 있어 이 비극적 역사를 깊이 이해할 수 있습니다. 매년 4월 24일 학살 추도일에는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이곳을 찾아 추모합니다.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오전 10시부터 오후 5시까지 개방되며 월요일은 휴관입니다. 입장은 무료입니다. 치체르나카베르드를 방문하는 것은 아르메니아의 역사와 정체성을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경험입니다.

북부 거리 는 캐스케이드 콤플렉스와 공화국 광장을 연결하는 현대적인 보행자 거리로, 예레반의 현대성을 상징합니다. 길이 약 1km의 이 거리는 세련된 유리 건물들, 고급 상점들, 그리고 수많은 야외 카페로 줄지어 있습니다. 지하에는 대형 쇼핑몰이 있어 여름 더위를 피하거나 쇼핑을 즐길 수 있습니다.

거리를 따라 걷다 보면 현지인들과 관광객들이 어울려 있는 활기찬 분위기를 느낄 수 있습니다. 북부 거리 주변에는 예레반의 최고급 호텔들과 레스토랑들이 밀집해 있으며, 예레반 오페라 발레 극장도 가까이 있습니다. 이 거리는 낮에도 좋지만, 밤에 조명이 켜지면 더욱 아름다운 모습을 보여줍니다.

베르니사지 시장 은 예레반에서 가장 유명한 야외 공예품 시장으로, 주말에 특히 활기를 띠니다. 이곳에서는 아르메니아 전통 공예품, 골동품, 예술품을 구입할 수 있으며, 장인들과 직접 대화를 나눌 수 있습니다. 시장에는 수제 카펫, 세밀화, 전통 의상, 나무 조각품, 도자기, 십자가 조각석 복제품, 전통 악기, 보석, 그림 등이 판매됩니다. 가격 흥정이 가능하며, 친절한 상인들이 자신들의 작품에 대해 기꺼이 설명해줍니다.

베르니사지는 특히 토요일과 일요일에 가장 크게 열리며, 아르메니아 문화를 경험하고 독특한 기념품을 구입하기에 완벽한 장소입니다. 시장은 공화국 광장에서 도보로 갈 수 있는 거리에 있습니다.

3. 축제와 순례 일정 - 아르메니아의 살아있는 전통을 체험하다

아르메니아의 축제와 종교 행사는 이 나라의 문화와 전통을 생생하게 경험할 수 있는 기회입니다. 대부분의 축제는 기독교 전통과 깊이 연관되어 있지만, 계절과 농경 문화를 반영한 민속 축제도 있습니다.

성탄절과 주현절(1월 6일)은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중요한 종교 축일입니다. 대부분의 기독교 국가들이 12월 25일에 성탄절을 기념하는 것과 달리, 아르메니아 사도교회는 예수의 탄생과 세례(주현절)를 함께 1월 6일에 기념합니다.

이는 초기 기독교의 전통을 따른 것입니다. 이날 에치미아진 대성당에서는 총대주교가 집전하는 성대한 미사가 열리며, 성수 축복 의식이 진행됩니다. 많은 신자들이 얼음처럼 차가운 물에 뛰어드는 전통도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와 전국 각지의 교회에서 특별 예배가 열리며, 가족들이 모여 전통 음식을 나누는 시간을 갖습니다.

부활절(Zatik)은 아르메니아에서도 가장 중요한 축일 중 하나입니다. 날짜는 서방 교회와 다를 수 있는데, 아르메니아 교회는 율리우스력을 사용하기 때문입니다. 부활절 전 사순절 기간 동안 많은 신자들이 금식하며, 부활절 당일에는 교회에서 특별 미사가 열립니다.

전통적으로 계란을 빨강계 물들이는데, 이는 그리스도의 피를 상징합니다. 부활절 인사로는 "Christos haryal i merelots(그리스도께서 죽음에서 부활하셨습니다)"라고 하며, 이에 대한 답례는 "

Orhnyal e harut'yunn Christosi(그리스도의 부활을 찬양합니다)”입니다.

바르다바르(Vardavar)는 7월에 열리는 독특한 물축제입니다. 원래는 고대 이교 신앙의 물의 여신 아스티크를 기념하는 축제였으나, 기독교화 이후 예수의 변모를 기념하는 축일과 결합되었습니다.

이날 아르메니아 전역에서 사람들이 서로에게 물을 뿌리며, 나이와 지위에 관계없이 누구나 물벼락을 맞을 수 있습니다. 거리는 물을 뿌리는 사람들로 가득 차며, 특히 어린이들이 신나게 참여합니다. 외국인 여행자도 예외가 아니므로, 이 시기에 방문한다면 젖을 각오를 해야 합니다. 여벌 옷과 방수 가방을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포도 축복 축제(8월 중순)는 아르메니아의 와인 생산 전통을 기념하는 축제입니다. 아라라트 평원의 아라니 마을에서 열리는 축제가 유명하며, 총대주교가 포도를 축복하는 의식이 진행됩니다. 고대부터 이어져온 아르메니아의 포도 재배와 와인 양조 전통을 반영합니다. 실제로 아르메니아는 세계에서 가장 오래된 와인 생산지 중 하나로, 6,100년 전의 와인 양조 시설이 발견되기도 했습니다.

독립기념일(9월 21일)은 1991년 소련으로부터의 독립을 기념하는 국경일입니다. 예레반의 공화국 광장에서는 군사 퍼레이드와 문화 공연이 열리며, 밤에는 화려한 분수쇼와 불꽃놀이가 펼쳐집니다. 이날 많은 아르메니아인들이 거리로 나와 축하 행사에 참여하며, 국가적 자긍심을 표현합니다.

아르메니아 대학살 추도일(4월 24일)은 1915년 오스만 제국에서 시작된 아르메니아인 대학살을 추모하는 날입니다. 이날 수십만 명의 아르메니아인들이 예레반의 치체르나카베르드 학살 기념관을 방문해 희생자들을 추모합니다. 거리는 조용하고 엄숙한 분위기이며, 많은 상점과 식당이 문을 닫습니다. 여행자들도 이날의 의미를 이해하고 존중하는 태도를 보이는 것이 중요합니다.

와인 축제(10월)는 아레니 마을 등지에서 열리는 수확 축제로, 전통 방식으로 포도를 밟아 와인을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으며, 다양한 아르메니아 와인을 시음할 수 있습니다. 민속 음악과 춤 공연도 함께 열립니다.

예레반 와인 데이즈(5월)는 수도 예레반에서 열리는 현대적인 와인 페스티벌로, 국내외 와인 생산자들이 참여하며, 와인 시음, 음악 공연, 음식 등을 즐길 수 있습니다.

종교 순례를 계획한다면, 주요 축일에 맞춰 방문하면 특별한 의식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시기에는 숙박 시설이 붐비고 가격이 오를 수 있으므로 사전 예약이 필수입니다. 일반적인 교회 예배는 일요일 오전에 열리며, 주요 수도원에서는 매일 예배가 있습니다.

4. 음식·음악·예술 오감으로 느끼는 일상 속의 아르메니아 문화

아르메니아의 일상 문화를 이해하려면 음식, 음악, 예술을 경험해야 합니다. 이 세 가지는 아르메니아인들의 정체성과 깊이 연결되어 있으며, 수천 년의 역사를 반영합니다.

아르메니아 음식은 중동과 지중해, 코카서스의 영향이 혼합된 독특한 요리 전통을 자랑합니다. 주식은 밀로 만든 빵인 라바시(Lavash)로, 얇고 부드러운 플랫브레드로 2014년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전통적으로 지하 오븐(tonir)에서 구워지며, 갓 구운 라바시의 풍미는 일품입니다. 라바시는 치즈, 허브, 고기 등을 싸서 먹거나 그냥 먹기도 합니다.

돌마(Dolma)는 포도 잎이나 양배추 잎으로 양념한 고기와 쌀을 싸서 만든 아르메니아의 대표 음식입니다. 소고기나 양고기를 다진 후 쌀, 양파, 허브를 섞어 만든 속을 포도 잎으로 정성스럽게 감싸서 찌거나 삶아냅니다. 겨울철에는 포도 잎 대신 양배추나 가지, 피망, 토마토 속을 파내고 고기를 채워 넣은 버전도 인기입니다.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싹 문화와 닮아있어 거부감 없이 즐길 수 있으며, 요거트 소스나 마늘 소스를 곁들여 먹으면 더욱 맛있습니다. 특히 여름철 신선한 포도 잎으로 만든 돌마는 상큼한 향이 일품이며, 한 입 베어 물면 육즙이 가득한 고기와 쌀이 입안 가득 퍼집니다. 예레반의 전통 식당이나 가정집에서 흔히 볼 수 있으며, 아르메니아인들의 명절이나 특별한 날에 빠지지 않는 필수 요리입니다.

케밥은 여러 종류가 있는데, 가장 대표적인 것은 호로바츠(Khorovats)로 불리는 꼬치구이입니다. 돼지고기, 양고기, 닭고기 등을 숯불에 구워 먹으며, 야외에서 피크닉을 할 때 특히 인기 있습니다. 케밥과 함께 구운 야채와 라바시를 곁들여 먹습니다.

하리사(Harisa)는 밀과 닭고기나 양고기를 오랜 시간 끓여 만든 죽 같은 음식으로, 특히 겨울이나 부활절에 먹습니다. 버터를 넣어 먹으면 맛이 더욱 좋습니다. 한국의 설렁탕이나 곰탕을 연상케 합니다. 새벽부터 천천히 끓여낸 국물은 뽀얗고 진하며, 콜라겐이 풍부해 건강식으로도 인기가 높습니다. 전통적으로 아침 식사로 먹으며, 특히 추운 겨울철이나 과음한 다음 날 해장 요리로 최고입니다. 국물에 마늘을 듬뿍 넣어 으갠 후 소금으로 간을 하고, 라바시 빵을 찢어 넣어 먹는 것이 정통 방식입니다. 한국의 해장국처럼 뜨끈한 국물이 속을 풀어주고, 소의 발 살코기는 부드럽고 쫄깃한 식감이 일품입니다. 보통 보드카나 아르메니아 브랜디와 함께 먹으며, 현지인들은 “하쉬를 먹을 때는 술을 마셔야 제맛”이라고 말합니다. 예레반의 하쉬 전문 식당은 아침 일찍부터 문을 열며, 푸짐하고 저렴합니다. 호로바츠는 아르메니아의 전통 숯불 바비큐로, 한국의 고기 구이 문화를 사랑하는 이들에게 최고의 선택입니다. 돼지고기, 소고기, 양고기, 닭고기를 큼직하게 썰어 양파, 마늘, 허브, 와인, 식초로 만든 양념에 최소 몇 시간에서 하루 동안 재운 후 숯불에 구워냅니다. 꼬치에 꿰어 구운 고기는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스모키한 향이 일품입니다. 구운 야채(토마토, 가지, 피망)와 함께 나오며, 라바시(전통 빵)에 싸서 허브, 양파, 레몬즙과 함께 먹으면 느끼함이 전혀 없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주말이면 가족들과 야외에서 호로바츠 파티를 즐기는데, 이는 한국의 삼겹살 파티와 매우 흡사한 문화입니다.

조바츠는 고기와 다양한 채소를 향아리나 냄비에 넣고 오랜 시간 푹 끓인 아르메니아식 찌개입니다. 한국의 김치찌개나 된장찌개처럼 뜨끈한 국물 요리를 좋아하는 한국인들에게 매우 친숙한 맛입니다. 양고기나 소고기를 기본으로 하고, 감자, 토마토, 가지, 피망, 양파 등 다양한 채소가 들어가며, 허브와 향신료로 풍미를 더합니다. 전통 방식으로는 토니르(땅속 화덕)의 여열을 이용해 천천히 익히는데, 이렇게 만든 조바츠는 고기가 뼈에서 떨어질 정도로 부드럽고 채소는 국물을 머금어 깊은 맛을 냅니다. 뜨거운 향아리째로 테이블에 나오며, 김이 모락모락 피어오르는 모습이 한국의 뚝배기 요리와 닮았습니다. 라바시 빵으로 국물을 찍어 먹거나, 밥을 말아 먹으면 속이 따뜻해지고 든든합니다.

세반 호수에서 잡히는 송어(이슈칸, Ishkhan)는 “왕자”라는 뜻을 가진 아르메니아의 특산 물고기로, 한국인들이 좋아하는 생선 요리입니다. 신선한 송어에 마늘, 레몬, 허브를 넣고 숯불이나 오븐에 구워내는데, 겉은 바삭하고 속은 촉촉하며 비린내가 전혀 없습니다. 세반 호수 주변의 식당들은 대부분 송어 요리를 전문으로 하며, 호수를 바라보며 먹는 신선한 송어 구이는 아르메니아 여행의 하이라이트입니다. 한국의 고등어구이나 조기구이를 좋아한다면 이 요리를 반드시 시도해야 하며, 부드러운 살코기는 가시가 적어 먹기 편합니다. 구운 야채와 허브 샐러드, 레몬 조각과 함께 나오며, 송어 살에 레몬즙을 뿌려 먹으면 상큼하고 깔끔한 맛이 일품입니다.

가타(Gata)는 버터가 많이 들어간 달콤한 페이스트리로, 다양한 지역별 변형이 있습니다. 차나 커피와 함께 먹기 좋으며, 선물용으로도 인기가 있습니다. 예레반의 아시아 레스토랑 정보를 정리해드립니다.

한국식당 김얌(Kim Yum)은 예레반에서 한국 스트리트 푸드를 전문으로 하는 식당으로, 메스롭 마쉬토츠 거리 39/12번지와 에레부니 몰 내에 위치해 있습니다.

중국식당으로는 베이징 레스토랑(Beijing Restaurant)이 날반디안 거리 1번지에 자리하고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 요리를 다양하게 제공합니다. 올드 베이징(Old Beijing)은 투마난 거리 9번지에 위치한 중국 음식 전문점으로 200가지 이상의 중국 요리를 선보입니다. 드래곤 가든(Dragon Garden)은 아라미 거리 76번지에 있으며 중국, 일본, 태국 요리를 제공하는 활기찬 분위기의 레스토랑입니다. 메이드 인 차이나(Made in China)는 투마난 거리 19/37번지에 위치한 중국 음식점입니다. 뉴타오(New Tao)는 중국 요리를 전문으로 하는 레스토랑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베트남 쌀국수 전문점으로는 얀포(JanPho)가 날반디안 거리 47번지에 위치해 있으며, 베트남 쌀국수 포보와 일본 라멘으로 유명한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입니다. 포보 아르메니아(PhoBo Armenia)는 한라페투타(Republic) 거리 71번지 1층에 자리한 베트남 요리 전문점으로, 베트남 출신 셰프가 12시간 동안 끓인 육수로 만든 정통 포보를 제공합니다. 코요(Koyo)는 노던 애비뉴 5번지에 위치한 팬 아시안 퓨전 레스토랑으로 아시아 요리 경험을 제공합니다.

주의할 점은 대체로 음식이 한국보다 짜게 먹습니다. 소금을 매우 적게 넣어 달라고 주문시 꼭 말해야 합니다.

제철 과일 도 아르메니아의 자랑입니다. 특히 살구(apricot)는 아르메니아의 상징적인 과일로, 아르메니아의 라틴어 이름 자체가 살구의 학명(*Prunus armeniaca*)에 들어 있습니다. 여름에는 달콤한 체리, 복숭아, 무화과를, 가을에는 석류, 감, 포도를 맛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코냑 은 세계적으로 유명합니다. 1887년부터 생산된 아라라트 브랜드가 가장 유명하며, 윈스턴 처칠이 애호했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예레반의 아라라트 코냑 공장에서는 투어와 시음을 제공합니다. 코냑 외에도 아르메니아는 와인 생산의 긴 역사를 가지고 있으며, 최근에는 현대적인 와인러들이 품질 좋은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커피 도 독특합니다. 터키식 커피와 유사하지만, 아르메니아인들은 이를 "아르메니아 커피"라고 부릅니다. 잘게 간 커피를 jezve(작은 구리 냄비)에 넣고 천천히 끓여 만들며, 컵 바닥에 커피 찌꺼기가 남습니다. 이 찌꺼기로 점을 치는 전통도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음악 은 고대부터 이어져온 독특한 전통을 가지고 있습니다. 중세 종교 음악인 샤라칸(Sharakan)은 단선율의 성가로, 네우메 기보법으로 기록되었습니다. 이 성가들은 아르메니아 교회 예배에서 여전히 불리며, 게하르트 같은 암석 교회에서 들으면 특별한 음향 효과를 경험할 수 있습니다.

전통 민속 음악도 풍부합니다. 대표적인 악기로는 두둑(Duduk)이 있는데, 살구나무로 만든 리드 악기로 애절하고 깊은 소리를 냅니다. 두둑 연주는 2005년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으며, 영화 '글래디에이터'의 사운드트랙에도 사용되어 세계적으로 알려졌습니다. 명인 지반 가스파란(Djivan Gasparyan, 1928-2021)의 연주는 특히 유명합니다.

다른 전통 악기로는 카마차(Kamancha, 현악기), 다홀(Dhol, 북), 주르나(Zurna, 관악기), 칸온(Kanon, 치터) 등이 있습니다. 예레반의 카페나 레스토랑에서 라이브 공연을 들을 수 있으며, 전통 음악 공연장도 있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 음악은 전통과 현대를 융합하려는 시도가 활발합니다. 재즈, 록, 일렉트로닉 음악에 전통 악기와 선율을 결합한 실험적인 음악가들이 많습니다.

아르메니아 미술과 건축은 독특한 미학을 보여줍니다. 가장 독특한 예술은 하치카르(Khachkar, 십자가 조각석)입니다. 이는 돌에 십자가와 정교한 기하학적 무늬를 조각한 것으로, 각각이 독특한 디자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치카르는 기념비, 묘비, 또는 기도의 대상으로 사용되었으며, 2010년 UNESCO 무형문화유산으로 지정되었습니다. 고샤반크와 게하르드에서 특히 아름다운 하치카르들을 볼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교회 건축은 독특한 스타일을 발전시켰습니다. 원추형 또는 원뿔형 지붕, 돌로 된 중앙 돔, 그리고 외부 벽면의 섬세한 조각이 특징입니다. 아르메니아는 돌 건축의 달인들이었으며, 지진이 잦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1,000년 이상 된 건물들이 여전히 서 있습니다.

세밀화(Miniature painting)도 아르메니아 예술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중세 필사본에 그려진 정교한 세밀화들은 성경 장면, 성인들, 그리고 일상생활을 묘사했습니다. 예레반의 마테나다란(고문서 박물관)에서 이런 귀중한 필사본들을 볼 수 있습니다.

현대 아르메니아 미술도 활발합니다. 예레반에는 국립 미술관, 현대 미술관, 그리고 여러 갤러리가 있어 현대 아르메니아 작가들의 작품을 감상할 수 있습니다. 북부 거리(Northern Avenue)와 사리안 거리 주변에 많은 갤러리가 모여 있습니다.

카펫 제작도 아르메니아의 전통 공예입니다. 아르메니아 카펫은 독특한 디자인과 색채를 가지고 있으며, 자연 염료를 사용합니다. 예레반의 베르니사지 벼룩시장이나 공예품 상점에서 전통 카펫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일상에서 아르메니아 문화를 경험하려면, 현지 식당에서 식사하고, 전통 음악 공연을 보고, 베르니사지 시장을 방문하고, 현지인들과 대화를 나누는 것이 좋습니다. 아르메니아인들은 대체로 친절하고 손님을 환대하는 전통이 있어, 여행자들에게 자국의 문화를 기꺼이 소개합니다.

5. 브랜디와 와인

(1) 아르메니아 브랜디 - 프랑스가 인정한 '코냑'의 전설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전설은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시작됩니다. 당시 예레반 브랜디 회사(Yerevan Brandy Company)의 소유주였던 러시아 기업가 니콜라이 슈스토프(Nikolai Shustov)는 대담한 도전을 감행했습니다. 자신의 최고급 브랜디 샘플을 블라인드 테이스팅 대회에 몰래 출품했습니다. 결과는 놀라웠습니다. 아르메니아 브랜디가 그랑프리(대상)를 수상한 것입니다!

이 사건으로 프랑스 코냑 협회는 충격에 빠졌습니다. 자존심 높은 프랑스인들이 자국의 명품 브랜디보다 아르메니아 브랜디를 더 높이 평가한 것입니다. 프랑스 코냑 협회는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탁월한 품질을 인정하여 공식적으로 '코냑(Cognac)'이라는 명칭 사용을 허가했습니다. 원래 '코냑'이라는 명칭은 프랑스 코냑 지방에서 생산된 브랜디만 사용할 수 있는 지리적 표시제로 엄격히 보호되는

명칭입니다. 마치 샴페인이 샹파뉴 지방에서만 생산된 발포성 와인에만 부여되듯이 말입니다. 그러나 아르메니아는 유일하게 예외를 인정받았습니다.

하지만 이 영광은 영원하지 않았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 종전 이후 이 권리는 취소되었고, 2013년 아르메니아 정부가 EU에 코냑 명칭 사용을 다시 허가해 달라고 로비했으나 실패했습니다. 현재는 “아르메니아 브랜디(Armenian Brandy)”로만 판매할 수 있습니다. 그럼에도 아르메니아 현지에서는 여전히 자국 브랜디를 “아르메니아 꼬냑(Armenian Cognac)”이라고 부르며 자랑스럽게 여기고 있습니다.

(2) 니콜라이 슈스토프의 천재적 마케팅 전략

슈스토프는 단순히 좋은 술을 만드는 것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는 시대를 앞서간 마케팅 전략을 구사했습니다.

그는 전 세계 고급 레스토랑에 동료들을 보내 “아르메니아(또는 아라라트) 브랜디를 주문”하도록 지시했습니다. 당연히 대부분의 식당에는 이런 브랜디가 없었고, 식당 주인들은 고객의 요구에 응하기 위해 공급처를 찾아야 했습니다.

자연스럽게 수요가 창출되었고,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인지도는 급상승했습니다. 오늘날 마케터들이 보면 감탄할 만한 현명한 사업 전략이었습니다.

(3) 1945년 알타 회담 - 처칠과 스탈린의 아르메니아 브랜디 일화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가장 유명한 일화는 바로 1945년 2월 알타 회담에서 벌어졌습니다.

제2차 세계대전이 종전을 앞두고, 크림반도의 알타에서 윈스턴 처칠(영국 수상), 이오시프 스탈린(소련 서기장), 프랭클린 루즈벨트(미국 대통령)이 전후 유럽과 세계 질서 재편에 대해 논의하기 위해 모였습니다.

이 역사적 회담에서 스탈린은 처칠에게 아라라트 브랜디의 최고급 제품인 ‘Dvin(드빈)’을 대접했습니다. 이 술은 당시 소련에서 최고급 선물이자 뇌물로 통하던 명품 브랜디였습니다.

처칠은 이 브랜디를 한 모금 마시자마자 완전히 매료되었습니다. 그는 그 자리에서 스탈린에게 이 브랜디를 정기적으로 보내줄 것을 요청했고, 스탈린은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이후 처칠은 매년 400병의 아라라트 드빈을 소련으로부터 선물받았다고 전해집니다. 처칠은 자신의 트레이드마크인 시가를 피우며 아르메니아 브랜디를 즐기는 것을 무척 좋아했다고 합니다.

처칠뿐만 아니라 소련 고위 간부들 사이에서도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최고의 선물이자 뇌물로 통했습니다. 공산권 전체에서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최고 품질의 상징이었습니다.

(4)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제조 비밀

아르메니아 브랜디가 프랑스 코냑에 버금가는 품질을 자랑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먼저 고전적 프랑스 제조법을 들 수 있습니다. 1877년 두 사업가 형제 네르세스 타이란과 바실리 타이로프가 예레반 브랜디 회사를 설립하면서 아르메니아 브랜디 산업이 시작되었습니다. 이들은 프랑

스에서 와인 제조법을 공부하고 돌아와 이중 증류(double distillation) 개념을 도입했습니다.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프랑스 코냑과 동일하게 전통적인 이중 단식 증류 방식을 사용합니다. 이는 프랑스 코냑의 제조 과정과 거의 동일합니다.

다음으로 아라라트 평원의 토착 포도 품종을 사용합니다.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주로 자생종 포도 품종으로 만듭니다. 즉, 아르메니아 고유의 토양과 기후에서 자란 특별한 포도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특히 아라라트 평원에서 재배되는 포도는 당도가 18~20%로 브랜디 제조에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이 지역은 성경에 나오는 노아의 방주가 정박한 아라라트산 기슭이기도 합니다.

마지막으로 오크통 숙성 방식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프랑스 코냑처럼 오크통에서 숙성됩니다. 특히 고급 브랜디의 경우 카라바흐 오크(Karabakh Oak) 배럴에서 숙성되기도 합니다. 일반 코냑은 최소 3년 숙성되며 별 3개(★★★)로 표기됩니다. 빈티지 코냑은 최소 6년 이상 숙성되고, 수집 가능 코냑은 빈티지 코냑에 추가로 3년 이상 숙성됩니다. 특이한 점은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오크통 뿐만 아니라 오크 지팡이가 추가된 에나멜 용기에서도 숙성시킬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르메니아의 대표 브랜디 브랜드

아라라트(Ararat)는 1877년부터 생산된 아르메니아 브랜디의 대표 브랜드입니다. 아라라트산의 이름을 딴 이 브랜드는 3년부터 20년까지 숙성된 제품을 판매합니다. 아라라트 드빈(Ararat Dvin)은 처칠이 사랑한 전설의 브랜디이고, 아라라트 에레부니(Ararat Erebuni)는 말린 과일과 헤이즐넛의 풍미가 특징입니다. 아라라트 악타마르(Ararat Akhtamar) 10년산은 가성비 좋은 고급 브랜디로 평가 받습니다.

노이(NOY)는 예레반 아라라트 브랜디 공장에서 생산되는 또 다른 유명 브랜드입니다. 브랜디, 와인, 보드카를 함께 생산하는 종합 증류소입니다.

샤토 나무스(Chateau Namus)는 17년 숙성된 초고급 브랜디로, 가격은 약 17,000루블(약 40만원) 수준입니다. 마네(Mane)는 카라바흐 오크 배럴에서 숙성된 프리미엄 브랜디로, 가격은 40,000루블(약 100만원) 이상입니다.

(5) 아르메니아 포도주의 역사 - 세계 최초의 와이너리

아르메니아는 브랜디뿐만 아니라 포도주(와인)의 역사에서도 중요한 위치를 차지합니다.

기원전 6100년, 세계 최초의 와이너리가 아르메니아에 있었습니다. 2007년, 아르메니아 남부의 아레니(Areni) 동굴에서 고고학자들이 놀라운 발견을 했습니다. 바로 기원전 6100년에 와인을 대량으로 양조했던 시설이 발견된 것입니다! 이 동굴에서는 와인 양조용 도자기 그릇 여러 개, 포도 압착기, 지름 1m가 넘는 대형 도자기 그릇(포도를 발로 밟아 압착했던 것으로 추정), 포도 씨앗, 포도 껍질, 포도나무 가지 조각이 출토되었습니다.

이는 현존하는 가장 오래된 와이너리로 공식 인정받았습니다. 이전에도 조지아, 터키, 이란 등에서 와인 관련 유물이 발견되었지만, 이렇게 완벽한 대량 생산 시설을 갖춘 와이너리는 아르메니아가 최초입니다. 흥미로운 점은 이 아레니 마을에서는 여전히 와인을 생산하고 있으며, 동굴 및 마을 이름을 그대로 딴 아레니(Areni)라는 포도 품종을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기원전 7000년경, 포도 재배의 기원도 이 지역에서 시작되었습니다. 고고학자들의 연구에 따르면 기원전 7000년경 터키, 아르메니아, 이란 사이의 코카서스 남부지역에서 최초로 포도를 재배한 흔적이 발견되었습니다. 이곳은 성경에서 노아가 홍수 이후 정착하여 포도를 심었다는 아라라트(Ararat)산 근처이기도 합니다. 성경 창세기에는 “노아가 방주에서 나오자마자 맨 먼저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수확하여 포도주를 만들어 마시고 취했다”는 기록이 있습니다.

아르메니아 와인의 특징을 살펴보면, 조지아, 아제르바이잔만큼 와인이 유명하지는 않지만, 그에 못지않게 와인 문화가 발달했습니다. 아라라트 평원의 비옥한 토양과 햇볕이 포도 재배에 최적이며, 고유의 토착 포도 품종을 사용합니다. 8000년 이상의 와인 양조 역사를 자랑하며, 현대에도 아레니, 반크 등에서 고품질 와인을 생산하고 있습니다.

(6) 방문할 만한 아르메니아 브랜디 명소

예레반 브랜디 회사(Yerevan Brandy Company)는 예레반 시내에 위치해 있으며 영어 투어를 제공합니다(사전 예약 필수). Basic 투어는 3년산, 10년산 시음으로 약 4,500AMD(약 10,000원)이고, Premium 투어는 10년산, 15년산, 20년산 시음으로 약 10,000AMD(약 23,000원)입니다. 특별 공간인 Head State Room에서는 각국 대통령과 수상이 방문했을 때 그들의 이름으로 양조된 브랜디를 담은 오크통이 전시되어 있습니다. 특히 러시아의 엘친 전 대통령이 이곳을 자주 찾았다고 합니다.

노이(NOY) 브랜디 공장은 예레반 강 건너편에 위치해 있으며, 브랜디, 와인, 보드카를 함께 생산하는 종합 공장입니다.

왜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특별한가?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단순히 맛있는 술이 아닙니다. 그것은 8000년 포도 재배 역사의 결정체이자, 1900년 파리 만국박람회에서 프랑스를 이긴 자부심입니다. 처칠과 스탈린이 사랑한 전설의 술이며, 소련 시대 최고급 뇌물로 통하던 명품이기도 합니다. 프랑스 제조법과 아르메니아 토착 포도의 완벽한 결합으로 탄생한 걸작입니다.

냉전 시대 공산권에서 아르메니아 브랜디는 프랑스 코냑을 대체하는 최고급 브랜디로 군림했습니다. 비록 현재는 ‘코냑’이라는 명칭을 공식적으로 사용할 수 없지만, 그 품질만큼은 여전히 세계 최고 수준입니다.

아르메니아를 여행한다면 반드시 예레반 브랜디 회사를 방문하여 투어를 하고, 처칠이 사랑한 그 맛을 직접 체험해 보시기 바랍니다. 아라라트산을 바라보며 마시는 아르메니아 브랜디 한 잔은 8000년 역사를 입안에서 느끼는 특별한 경험이 될 것입니다.

6. 예레반과 아르메니아의 교통 및 이동 방법 - 실전 여행 팁

인천공항에서 아르메니아 수도 예레반까지는 직항편이 없어 최소 한 번 이상 경유해야 합니다. 주요 경유 도시로는 두바이, 이스탄불, 도하, 모스크바 등이 있으며, 항공편 선택에 따라 비행 시간과 가격이 크게 달라집니다.

경유 항공편의 경우 이스탄불을 경유하는 노선이 인기가 많은데, 터키항공이나 페가수스 항공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인천에서 이스탄불까지는 편도 약 27만 원에서 41만 원 수준이며, 왕복 기준으로 대략 30만 원에서 70만 원 사이입니다. 이스탄불에서 예레반까지는 추가로 약 2시간 17분이 소

오되며, 페가수스 항공의 경우 편도 약 15만 원대부터 시작합니다.

두바이를 경유하는 노선도 있는데, 에미레이트 항공을 주로 이용합니다. 인천에서 두바이까지는 편도 약 19만 원에서 64만 원 수준이며, 왕복으로는 대략 23만 원에서 82만 원 정도입니다. 두바이에서 예레반까지는 약 3시간 30분 정도 소요됩니다.

도하를 경유하는 카타르 항공 노선도 선택지입니다. 예레반에서 서울로 돌아오는 왕복 기준으로 카타르 항공은 약 94만 원에서 95만 원 수준입니다. LOT 폴란드 항공을 이용하면 약 94만 원에서 시작하며, 루프트한자는 약 118만 원 정도입니다.

항공권을 저렴하게 구매하려면 2~3개월 전에 미리 예약하는 것이 좋으며, 화요일이나 수요일 출발 항공편이 비교적 저렴한 편입니다. 또한 날짜를 유연하게 조정할 수 있다면 더 좋은 가격을 찾을 수 있습니다. 총 비행 시간은 경유 시간을 포함해 대략 12시간에서 22시간 정도 소요됩니다.

아르메니아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은 미리 공항에서 안덱스 택시 앱을 설치한 후 안덱스 택시를 호출하여 이동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앱 사용법은 카카오 택시 앱과 동일합니다. 목적지를 구글검색을 통해 영어나 아르메니아어로 입력하면 됩니다. 택시비로 대략 한화 1만원 전후이므로 크게 부담가지 않는 가격입니다.

아르메니아를 여행하려면 교통 시스템을 이해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수도 예레반과 지방 도시들 사이의 교통 수단, 비용, 그리고 편리한 이동 방법을 알아보겠습니다.

예레반 시내 교통은 비교적 다양한 옵션을 제공합니다. 예레반은 인구 약 110만 명의 도시로, 대중교통과 택시가 잘 발달되어 있습니다.

지하철(Metro)은 예레반의 가장 저렴한 교통 수단입니다. 1981년에 개통된 예레반 지하철은 단일 노선(10개 역)으로 도시 중심부를 남북으로 관통합니다. 요금은 2025년 현재 100아르메니아 드람(AMD, 약 0.25달러)으로 매우 저렴하며, 거리에 관계없이 동일한 요금입니다. 지하철 입구 창구에서 토큰을 구입해서 입구에 넣으면 됩니다.

아르메니아에서는 티머니와 같은 교통카드는 따로 없습니다.

지하철은 오전 6시 30분부터 밤 11시까지 운행하며, 배차 간격은 5-10분입니다. 러시아 시대에 건설되어 역사가 깊고 장식적인 소련 스타일의 역들을 볼 수 있습니다. 다만 노선이 한정적이어서 관광지로 직접 가기는 어렵습니다.

버스와 마르슈루트카(Marshrutka, 미니버스)는 예레반 시내의 주요 교통 수단입니다. 버스 요금은 100 AMD, 마르슈루트카는 100-150 AMD 정도입니다. 동전 현금으로 내면 됩니다. 교통카드나 신용카드 결제는 아직 없습니다.

마르슈루트카는 소련 시절부터 코카서스 지역에서 흔한 교통 수단으로, 정해진 노선을 운행하는 소형 미니밴입니다. 정류장이 있긴 하지만, 아무 곳에서나 손을 들어 세울 수 있고 내릴 수도 있습니다. 운전사에게 "kangnek(멈춰주세요)"라고 말하면 됩니다. 노선 번호가 앞 유리창에 표시되어 있지만, 여행자가 이용하기는 다소 복잡할 수 있습니다. 요금은 탑승 후 운전사에게 직접 지불합니다.

안덱스 택시(Yandex Taxi)는 편리한 이동 수단입니다. 러시아의 우버 서비스로, 앱을 다운로드하고 신용카드 등록하면 이용할 수 있습니다. 영어로도 사용 가능하며, 목적지를 입력하면 자동으로 요금이 계산됩니다. 카카오 택시와 동일합니다. 예레반 시내에서 대부분의 거리는 700-1,500 AMD(약 1.75-4달러) 정도로 매우 저렴합니다. 택시비가 저렴하므로 너무 걱정하지 말고 예레반 근처 주요 관광지도 택시로 이동해도 무방합니다. 안덱스 택시 앱으로 대강의 가격을 미리 검토해 보시기 바랍니다.

공항에서 시내까지도 2,000-3,000 AMD(약 5-8달러) 정도면 앱 택시가 가능합니다. 볼트도 유사한 서비스와 가격대를 제공합니다.

안덱스를 이용하면 언어 장벽 없이 편리하게 이동할 수 있고, 요금도 투명해서 바가지 걱정이 없습니다. 차량이 보통 5분 이내에 도착하며, 운전사의 정보와 차량 번호를 미리 확인할 수 있어 안전합니다. 현금으로도 결제 가능하지만, 카드 등록이 더 편리합니다.

일반 택시도 있지만, 미터기를 사용하지 않는 경우가 많아 탑승 전에 요금을 협상해야 합니다. 시내 짧은 거리는 1,000 AMD, 조금 먼 거리는 1,500-2,000 AMD 정도가 적정합니다. 호텔에서 부르는 택시는 조금 더 비쌀 수 있습니다.

Yandex Taxi 앱 화면 일부

렌터카는 아르메니아 여행에 자유도를 높여줍니다. 예레반에는 여러 렌터카 업체가 있으며, 하루 약 25,000-40,000 AMD(약 60-100달러)에 차량을 빌릴 수 있습니다. 국제운전면허증이 필요하며, 일부 업체는 한국 운전면허증의 공증 번역본을 요구하기도 합니다. 아르메니아의 도로 상태는 주요도로는 대체로 양호하지만, 시골 지역이나 산악 지역은 비포장도로가 많고 좁고 구불구불한 길이 많아 주의가 필요합니다. 운전 문화는 다소 공격적일 수 있으며, 교통 신호를 잘 지키지 않는 경우도 있습니다.

주차는 예레반 시내에서 다소 어려울 수 있지만, 대부분의 호텔이 주차장을 제공합니다. 렌터카를 이용하면 대중교통으로 가기 어려운 수도원이나 자연 경관을 자유롭게 방문할 수 있어, 시간 여유가 있고 운전이 자신 있다면 좋은 선택입니다.

운전사가 딸린 차량 대여는 렌터카보다 더 편리한 옵션입니다. 하루 약 40,000-70,000 AMD(약 100-175달러)에 운전사와 차량을 함께 고용할 수 있습니다. 호텔이나 여행사를 통해 예약할 수 있으며, 운전사가 관광지에 대한 설명도 해주는 경우가 많습니다. 여러 명이 함께 여행한다면 비용을 나눠 부담할 수 있어 경제적입니다.

도시 간 교통은 주로 마르슈루트카, 버스, 기차를 이용합니다.

마르슈루트카는 아르메니아에서 가장 흔한 도시 간 교통 수단입니다. 예레반의 여러 버스 터미널(키리카미아 터미널이 주요 터미널)에서 전국 각지로 마르슈루트카가 출발합니다. 가격은 거리에 따라 다르지만 매우 저렴합니다.

예를 들어:

마르슈루트카는 정해진 시간표가 있지만, 승객이 차면 출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좌석은 선착순이며, 성수기에는 미리 가서 자리를 잡는 것이 좋습니다. 짐은 차량 뒤쪽이나 지붕에 실으며, 대형 짐의

경우 추가 요금이 있을 수 있습니다.

버스는 마르슈루트카보다 더 크고 편안하지만, 노선이 제한적입니다. 주요 도시 간에는 버스 서비스가 있으며, 요금은 마르슈루트카와 비슷하거나 약간 비쌉니다.

기차는 느리고 노선이 제한적이지만, 독특한 경험을 제공합니다. 예레반에서 조지아의 트빌리시나 바투미로 가는 야간 열차가 있으며, 국내선으로는 예레반-규므리, 예레반-세반 등의 노선이 있습니다. 기차는 마르슈루트카보다 느리지만, 더 편안하고 경치를 즐길 수 있습니다.

투어와 당일 여행: 예레반의 많은 여행사와 호스텔에서 인기 있는 관광지로 가는 당일 또는 다일 투어를 제공합니다. 가격은 투어 내용에 따라 다르지만, 소규모 그룹 투어는 1인당 약 15,000-30,000 AMD(약 40-75달러) 정도입니다. 투어에는 교통, 가이드, 때로는 입장료와 식사가 포함됩니다. 혼자 여행하거나 운전이 불편한 경우 편리한 옵션입니다.

자전거: 예레반 시내와 일부 지방에서 자전거 대여가 가능합니다. 예레반에는 자전거 도로가 점점 늘어나고 있지만, 교통량이 많은 곳에서는 주의가 필요합니다. 자전거 하루 대여료는 약 3,000-5,000 AMD (약 7.5-12.5달러)입니다.

교통 앱과 지도: 구글 맵은 예레반과 아르메니아 전역에서 잘 작동하며, 대중교통 경로도 어느 정도 제공합니다. 안덱스 맵도 유용하며, 특히 마르슈루트카 노선을 찾는 데 도움이 됩니다. 오프라인 지도를 다운로드해두면 인터넷 연결이 불안정한 지역에서도 유용합니다.

교통 비용 요약: 아르메니아의 교통비는 서유럽이나 미국에 비해 매우 저렴합니다. 하루 시내 교통비로 2,000-3,000 AMD (약 5-7.5달러)면 충분하며, 안덱스를 주로 이용하면 더 편리합니다. 도시 간 이동도 저렴해서, 예산 여행자에게 매우 좋은 목적지입니다.

교통 이용 팁:

7. 환전, 현금인출, 신용카드, 유심 - 여행준비 필수정보

아르메니아에 도착하면 가장 먼저 해결해야 할 실용적인 문제들이 있습니다. 즈바르트노츠 국제공항(Zvartnots International Airport)에서부터 시작해 금융과 통신 관련 팁을 알아보겠습니다.

공항 도착: 예레반의 즈바르트노츠 국제공항은 시내에서 서쪽으로 약 12km 떨어져 있습니다. 공항은 작고 현대적이며, 표지판은 아르메니아어, 러시아어, 영어로 되어 있습니다.

입국 심사는 매우 빠르게 진행되며, 한국인은 180일 무비자 체류가 가능합니다(2025년 기준).

환전: 아르메니아의 통화는 아르메니아 드람(AMD)이며, 2025년 11월 현재 환율은 대략 1달러 = 390 AMD, 1유로 = 420 AMD, 1,000원 = 290 AMD 정도입니다. (환율은 변동하므로 확인 필요)

공항 도착 후에는 여러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율은 시내보다 약간 불리하지만, 큰 차이는 없습니다. 처음에는 택시비와 첫날 경비를 위해 50-100달러 정도만 환전하고, 나머지는 시내에서 환전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 환전소는 24시간 운영되며, 주요 통화(달러, 유로, 루블 등)를 교환할 수 있습니다.

예레반 시내의 환율은 공항보다 조금 더 좋으며, 특히 공화국 광장(Republic Square) 주변과 아바노 초안 거리(Abovyan Street)에 많은 환전소가 있습니다. 환전소는 "

(Pokhanarum, 환전)"이라는 표시가 있으며, 대부분 정직하게 환율을 표시합니다. 환전할 때는 환율을 확인하고, 수수료가 있는지 물어보는 것이 좋습니다. 많은 환전소가 수수료 없이 환전해줍니다. 환전 후 즉시 돈을 세어보는 것도 잊지 마세요.

ATM과 현금 인출: 공항 도착 홀에 여러 개의 ATM이 있습니다. HSBC, Ardshinbank, Ameriabank, Inecobank 등의 ATM을 사용할 수 있으며, 대부분 VISA, Mastercard, Maestro, Cirrus 네트워크를 지원합니다. ATM에서 현금을 인출하면 환율이 대체로 환전소보다 좋으며, 편리합니다. 다만 은행 수수료가 있을 수 있으므로(카드 발급 은행의 해외 ATM 수수료 정책에 따라 다름), 대량으로 한 번에 인출하는 것이 여러 번 인출하는 것보다 경제적입니다.

ATM 사용 시 영어 옵션을 선택할 수 있으며, 인출 한도는 ATM과 카드에 따라 다르지만 보통 한 번에 100,000-200,000 AMD (약 250-500달러) 정도입니다. PIN 번호 입력 시 주변을 조심하고, ATM은 은행 내부나 잘 관리되는 장소에 있는 것을 이용하는 것이 안전합니다.

예레반 시내에는 ATM이 매우 많아 현금이 필요할 때 쉽게 찾을 수 있습니다. 은행, 쇼핑 센터, 주요 거리에 ATM이 있으며, 대부분 24시간 이용 가능합니다.

신용카드/직불카드 사용: 아르메니아, 특히 예레반에서는 신용카드 사용이 점점 보편화되고 있습니다. VISA와 Mastercard가 가장 널리 받아들여지며, American Express는 사용 가능한 곳이 제한적입니다.

카드를 대체로 사용할 수 있는 곳:

카드를 사용할 수 없거나 어려운 곳:

아르메니아 여행 시 충분한 현금을 항상 소지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하루에 10,000-20,000 AMD (약 25-50달러) 정도의 현금을 가지고 다니는 것이 좋습니다.

카드로 결제할 때는 드람으로 결제하는 것이 달러나 유로로 결제하는 것보다 환율이 좋습니다. 일부 상점에서 외화 결제를 권유할 수 있지만, 현지 통화로 결제를 고집하세요.

비접촉 결제(contactless)도 점점 보편화되고 있으며, 많은 곳에서 Apple Pay나 Google Pay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모바일 뱅킹과 결제 앱: 아르메니아에서는 Idram이라는 현지 모바일 결제 앱이 인기가 있습니다. 현지 전화번호가 인증이 필요하므로 관광객이 사용하기는 어렵지만, 일부 식당이나 상점에서 이 앱으로만 결제를 받는 경우도 있습니다.

유심(SIM) 카드: 아르메니아에서 모바일 인터넷을 사용하려면 현지 유심 카드를 구입하는 것이 경제적입니다. 공항 도착 홀에 주요 이동통신사들의 부스가 있어 즉시 구입할 수 있습니다. 현지 여행 중 통역 번역을 위해 chatGPT 등 AI를 빠르게 사용하기 위해서는 현지 유심을 구매하는 것이 가장 효과적입니다.

아르메니아의 주요 이동통신사:

가격과 플랜 (2025년 기준, 참고용):

유심 카드 구입 시 필요한 것:

공항에서 유심을 구입하면 직원이 설치와 활성화를 도와줍니다. 보통 5-10분이면 사용 가능합니다. 시내 중심부에도 이동통신사 매장이 많아 언제든지 추가 데이터를 충전하거나 플랜을 변경할 수 있습니다.

아르메니아의 모바일 네트워크는 예레반과 주요 도시, 관광지에서는 4G/LTE 속도로 빠르고 안정적입니다. 다만 산악 지역이나 외딴 곳에서는 신호가 약하거나 없을 수 있습니다.

데이터 로밍: 한국 통신사의 해외 로밍을 사용할 수도 있지만, 비용이 훨씬 비쌉니다. 짧은 방문이 아니라면 현지 유심이 훨씬 경제적입니다.

eSIM: 일부 최신 스마트폰은 eSIM을 지원하는데, Airalo나 Holafly 같은 서비스를 통해 온라인으로 아르메니아 eSIM을 구입할 수 있습니다. 출발 전에 미리 구입해 활성화할 수 있어 편리하지만, 가격은 현지 유심보다 다소 비쌉니다.

Wi-Fi: 예레반의 대부분의 호텔, 카페, 레스토랑은 무료 Wi-Fi를 제공합니다. 공화국 광장과 북부 거리(Northern Avenue) 같은 일부 공공 장소에서도 무료 Wi-Fi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다만 보안이 중요한 작업(온라인 banking 등)은 공공 Wi-Fi에서 피하는 것이 좋습니다.

공항에서 시내로 이동:

기타 금융 팁:

이상으로 아르메니아 여행을 위한 실용적인 정보를 정리했습니다. 아르메니아는 풍부한 역사와 문화, 아름다운 자연, 그리고 따뜻한 사람들을 가진 매력적인 여행지입니다. 이 가이드가 여러분의 아르메니아 여행을 더욱 풍요롭고 편안하게 만드는 데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8. AI에게 사진 한 장만 업로드하면, 통역부터 정보검색까지 모든게 술술

해외여행에서 가장 답답한 순간은 언어 장벽 앞에 설 때입니다. 메뉴판을 읽을 수 없어 무엇을 주문해야 할지 막막하고, 거리 표지판이나 버스 안내문을 이해하지 못해 길을 잃기도 하죠. 하지만 이제는 스마트폰과 AI만 있으면 이런 어려움을 간단하게 해결할 수 있습니다.

Gemini, ChatGPT나 Claude 같은 AI 챗봇에 사진을 업로드하는 것입니다. 이 방법의 장점은 단순히 텍스트만 번역하는 것이 아니라 상황을 이해하고 조언까지 해준다는 점입니다.

레스토랑에서 메뉴판 사진을 찍어 AI에게 보내면서 "이 메뉴판에서 채식주의자가 먹을 수 있는 음식을 추천해줘"라고 물으면, AI는 메뉴를 번역한 뒤 채식 메뉴를 골라 추천하고 각 요리의 특징까지 설명해줍니다. 또한 "알레르기가 있는데 이 요리에 땅콩이 들어가나요?"처럼 구체적인 질문도 할 수 있습니다. 한국인 입맛에 어울리는 요리를 추천해 달라고 할 수도 있습니다.

기차역이나 버스 정류장에서 복잡한 시간표를 보고 당황할 때도 AI가 유용합니다. 시간표 사진을 찍어 올리고 "오후 3시 이후에 공항으로 가는 버스를 찾아줘"라고 하면, AI가 시간표를 분석해 해당하는 버스 번호와 출발 시간, 요금까지 정리해줍니다. 현지어로 된 기차표나 항공권을 이해하지 못할 때도 사진을 찍어 "이 표에서 좌석 번호와 플랫폼을 찾아줘"라고 물으면 바로 답을 얻을 수 있습니다.

관광지에서 역사적 건물이나 조형물을 보고 궁금할 때도 AI가 훌륭한 가이드 역할을 합니다. 건물이나 동상 사진을 찍어 "이게 무엇인지 설명해줘"라고 하면, AI가 해당 건축물의 역사와 의미, 방문 시 유의할 점 등을 알려줍니다. 박물관이나 미술관에서 작품 옆 설명문이 현지어로만 되어 있을 때도 설명판을 찍어 번역을 요청하면 작품을 더 깊이 감상할 수 있습니다.

쇼핑할 때도 AI 사진 번역은 필수입니다. 화장품이나 식품의 성분표, 사용법이 현지어로만 적혀 있을 때 사진을 찍어 "이 제품의 성분과 사용 방법을 한국어로 설명해줘"라고 하면 됩니다. 특히 약국에서 약을 살 때는 더욱 중요한데, 약품 설명서 사진을 보내고 "이 약의 효능과 부작용, 복용법을 알려줘"라고 물으면 안전하게 약을 구매할 수 있습니다.

숙소에서 세탁기나 에어컨 같은 가전제품 사용법을 모를 때도 조작 패널을 찍어 AI에게 물어보면 각 버튼의 기능을 설명해줍니다. 현지 슈퍼마켓에서 낯선 과일이나 식재료를 발견했을 때 사진을 찍어 "이게 뭐고 어떻게 먹는지 알려줘"라고 하면 조리법까지 알 수 있습니다.

AI를 여행 정보 검색에 활용하는 방법도 다양합니다. 여행 전에 AI에게 "예레반에서 3일 동안 여행할 건데 추천 일정을 만들어줘. 역사 유적지와 현지 음식을 좋아해"라고 하면 맞춤형 여행 계획을 받을 수 있습니다. 현지에 도착해서도 "지금 있는 공화국 광장 근처에서 저녁 먹을 만한 현지 음식점 추천해줘"처럼 실시간으로 정보를 얻을 수 있습니다.

거리를 걷다가 발견한 흥미로운 상점이나 레스토랑의 간판을 찍어 "이 가게에 대한 정보와 리뷰를 알려줘"라고 하면 AI가 가게 이름을 인식하고 관련 정보를 찾아줍니다. 또한 현지 신문이나 포스터를 보고 무슨 행사인지 궁금할 때도 사진을 찍어 물으면 행사 내용과 참여 방법을 알 수 있습니다.

긴급 상황에서도 AI 사진 번역은 생명줄이 됩니다. 병원에서 진단서나 처방전을 받았는데 현지어로만 되어 있을 때, 사진을 찍어 번역하면 자신의 건강 상태를 정확히 파악할 수 있습니다. 경찰서나 대사관에서 받은 서류도 마찬가지로 번역해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AI 기능들을 활용하려면 몇 가지 준비가 필요합니다.

우선 출국 전에 Gemini, ChatGPT 앱이나 Claude 앱을 스마트폰에 설치하고 사용법을 익혀두세요.

해외에서 데이터 로밍이나 현지 유심, eSIM을 준비해 인터넷 연결을 확보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만약 인터넷이 불안정한 지역을 여행한다면 구글 번역의 오프라인 언어팩을 미리 다운로드하거나, 중요한 정보는 스크린샷으로 저장해두는 것이 좋습니다. 사진을 찍을 때는 텍스트가 선명하게 나오도록 초점을 맞추고 충분한 조명을 확보해야 AI가 정확하게 인식할 수 있습니다. 메뉴판이나 표지판이 너무 길면 여러 장으로 나눠 찍어 순서대로 업로드하면 됩니다.

AI 사진 번역과 정보 검색 기능은 이제 해외여행의 필수 도구가 되었습니다. 언어 때문에 망설였던 도전을 해보고, 현지인처럼 자유롭게 여행하며, 예상치 못한 상황에서도 당황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스마트폰 하나로 전 세계가 당신의 놀이터가 되는 시대, AI와 함께 더 풍성한 여행을 떠나보세요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에필로그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아르메니아. 세계 지도에서 손톱만큼 작은 나라이지만, 그 속에 담긴 역사의 무게는 어떤 땅보다 무겁고 깊었다. 고난 속에서도 정체성을 지켜낸, 생생한 영혼의 나라다.

역사는 그 자체로 경이로웠다. 아라라트산을 성산으로 삼고, 우라르투 왕국에서 티그란 대왕의 제국까지, 실크로드의 교차로에서 꽃피운 문명은 로마와 페르시아 사이에서 줄타기 외교로 살아남은 치열한 생존의 기록이었다.

세계 최초의 기독교 국가'라는 타이틀은 그냥 수식어가 아니었다. 301년, 성 그레고리와 티리다테스 3세의 만남으로 시작된 기독교 국교화는 이후 1,700년 동안 아르메니아 민족을 하나로 묶는 정체성의 핵심이 되었다. 예치미아진 대성당, 게하르트 수도원, 타테브 수도원... 바위를 깎아 만든 이 거룩한 공간들은 단순한 건축물이 아니라, 침략과 박해 속에서도 신앙을 지켜낸 민족의 요새였다.

수도원은 기도와 학문의 전당이었고, 필사본을 통해 지식을 전승하는 도서관이었으며, 하치카르라는 독창적 예술을 창조한 공방이었다. 노라방크의 붉은 협곡, 세바나반크의 세반 호수, 하그파트와 사나힌의 쌍둥이 등대... 각 수도원마다 깃든 이야기는 그 자체로 한 편의 드라마다.

1915년 150만명이라는 조직적 학살 앞에서도 살아남은 이들은 전 세계로 흩어져 디아스포라가 되었다. 하지만 그들은 사라지지 않았다. 레바논, 시리아, 이란, 미국, 아르헨티나... 세계 곳곳에서 아르메니아 공동체는 교회와 학교를 세우며 정체성을 지켜냈다.

이 책은 생존의 역사, 신앙의 힘, 문화의 저력 에 관한 이야기다.

작은 나라가 어떻게 수천 년의 역사를 지켜낼 수 있었는가? 강대국 사이에 끼인 민족이 어떻게 정체성을 잃지 않고 버텨낼 수 있었는가? 대학살과 디아스포라라는 비극을 겪고도 어떻게 다시 일어설 수 있었는가?

그 답은 곳곳에 새겨져 있다. 돌에 새긴 십자가처럼, 수도원 벽에 새긴 기도처럼, 그라바르 문자로 기록된 필사본처럼. 아르메니아는 모든 것을 돌과 신앙에 새겨 후대에 전했다. 그것이 바로 그들이 살아남은 이유다.

아르메니아를 방문하고 싶어질 것이다. 예레반의 거리를 걸으며 분홍빛 건물을 바라보고, 게하르트 수도원의 바위 틈에서 울려 퍼지는 성가를 듣고, 세반 호수의 푸른 물결 앞에서 침묵하고 싶어질 것이다. 그리고 그 여행은 단순한 관광이 아니라, 한 민족의 영혼과 조우하는 순례가 될 것이다.

2025년 늦가을 김경진, 삶의 작은 몸짓으로 이 책을 씁니다.

전체 목차

책의 모든 장 보기

이 책을 잘 읽으셨으면 그리고 새로운 가치있는 지식을 얻으셨다고 판단되시면
농협 302-1096-0948-81 (예금주 김경진) 에 자발적 후원 부탁드립니다.